

# 탈 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 3차 (2012)

최현수 · 한창근 · 최준영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12.4)한 「탈 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 3차(2012)」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 머리말

근로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와 급여체계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탈 수급 및 근로동기 저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활동과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 및 탈빈곤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시행되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기초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감소액을 초과하는 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할 경우 민간재원을 활용한 매칭방식으로 추가 적립함으로써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 참여 3년 후 탈수급을 전제 조건으로 적립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구조적 특성을 기초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및 이행급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다양한 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하거나 신청 직후 또는 중도에 포기한 수급가구, 그리고 초기에 탈수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참여가구의 근로 및 자산 보유실태 변화, 소비 행태 및 저축과 관련된 인식 변화,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식 및 태도 변화 등을 사업

참여시점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탈수급 시점까지, 나아가 탈수급 이후 일정한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의 효과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부터 수행된 1~2차 연구에 이어, 이번 3차 연구에서는 2012년까지 실시한 기초선 조사 및 1~3차 패널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010년 참여가구의 근로활동, 소비 및 저축행태, 저축 및 탈수급에 대한 인식, 태도, 전망,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참여 유지 및 탈수급 선택 의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초보장연구실 최현수 부연구위원과 최준영 연구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한창근 교수에 의해 수행되었다. 중장기 연구과제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패널조사와 다양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와 더불어, 본 연구의 수행을 지원해주신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고흥우 과장, 이고운 사무관과 임태근 주무관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일선 지역자활센터에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패널조사를 수행하신 사례관리요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b>제1장 서 론</b> .....	2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0
 <b>제2장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관련 이론과 국내·외 제도운영 및     평가연구 사례</b> .....	41
제1절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관련 이론적 검토 .....	41
제2절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사례 .....	50
제3절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평가연구 사례 .....	64
제4절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 사례 .....	72
제5절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제도 평가연구 사례 .....	84
 <b>제3장 희망키움통장 운영체계 및 참여현황 분석</b> .....	89
제1절 희망키움통장 운영체계 및 주요내용 .....	89
제2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참여유지 현황 분석 및 예상 탈 수급 성공률 분석 .....	99
 <b>제4장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설계</b> .....	127
제1절 조사설계 .....	127
제2절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주요내용 .....	135

## **제5장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Baseline) 조사결과**

: 가구특성 및 경제상태 .....	149
제1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 수행결과 .....	149
제2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일반적 특성 .....	151
제3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경제활동상태 .....	169
제4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생활여건 .....	183

## **제6장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Baseline) 조사결과**

: 신청·참여·인식 .....	205
제1절 희망키움통장 사업내용에 대한 인지 및 신청과정 .....	206
제2절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정부지원 필요성 .....	224
제3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저축 관련 인식과 행태 .....	238

## **제7장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패널 조사결과**

: 가구특성 및 경제상태 .....	255
제1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패널조사 수행결과 .....	255
제2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일반적 특성 .....	258
제3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경제활동상태 .....	278
제4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생활여건 .....	292

<b>제8장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패널 조사결과</b>	
: 희망키움통장 관련 인식 및 태도 .....	315
제1절 가구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 삶의 만족도 .....	315
제2절 희망키움통장 관련 인식 및 태도 .....	323
제3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사례관리 및 교육 .....	350
<b>참고문헌</b> .....	363
<b>부    록</b> .....	369

## 표 목차

〈표 2-1〉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용도 .....	76
〈표 3-1〉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1~6기) 참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 (1) .....	103
〈표 3-2〉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1~6기) 참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 (2) .....	104
〈표 3-3〉 2010년 희망키움통장 1~2기 참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 (1) .....	106
〈표 3-4〉 2010년 희망키움통장 1~2기 참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 (2) .....	107
〈표 3-5〉 2010년 희망키움통장 3~6기 참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 (1) .....	108
〈표 3-6〉 2010년 희망키움통장 3~6기 참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 (2) .....	109
〈표 4-1〉 2010년 1~2기 & 3~6기 전체 참여가구수 및 조사대상 표본가구수 .....	132
〈표 4-2〉 참여가구수별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의 조사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	133
〈표 4-3〉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공통 조사영역 .....	135
〈표 4-4〉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공통 조사항목 .....	138
〈표 4-4〉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공통 조사항목(계속) .....	139
〈표 4-5〉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추가 조사영역 .....	140
〈표 4-6〉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주요 조사항목 .....	141
〈표 4-7〉 희망키움통장 패널조사 추가 조사영역 .....	142
〈표 4-8〉 희망키움통장 패널조사 주요 조사항목 .....	143
〈표 5-1〉 희망키움통장 표본가구(1~2기 / 3~6기) 기초선 조사 수행결과 .....	150
〈표 5-2〉 참여가구수별 지역분포 .....	152
〈표 5-3〉 참여가구수별 가구원수 .....	153
〈표 5-4〉 참여가구수별 가구주의 성별 .....	154
〈표 5-5〉 참여가구수별 가구주의 연령별 집단 .....	155
〈표 5-6〉 참여가구수별 가구주의 동거여부 .....	156
〈표 5-7〉 참여가구수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	157
〈표 5-8〉 참여가구수별 가구주의 혼인상태 .....	158
〈표 5-9〉 참여가구수별 가구주의 장애종류 .....	159
〈표 5-10〉 참여가구수별 가구주의 장애등급 .....	159
〈표 5-11〉 참여가구수별 가구주의 건강상태 .....	160
〈표 5-12〉 참여가구수별 가구주의 만성질환 .....	161

〈표 5-13〉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금융채무불이행여부 .....	162
〈표 5-14〉 참여기수별 가구형태 .....	163
〈표 5-15〉 참여기수별 노인가구원 유무 .....	164
〈표 5-16〉 참여기수별 기초보장수급형태 .....	165
〈표 5-17〉 참여기수별 기초보장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	166
〈표 5-18〉 참여기수별 의료급여 수급형태 .....	167
〈표 5-19〉 참여기수별 의료급여 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	168
〈표 5-20〉 참여기수별 근로활동 가구원수 .....	169
〈표 5-21〉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능력정도 .....	170
〈표 5-22〉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무능력 사유 .....	171
〈표 5-23〉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172
〈표 5-24〉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고용관계 .....	173
〈표 5-25〉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시간형태 .....	174
〈표 5-26〉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	175
〈표 5-27〉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지속가능성 .....	176
〈표 5-28〉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177
〈표 5-29〉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	178
〈표 5-30〉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비경제활동사유 .....	179
〈표 5-31〉 참여기수별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 .....	180
〈표 5-32〉 참여기수별 취업상담 경험 .....	181
〈표 5-33〉 참여기수별 취업알선 경험 .....	182
〈표 5-34〉 참여기수별 주택유형 .....	183
〈표 5-35〉 참여기수별 주택 점유형태 .....	184
〈표 5-36〉 참여기수별 주택의 방 수 .....	185
〈표 5-37〉 참여기수별 우선지출 1순위 .....	186
〈표 5-38〉 참여기수별 우선지출 2순위 .....	187
〈표 5-39〉 참여기수별 지출제한 1순위 .....	188
〈표 5-40〉 참여기수별 지출제한 2순위 .....	189
〈표 5-41〉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식생활(식생활 관련 구입비용 부족 경험) .....	190

〈표 5-42〉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식생활(식사량 축소 등) .....	191
〈표 5-43〉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집세 연체 및 미납 .....	192
〈표 5-44〉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과금 기한 내 미납 .....	193
〈표 5-45〉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 경험 .....	194
〈표 5-46〉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교육비 연체 .....	195
〈표 5-47〉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겨울철 난방 사용불가 경험 .....	196
〈표 5-48〉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 .....	197
〈표 5-49〉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신용불량자 유무 .....	198
〈표 5-50〉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건강보험급여자격정지 .....	199
〈표 5-51〉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학업중단경험 .....	200
〈표 5-52〉 참여기수별 경제적 생활상태 .....	201
〈표 6-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인지경로 .....	206
〈표 6-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충족조건 인지여부 .....	207
〈표 6-3〉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 당시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	208
〈표 6-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	210
〈표 6-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소득기준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	210
〈표 6-6〉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	210
〈표 6-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지원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	211
〈표 6-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 기준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	211
〈표 6-9〉 참여기수별 참여기간 중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	211
〈표 6-10〉 참여기수별 탈 수급 이후 지원사항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	211
〈표 6-1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이유 .....	214
〈표 6-1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과정 상 어려움 경험여부 .....	215
〈표 6-1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시 어려운 점 .....	216
〈표 6-1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당시 갈등이나 망설임 경험여부 .....	217
〈표 6-1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갈등이나 망설임 이유 .....	218
〈표 6-16〉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1순위 .....	220
〈표 6-1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2순위 .....	221
〈표 6-1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3순위 .....	222



〈표 6-1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4순위 .....	223
〈표 6-20〉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 .....	224
〈표 6-21〉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의 영향으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계획 .....	225
〈표 6-2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탈 수급 조건에 대한 인식 .....	227
〈표 6-2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수급자격 상실에 대한 생각 .....	228
〈표 6-2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1순위 .....	229
〈표 6-2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2순위 .....	230
〈표 6-26〉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3순위 .....	231
〈표 6-2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의료급여) .....	232
〈표 6-2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주택지원) .....	232
〈표 6-2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주거비 보조) .....	232
〈표 6-30〉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초중고 교육비) .....	233
〈표 6-3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대학교육비) .....	233
〈표 6-3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취업지원) .....	233
〈표 6-3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근로인센티브) .....	233
〈표 6-3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전의 저축 행태 .....	238
〈표 6-3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 이전 금융교육 경험여부 .....	239
〈표 6-36〉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에 대비한 준비 필요성 .....	241
〈표 6-37〉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에 대비한 현재 준비여부 .....	242
〈표 6-38〉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자금 .....	243
〈표 6-39〉 참여기수별 미래 대비를 위해 준비된 자금 .....	244
〈표 6-40〉 참여기수별 미래 대비를 위한 필요자금 준비율 .....	245
〈표 6-4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자산관리계획 수립여부 .....	247
〈표 6-42〉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 .....	248
〈표 6-43〉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예금·적금) .....	248
〈표 6-44〉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보험·연금) .....	249
〈표 6-45〉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주식·채권) .....	249
〈표 6-46〉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부동산) .....	249
〈표 7-1〉 희망키움통장 참가구(1~2기/3~6기) 기초선 조사 및 1~3차 패널조사 수행결과 .....	257

〈표 7-2〉 가구원수 .....	258
〈표 7-3〉 가구의 성별 .....	259
〈표 7-4〉 가구의 연령별 집단 .....	260
〈표 7-5〉 가구의 동거여부 .....	262
〈표 7-6〉 가구의 교육수준 .....	263
〈표 7-7〉 가구의 혼인상태 .....	264
〈표 7-8〉 가구의 장애종류 .....	266
〈표 7-9〉 가구의 건강상태 .....	267
〈표 7-10〉 가구의 만성질환 .....	268
〈표 7-11〉 가구의 금융채무불이행여부 .....	270
〈표 7-12〉 가구형태 .....	271
〈표 7-13〉 노인(65세 이상)가구원 유무 .....	272
〈표 7-14〉 기초보장수급형태 .....	274
〈표 7-15〉 기초보장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	274
〈표 7-16〉 의료급여 수급형태 .....	275
〈표 7-17〉 의료급여 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	276
〈표 7-18〉 근로능력정도 .....	278
〈표 7-19〉 근로무능력 사유 .....	280
〈표 7-20〉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281
〈표 7-21〉 가구의 고용관계 .....	282
〈표 7-22〉 가구의 근로시간형태 .....	284
〈표 7-23〉 가구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	285
〈표 7-24〉 근로지속가능성 .....	286
〈표 7-25〉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287
〈표 7-26〉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 .....	288
〈표 7-27〉 취업상담 경험 .....	290
〈표 7-28〉 취업알선 경험 .....	291
〈표 7-29〉 주택유형 .....	292
〈표 7-30〉 주택 점유형태 .....	293

〈표 7-31〉 주택의 방 수 .....	295
〈표 7-32〉 우선지출 1순위 .....	296
〈표 7-33〉 우선지출 2순위 .....	298
〈표 7-34〉 지출제한 1순위 .....	300
〈표 7-35〉 지출제한 2순위 .....	301
〈표 7-36〉 집세 연체 및 미납 .....	303
〈표 7-37〉 공과금 기한 내 미납 .....	304
〈표 7-38〉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 경험 .....	305
〈표 7-39〉 생활여건 공교육비 연체 .....	306
〈표 7-40〉 생활여건 겨울철 난방 사용불가 경험 .....	307
〈표 7-41〉 생활여건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 .....	309
〈표 7-42〉 생활여건 신용불량자 유무 .....	310
〈표 7-43〉 생활여건 건강보험급여자격정지 .....	311
〈표 8-1〉 현재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	316
〈표 8-2〉 6개월 이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단기 전망 .....	319
〈표 8-3〉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종료 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	321
〈표 8-4〉 희망키움통장 저축액 마련방법 1순위 .....	324
〈표 8-5〉 희망키움통장 저축액 마련방법 2순위 .....	326
〈표 8-6〉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중 근로소득 증가를 위한 노력 정도 .....	328
〈표 8-7〉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통한 자산형성 및 적립금 활용계획 1순위 .....	330
〈표 8-8〉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통한 자산형성 및 적립금 활용계획 2순위 .....	332
〈표 8-9〉 희망키움통장 참여 종료 후 저축 습관에 대한 전망 .....	344
〈표 8-10〉 탈수급 후 정부지원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도 .....	346
〈표 8-11〉 탈수급 후 정부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1순위 .....	348
〈표 8-12〉 저축 포기에 대한 생각 여부 .....	349
〈표 8-13〉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 참가여부 .....	350
〈표 8-14〉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의 도움정도 .....	352
〈표 8-15〉 노후설계 및 노후대비 교육 참가여부 .....	353
〈표 8-16〉 노후설계 및 노후대비 교육의 도움정도 .....	354

〈표 8-17〉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 교육여부 .....	355
〈표 8-18〉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 교육의 도움정도 .....	356
〈표 8-19〉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와의 상담 빈도 .....	358
〈표 8-20〉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와의 상담 소요시간 .....	358
〈표 8-21〉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의 전반적인 도움정도 .....	359
〈표 8-22〉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문제해결능력 측면에서 사례관리 도움정도 ..	360
〈표 8-23〉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미래계획 수립 측면에서 사례관리 도움정도 ..	361

## 그림 목차

[그림 2-1]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의 비전과 목표 .....	73
[그림 2-2]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운영흐름도 .....	77
[그림 2-3]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수행체계 .....	78
[그림 2-4] 사업운영 및 관리 체계도 .....	82
[그림 2-5]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운영절차 .....	83
[그림 3-1]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체계 .....	91
[그림 4-1] 희망키움통장 기초선·패널조사 구조 및 조사주기(기준시점) .....	128
[그림 5-1] 참여기수별 지역분포 .....	152
[그림 5-2] 참여기수별 가구원수 .....	153
[그림 5-3] 참여기수별 가구의 성별 .....	154
[그림 5-4] 참여기수별 가구의 연령별 집단 .....	155
[그림 5-5] 참여기수별 가구의 동거여부 .....	156
[그림 5-6] 참여기수별 가구의 교육수준 .....	157
[그림 5-7] 참여기수별 가구의 혼인상태 .....	158
[그림 5-8] 참여기수별 가구의 건강상태 .....	160
[그림 5-9] 참여기수별 가구의 만성질환 .....	161
[그림 5-10] 참여기수별 가구의 금융채무불이행여부 .....	162
[그림 5-11] 참여기수별 가구형태 .....	163
[그림 5-12] 참여기수별 노인가구원 유무 .....	164
[그림 5-13] 참여기수별 기초보장수급형태 .....	165
[그림 5-14] 참여기수별 기초보장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	166
[그림 5-15] 참여기수별 의료급여 수급형태 .....	167
[그림 5-16] 참여기수별 의료급여 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	168
[그림 5-17] 참여기수별 근로활동가구원수 .....	169
[그림 5-18] 참여기수별 가구의 근로능력정도 .....	170
[그림 5-19] 참여기수별 가구의 근로무능력 사유 .....	171
[그림 5-20] 참여기수별 가구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172
[그림 5-21] 참여기수별 가구의 고용관계 .....	173

[그림 5-22]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시간형태 .....	174
[그림 5-23]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	175
[그림 5-24]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지속가능성 .....	176
[그림 5-25]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177
[그림 5-26]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	178
[그림 5-27]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비경제활동사유 .....	179
[그림 5-28]	참여기수별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 .....	180
[그림 5-29]	참여기수별 취업상담 경험 .....	181
[그림 5-30]	참여기수별 취업알선 경험 .....	182
[그림 5-31]	참여기수별 주택유형 .....	183
[그림 5-32]	참여기수별 주택 점유형태 .....	184
[그림 5-33]	참여기수별 주택의 방 수 .....	185
[그림 5-34]	참여기수별 우선지출 1순위 .....	186
[그림 5-35]	참여기수별 우선지출 2순위 .....	187
[그림 5-36]	참여기수별 지출제한 1순위 .....	188
[그림 5-37]	참여기수별 지출제한 2순위 .....	189
[그림 5-38]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식생활(식생활 관련 구입비용 부족 경험) .....	190
[그림 5-39]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식생활(식사량 축소 등) .....	191
[그림 5-40]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집세 연체 및 미납 .....	192
[그림 5-41]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과금 기한 내 미납 .....	193
[그림 5-42]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 경험 .....	194
[그림 5-43]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교육비 연체 .....	195
[그림 5-44]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겨울철 난방 사용불가 경험 .....	196
[그림 5-45]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 .....	197
[그림 5-46]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신용불량자 유무 .....	198
[그림 5-47]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건강보험급여자격정지 .....	199
[그림 5-48]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학업중단경험 .....	200
[그림 5-49]	참여기수별 경제적 생활상태 .....	201
[그림 6-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인지경로 .....	206

[그림 6-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충족조건 인지여부 .....	207
[그림 6-3]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 시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 인지 및 설명여부 ....	209
[그림 6-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인지 및 설명여부 (1~2기) .....	212
[그림 6-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인지 및 설명여부 (3~6기) .....	212
[그림 6-6]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이유 .....	214
[그림 6-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과정 상 어려움 경험여부 .....	215
[그림 6-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시 어려운 점 .....	216
[그림 6-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당시 갈등이나 망설임 경험여부 .....	217
[그림 6-10]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당시 갈등이나 망설임 이유 .....	219
[그림 6-1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1순위 .....	220
[그림 6-1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2순위 .....	221
[그림 6-1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3순위 .....	222
[그림 6-1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4순위 .....	223
[그림 6-15]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 .....	225
[그림 6-16]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의 영향으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계획 ..	226
[그림 6-1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탈 수급 조건에 대한 인식 .....	227
[그림 6-1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수급자격 상실에 대한 생각 .....	228
[그림 6-1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1순위 .....	229
[그림 6-20]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2순위 .....	230
[그림 6-2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3순위 .....	231
[그림 6-2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의료급여) ..	235
[그림 6-2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주택지원) ..	235
[그림 6-2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주거비 보조) ....	235
[그림 6-2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초중고 교육비) ..	236
[그림 6-26]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대학교육비) .....	236
[그림 6-2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취업지원) ..	236
[그림 6-2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근로인센티브) ..	237
[그림 6-2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전의 저축 행태 .....	238
[그림 6-30]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 이전 금융교육 경험여부 .....	240

[그림 6-31]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에 대비한 준비 필요성 .....	241
[그림 6-32]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에 대비한 현재 준비여부 .....	242
[그림 6-33]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자금 .....	244
[그림 6-34]	참여기수별 미래 대비를 필요자금 준비율 .....	246
[그림 6-3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자산관리계획 수립여부 .....	247
[그림 6-36]	참여기수별 선호하는 금융상품 .....	248
[그림 6-37]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예금·적금) .....	250
[그림 6-38]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보험·연금) .....	250
[그림 6-39]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주식·채권) .....	250
[그림 6-40]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부동산) .....	251
[그림 7-1]	가구원수 .....	259
[그림 7-2]	가구의 성별 .....	260
[그림 7-3]	가구의 연령별 집단 .....	261
[그림 7-4]	가구의 동거여부 .....	262
[그림 7-5]	가구의 교육수준 .....	264
[그림 7-6]	가구의 혼인상태 .....	265
[그림 7-8]	가구의 건강상태 .....	268
[그림 7-9]	가구의 만성질환 .....	269
[그림 7-10]	가구의 금융채무불이행여부 .....	270
[그림 7-11]	가구형태 .....	272
[그림 7-12]	노인(65세 이상)가구원 유무 .....	273
[그림 7-15]	의료급여 수급형태 .....	276
[그림 7-16]	의료급여 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	277
[그림 7-17]	근로능력정도 .....	279
[그림 7-18-근로무능력 사유	.....	280
[그림 7-19]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282
[그림 7-20]	가구의 고용관계 .....	283
[그림 7-21]	가구의 근로시간형태 .....	284
[그림 7-22]	가구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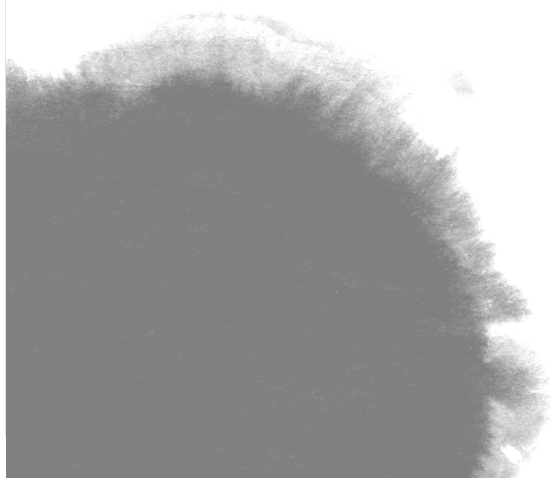


[그림 7-23] 근로지속가능성 .....	286
[그림 7-24]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288
[그림 7-25]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 .....	289
[그림 7-26] 취업상담 경험 .....	290
[그림 7-27] 취업알선 경험 .....	291
[그림 7-28] 주택유형 .....	293
[그림 7-29] 주택 점유형태 .....	294
[그림 7-30] 주택의 방 수 .....	295
[그림 7-31] 우선지출 1순위 .....	297
[그림 7-32] 우선지출 2순위 .....	299
[그림 7-33] 지출제한 1순위 .....	301
[그림 7-34] 지출제한 2순위 .....	302
[그림 7-35] 집세 연체 및 미납 .....	303
[그림 7-36] 공과금 기한 내 미납 .....	304
[그림 7-37]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 경험 .....	305
[그림 7-38] 생활여건 공교육비 연체 .....	307
[그림 7-39] 생활여건 겨울철 난방 사용불가 경험 .....	308
[그림 7-40] 생활여건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 .....	309
[그림 7-41] 생활여건 신용불량자 유무 .....	310
[그림 7-42] 생활여건 건강보험급여자격정지 .....	312
[그림 8-1] 현재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	317
[그림 8-2] 6개월 이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단기 전망 .....	320
[그림 8-3]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종료 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	322
[그림 8-4] 희망키움통장 저축액 마련방법 1순위 .....	325
[그림 8-5] 희망키움통장 저축액 마련방법 2순위 .....	327
[그림 8-6]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중 근로소득 증가를 위한 노력 정도 .....	329
[그림 8-7]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통한 자산형성 및 적립금 활용계획 1순위 .....	331
[그림 8-8]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통한 자산형성 및 적립금 활용계획 2순위 .....	333
[그림 8-9] 희망키움통장 참여 종료 후 저축 습관에 대한 전망 .....	344

[그림 8-10] 탈수급 후 정부지원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도 .....	347
[그림 8-11] 탈수급 후 정부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1순위 .....	348
[그림 8-12]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의 도움정도 .....	352
[그림 8-13] 노후설계 및 노후대비 교육의 도움정도 .....	354
[그림 8-14]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 교육의 도움정도 .....	356

# 1장

## 서론





# 제1장 서론

## 제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경기침체 및 고용회복 부진,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지속적 증가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탈 수급 및 근로활동참여 동기 저하의 문제가 제기됨
  - － 이에 따라, 기초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활동 및 자산형성을 통해서 탈 수급과 탈 빈곤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짐
- 이러한 정책대안으로 2010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시행되었음
  - － ‘희망키움통장’은, 근로활동에 참여하며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진 기초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참여가구가 일정금액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할 경우 정부와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매칭 방식으로 추가 적립함으로써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탈 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임
  - 이와 함께,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해 근로활동 및 탈 수급 시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사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탈 수급을 지원함

□ 이러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시행에 따라, 참여가구의 신청 및 참여과정,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청 직후 또는 중도에 포기하는 기초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와 같은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탈 수급에 이르기까지의 근로활동 및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수준 및 구성항목 변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변화, 소비 및 저축 관련 행태 변화, 탈 수급 및 탈 빈곤, 근로활동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전망 등과 함께 희망키움통장 사업 시행으로 인한 다양한 성과 및 효과성을 평가해야 함

- 특히, 향후 근로능력을 보유한 기초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유인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위와 같은 연구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참여자의 근로 및 자산실태, 소비 및 저축 인식 및 행태의 변화 등을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시점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탈 수급시점까지, 나아가 탈 수급 이후 일정한 시점까지 장기간(2010~2015) 추적하여 패널조사를 실시함

- 이를 통해, 탈 수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기초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수급가구가 3년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후에 탈 수급하도록 설계된 구조적 특징에 따라, ‘탈 수급 촉진을 위한 근로인센티브의 제공 및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추진계획(추진일정표 참

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 참여기간 동안 생활실태 및 의식 변화, 탈수급 이후 축적된 자산의 활용방식, 자활 및 재수급 여부를 추적하기 위하여 반기(6개월 단위)로 패널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 이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전 시점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해당하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1~4차년도 조사연구를 계획함
- 특히, 탈수급 이후 2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과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축적된 자산 활용 및 탈수급 지속여부, 기초생활보장 재수급 여부 등을 추적하고, 사업 참여 중 탈락한 가구와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5차년도 조사연구를 설정하였음
- 외국 제도운영 및 평가연구 사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참여가구에 대한 추적조사의 경우 대개 1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하여 패널조사의 주기를 6개월로 설정하였음

□ 이러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에 따라, 이미 완료된 1차 연구(2010)에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사업 참여가구의 참여 및 중도탈락 현황,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1~6기)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선(Baseline)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

- 1차 연구에서 최초 표본으로 선정된 2010년 1~2기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2010년 상반기 참여) 1,861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참여 이전시점인 2009년 기준으로 ‘기초선(Baseline) 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1,604가구를 완료하여 원표본 가구로 확정하였음

1) 당초 분기 단위 패널조사를 검토하였으나, 조사설계 및 교육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례관리요원 합의 하에, 조사를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요원이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방대한 분량의 기초조사 및 패널조사를 분기마다 수행하는 것은 사업 참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등 주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제1차 패널조사 수행 이전에 반기 단위 패널조사로 조사주기 및 시점을 조정하였음(2010.10)

- 한편, 2010년 3~6기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2010년 하반기 참여)로 표본가구의 규모를 확대하여 1,307가구를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088가구를 완료하여 3~6기 원표본 가구로 확정하였음
  - 기초선 조사를 실시한 후, 1~6기 전체 표본가구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인 2010년 하반기를 기준시점으로 2011년 상반기 중 ‘1차 패널조사’를 수행하였음
    - 이러한 표본조사 대상 확대 및 조사수행에 따라 1차 연구에서는 자산형성지원제도에 관한 이론 및 관련 제도 운영 및 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전체 참여가구의 유지 및 중도포기, 적립현황 등에 대한 기초통계를 분석함
    - 이어서, 최초 1~2기 참여가구와 더불어 표본으로 추가된 3~6기 참여가구에 대한 기초선 조사결과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음
  - 또한, 2차연구에서는 201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추가 실시한 2차 패널조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3차 연구(2012)에서는 2010년 전체(1~6기)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추가 실시한 3차 패널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함
- 3차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 1~3월 실시한 3차 패널조사를 추가하여, 이미 완료된 바 있는 기초선 조사 및 1~2차 패널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함
  - 특히,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및 중도탈락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참여유지비율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장려금 변화 추이를 분석함
-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1~5차 희망키움통장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설계의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탈 수급 축진을 위한 근로인센티브 및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패널조사)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2010	2011	2012	2013	2014-2015
1차 연구	▪ 사업신청/참여기구 및 표본확정	■				
	▪ 연구기간 (2010.6-2011.5)	■	■	■		
	▪ 분석대상 (기초선 조사)	■	■	■		
	▪ 조사수행 (기초선) & (패널1차)	■	■	■		
2차 연구	▪ 분석대상 (2010-2011.6)	■	■			
	▪ 연구기간 (2011.6-2011.12)		■	■		
	▪ 조사수행 (패널2차)		■	■		
3차 연구	▪ 분석대상 (2010-2012.6)	■	■	■		
	▪ 연구기간 (2012.1-2012.12)			■	■	
	▪ 조사수행 (패널3차) & (패널4차)			■	■	
4차 연구	▪ 분석대상 (2010-2013.10)	■	■	■	■	
	▪ 연구기간 (2013.1-2013.12)			■	■	
	▪ 조사수행 (패널5차) & (사업 참여 종료시점 최종 조사)			■	■	
	▪ 분석대상 (2010-2015.10)	■	■	■	■	■
5차 연구	▪ 연구기간 (2014.1-2015.12)				■	■
	▪ 조사수행 (사업참여 종료 후 1년 단위 추적조사 2회)				■	■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저소득층의 탈 수급 촉진을 위한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자산형성지원에 대한 이론 및 정책사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저소득층 대상 근로인센티브 및 자산형성지원 관련 이론 검토
  - 국내·외 저소득층 대상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자산형성지원 관련 제도 및 시범사업 운영사례 검토
  - 국내·외 저소득층 대상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자산형성지원 관련 제도 및 시범사업의 운영과정 모니터링 및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패널조사 및 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외국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운영 및 평가 사례에 관한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및 인터뷰
- 2010~2012년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주요내용 및 참여현황
  - 저소득층의 탈 수급 촉진을 위한 근로인센티브의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및 적립, 중도포기 및 조기 탈 수급 등 사업참여 현황 관련 기초통계 분석
    -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3년 후 희망키움통장 종료(탈 수급) 시점에서 2010년 참여가구(1~6기)의 희망키움통장 참여 유지비율 예측
-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설계
  - 2010년 중 1~6기에 걸쳐 참여를 신청하고 희망키움통장을 개설한 전국 1만여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참여 표본가구 추출
  - 최초 사업 참여가구를 중심으로 표본가구를 구성한 후, 기초선(Baseline) 조사 및 반기 단위의 패널조사 수행

- 최초 표본가구 중에,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기초선(Baseline) 조사 및 패널조사를 수행 과정에 중도 포기하거나 조기 탈수급한 표본가구를 ‘희망키움통장 중도포기 가구’를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여 향후 4차 연구(2013)에서는 중도포기 이후 시점 및 상황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할 예정임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선 조사 및 1~3차 패널조사 수행 / DB 구축

- 앞서 제시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패널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전 시점에 대한 기초선 조사를 수행
- 6개월(반기) 단위로 패널조사를 수행하여 참여가구의 일반사항, 근로활동 및 소득, 소비, 자산, 저축행태, 탈 수급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희망키움통장 참여의지와 기대, 전망 등을 연속적으로 조사
  - 1차 연구에서는 기초선 조사 및 1차 패널조사(2010년 하반기 기준 시점, 2011년 상반기 중 조사 완료)까지 실시하였음
  - 2차 연구(2011)에서는 2차 패널조사(2011년 상반기 기준 시점, 2011년 하반기 조사 완료)를 수행하였음
  - 중장기 연구 추진계획 및 일정에 따라 이번 3차 연구(2012)에서는 3차 패널조사(2011년 하반기 기준 시점, 2012년 상반기 조사 완료)를 수행함
  - 조사내용 구성 및 조정, 조사지침의 교육은 연구진이 담당하고, 조사는 전국 141개 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요원이 직접 수행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에 대한 사업 참여 이전시점 및 참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기초선 조사 결과 분석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1~6기)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기초선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함

- 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가구유형 및 수급현황
- 가구원의 경제활동 및 근로활동 지속 가능성
- 소비 및 저축 관련 인식 및 행태 변화
- 탈 수급 및 탈 빈곤에 대한 기대와 전망
-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과정, 인식
- 희망키움통장 참여에 따른 기대 및 전망
- 희망키움통장 참여에 대한 의지 및 노력, 애로사항
- 탈 수급 이후 미래 계획 및 적립금 활용 계획
- 탈 수급 이후 상황과 관련된 불안 요인 및 추가로 필요한 지원
- 희망키움통장 참여 및 탈 수급 준비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사례 관리요원의 도움 정도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가자의 사업 참여기간 중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1~3차 패널조사 결과 분석

- 2010년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한 전체(1~6기)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3차 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함
- 가구일반사항, 경제활동상태, 생활비, 소득, 부채·이자, 재산, 주거, 생활여건 등은 기초선 조사와 공통적인 조사영역으로 기초선 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제시함
- 패널조사 주요 조사영역은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후의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탈 수급 준비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 관련 조사 등으로 구성됨
- 특히,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참여유지 및 최종 탈 수급가구 규모 및 비율 예측을 위하여, ‘사업 참여종료 시점에서의 탈 수급 성공 가능성 및 탈 수급 가능성에 대한 참가자의 주관적 기대수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
- 인식 및 태도 영역

- 자산 활용계획
- 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인식
- 저축에 관한 인식 변화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후 삶에 대한 인식 변화
-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이후 저축습관에 대한 예상
- 탈 수급 이후 정부 지원에 대한 도움 예상정도 및 희망순위
- 희망키움통장 참여 중 정기적인 저축 포기 생각 및 이유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전후 일에 대한 인식 변화
- 희망키움통장 참여 중 관심정도, 소비성향, 생활설계, 자아인식, 삶의 만족도, 일에 대한 태도 등
-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영역
  -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 경험
  - 노후설계 및 노후대비 교육 경험
  -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 교육 경험
  -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 교육이나 직업훈련 경험
  - 향후 교육희망 여부, 취업상담 경험, 취업알선 경험 등
- 사례관리 영역
  - 담당 사례관리자와의 연락여부 및 방법, 다양한 지원 및 정서적 지지체계 제공, 담당 사례관리자의 도움정도 등
- 희망키움통장 제도 운영 관련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제시
  - 희망키움통장 확대 개편방향 모색
    - 사업 참여가구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및 매칭금 지원방식 개선 및 지원수준 확대
    - 사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및 강화
  - 희망키움통장과 여타 소득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방향
    - 교육, 의료, 주거 등 탈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저소득 근로빈곤층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EITC) 연계
- 탈 수급 이후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연계
- 주택 구입 또는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거복지지원 연계

## 2.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저소득층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저소득층 대상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사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저소득층 대상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사례, 정책 효과성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추적조사 및 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외국의 자산형성 지원제도 운영사례 현지조사를 통하여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실시

###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표본가구 대상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 사례관리를 병행한 방문 면접조사 실시
- 전국 141개 지역자활센터 및 전체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 규모, 예산제약 등을 고려하여 2010년 전체(1~6기) 참여가구 중 적정 표본가구 규모 산출
  - 2010년 1~6기 참여가구 약 1만여 가구 중에서 예산제약 및 조사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약 3,000가구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기초선 조사 완료가구를 원표본 가구로 설정하였음
- 조사설계에 따라 추출된 조사대상 표본가구에 대해 사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요원이 사례관리 과정에 방문 면접조사 실시

#### □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 사례관리 및 추적조사를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요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예정인 포커스그룹을 중심으로 참여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근로활동 참여 및 소비, 저축에 대한 인식 및 행태의 변화, 탈 수급 관련 기대와 전망 등과 관련하여 양적 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함

#### □ 심층 통계분석

-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의 특성, 인식 및 행태 변화 등에 관한 기초통계 및 집단별 비교 분석결과 산출
  - 탈 수급에 이르기까지의 경제활동 및 소득, 재산 등의 변화, 각종 복지서비스 수급여부 및 만족도, 소비 및 저축 관련 행태 변화, 탈 수급 및 탈 빈곤, 근로활동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과정 및 다양한 성과 평가
  - 1~3차 연구의 경우,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후 탈 수급 이전 시점에서의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이므로 탈 수급 여부와 관련된 자산형성지원의 직접적인 효과정보다는 근로활동, 소비 및 저축 행태의 변화, 탈 수급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노력 등 탈 수급에 대비한 다양한 인식과 행태 변화 등 사업 참여과정을 분석함
  - 희망키움통장 유지를 통한 탈 수급 기능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 참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게 되는 가구의 발생과 관련된 요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결과를 도출함
  - 특히, 1차 연구부터 사업 참여 3년 이후 탈 수급 시점을 모두 포함하는 4차 연구에서는 기초선 조사와 함께 1~5차 패널조사

및 희망키움통장 참여 종료시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과정에서의 변화 및 탈 수급 성공여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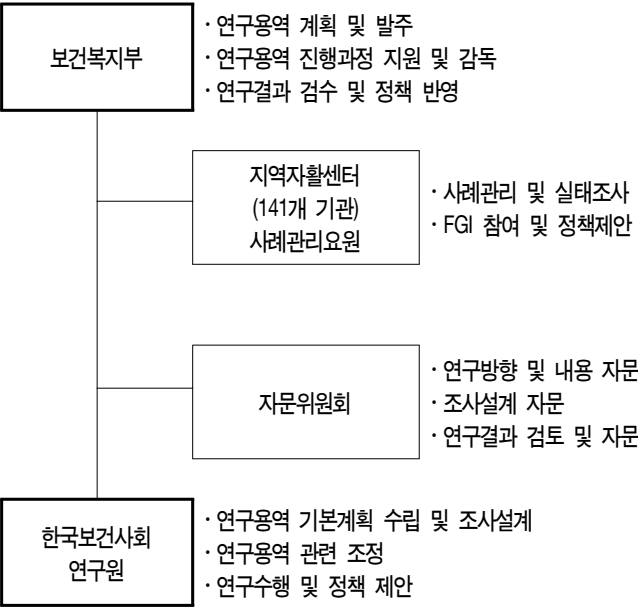
- 또한, 탈 수급 이후 적립금 및 매칭금 등 축적된 자산의 활용 방식 및 실질적인 자립여부, 기초생활보장 채수급 여부 등을 일정기간 동안 추적조사를 수행할 예정인 5차 연구에서는, 1~4차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제도인 희망키움통장의 효과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함

—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결과와 별도로,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적립금 및 매칭금,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행정자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구축된 공적 행정자료 등을 통해 사업 참여 현황을 분석함



3. 연구 및 조사 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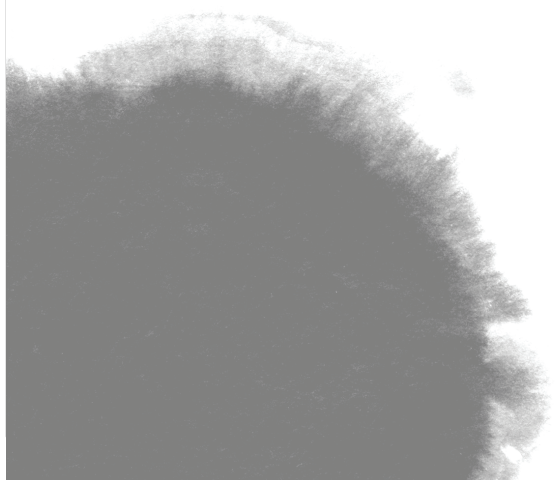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목적 및 방향,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조사설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며, 연구진이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조사수행 방법 및 연구수행을 담당함
- － 본 연구의 기초선 및 패널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 141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요원에 의해 수행됨





# 2장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제도운영 및 평가연구 사례





## 제2장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관련 이론과 국내·외 제도운영 및 평가연구 사례

- 제2장에서는 저축 및 자산형성이 빈곤탈피 및 탈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제시함
  -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 발달과정과 운영사례, 구체적인 평가연구 사례의 내용을 함께 제시함

### 제1 절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관련 이론적 검토

#### 1. 자산형성의 의미와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필요성

- 자산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세 가지 논거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반면, ‘자산’은 상대적으로 정책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왔음(Spilerman, 2000)
  - 둘째, 이와 같은 상대적 무관심은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지녔던 역진성(regressiveness)을 설명함
    - 즉, 기존의 많은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중상층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진 자의 부의 확대 재생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빈곤층이 배제됨으로써 자산불평등 또는 양극화 현상에 일조하여 왔음(Sherraden, 1991)

- 셋째, 이와 더불어 공공부조제도 하에서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 자산조사를 기초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을 소유해야만 수급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가져옴(이태진 외, 2005)

#### □ 자산형성의 의미와 효과

- 자산은 축적된 자원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자산은 미래의 사회적 위험을 감수할 기반을 제공하고 계획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며, 또한 경제 및 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함
- Sherraden(1991)은 다양한 자산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안정, 미래지향적 사고 및 행동,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그리고 아동복지의 향상 등이 그것임
- 이와 같은 자산효과를 감안하여 Sherraden(1991:6)은 자산형성 및 소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정리하고 있음
  - “소득은 굶주린 배를 채우지만, 자산은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다.” (While income feeds people’s stomachs, assets change their heads)

#### □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자산효과에 기초하고 있음

- 저소득층에게 저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면, 저소득층에게도 이러한 자산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Sherraden(1991)은 자산 불평등, 역진적 자산형성지원제도,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적 미비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포괄적(inclusive)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제안하였음
-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보편성(universal), 누진성(progressive),

적절성(adequate), 그리고 생애주기적(lifelong) 특성을 지님 (한창근, 2006; Sherraden & 한창근, 2007; Han, 2010)

- 특히, 자산 불평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증가시키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도록 설계되고 있음
- 저소득층이 주거, 교육,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저축하도록 지원해주고, 이렇게 마련된 목돈을 통해 빈곤탈피 또는 탈 수급의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활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취지임(한창근, 2006)

□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적절한 제도적 기회가 주어지면 저소득층도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저축을 설명하기 위해 Sherraden(1991)은 제도적 저축이론(Institutional Saving Theory)을 제시하였음
  - 개인적 선호와 합리성을 강조하는 신고전학파의 저축이론과 저축의지(willingness to save)를 강조하는 경제심리학 저축이론과는 달리, 제도적 저축이론은 금융기관 및 사회정책 등의 제도가 개인에게 어떠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또는 그 기회가 얼마나 개인에게 접근 가능한지 등의 제도적인 요소를 저축의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음(Beverly & Sherraden, 1999)
- 이와 같은, 제도적 저축이론의 정책적 함의는 저소득층에게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임
  - 제도적 저축이론을 이용한 저축행위의 경험적 연구들은 제도적 요인이 저소득층의 저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Schreiner, Clancy, & Sherraden, 2002; Han & Sherraden, 2009)

## 2. 저소득층의 탈 빈곤 및 탈 수급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연구

□ 어떠한 요인들이 저소득층의 탈빈곤 또는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요약해보면 탈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또는 가족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음(Pandey & Guo, 2007)

- 개인적 또는 가족요인으로서는 연령, 인종, 결혼여부, 건강, 교육, 고용경력, 아동 수 및 연령, 장애가구원의 여부, 가정폭력, 정신장애 여부 등이 제시되고 있음
- 경제사회 구조 및 사회제도적 특성 역시 탈 수급 및 탈 빈곤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음
  - 경제사회 구조적 요인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 빈곤층의 경우 고용 기회의 제한 및 고용 불안정을 경험한다는 것임
  - 또한, 복지제도가 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빈곤정책의 변화, 예를 들어, 복지급여 자격요건 강화, 복지수급 기간의 변화, 그리고 복지수급과 고용연계 강화 등이 수급자의 행태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침(Albert & King, 2011)

□ 그러나, 이와 같은 탈 빈곤 및 탈 수급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자산을 중요한 변수로 여기지 않았으며, 자산을 탈 빈곤의 중요한 독립변수로 분석한 경험적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사실은 소득과 자산의 불분명한 구분, 그리고 소득 중심의 빈곤 정의 및 빈곤정책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음(Spilerman, 2000)

□ 여기서는 탈 빈곤에 대한 자산효과와 관련하여 세 가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제시함

- 첫째, Rocha(1997)는 미국 NSFH(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를 이용하여, 여성가구주 가구들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들이 빈곤상태를 설명하는지 분석함



-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가구주의 교육수준, 노동시간이 탈 빈곤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주요 자산변수로서 자동차 소유여부, 자가 소유 주택여부, 그리고 저축액에 따른 탈 빈곤을 조사하였는데, 모든 변수가 가구의 빈곤여부와 bivariate 분석에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Logistic regression 분석에서는 주택 소유여부는 더 이상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자동차 소유여부 그리고 저축액만이 탈 빈곤과 유의미한 관계를 유지함
  - 비록, 횡단연구라는 단점이 있지만, 자산을 세 가지 변수로 측정하고 자산이 탈 빈곤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둘째, Lee와 Yoon(2009)은 미국 West Virginia 대학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떤 요인이 탈 수급자의 실업 및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는지를 분석함
- 이 연구는 자산변수로 자동차 소유여부를 포함하여, 탈 수급자의 실업 경험여부 및 경제적 어려움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산의 한 수단으로서 자동차가 빈곤층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함
- 셋째, Pandey와 Guo(2007)는 Arizona 주 인디언 샘플을 이용하여 어떤 요인들이 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음
- 종단연구는 1차 데이터 측정 이후에 4년 후 탈 수급 상황을 조사하였으며, 자산변수로는 자동차 소유여부와 저축통장 소유여부가 이용되었음
  - 1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자산변수 모두 수급상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4년 후의 탈 수급 상태에는 자산변수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음

- 이 연구는 종단 연구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미국 인디언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으로 연구결과와 일반화 문제와, 자산변수 측정수준(소유여부)의 단순화 문제 등의 단점을 가짐
- 자산형성에 의한 탈 빈곤 또는 탈 수급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자산의 측정수준과 관련된 문제점 등은 자산형성과 탈 빈곤 사이의 이론적 논의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함
  - 자산형성과 저소득층 탈 빈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발달을 위하여 더 많은 경험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 3. 자산형성이 저소득층의 탈 빈곤 또는 탈 수급에 미치는 영향

- 자산빈곤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위기대처에 불안정한 기초를 제공함(Han, 2009)
  - 자산빈곤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은 탈 빈곤 또는 탈 수급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것임
    - Sherraden(1991)이 처음 제도적 저축이론을 제시하게 된 이유도 탈 빈곤을 경험한 가구들과 그렇지 않은 가구들의 비교분석에서 비록 적은 규모일지라도 자산의 소유여부가 탈 빈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저축 및 자산형성이 어떻게 탈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저축을 통한 자산의 증가는 그 자체로 빈곤 탈출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빈곤층의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자산 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미국의 한 개인발달계좌에 관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참여기간 4년 동안 가구당 총 자산이 평균 약 \$30,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Han, Grinstein-Weiss, & Sherraden, 2009),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탈 빈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둘째, 앞서 제시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참여 결과물로서 탈 빈곤을 설명하고 있으나, 저축 또는 자산형성의 ‘과정’과 탈 빈곤을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음
  - 저축은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노력과 희생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 및 희생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우선, 주어진 소득 내에서 소비패턴 및 지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저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추가적인 소득원을 알아볼 수 있음
  - 미국 개인발달계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저축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으며, 약 27%의 참여자들이 개인발달계좌에 저축하기 위해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Sherraden & McBride, 2010)
  - 이러한 결과는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생산적인 고용이나 자영업을 통한 경제적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소득의 증가가 탈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직접적 연구는 아직 없지만, 개인발달계좌 참여 후 근로소득의 증가는 탈 빈곤과 관련되어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함
- 셋째, 자산과 인적자본에의 투자와의 긍정적 관계는 탈 빈곤과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산은 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위해 저축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축을 하며, 이러한 저축은 결국 가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투자를 의미함

- 대부분의 개인발달계획의 목적에서 나타나듯이, 저소득층 참여자들은 소규모 사업을 창업하거나, 미래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직업훈련을 위해 저축함
- 이러한 특성은 자산형성프로그램이 인적자본 향상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Sherraden(1991)에 의해 강조되었듯이 자산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향상된 인적자본은 탈 빈곤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넷째, 저축 및 자산의 예방적 효과도 탈 빈곤과 관련되어 주목받을 만한 긍정적인 부분임
  -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인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며 (Sherraden, 1991),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예를 들어, 실업, 건강문제, 퇴직 등)가 발생했을 때 자산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는 경제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대응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일 것임(Han & Rothwell, 2010)
  - 특히 경제적 대응에 있어서, 보유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산은 위기 직후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자산이 빈곤의 예방적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이 가지고 있는 세대 간 탈 빈곤 효과, 즉,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부모의 자산이 아동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아동 교육의 발달 및 대학 진학에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Williams Shanks 외, 2010; Chowa 외, 2010)
  - 이러한 연구는 자산을 가진 부모가 아동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에 따라 긍정적 효과를 나타냄을 가지고 있음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아동의 인적자원 증가 그리고 교육성취도의 향상은 노동시장에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자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Morillas, 2007)에서, 1%의 가구 자산 증가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향후 안정된 임금의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확률을 5%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빈곤층을 대상으로 개인발달계좌가 도입된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발달계좌의 등장 및 확대는 이러한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 방지에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마지막으로, 자산과 탈 빈곤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저축 및 자산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자산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라기보다 무엇을 위해 저축을 하고(목표 설정), 어떻게 쓸 것인가에(투자 설계) 관한 종합적인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구체적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을 미래에 대한 ‘희망(hope)’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들이 ‘희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자산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임.
  - 빈곤층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위험요인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물질적인 빈곤이 아니라 빈곤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무기력에 빠지는 정신적인 빈곤일 수 있음
  - 그러므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저축의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정신적인 빈곤과 물질적인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임
  - 이런 점에서 최근 우간다 SUUBI 프로그램에 참여한 에이즈

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축프로그램의 참여 아동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증가하였다는 연구(Han 외, in press)는 중요한 경험적 연구로 여겨짐

## 제2절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사례

### □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확산

- Sherraden(1991)이 제도적 저축이론과 개인발달계좌를 제시한 이후, 많은 국가에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한창근, 2006)
  - 첫째,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유형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있음
  -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잔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미국 IDA 프로그램을 비롯한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ave, 대만의 FDA 등이 대표적 사례임
  - 둘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유형이 있음
  - 국가별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 제도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과 평가에 오랜 기간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음
  - 미국 Saving for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Downpayment (SEED), 영국의 Child Trust Fund, 대만의 Youth Development Accounts, 우간다 Child Development Accounts, 그리고 싱가포르 Child Development Accounts 등이

### 구체적 사례임

- 여기서는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사례 중 미국, 대만, 우간다, 영국, 캐나다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주요 특성과 시범사업 평가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제시함

## 1. 미국

### 가. 개인발달계좌 (IDAs: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가 Sherraden에 의해 제시된 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가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음

- 그 후 IDA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약 500개 이상의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20,000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되었음(Sherraden & Barr, 2005)

□ 미국 개인발달계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한창근, 2006)

- 첫째, 저소득층 특히 근로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IDA 프로그램별 참여 자격조건으로 다른 소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빈곤선 200% 이하 근로빈곤층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임
  - 본래 IDA 제도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수정되었음
- 둘째, 저축용도는 주로 주택구입, 대학학자금, 소규모 창업 등임
  - 저축용도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저축용도의 변경을 허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음

- 셋째, 저소득층의 저축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매칭(matching) 펀드를 도입하고 있음
  - 가장 일반적 매칭율은 1:1 또는 2:1이나 높게는 7:1 또는 9:1의 매칭율을 적용하는 IDA 프로그램도 있음
  - 매칭율은 각 IDA 프로그램의 자원동원 수준, 저축의 용도, 또는 저축 목표액에 따라 여러 가지 매칭율이 적용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주택구입과 같이 큰 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높은 매칭율을 적용하거나 저축 목표액이 낮은 경우 높은 매칭율을 적용하기도 함
  - 그러나 구체적으로 매칭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저축 용도나 저축 목표액과 상관없이 일관된 매칭율을 적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음
- 넷째, 예산은 IDA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높은 매칭펀드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음
  - 프로그램별 예산구성은 다양하지만, 예산이 공공과 민간 기금에 의해 마련된다는 점이 IDA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임
- 다섯째, IDA 프로그램에서 저축에 관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IDA 프로그램의 참여와 함께 계좌를 개설한 저소득층은 의무적으로 최소 기준 시간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됨
  - 이러한 최소 교육시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IDA 프로그램에서 강제 탈퇴 당하기도 함



## 나. 아동발달계좌 (SEED: Saving for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Downpayment)

□ Sherraden 교수에 의해 제시된 포괄적 자산형성제도는 저소득층에게만 적용되는 잔여적 형태가 아니라 처음에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제도로 논의되었음

- 출생과 함께 하나의 계좌가 아동에게 주어지고 생애주기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들이 저축을 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성년기 이후에는 본인이 저축을 하고 노후에 저축된 자산으로 생활을 한다는 구상으로 시작되었음
- 그러나,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기 보다는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IDA 프로그램이 우선 실시됨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Children's Savings Accounts (CSA)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음

- CSA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The America Saving for Personal Investment, Retirement, and Education(ASPIRE) 법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Saving for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Downpayment(SEED)라는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SEED 사업은 보편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도입 및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CSA의 실천모델을 만들고 그 효과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SEED 시범사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11년 현재, 12개 지역에서 SEED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었고 총 1,300여명이 참여하였음
- 11개 지역 프로그램은 소규모(67명-82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에 한 지역 프로그램(SEED for Oklahoma Kids)은

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실시되었음

— SEED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약 절반 정도가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 가구들이 참여하였음

- 약 10% 정도가 미국의 공공부조프로그램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받고 있었고, 41%가 Food Stamps를 받고 있었음

- 또한, 참가자들의 상당수가 저소득, 생활비 부족, 많은 자녀수, 부채, 그리고 금융정보나 지식의 부족 등으로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Sherraden & Stevens, 2010)

□ 한편, SEED 프로그램은 다른 연령의 아동을 참가자로 설정하여 연령에 따른 아동발달계좌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였음

— 어떤 지역에서는 취학 전 (pre-school) 아동들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Head Start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과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른 지역에서는 실험조사설계 방식으로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예금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음(Sherraden & Stevens, 2010)

□ 연령별 차이에 더하여 프로그램별 제도적 특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주요 특징임

—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초기 적립금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1,000의 높은 초기 적립금을 요구하였음

— 또한, 매칭 최고액을 지역 프로그램마다 다르게 설정하였고, 총 매칭금을 포함한 인센티브 총액도 프로그램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 대만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2000~2010) 동안 대만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은 20개에 이르렀음(Han & Sim, 2011)

-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가능한 2개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시함

### 가. 청소년발달계좌 (YDA: Youth Development Accounts)

- 앞서 논의한 가족발달계좌의 저축액의 사용에 관한 분석에서, 참가자의 대부분이 저축액과 매칭금을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따라서, 타이페이 시정부는 16세에서 22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발달계좌를 2003년에 실시하여 청소년 10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Cheng, 2007)
- 청소년발달계좌는 가족발달계좌와 유사한 프로그램 특성을 가지고 있음
  - 3년 동안의 프로그램 참여기간동안 1:1의 매칭이 제공되었고, 최고 매칭액도 NT\$2,000에서 NT\$4,000로 정해졌음
  - 다만, 저축의 목적은 고등교육 학자금 및 취업 준비자금으로 제한됨
    - 참가 청소년은 78개의 신용관련 수업을 들어야 했고, 26시간의 공공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음
    - 방학에는 임시직 및 정규직으로 직업알선이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취업경험을 제공하고 저축 가능성을 증대시킴(Cheng, 2007)

### 나. 가족발달계좌 (FDA: Family Development Accounts)

- 대만은 빈곤퇴치사업의 일환으로 가족발달계좌를 2000년 실시하였음
  - 가족발달계좌는, Sherraden의 개인발달계좌를 모델로 하여 대만에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 이를 위해 100가구를 선정하여 3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참가가구의 선정기준은 복지수혜자이면서 과거 3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Cheng, 2007)

□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1의 매칭율을 적용하고, 참가자가 저축 목표액(NT\$2,000~4,000)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단 고정적 예치금 수준이 결정되면, 3년 동안 저축액에 따른 매칭이 제공되었음
- 저축의 목적으로는 주택 마련, 사업 자금, 그리고 학자금 마련으로 정해져 있음
- 모든 참여자들은 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항이 있음
  - 3주마다 1회씩 교육 강좌가 실시되었고, 3년 동안 총 135시간의 교육이 실시되었음
  - 교육은 신용 및 대출, 은행업, 투자, 주택구매, 창업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Cheng, 2007)

### 3. 우간다: AIDS 고아 대상의 SUUBI(희망) 프로그램

□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 에이즈는 가장 큰 사회문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인 우간다에서도 에이즈 그리고 에이즈 사망에 따른 고아들의 돌봄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음(Ssewamala, Han, & Neilands, 2009)

□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사업학과 Fred Ssewamala 교수는 우간다 에이즈 고아아동들을 대상으로 SUUBI (우간다어로 희망을 의미) 아동발달계좌를 도입하였음

- 우간다 Rakai 지역의 138명의 취약 고아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지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졌음(Ssewamala 외, 2009)

□ SUUBI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3개의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음

- (1)미래 계획에 대한 워크숍, (2)행동변화와 긍정적 사고 등에 관

한 멘토링 프로그램, (3)아동발달계좌

- 아동발달계좌는 2:1의 매칭을 제공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아동이 \$1을 저축한다면, \$2를 매칭금으로 제공하며, 매칭을 제공하는 매칭캡(matching cap)은 월 \$10로 정해져 있음
  - 1년을 기준으로 매월 \$10씩 총 \$120을 저축한다면, 총 매칭액 \$240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360을 받게 되며, 저축액은 교육비, 직업훈련비, 또는 학교 졸업 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SUUBI-Rakai 프로그램의 시행 이후, 2008년부터 우간다에서는 SUUBI-Maka (‘가족에게 희망을 의미’)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2012년에는 The Bridge라는 이름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

- SUUBI-Maka는 에이즈 고아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들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켜 저축프로그램이 아동 및 보호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음
- The Bridge는 그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1,000 여명의 에이즈 고아로 확대 실시할 예정임.

#### 4. 영국

##### 가. 아동신탁기금: Child Trust Fund(CTF)

□ 아동신탁기금은 아동을 위한 면세 저축통장제도를 의미함

- 처음 노동당의 2001년 선거 전략으로 등장하였고, 2005년 1월 실시되었음
- 아동신탁기금은 모든 영국 아동들로 하여금 저축습관을 장려하고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부모가 아동을 위한 아동신탁기금을 열지만, 기금은 아동명의의 통장이 되고 아동이 소유의 자산이 됨
- 기금통장의 개시와 함께, 정부는 초기 그랜트 형식으로 250파운드를 지급하며, 아동이 7세가 되는 해에 추가적으로 50파운드를 지급함
- 저소득층의 경우 이 금액의 최고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정부의 그랜트 외에 아동의 부모 및 친인척들은 추가적으로 아동의 기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음: 연 최고 1,200 파운드까지의 저축액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음. 최근에는 그 추가 저축액이 3,600파운드로 증가하였음.

□ 아동신탁기금에는 3가지 통장이 있음

- Stakeholder accounts: 두 개 이상의 회사에 투자하는 통장. 아동이 13세가 되는 해에 저위험투자 회사로 저축액을 옮기게 됨.
- Share accounts: 주식투자용 통장
- Savings accounts: 일반적인 저축 통장. 이자를 지급받음.

□ 아동신탁기금의 저축액이 어느 정도 쌓일 것인가에 관한 추계에 따르면, 250파운드 초기 정부지원 이후에 추가적인 저축액이 없는 경우, 15년 후에는 이자 및 투자수익율(7%)에 따라 그 금액이 456파운드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만약, 매달 40파운드를 지속적으로 저축하게 되면, 그 저축액은 총 14,399파운드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Gregory & Drakeford, 2006)
- 자격조건(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 2002년 9월 1일과 2011년 1월 2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아동 신탁기금의 확대 실시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2011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들은 CTF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

- 아동신탁기금은 참여 아동들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있음
  - 금융교육은 아동들로 하여금 미래 자산투자를 실현시키고 미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아동이 18세 되기 전에는 저축액을 인출할 수 없음
  - 아동이 사망진단을 받을 정도의 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정도가 심할 경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음
- 기존의 개인발달계좌 또는 아동발달계좌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아동신탁기금은 저축용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대부분의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저축의 사용처로 사회발달 또는 사회투자를 의미하는 주거, 창업, 교육 등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으나, 아동신탁기금의 경우 그 저축용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위에서 설명한 금융교육의 실시에 따라 아동들이 긍정적인 사회발달과 연관되는 용도로 저축액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음
  - 그러나, 저축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동신탁기금의 반대론자들의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음

#### 나. 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

- 아동신탁기금이 중지됨에 따라 그 대체 제도로 Junior ISA가 도입되었음
  - Junior ISA 통장은 CTF와 주요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음
-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고, 아동신탁기금 참여 자격이 없는 아동
  - 16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나 보호자가 통장을 열 수있고, 16세 또는 17세 아동은 스스로 통장을 열 수 있음

□ Junior ISA 통장에는 2개의 통장이 있음

- 현금 Junior ISA: 통장 저축액에 세금이 없는 통장
- 주식 투자 Junior ISA: 주식 투자 후 발생한 수익이나 배당에 세금이 없는 통장

□ 연 최고 저축액은 3,6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음

- 이 최고 저축액을 위에서 설명한 두 개의 통장에 나누어서 저축할 수 있음(예, 1,000 파운드는 현금 Junior ISA에 나머지 2,600파운드는 주식 투자 Junior ISA에 저축할 수 있음)

## 다. Saving Gateway: SG

□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저축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2002년에 5개 지역에  
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Saving Gateway(SG1)를 도입함

- 주요 대상: 16세부터 연금수급대상 연령 (초기 프로그램으로 약 1,500명이 참여)
- 저축기간: 18개월
- 매칭: 월 25파운드 총 375파운드(18개월 동안 25파운드 저축액에 대한 매칭)
- 저축용도의 제한은 없음
- 금융교육의 제공: learndirect 프로그램과 기타 금융교육 프로그램
- Halifax 은행이 참여

□ 2004년에 두 번째 Saving Gateway(SG2)의 실시를 발표함

- 영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함.
- 주요 대상: 16세부터 65세까지의 저소득층 참여대상의 확대 (개인 소득 연 25,000파운드 까지; 가구소득 연 50,000파운드 까지)
- 저축액: 이전 SG1에서는 월 저축액을 25파운드로 정했지만, SG2에서는 월 저축액을 25파운드에서 125파운드까지 확대



- 매칭: 이전 SG1과는 달리, 지역별 프로그램별 매칭율을 달리 책정(0.2:1에서 1:1 매칭까지)
- 한 프로그램(East Yorkshire)은 첫 50파운드 저축에 대해서 50파운드의 추가 보너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함.
- 저축용도의 제한은 없음
- 금융교육의 제공: learndirect 프로그램과 기타 금융교육 프로그램
- Halifax 은행이 주요 통장 관리 은행으로 참여

## 5. 캐나다

### 가. Learn\$ave 프로그램

□ 미국의 개인발달계좌에 영향을 받아 캐나다에서 Learn\$ave를 2000년에 실시하였음

- Learn\$ave는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HRSDC)에 의해 저소득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도입되었음
- 캐나다 7개 지역 10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
- 저축 용도로는 교육 및 직업훈련 그리고 창업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 저축 용도에 따라 참여자들은 두 개의 stream으로 나누어지게 됨: Education/training stream과 Micro enterprise stream.
- 각 프로그램 별 Micro enterprise stream은 총 참여자의 20%까지 참여할 수 있음
- Education/training stream의 참여자들은 교육 및 직업훈련 용도로 저축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Micro enterprise stream의 참여자들은 창업을 비롯 교육 및 직업훈련에 저축액을 사용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참여자격 조건

- 지역별 빈곤선(The Low-Income Cut-Off: LICO) 120% 이하의 연소득
- 금융자산: 연소득의 10% 미만의 금융자산 또는 \$3,000 미만의 금융자산
- 지역별 주택가치의 중위값 미만 가치의 주택 소유
- 연령: 20세부터 65세까지의 근로연령
- 교육: Full time 학생은 참여를 할 수 없음
- 한 가구당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음

□ 저축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매칭임.

- 3:1의 매칭율 (300% 이자를 의미함)
- 매칭캡: 월 \$250 그리고 3년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1,500
- 매칭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만료 전 12개월 동안 적어도 월 \$10를 저축하여야 함. 정기적인 저축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입함.

□ 저축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48개월 이내에 정해진 저축용도로 저축액을 인출하여야 함

- 하지만, 저축액을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액은 신탁(trust)의 형식으로 보관되면 저축용도가 정해진 후 그 신탁금을 저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짐. 허가된 저축용도에 한번 이상의 인출을 허용함

□ 금융교육

- 15시간의 금융교육을 실시함 금융교육 내용으로는 예산관리, 소비 습관, 크레딧의 사용,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사례관리

- 저축목적, 저축과 관련된 저해요인의 파악, 욕구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referral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례관리자는 분기별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만나 사례관리를 제공하도록 함

## 나. 캐나다 등록장애인지축플랜 (Registered Disability Saving Plan: RDSP)

□ 캐나다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장기 저축프로그램을 2009년에 실시함

### □ 자격조건

- 연령 60세 미만의 장애인
- 캐나다 주민등록 번호를 소지한 캐나다인
- 장애세금공제(Disability Tax Credit) 수혜자(캐나다에서는 신체 및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소득세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
- 장기 저축 플랜을 계획하는 자

### □ 주요 특성

- 연간 저축액에 제한은 없지만, 1인당 일생동안 총 저축액은 20만 달러로 한정되어 있음
- 매년 최종 저축기한은 12월 31일임
- 가구 소득 및 저축액에 따라 연간 총 3,500달러까지 매칭을 제공함
- 일생동안 받을 수 있는 최고 매칭금액은 70,000달러임
- Canada Disability Savings Bond를 통해 저소득 및 중산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1,000달러까지 추가 매칭을 제공하며, 일생동안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20,000달러임
- 이러한 국가의 매칭 및 추가입금은 저축프로그램 참가자의 연령이 49세까지 제공함
- 보호자 사망시 연금 및 펀드에 저축된 금액은 아동의 RDSP 통장으로 이전될 수 있음
- 저축액 및 이자소득은 면세 대상이 됨
- 매칭 및 추가지원은 적어도 10년간 통장에 저축되어야 함

### 제3절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평가연구 사례

#### 1. 미국

##### 가. 아동발달계좌(SEED) 평가연구

□ SEED 시범사업은 다양한 시범사업 평가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를 비롯해 질적 조사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계좌 모니터링 연구, 프로그램 과정 연구 등이 실시되었음

○ 여기에서는 저축 및 자산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함

— 여러 지역에서의 평가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분기 평균 \$30을 저축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3년 기준으로 매칭액을 포함하면 \$1,500에 이르는 것으로, 이 정도의 저축액은 미국 커뮤니티 대학의 1년 등록금의 약 6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됨(Sherraden & Stevens, 2010)

— 보다 중요한 특징으로 참가자의 평균 저축액이 프로그램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임

• 프로그램별 평균 저축액은 적게는 \$10에서 최고 \$73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제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질적 조사 인터뷰에 따르면, 아동발달계좌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서 다양한 자산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의 자아존중감, 미래지향성, 아동과의 관계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아동에게서 부모의 자산효과와 유사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Sherraden & Stevens, 2010)

## 나. 개인발달계좌(IDAs) 평가연구

- 제도적 저축이론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
  -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14개 기관의 개인발달계좌 프로그램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주목할 가치가 있는 두 가지 연구결과가 도출됨
    - － 첫째, 제도적 기회가 주어지면 저소득층도 저축할 수 있음
      - 저소득층은 형편상 저축할 수 없을 거라는 기존의 편견과는 달리, IDA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도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IDA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평균 순 저축액은 약 \$528 이고 매칭 펀드를 포함할 경우 약 \$1,5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chreiner 외, 2002)
    - － 둘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IDA 프로그램의 제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제도적 저축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 Sherraden, 2009; Schreiner 외, 2002)
      -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제공과 저축 목표액 등의 제도적 특성이 저축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Schreiner 외, 2002)
  - 미국 Oklahoma주 Tulsa 지역의 개인발달계좌 프로그램은 실험조사 설계를 이용하여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여러 결과들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첫째,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개인발달계좌 참가자들) 참가자들의 자가 보유비율이 높았음(Grinstein-Weiss 외, 2008)
    - － 둘째, 실험집단 참가자가 더 높은 부동산 평가액과 총자산을 가지게 되었음(Han, Grinstein-Weiss, & Sherraden, 2009)
    - － 셋째, 질적 조사 인터뷰를 이용하여 개인발달계좌 프로그램 참가

자의 저축 동기 및 습관 등에 관한 연구가 있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발달계좌 참가자들의 저축동기가 향상되었고, 소비의 절제 등 생활 습관에 있어서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났음(Sherraden & McBride, 2010)
- 넷째, 프로그램 종료 후 장기간 자산효과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구입 및 유지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는지를 분석한 최근 연구가 등장함.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발달계좌 참가자들의 주택 구입이 증가하였고, 교육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2. 대만

### 가. 가족발달계좌 시범사업 평가연구

□ 대만 가족발달계좌 시범사업은 1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음

- 참가자는, 중년 여성으로 한부모 가구의 가장이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저축목표로는 고등교육(45%), 소규모 사업(36%), 그리고 주택 구입(19%) 순으로 나타났음(Cheng, 2007)
- 3년 시범사업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69명의 참가자가 저축을 꾸준히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저축액은 평균 NT\$286,019이었으며, 매칭금액을 포함하여 69명 전원이 저축한 금액은 총 NT\$19,735,311에 이르렀음
  - 이러한 수준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빈곤층에게 의미 있는 저축액임
- 특히, 예금 수준의 변경을 허가한 후에 많은 수의 참여자들이 예금수준을 NT\$2,000이나 NT\$3,000에서 NT\$4,000로 상향 조정

하였다는 사실임

- 이는 처음 프로그램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던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적응하면서 저축목표액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여짐(Cheng, 2007)

## 나. 청소년발달계좌 시범사업 평가연구

□ 대만 청소년발달계좌 시범사업은 총 109명의 청소년이 등록하여 2년이 지난 시점에서 70명이 유지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주 참여자는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8.3세로 나타남
- 참가한 청소년 대부분(83%)이 자신의 고등교육 학비를 저축 목표로 결정했고, 나머지 13%는 직업훈련비 등을 설정함(Cheng, 2007)
-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평균 저축액은 가족발달계좌 평균 저축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70명의 참가자들은 평균 NT\$133,114를 저축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량이 저축을 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발달계좌에서도 참가 청소년들이 사업 참여 후 예금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고되었음(Cheng, 2007)

□ 청소년발달계좌의 자산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청소년발달계좌와 자긍심, 직업 의사결정 효능, 부모-자식 간 관계 개선, 학업 성취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와 직업 의사결정의 효능 그리고 부모-자식 간 관계와 양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 그러나, 참가한 청소년들의 자긍심 및 학업성취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프로그램 종료 후 70명의 청소년 중 67%의 학생이 대학

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4명의 학생들이 저축 금액을 활용하여 정규직 근로자가 된 것으로 보고되었음(Cheng, 2007)

### 3. 우간다 SUUBI(희망) 프로그램 실험조사 결과

□ 우간다 SUUBI 프로그램은 그 효과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실험 조사설계를 이용하였음

- 농촌에 위치한 15개 학교를 기초로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138명의 실험집단과 148명의 통제집단을 구성하였음
  - 통제집단에게는 기본서비스(교과서, 식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를 제공하였음
  - 실험집단 참여자에게는 그 외에 앞서 논의한 3가지 프로그램들을 (워크샵, 멘토링, 이동발달계좌) 제공함(Ssewamala 외, 2009)

□ SUUBI 프로그램 평가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SUUBI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얼마나 저축했는가?
  -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138명) 아동 중에서 132명 아동이 저축을 유지하였으며, 월평균 저축액은 \$6.33에 이르렀음
  - 이러한 저축액은 매칭캡(matching cap, \$10)의 약 53%에 해당하는 금액임 (Curley, Ssewamala, & Han, 2010)
- 둘째, SUUBI는 학교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저축이 아동의 미래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집단 학생에 비하여 실험집단 참가 학생의 교육관련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함(Curley 외, 2010)
  - 교육 관련 지표로는 초등학교 졸업시험(PLE), 미래의 교육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확신을 이용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발달계좌를 가진 실험집단 참가 아동들



이 이러한 세 가지 교육 관련 지표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SUUBI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자존감)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보임
  - 넷째, 에이즈 고아아동들에게 있어서 성적 위험행동은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데, SUUBI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과 통제집단 학생들과의 비교 연구에서,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성적 위험행동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ewamala, Han, Neilands, Ismaylova, & Spenber, 2010).
  - 다섯째, 아동저축프로그램은 아동에게 희망을 주는가?
    - 저축이 아동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가와 우울을 감소시키는가를 처음으로 분석함
    - 통제집단 아동들과 비교하여 실험집단(저축을 하는 아동들)의 아동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으며 우울증세도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
- SUUBI 프로그램 참여아동을 대상으로 한 위의 연구들은 빈곤 탈피 및 탈 수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저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간다의 에이즈 고아들이 교육, 건강, 그리고 위험행동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성인이 된 후에도 빈곤에서 탈퇴하거나 자립하여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이는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의 변화에 관한 후속 연구들을 필요로 함

#### 4. 영국 Saving Gateway 2 평가연구

- 2차 Saving Gateway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평가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양적 연구는 통장사업 참여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저축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저축 및 자산효과에 대한 연구가 실시됨

□ 양적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 (약 11,000명 대상)

- 통장 프로그램 참여자의 주요 특성으로, 여성이 많이 참여하였고 대부분 파트너가 있으며, 약 1/3이 아동 한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교 집단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소득이 낮았고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저축 행동
  - 약 8%는 첫 달에 저축한 뒤 더 이상 저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약 71%는 18개월의 참여기간동안 적어도 16개월 동안 저축한 것으로 나타남
  - 약 69%는 매칭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변화
  - 저축에 참여하면서 순자산이 늘었는가에 관한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많은 참여자들이 소비습관을 바꿔서 저축을 했다고는 하나, 순자산의 변화가 거의 없음은 기존 자산의 이동(reshuffling)에 따른 저축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5. 캐나다 Learn\$ave 평가연구

□ Learn\$ave 참가자 및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총 3,500여명을 대상으로 장기 연구를 실시함

- 저축 프로그램 참여 이전 Baseline을 시작으로 18개월 그리고 40개월에 패널 조사를 실시함

□ 초기 평가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저축행동에 미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약 절반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최고 매칭캡 까지 저축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흥미롭게 금융교육과 사례관리는 저축액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저축액의 대부분은 첫 12개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처음 1년 동안 평균 저축액은 약 \$70였던 반면에 그 후 평균 저축액은 \$20에 머물렀음
- 교육수준과 연령(젊을수록) 저축액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예산관리 및 자산에 미친 영향

- 저축 프로그램은 예산마련 및 저축목적 설정 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 프로그램 참여 후 40개월 후 저축 총액에 있어서는 비교 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음
- 유사하게,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저축프로그램 참가자의 순자산 변화가 크지 않았음
- 다만, 저축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에 미친 영향

- 저축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늘어남
- 저축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교육의 양적 질적 향상이 이루어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교육 수준이 증가하였음
- 창업을 목적으로 한 저축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영업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저축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노동시장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음

## 제4절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 사례

### 1.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디딤씨앗통장

#### □ 추진배경

-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상황 악화 및 가족해체의 증가 등으로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아동빈곤율이 늘고 있는 추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 및 학비 지원 등 최소한의 단기적·사후적 지원에만 머무는 실정임
-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장기적으로 자산의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복지투자의 일환으로 2007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됨

#### □ 「디딤씨앗통장」의 의미

-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CDA, Children Development Account)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CDA)의 비전과 목표

- 아동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아동에게 보다 나은 사회 출발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경제교육 지원의 목표를 가짐
  - 대상아동에게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소외 상태를 해소하고, 아동이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생각과 올바른 소비습관 및 경제정보 등 경제마인드를 교육시켜 ‘현명한

- 소비자, 행복한 경제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짐
-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자산형성 지원, 후원 활성화, 경제(금융)교육, 운영지원체계 확립 등을 수립함

[그림 2-1]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의 비전과 목표

비 전	아동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목 표	아동에게 보다 나은 사회출발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과 경제교육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안내』, 2007, p4.

#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주요 사업내용

## － 자산형성 지원

- 저소득층(요보호) 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매칭펀드를 지원함
- 요보호 아동(보호자·후원자)과 국가의 매칭비율이 1:1(월 3만원 이내)로 18세 미만까지 운영함(본인 3만원 이내 + 국가 3만원 이내 = 6만원 내/월·인)
- 요보호아동(보호자·후원자)은 연간 60만원(월 5만원 내) 범위 내에서 추가 입금가능: 자율운영, 국가 매칭지원 없음
- 금융계좌 운영은 아동계좌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하고 정부 매칭지원금 계좌는 국공채 적립식 펀드로 운영함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 및 취업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목적에 사용토록 용도 제한함

## － 아동 후원(결연) 활성화 및 확대

- 요보호아동 후원(결연)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참여가능 계층 집중 관리함(아동위원, 종교인, 교육인, 언론인, 기업체, 지역인사 등)
- 개인(소액) 및 기업(단체) 후원자 개발 확대 및 지역사회(지자체, 금융권, 민간전문기관, 복지시설 및 단체 등) 후원활성화체계 구축 운영함

## － 경제(금융)교육 실시

- 경제(금융)소외 상태 해소, 자산 및 자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아동 눈높이 경제(금융)교육 실시함

#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등 보호필요 아동 33천명
- － 지원대상은 요보호아동(약 32천명)으로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

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이 포함됨(단, 만 18세 이후 및 보호기간 6개월 미만인 요보호아동은 제외)

□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하며, 요보호아동과 국가의 매칭비율은 1:1(월 3만원)로 하고, 18세 미만까지 운영하도록 함

□ 「디딤씨앗통장」 운영방식

- － 아동계좌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운영하고, 정부 매칭지원금 계좌는 국공채 적립식 펀드로 운영함
-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비 등 자립목적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함

□ 「디딤씨앗통장」 적립현황

- － 2011년 10월말 기준, 가입아동 수는 4만 7천 150여명이며, 저축률도 93%에 달함
- － 또한, 가입자 총 누적액도 475억원, 정부매칭금액 또한 381억은 넘어 총 금액이 856억원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용도

-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하며, 입학금, 등록금, 대학기숙사비 등 학자금의 용도로 사용가능
-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등에 학원등록금으로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의 용도로 사용가능
  - 단,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가능함
-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하여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등 주거마련지원의 용도로 사용가능
- － 그 외에도 창업지원금, 의료비 지원, 결혼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

〈표 2-1〉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용도

구 분	종 류	사 용 항 목	사 용 조 건
학자금	·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 대학 기숙사비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가능 · 취업관련 자격증에 한함 ※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회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창업지원금	-	· 사무실 보증금 · 장비구입비 ·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함
주거마련 지원	-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전세금,주택구입자금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 입원비 · 재활치료비 ·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시까지 지원 가능
결혼지원	-	· 본인 희망시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8. 12. 2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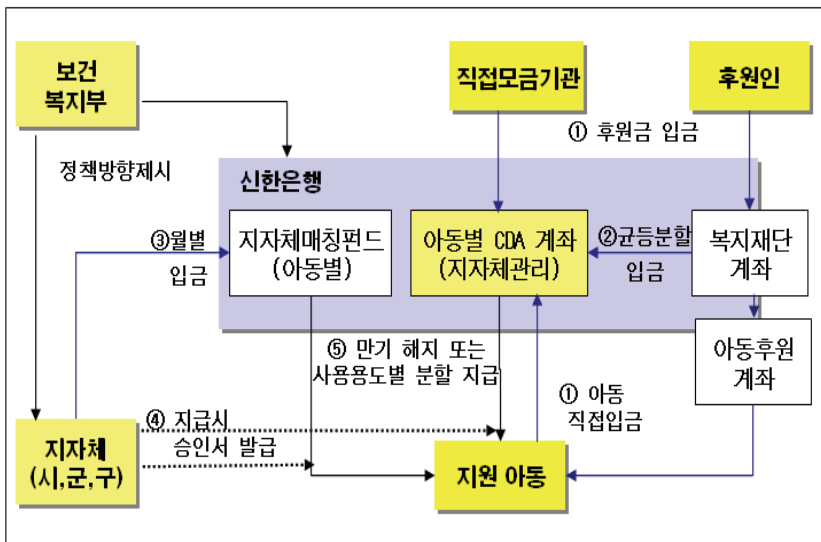
####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 운영흐름 및 추진체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신한은행, 한국복지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사업추진계획 마련 및 사업추진단 운영 등 전체사업을 총괄함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아동별 실태조사 및 계좌개설 등을 관리, 결연 및 후원활성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신한은행은 CDA계좌모델을 운영하면서 경제교육 및 후원활성화를 참여함
- 한국복지재단은 CDA대상 아동 후원자 개발 및 체계적인 후원관리업무와 후원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계좌 적립실적 분석 및 아동별 데이터 관리, 시군구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사업만족도 평가, 경제교육교재 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함

[그림 2-2]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운영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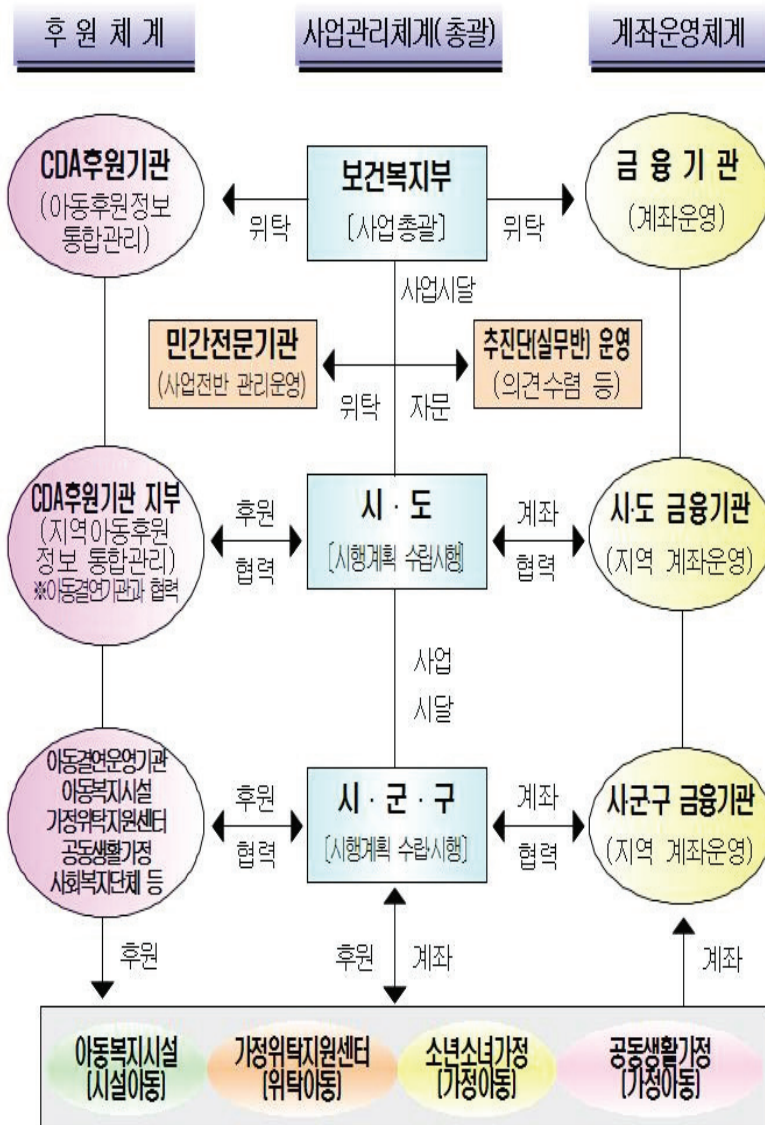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안내』, 2007. p8

####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추진체계 마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금융기관, 아동발달지원계좌(CDA)후원기관,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 관리운영기관 등과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그림 2-3〕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수행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 이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안내」, 2007 p23

## 2.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SFDA):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 □ 추진배경

-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은 현행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소득분배의 불평등 및 사회구조 양극화 현상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접근 하에 시작하였음

### □ 목표

-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은 서울시가 2008년 10월에 발표한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의 자산형성프로젝트 중 하나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미래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 대상

-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훈련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저소득층 가구라고 정의할 수 있음

### □ 참여자격

- 참여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하여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재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자영업자는 사업 참여자에서 제외되며,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지속적 저축가능성이 낮고, 은행거래가 어려운 자 또한 사업 참여자에서 제외됨

### □ 선발과정

- 선발과정은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하게 됨
- 서류심사는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1차로 실시하게 되며, 생활보장

위원회, 사회복지협의체 등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심의 의결 후, 실

질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으로 추천함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자치구에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저축가능성과 자립계획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는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발함

#### □ 지원내용

-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은 본인 저축액 대비 1:1 비율로 매칭 지원하는 저축액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저축액 매칭지원은 3년간 매월 5~2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 대비 1:1비율로 매칭지원을 함
  - 예를 들어 월 20만원씩 저축한 경우에는 3년 후 최대 1,440만원과 이자에 해당되는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저축액의 경우, 5만원과 10만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과 20만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 본인 저축액은 사업에 참가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미국이나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과는 달리 저축액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기 보다는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저축하도록 설계되어있음
- 저축액은 참가자 본인의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중지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되게 됨
- 금융교육은 자산관리교육, 소비자교육, 경제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3회 이상, 총 9회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재무컨설팅은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자산형성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중 재무컨설팅을 받기 원하는 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자조모임은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모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가자간의 상호 정보교환과 지지의 장을 마련해 줌

- 그 밖에도 지속적인 저축독려와 상담, 자원을 연계하는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참가자가 저축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사례관리도 실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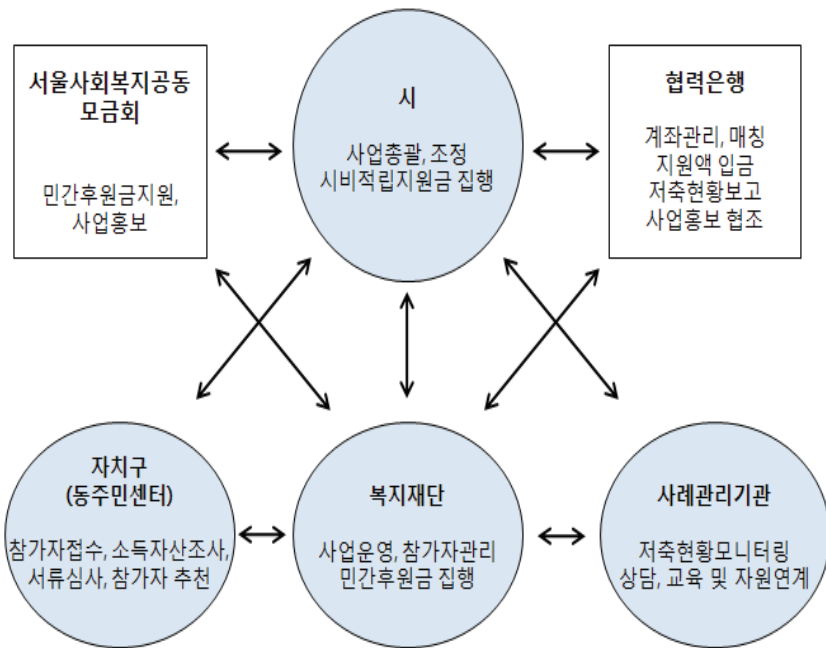
#### □ 관리운영

-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서울시, 서울특별시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치구, 사례관리기관, 협력은행이 참여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지운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사업을 기획 및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함
  -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참가자 선발과 관리 등 전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과 관련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함
  -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구에서는 참가자 신청접수를 받고, 소득 및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참가자를 추천하는 등 참가자 접수와 선발 단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
  - 사례관리기관에서는 매월 참가자의 저축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상담이나 교육, 자조모임, 자원연계를 실시하는 등 참가자에 대

한 밀착관리를 통해 참가자가 자산형성사업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 마지막으로 협력은행에서는 저축통장을 개설하고, 계좌관리, 매칭지원액 입금 등 사업관련 전반적인 은행 업무를 지원함

[그림 2-4] 사업운영 및 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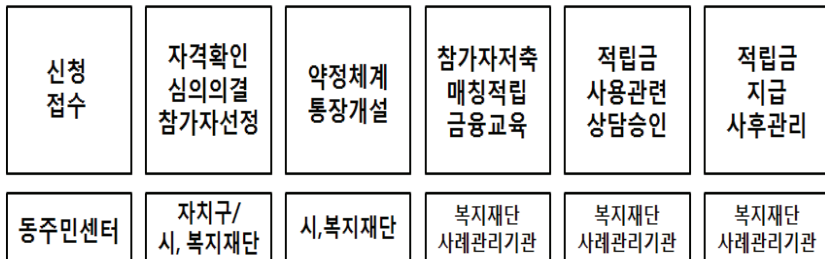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서울사회복지재단,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성과 측정 연구(2009).

#### □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운영절차

- 사업 운영절차는 참가자 신청접수부터 시작하여, 참가자 선발, 약 정제결과 통장개설, 참가자 저축 및 관리, 적립금 사용관련 상담과 승인, 적립금 지급 등 사후관리로 나눌 수 있음
- 신청접수 단계에서는 각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음

- 참가자선발 단계는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서류심사와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면접심사로 나뉨
- 약정체결 단계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여러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참가자로 선발된 자와 약정을 체결가호 협력은행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게 됨
- 참가자관리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인 사례관리기관이 복지재단과 참가자와의 연락관계를 유지하며, 참가자 저축관리와 금융교육, 자조모임, 상담 등 실질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함
- 참가자 적립금 사용관련 상담과 승인은 사례관리기관과 복지재단에서 실시하게 됨
- 적립금 지급과 사후관리는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이 연계하여 진행함

[그림 2-5]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운영절차



자료: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성과 측정 연구(2009).

#### □ 재원

- 재원은 시비와 민간후원금으로 이루어짐.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칭지원금 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모든 재원은 시비와 민간후원금에서 조달하고 있음

## 제5절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제도 평가연구 사례 :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 서울복지재단은 서울형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SFDA: Seoul Family Development Account)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여 향후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과 확대,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계획되지 못했던 것으로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한계를 지녔음
  - 이에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2007년 11월에 시작된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였음
  - 양적 연구방법은 2007년 11월 2009년 제3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기초선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기본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가족현황, 소득 및 부채, 저축 및 저축태도, 소비 및 지출태도, 삶의 만족도,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질문함
  - 이는 향후 1년, 2년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희망플러스통장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함
  - 기초선 조사는 향후 1~2년 후 성과를 측정 및 비교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질적 연구결과는 시범사업의 질적 성과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것임
- 질적 연구결과에서는 희망플러스통장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은 분명함
  - 더욱이 질적 연구시점이 2007년 말로 시범사업이 시작한 지 2년이 안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에 희망플러스



통장의 성과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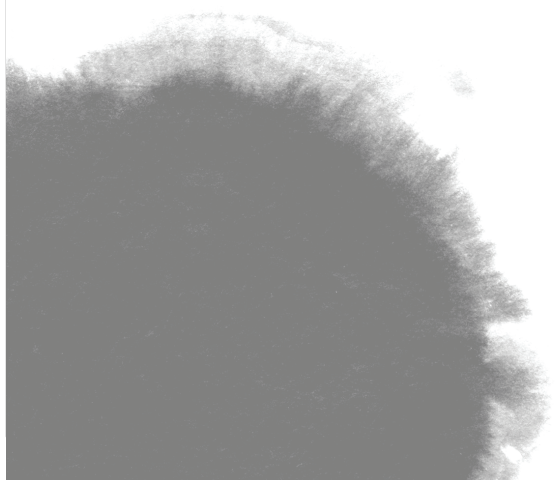
□ 양적 연구인 기초선 조사는 희망플러스통장 제2기 참여자 5,000명 중, 326명이 참여하였는데 기초선 조사 결과 중,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의 결과를 보면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 반면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실험집단에 비해 통제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질적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 바와 같이 희망플러스통장 참여자로 선정된 사실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평가됨



# 3장

## 희망키움통장 운영체계 및 참여현황 분석





# 제3장

## 희망키움통장 운영체계 및 참여현황 분석

### 제1 절 희망키움통장 운영체계 및 주요내용

#### 1. 추진배경

-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의 지속적 증가<sup>2)</sup> 등에 따른 탈빈곤 대책 필요성 증대함
  - (2008) 근로빈곤층 빈곤율 9.1%, 약 195만명 → (2009) 근로빈곤층 빈곤율 9.6%, 약 210만명으로 증가
- 최저생활 보장 중심의 소극적인 복지에서 일을 통한 적극적인 복지(Workfare)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일 감소나 실적이 빈곤진입 및 탈출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68.3%, 74.3%로 중요한 요인임
  - 기존 자활소득공제<sup>3)</sup>, EITC<sup>4)</sup> 등은 지원범위 협소, 소액지원 등으로 효과 미흡함

---

2) 18~64세, 중위소득 50% 기준(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해 자활소득의 30% 공제, 1인당 평균 월 7~10만원 지급

4)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 이하, 재산가액 1억원 미만, 18세 미만 아동부양가구에 최대 120만원(연간)내에서 지급 (최대급여액: 미국 596만원, 영국 8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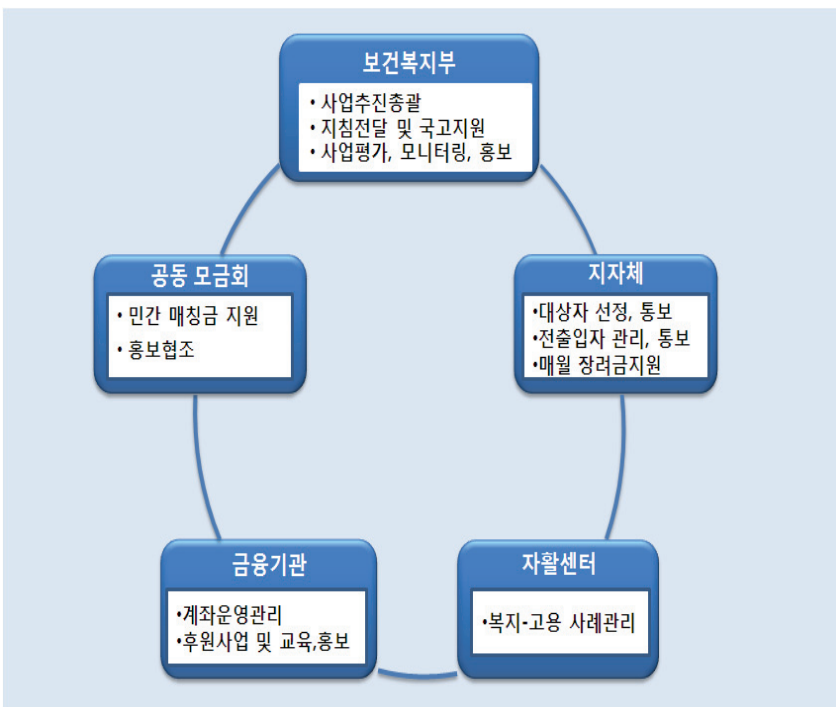
- 일반 노동시장 취업 수급자는 근로소득 증가 시 급여 100% 삭감 및 EITC 대상 제외 등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 물질 기반으로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함
  - 근로능력이 있고 탈 수급 가능성이 높은 취업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희망키움통장 지원함
    - 소득지원, 복지서비스 및 고용지원서비스, 근로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수급,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및 지원 강화함

## 2.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는 사업추진총괄, 지침전달 및 국고지원, 사업평가, 모니터링,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희망키움통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시행 및 예산을 지원하며,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금융기관의 효율적 운영체계의 구성, 그리고 사업운영 및 평가를 통한 발전방안을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대상자 선정 및 사업홍보, 전출입자 관리 및 통보, 매월 장려금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 보건복지부에 사업 실적 및 결과를 보고하며, 희망키움통장 홍보 및 대상자 모집 관리, 일자리 및 취·창업 연계, 그리고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자활기금 및 지방비 확대를 통한 추가 매칭을 지원함
- 민간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은 민간매칭금 지원 및 홍보의 역할 수행
  - 공동모금회는 민간재원을 확보하며 이를 위해 홍보함
  - 중앙자활센터는 민간재원 계좌 관리 및 금융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함

- 금융기관은 계좌운영관리, 후원사업 및 교육, 홍보 등의 역할 수행
- － 보건복지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계좌 개설 관리,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희망키움통장 사업 DB구축 및 관리, 정기 수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수행함

[그림 3-1]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사업 매뉴얼(2010).

### 3. 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 취업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 신청 당시 최근 3개월 동안 가구 총 근로소득<sup>5)</sup>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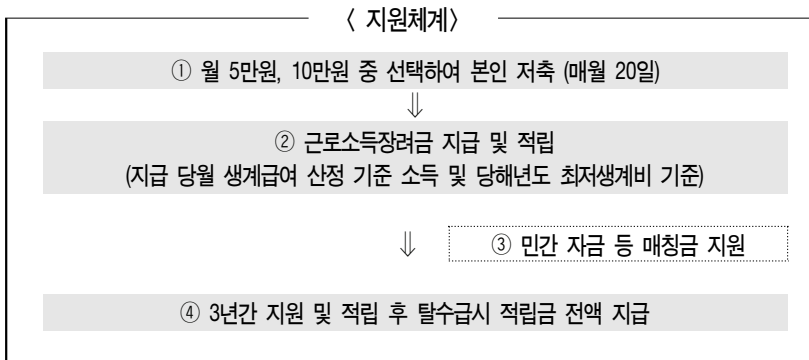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중 1~2기는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였으며, 2010년 3~6기 이후 참여대상 자격조건을 최저생계비의 60%로 완화함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일정비율 이상인 가구로 참여를 제한한 것은, 일정소득 이상 근로활동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예산 제약 하에서 최대한의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사업 참여 제외자

-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행복키움통장, 드림씨앗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 지원내용

- － 탈 수급을 전제로 사업 참여기간(3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5) 가구 내 사업소득 포함, 자활근로소득 제외함.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함.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함

- 단, 사업기간 경과 후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근로소득장려금

$$\text{근로소득장려금} = \left[ \text{가구 총 소득} - (\text{최저생계비} \times 0.6) \right] \times 1.05$$

(장려금률)

- 근로소득장려금 산정 시 소득은 신청 시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항목의 소득을 산출함
- 장려금률(1.05)은 소득 증가 시 현금급여 감소분보다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으로, 근로소득의 과소신고 및 근로의욕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 산정 당월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 시에는 관리 서식에 따라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함
- 통장개설 후 첫 장려금 입금 시 소득, 가구원수 변동 등에 따른 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 기준에 따름
- 최대장려금 : 적립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은 경우 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 민간 매칭금<sup>6)</sup>

-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에 민간재원 1:1 매칭 지원
-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한 추가 매칭 가능

#### □ 적립요건

- 적립기간 중 근로소득이 일정기간(상시근로자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 중도 해지됨
- 근로소득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을 활용함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시설수급자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상 소득을 활용, 별도의 소득확인 절차 불필요)

- 소득이 대상기준에 미달하는 동안 장려금은 미지급함(다만, 본인의사에 따라 저축유지 가능)
- 탈 수급 이전 중도 해지 시에 본인적립금 및 이자는 지급하되, 적립된 장려금 및 매칭금은 미지급함
- 단,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 회복 시까지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함(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장려금 및 매칭액 미지원)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초과 시(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까지)사업대상 유지
  - 단, 실제 근로소득 아닌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장려금 최대 지급
- 적립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계좌운영기관(금융권)은 개인의 전출입 등에 따른 주소이전 시의 계좌운영방안 마련
  - 지자체는 개인주소 이전 등으로 계좌 변경 필요시, 해당 금융기관 및 변경 지자체에 그 내용을 통보

#### □ 적립금 지원

- 지원조건
  - 3년간 사업 참여 및 지원 후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함
  - 적립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 시 해당 지자체는 사용계획서 및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을 받도록 함<sup>7)</sup>

#### □ 지원절차

- ①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7)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지원자는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 적립 및 사용계획서 제출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함
-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가구원<sup>8)</sup> 중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장함(신용불량자도 신청은 가능함)
-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자가 있는 경우, 사례관리자가 신청을 받아 읍면동으로 전달 가능함
- ② 신청자 자격조사: 시·군·구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은 신청자 소득내역을 사업팀에서 볼 수 있도록 협조
- ③ 결과통보: 읍·면·동, 시·군·구
  - 신청인 앞 결과 통보 및 신청한 주민센터로 안내(결과 통보는 신청 후 2주 내)
- ④ 신규 계좌개설: 읍·면·동, 은행 전담영업점(시·군·구)
  - 읍·면·동에서는 ‘저축동의서’를 받고 통장개설 가능한 은행 혹은 지자체(시·군·구)로 대상자 안내
- ⑤ 본인저축
  -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실시
  - 장려금 입금(매월 23일~) 및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익월 초) 지원
- ⑥ 사례관리: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 대상가구 수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교육훈련 연계 지원

---

8) 기초생활보장제대상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

#### 4. 탈 수급 이후 연계서비스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 일자리 지원, 창업자금 대출, 주거지원, 차상위 행복키움통장(IDA) 등 우선 연계제공으로 자립역량 강화 및 빈곤재진입 방지



- 금융소외현상 완화를 위한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

- 교육개요: 연체채무 보유자 대상 신용회복지원 및 신용관리 교육
- 교육장소: 자활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지자체 교육장 활용
- 교육기간 : 연간 2~4회 (분기 또는 반기별) 교육 실시

－ 주요내용

교육프로그램		주요 내용		교육 성과
① 부채관리 상담	⇒	개인별 과다채무 해법 제공	⇒	재기의욕 고취
② 채무조정 (workout)	⇒	채무조정안 마련 : 장기분할상환, 이자율인하, 채무감면 등	⇒	경제활동 복귀 지원
③ 신용관리교육	⇒	건강 소비생활교육 신용 회복자 재활교육 등	⇒	채무불이행 예방

□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으로 노후보장 사각지대 해소

- － 교육개요 :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지원으로 노후 사각지대 해소
- － 교육기간 : 연간 2~4회(분기 또는 반기별) 교육 실시
- －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근로자 대상 교육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준비의 필요성,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등 재무설계 교육</li> <li>· 인생설계교육 실시로 긍정적인 인생계획 수립 도모</li> </ul>
상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설계서비스 및 국민연금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에 출장상담)</li> </ul>

□ 안정적 주거지원 제공 추진(국토부 협조사항)

- － 영구임대주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근로소득을 통한 탈 수급자」로 입주대상 완화
- － 국민임대주택: 「근로소득을 통한 탈수급자」를 저소득층 다가구 등 매입 임대 주택 및 전세임대 주택 1순위 대상 지정 검토
  - (현행) 입주대상 1순위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 (변경 후) 근로소득을 통한 탈수급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1순위 추가
- － 주택 바우처 : 근로소득 통한 탈수급자를 우선 지급 대상으로 지정

□ 안정적 일자리 연계 및 직업훈련 실시

- － 사회서비스 일자리 : 희망키움통장 지원자 우선채용 권고 및 빈곤층 채용 우수기관(20% 초과) 인센티브 제공
  - 자활근로 인턴인력 지원, 사회적 기업 인증 연계 등

- 성과관리 자활시범사업 : 희망키움통장 지원자 우선대상 선정으로  
일반 노동시장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
  - 성과관리 자활시범사업 : 저소득층 노동시장 취업률 제고를 위  
해 사업성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원 및 대상자에 대  
한 맞춤형 취·창업,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노동부 일자리 사업 연계 : 고용지원센터 통한 빈 일자리,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 일자리 사업 우선 대상자로 선정
- 교육훈련: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등 직업훈련 연계
- 일할 여건 조성 : 양육·간병 등 사회서비스 연계로 중장년 여성들  
의 근로활동 장애 제거

□ 창업자금 및 차상위 행복키움통장 우선 대상자 선정

- 창업지원 : 희망키움통장 2년 이상 참여자 대상 복지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및 「미소금융」 우선 지원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 개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장기저리 대여
- 지원대상: 수급자 및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
- 융자조건: 고정금리 연 3%, 무보증·보증·담보 대출 (농협, 국민은행 수행)

〈미소금융사업〉

- 개요: 무보증·무담보로 창업자금을 대출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경과: 전국 200~300개 미소금융법인 설립 및 재계·금융권 등 민간기부금(10년간 약 2  
조원) 모집을 통해 '09년 하반기 이후 미소금융사업 추진

- (자산형성) 차상위 행복키움통장\*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

〈행복키움통장〉

- 개요 :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 지원대상 : 근로소득 있는 차상위 청년 취업자 및 아동부양가구주
- 지원내용 : 근로소득 일부 저축시 1:1 매칭지원 (3년간 총 720만원)
- \* 개인 월 10만원 저축, 10만원 매칭 지원(자자체 5만원, 민간 5만원)으로, 3년간 총 720  
만원 자산 형성 및 주택비, 교육·훈련, 창업 등을 활용

## 제2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참여유지 현황 및 예상 탈 수급 성공률 분석

- 여기서는 2010년 전체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1~6기) 약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유지 및 적립현황, 중도포기 및 탈 수급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 현황, 사업참여 중 조기 탈 수급 이후 통장유지 및 해지 현황 등의 변화 추이를 제시함
-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2010년 2월에 최초 1기 사업 참여가구의 신청을 받아 2010년 4월부터 본격적인 적립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4~10월까지 2기부터 6기까지 추가로 신청, 희망키움통장 개설 및 적립이 이루어짐
  - － 희망키움통장 사업 시행 초기인 2010년 4~10월까지 2010년 전체 참여가구(1~6기)에 대한 신청 및 통장 개설이 완료되었음
- 3차 연구에서는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등 참여가구의 현황이 희망키움통장 개설 및 관리주체인 하나은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2년 동안 수집된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 및 중도탈락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함
  -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한 1~6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 25개월(6기)~최대 31개월(1기) 동안의 참여현황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
  - －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활용한 사후 확인 및 집계를 통해서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중 조기 탈 수급에 성공한 가구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희망키움통장 중도포기 가구와 조기 탈 수급 시에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하거나 해지한 가구의 현황 역시 상세하게 제시함
- 특히,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 종료시점인 3년 이후까지 중도해지 및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비율, 사업 종료 후 탈 수급에 도달하거나 최종적으로 탈 수급을 선택함으로써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본

인 저축액 및 매칭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 규모를 예측함

-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질적으로 탈 수급에 성공한 가구의 비율이며, 이것은 3년 후 사업 참여 종료 시점에서 탈 수급에 대한 참여가구의 최종 선택여부에 달려 있음
  - 앞서 1차 연구에서는 이러한 탈 수급 선택 가능성을 일정비율로 단순 가정하여 예측하였으나, 이번 2차 연구부터는 탈 수급 및 자립의지와 관련하여 참여가구에 대한 패널조사를 통해 확인한 탈 수급 가능성 수치를 활용하여 예측하고자 함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유지 및 중도해지 관련 개념 구분

구분 (월)	참여 가구 (a+b+c)	계속참여			중도해지		탈 수급			
		소계 (b)	적립		미납	소계 (c+d+g)	중도 포기 (d)	소계 (e=f+g)	통장 유지 (f)	통장 해지 (g)
			5만원	10만원						

- 참여가구는 사업 초기 신청 및 희망키움통장 개설 가구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미납을 포함하여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계속 참여가구(b)로 구분하며 이를 기초로 최초 참여가구 대비 참여유지비율(통장유지비율)을 산출함
  - 계속 참여가구는, 중도포기 또는 조기 탈 수급으로 인한 중도해지 가구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기간(3년) 중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참여기간 중 조기 탈 수급에 성공한 가구라 할지라도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



하지 않으면 희망키움통장 유지 또는 해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조기 탈 수급(e) 가구는 탈 수급 이후 희망키움통장 유지가구(f)와 통장해지가구(g)로 분류됨

- 중도해지가구(c=d+g)는 사업 참여기간 중 다양한 원인에 의해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통장을 해지한 가구를 의미함
  - 앞서 제시한 탈 수급 후 통장 해지가구는 중도포기는 아니지만 중도 해지가구에 포함되며, 이를 기초로 최초 참여가구 대비 중도해지비용을 산출함
  - 매월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참여유지비용(통장유지비용)이 감소한 폭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 1.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참여현황 변화 추이 분석

### 가.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 참여가구(1~6기)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1~6기) 신청·참여가구는 총 11,014가구로, 각 기수별로 사업 참여 및 통장개설 이후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매월 중도해지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중도해지비율은 점차 증가하며, 이러한 변화와 동일한 흐름으로 통장유지비율은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냄

— 2010년 전체 참여가구를 기준으로, 참여유지비율(통장유지비율)(b)은 각 기수별로 신청 초기 중도해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참여현황을 본격적으로 집계 및 제시하기 시작한 2010년 10월에 98.2%(10,814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매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참여유지비율은 2010년 10월 이후 12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 83.2%, 24개월이 경과한 2012년 10월 기준으로 6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24개월 동안 약 32.5%p 감소한 결과로 1개월당 약 1.35%p씩 감소하였음

— 참여유지가구의 본인 저축액 적립현황을 살펴보면, 매월 참여가구를 기준으로 85~9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가구가 10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참여 당시부터 본인 저축액으로 선택 가능한 최대 금액을 적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최소 금액인 5만원을 적립하는 가구는 참여가구의 약 5% 내외에 불과하며, 해당 금액을 적립하지 못한 미납가구 역시 매월 참여유지가구의 약 5% 내외에서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자산형성지원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및 민간자원으로부터의 매칭금 확보 및 제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와 연계하여 본인 저축액의 선택범위를 10~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

는 것이 정책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기간 중에 본인 저축액 선택 범위 내에서 이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유저축 형태로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가구의 저축 의지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1~6기) 참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 (1)

(단위: 가구, %)

구분		참여가구 (a=b+c)	참여유지				중도해지 (c)
			소계 (b)	적립		미납	
				5만원	10만원		
'10.10	가구	11,014	10,814	700	9,624	490	200
	비율	100.0	98.2	6.4	87.4	4.4	1.8
'10.11	가구	11,014	10,711	664	9,388	659	303
	비율	100.0	97.2	6.0	85.2	6.0	2.8
'10.12	가구	11,014	10,625	669	9,380	576	389
	비율	100.0	96.5	6.1	85.2	5.2	3.5
'11.1	가구	11,014	10,518	640	9,263	615	496
	비율	100.0	95.5	5.8	84.1	5.6	4.5
'11.2	가구	11,014	10,427	633	9,116	678	587
	비율	100.0	94.7	5.7	82.8	6.2	5.3
'11.3	가구	11,014	10,265	615	8,938	712	749
	비율	100.0	93.2	5.6	81.2	6.5	6.8
'11.4	가구	11,014	10,064	604	8,827	633	950
	비율	100.0	91.4	5.5	80.1	5.7	8.6
'11.5	가구	11,014	9,924	582	8,679	663	1,090
	비율	100.0	90.1	5.3	78.8	6.0	9.9
'11.6	가구	11,014	9,756	566	8,481	709	1,258
	비율	100.0	88.6	5.1	77.0	6.4	11.4
'11.7	가구	11,014	9,585	553	8,352	680	1,429
	비율	100.0	87.0	5.0	75.8	6.2	13.0
'11.8	가구	11,014	9,441	540	8,157	744	1,573
	비율	100.0	85.7	4.9	74.1	6.8	14.3
'11.9	가구	11,014	9,301	547	8,103	651	1,713
	비율	100.0	84.4	5.0	73.6	5.9	15.6
'11.10	가구	11,014	9,163	524	8,015	624	1,851
	비율	100.0	83.2	4.8	72.8	5.7	16.8
'11.11	가구	11,014	9,042	513	7,863	666	1,972
	비율	100.0	82.1	4.7	71.4	6.0	17.9
'11.12	가구	11,014	8,890	508	7,768	614	2,124
	비율	100.0	80.7	4.6	70.5	5.6	19.3

〈표 3-2〉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1~6기) 참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 (2)

(단위: 가구, %)

구분		참여가구 (a=b+c)	참여유지				중도해지 (c)
			소계 (b)	적립		미납	
				5만원	10만원		
'12.1	가구	11,014	8,763	499	7,633	631	2,251
	비율	100.0	79.6	4.5	69.3	5.7	20.4
'12.2	가구	11,014	8,603	485	7,516	602	2,411
	비율	100.0	78.1	4.4	68.2	5.5	21.9
'12.3	가구	11,014	8,472	484	7,438	550	2,542
	비율	100.0	76.9	4.4	67.5	5.0	23.1
'12.4	가구	11,014	8,113	463	7,167	483	2,901
	비율	100.0	73.7	4.2	65.1	4.4	26.3
'12.5	가구	11,014	7,999	451	7,068	480	3,015
	비율	100.0	72.6	4.1	64.2	4.4	27.4
'12.6	가구	11,014	7,899	441	6,987	471	3,115
	비율	100.0	71.7	4.0	63.4	4.3	28.3
'12.7	가구	11,014	7,779	436	6,879	464	3,235
	비율	100.0	70.6	4.0	62.5	4.2	29.4
'12.8	가구	11,014	7,627	430	6,787	410	3,387
	비율	100.0	69.2	3.9	61.6	3.7	30.8
'12.9	가구	11,014	7,491	427	6,688	376	3,523
	비율	100.0	68.0	3.9	60.7	3.4	32.0
'12.10	가구	11,014	7,236	404	6,392	440	3,778
	비율	100.0	65.7	3.7	58.0	4.0	34.3

□ 중도해지비율은 2010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참여가구 대비 1.8%(200가구)에서 2011년 10월에 약 16.8%(1,851가구)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10월 34.3%(3,778가구)로 지난 24개월 동안 약 32.5%p 증가함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중도해지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참여유지비율(통장유지비율)은 감소하게 됨
- 그러나, 중도해지가구 중에는 참여기간 중에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100~150% 수준으로 탈 수급에 성공하면서 본인 선택에 의해 희망키움통장을 해지하거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여 탈 수급하여 희망키움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가구가 포함됨

- 참여기간 중에 조기 탈 수급한 가구의 경우도 소득인정액이 개별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음

#### 나.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근로소득 기준 변경 전후(1~2기 / 3~6기) 참여기수별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 비교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시행 초기, 1~2기가 신청 및 참여할 당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한 근로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70% 수준이었으나, 이후 3~6기 추가 신청 및 참여 과정에서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으로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였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 현황 분석에 있어서도 근로소득 기준 변경 전후(1~2기 / 3~6기)로 구분하여 참여기수별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을 비교함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결과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참여기수에 따라 두 집단(1~2기 / 3~6기)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2010년 희망키움통장 1~2기 신청·참여가구는 총 3,466가구로, 앞서 전체 참여가구의 현황 변화 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 참여 및 통장 개설 후 중도포기 및 탈 수급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참여유지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한편 동일한 수준으로 중도해지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희망키움통장 1~2기 신청 및 참여가구의 참여유지비율은, 2010년 10월에 전체 참여가구 대비 96.3%(3,338가구)에서 2011년 10월에 83.7%(2,900가구)로, 2012년 10월에는 67.5%(2,341가구)로 약 28.8%p 감소함

－ 중도해지비용은 1~2기 참여가구 대비 2010년 10월 기준 3.7%(128가구)에서 2011년 10월에는 16.3%(566가구)로, 2012년 10월에는 32.50%(1,125가구)로 24개월 동안 참여유지비용(통장유지비용) 감소폭과 동일한 수준인 28.8%p 증가하였음

〈표 3-3〉 2010년 희망키움통장 1~2기 참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 (1)

(단위: 가구, %)							
구분		참여 가구 (a=b+c)	소계 (b)	참여유지 적립		미납	중도해지 (c)
				5만원	10만원		
'10.10	가구	3,466	3,338	179	2,971	188	128
	비율	100.0	96.3	5.2	85.7	5.4	3.7
'10.11	가구	3,466	3,296	174	2,931	191	170
	비율	100.0	95.1	5.0	84.6	5.5	4.9
'10.12	가구	3,466	3,264	175	2,928	161	202
	비율	100.0	94.2	5.0	84.5	4.6	5.8
'11.1	가구	3,466	3,247	171	2,900	176	219
	비율	100.0	93.7	4.9	83.7	5.1	6.3
'11.2	가구	3,466	3,223	171	2,869	183	243
	비율	100.0	93.0	4.9	82.8	5.3	7.0
'11.3	가구	3,466	3,188	165	2,820	203	278
	비율	100.0	92.0	4.8	81.4	5.9	8.0
'11.4	가구	3,466	3,145	162	2,809	174	321
	비율	100.0	90.7	4.7	81.0	5.0	9.3
'11.5	가구	3,466	3,106	160	2,756	190	360
	비율	100.0	89.6	4.6	79.5	5.5	10.4
'11.6	가구	3,466	3,061	155	2,719	187	405
	비율	100.0	88.3	4.5	78.4	5.4	11.7
'11.7	가구	3,466	3,013	151	2,675	187	453
	비율	100.0	86.9	4.4	77.2	5.4	13.1
'11.8	가구	3,466	2,968	146	2,624	198	498
	비율	100.0	85.6	4.2	75.7	5.7	14.4
'11.9	가구	3,466	2,931	149	2,601	181	535
	비율	100.0	84.6	4.3	75.0	5.2	15.4
'11.10	가구	3,466	2,900	142	2,579	179	566
	비율	100.0	83.7	4.1	74.4	5.2	16.3
'11.11	가구	3,466	2,858	140	2,546	172	608
	비율	100.0	82.5	4.0	73.5	5.0	17.5
'11.12	가구	3,466	2,813	140	2,524	149	653
	비율	100.0	81.2	4.0	72.8	4.3	18.8

〈표 3-4〉 2010년 희망키움통장 1~2기 참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 (2)

(단위: 가구, %)

구분	참여 가구 (a=b+c)	참여유지				중도해지 (c)	
		소계 (b)	적립		미납		
			5만원	10만원			
'12.1	가구	3,466	2,781	137	2,472	172	685
	비율	100.0	80.2	4.0	71.3	5.0	19.8
'12.2	가구	3,466	2,739	132	2,445	162	727
	비율	100.0	79.0	3.8	70.5	4.7	21.0
'12.3	가구	3,466	2,703	133	2,421	149	763
	비율	100.0	78.0	3.8	69.8	4.3	22.0
'12.4	가구	3,466	2,593	125	2,330	138	873
	비율	100.0	74.8	3.6	67.2	4.0	25.2
'12.5	가구	3,466	2,558	125	2,300	133	908
	비율	100.0	73.8	3.6	66.4	3.8	26.2
'12.6	가구	3,466	2,531	121	2,279	131	935
	비율	100.0	73.0	3.5	65.8	3.8	27.0
'12.7	가구	3,466	2,493	116	2,242	135	973
	비율	100.0	71.9	3.3	64.7	3.9	28.1
'12.8	가구	3,466	2,450	114	2,222	114	1,016
	비율	100.0	70.7	3.3	64.1	3.3	29.3
'12.9	가구	3,466	2,411	115	2,181	115	1,055
	비율	100.0	69.6	3.3	62.9	3.3	30.4
'12.10	가구	3,466	2,341	115	2,103	123	1,125
	비율	100.0	67.5	3.3	60.7	3.5	32.5

□ 참여대상 선정을 위한 근로소득 기준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70%에서 60%로 완화되었으며, 2010년 하반기 중 희망키움통장에 신청 및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4개월 정도 사업 참여기간이 짧은 희망키움통장 3~6기 가구는 총 7,548가구로 1~2기에 비해 약 2배 이상 큰 규모임

— 3~6기 가구의 참여현황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앞서 전체 참여가구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 참여 및 통장개설 이후 중도해지 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중도해지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통장유지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2010년 희망키움통장 3~6기 참여가구의 참여유지비율은, 2010년 10월에 참여가구 대비 99.0%(7,476가구)에서 2011년 10월에는 83.0%(6,263가구), 2012년 10월 기준 64.9%(4,895가구)

로 24개월 동안 약 34.1%p 감소함

- 3~6기 참여가구 대비 중도해지비율은 이와 동일하게 2012년 10월 35.1%(1,075가구)로 3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5> 2010년 희망키움통장 3~6기 참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 (1)

(단위: 가구, %)

구분		참여 가구 (a=b+c)	소계 (b)	참여유지 적립		미납	중도해지 (c)
				5만원	10만원		
'10.10	가구	7,548	7,476	521	6,653	302	72
	비율	100.0	99.0	6.9	88.1	4.0	1.0
'10.11	가구	7,548	7,415	490	6,457	468	133
	비율	100.0	98.2	6.5	85.5	6.2	1.8
'10.12	가구	7,548	7,361	494	6,452	415	187
	비율	100.0	97.5	6.5	85.5	5.5	2.5
'11.1	가구	7,548	7,271	469	6,363	439	277
	비율	100.0	96.3	6.2	84.3	5.8	3.7
'11.2	가구	7,548	7,204	462	6,247	495	344
	비율	100.0	95.4	6.1	82.8	6.6	4.6
'11.3	가구	7,548	7,077	450	6,118	509	471
	비율	100.0	93.8	6.0	81.1	6.7	6.2
'11.4	가구	7,548	6,919	442	6,018	459	629
	비율	100.0	91.7	5.9	79.7	6.1	8.3
'11.5	가구	7,548	6,818	422	5,923	473	730
	비율	100.0	90.3	5.6	78.5	6.3	9.7
'11.6	가구	7,548	6,695	411	5,762	522	853
	비율	100.0	88.7	5.4	76.3	6.9	11.3
'11.7	가구	7,548	6,572	402	5,677	493	976
	비율	100.0	87.1	5.3	75.2	6.5	12.9
'11.8	가구	7,548	6,473	394	5,533	546	1,075
	비율	100.0	85.8	5.2	73.3	7.2	14.2
'11.9	가구	7,548	6,370	398	5,502	470	1,178
	비율	100.0	84.4	5.3	72.9	6.2	15.6
'11.10	가구	7,548	6,263	382	5,436	445	1,285
	비율	100.0	83.0	5.1	72.0	5.9	17.0
'11.11	가구	7,548	6,184	373	5,317	494	1,364
	비율	100.0	81.9	4.9	70.4	6.5	18.1
'11.12	가구	7,548	6,077	368	5,244	465	1,471
	비율	100.0	80.5	4.9	69.5	6.2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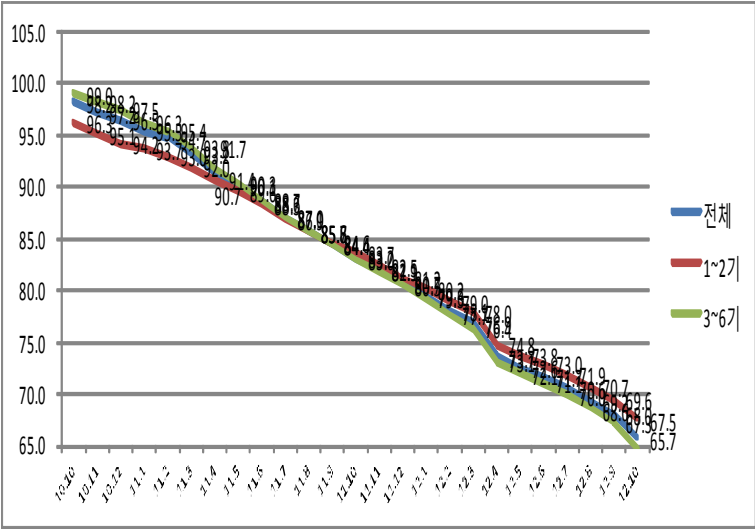
〈표 3-6〉 2010년 희망키움통장 3~6기 참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 (2)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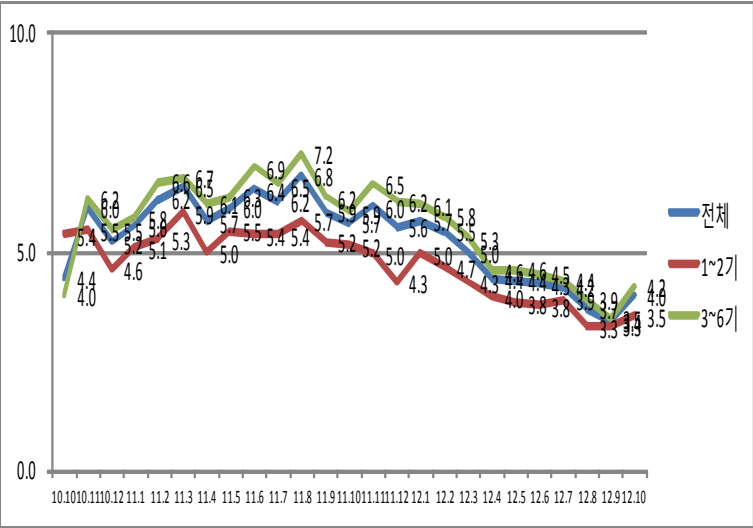
구분		참여 가구 (a=b+c)	참여유지				중도해지 (c)
			소계 (b)	적립		미납	
				5만원	10만원		
'12.1	가구	7,548	5,982	362	5,161	459	1,566
	비율	100.0	79.3	4.8	68.4	6.1	20.7
'12.2	가구	7,548	5,864	353	5,071	440	1,684
	비율	100.0	77.7	4.7	67.2	5.8	22.3
'12.3	가구	7,548	5,769	351	5,017	401	1,779
	비율	100.0	76.4	4.7	66.5	5.3	23.6
'12.4	가구	7,548	5,520	338	4,837	345	2,028
	비율	100.0	73.1	4.5	64.1	4.6	26.9
'12.5	가구	7,548	5,441	326	4,768	347	2,107
	비율	100.0	72.1	4.3	63.2	4.6	27.9
'12.6	가구	7,548	5,368	320	4,708	340	2,180
	비율	100.0	71.1	4.2	62.4	4.5	28.9
'12.7	가구	7,548	5,286	320	4,637	329	2,262
	비율	100.0	70.0	4.2	61.4	4.4	30.0
'12.8	가구	7,548	5,177	316	4,565	296	2,371
	비율	100.0	68.6	4.2	60.5	3.9	31.4
'12.9	가구	7,548	5,080	312	4,507	261	2,468
	비율	100.0	67.3	4.1	59.7	3.5	32.7
'12.10	가구	7,548	4,895	289	4,289	317	2,653
	비율	100.0	64.9	3.8	56.8	4.2	35.1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수별(전체/1~2기/3~6기) 참여유지 및 중도  
해지 현황 변화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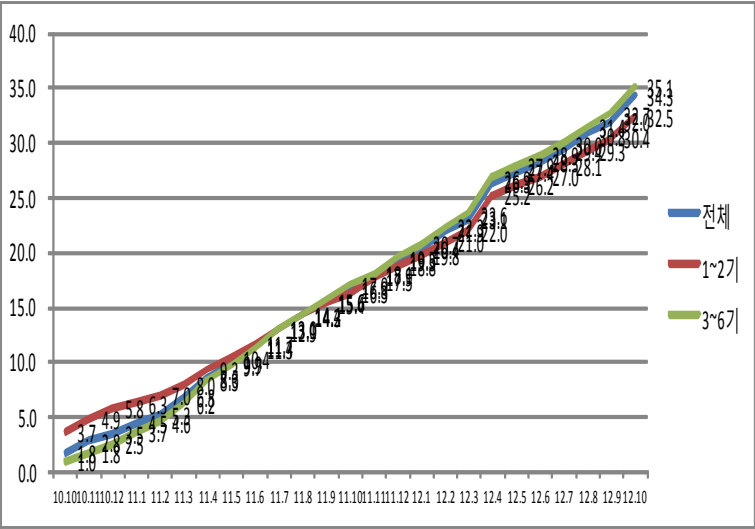
○ 참여유지가구 비율



○ 미납가구 비율



○ 중도해지가구 비율



## 2.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시점 기준 2010년 전체 참여가구 참여 유지비율 및 탈 수급 성공률 예측

□ 사업 종료시점 기준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 참여가구의 참여유지비율 및 예상 탈 수급 성공률 (2012년 10월 기준 시점)

○ 앞서 살펴본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을 바탕으로 희망키움통장 종료시점에서의 2010년 전체(1~6기) 참여가구의 참여유지비율을 예측함

－ 자료수집 기간 동안 나타난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비율 변화 추이가 선형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단순하게 가정할 경우, 종료시점까지 잔여기간 중 추가 중도해지 가구는 약 1,324가구이며, 이를 포함한 전체 중도해지 가구규모는 약 5,102가구(약 4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수치는 2011.12월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결과임

－ 따라서, 2013년 사업 종료시점에서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가구규모 및 비율은 약 5,912가구(약 53.7%)로 예상됨

• 이러한 수치는 2011.12월 기준 예측에 비해 지난 10개월 동안 약 3.4%p 낮아진 결과임

－ 참여기수별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비율, 월평균 중도해지 가구 비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선정기준 완화(최저생계비 70% 이상 ⇨ 60% 이상) 이후 참여한 3~6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최저생계비 60~70%에 해당하는 가구가 다수 포함된 것에 기인함

• 1~2기의 경우, 2013년 4월과 6월에 3년이 경과하지만, 3~6기에 경우 이에 비해 3~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사업 종료시점 최종 참여유지 가구 비율 차이는 약 10%p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구분	신청 초기 중도해지 가구 (‘10.10 0점)	자료수집 기간 (24개월) 중도해지 가구 (‘10.10~‘12.10)	‘12.10 기준 전체 중도해지 가구	24개월간 월평균 중도해지 가구(비율)	‘13년 사업 종료시점까 지 전여기간 중도해지 예상가구	전체 중도해지 예상가구 (비율)	참여유지 예상가구 (비율)
전체	200	3,578	3,778	149.0 (1.35%p)	1,324	5,102 (46.3%)	5,912 (53.7%)
1~2기	128	997	1,125	41.5 (1.20%p)	249	1,374 (39.7%)	2,092 (60.3%)
3~6기	72	2,581	2,653	107.5 (1.42%p)	1,075	3,728 (49.4%)	3,820 (50.6%)

－ (비교) 2011.12 기준 시점 예측 결과

구분	신청 초기 중도해지 가구 (‘10.10 0점)	자료수집 기간 (14개월) 중도해지 가구 (‘10.10~‘11.12)	‘11.12 기준 전체 중도해지 가구	14개월간 월평균 중도해지 가구(비율)	‘13년 사업 종료시점까 지 전여기간 중도해지 예상가구	전체 중도해지 예상가구 (비율)	참여유지 예상가구 (비율)
전체	200	1,924	2,124	137.4 (1.25%p)	2,599	4,723 (42.9%)	6,291 (57.1%)
1~2기	128	525	653	37.5 (1.08%p)	600	1,253 (36.2%)	2,213 (63.8%)
3~6기	72	1,399	1,471	99.9 (1.32%p)	1,999	3,470 (46.0%)	4,078 (54.0%)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3차 패널조사에서 참여가구가 탈 수급 및 자립의지와 관련하여 스스로 응답한 ‘탈수급 가능성(%)’을 반영하여 2010년 전체 참여가구 중 예상 탈 수급 성공률을 산출함

－ 참여가구 스스로 응답한 최종 탈 수급 가능성 평균 91.4%<sup>9)</sup>를 반

9) (2차 패널조사) 탈수급 가능성의 평균은 90.3%였으며, 탈수급 가능성이 100%라고 응답한 가구가 68.9%인 반면, 50% 미만이라는 응답은 1.7%에 불과하였음.

(3차 패널조사 잠정 결과) 탈수급 가능성의 평균은 91.4%였으며, 탈수급 가능성이 100%라고 응답한 가구가 72.9%인 반면, 50% 미만이라는 응답은 2.4%에 불과하였으나, 다소 높아짐.

- 영할 경우, 2010년 전체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중에 사업 종료 시점까지 참여를 유지하고 탈 수급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가구의 비율은 약 49.06%(=53.67%×91.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사업 종료시점이 임박하면서 월평균 중도해지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탈 수급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탈 수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탈 수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참여유지 가구의 평균적인 탈 수급 선택 또는 성공 가능성을 70% 수준까지 하향 조정할 경우 탈 수급 성공률 약 37.57%(=53.67%×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도해지 가구(약 46.33%) 중 조기 탈 수급에 의한 특별 중도해지가 전체 참여가구의 약 1/3인 15.5%를 차지하는 상황을 반영한다면, 이를 포함한 최종적인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의 탈 수급 성공률은 약 53% ~ 6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참여유지가구(5,912가구) 중 예상 탈 수급 성공 또는 탈 수급 선택가구 비율 가정		70% 가정	75% 가정	80% 가정	85% 가정	90% 가정	조사결과 91.4% 반영
전체	탈 수급 가구규모 (가구)	4,138	4,434	4,729	5,025	5,320	5,403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대비 탈 수급가구 비율	37.57%	40.25%	42.94%	45.62%	48.30%	49.06%
1~2 기	탈 수급 가구규모 (가구)	1,464	1,569	1,673	1,778	1,882	1,919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대비 탈 수급가구 비율	42.25%	45.26%	48.28%	51.30%	54.32%	55.29%
3~6 기	탈 수급 가구규모 (가구)	2,674	2,865	3,056	3,247	3,438	3,484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대비 탈 수급가구 비율	35.42%	37.95%	40.48%	43.01%	45.54%	46.12%

□ 이러한 성과는, ‘근로인센티브와 자산형성지원 및 사회서비스(탈수급 지원 및 이행급여) 제공을 통한 탈 수급 촉진’이라는 희망키움통장의 정책 목표에 대한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 따라서, 사업 종료시점(희망키움통장 참여 후 3년 경과시점)까지 참여유지 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사례관리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

□ 또한, 탈수급 성공률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 종료 후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의 적절한 활용과 기초보장수급자로 재진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에 성공하는 가구의 비율임

- 사례관리를 통해서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 뿐만 아니라 탈 수급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탈 수급 및 자립에 성공하여 수급자로 재진입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와 관련하여 탈 수급에 성공하여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자산형성 적립금을 수령한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3.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근로소득장려금 변화 추이 분석결과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별 월별 근로소득장려금 변화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

월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101	1102	1103
전체	N	1,190	1,190	2,603	2,379	2,603	4,015	5,467	7,216	7,216	7,216	7,216	7,216
	mean	134,375	133,367	194,835	266,374	255,892	255,423	284,695	271,959	255,624	254,158	259,275	257,075
	t-value	0.5579	-37.2693***	-17.7027***	-9.4742***	8.6092***	-2.9570**	-1.1187	-5.9012***	16.3840***	16.3840***	1.2819	240,746
17]	mean	134,375	133,367	194,835	256,303	278,138	263,740	279,529	280,629	286,906	248,967	257,249	
	t-value	0.5579	-37.2693***	-5.3975***	4.2719***	-3.8654***	-0.02376	-1.4680	11.2694***	-2.0588*			
	mean			262,438	259,011	300,609	275,937	287,875	289,171	295,573	267,330	272,310	
N=1,149	t-value		1.2903	-7.6444***	-2.9842**	6.1791***	-0.3059	-1.9261	6.9134***	-0.8278			
	mean			235,835	244,985	235,288	228,742	242,583	255,390	223,004	218,686		
	t-value			-1.6661	0.7251	-1.4846	-1.7203	3.7117***	0.4525				
N=264	mean			248,479	236,058.0	244,866.4	250,594.9	258,094.1	243,895.8	239,590			
	t-value			4.1306***	-2.5976**	-1.7619	-2.5558*	4.3992***	1.4797				
	mean			250,104	239,605	250,431	256,673	238,143	226,601				
N=1,452	t-value			3.8608**	-3.4460***	-2.1559*	5.3652***	3.0190**					
	mean			250,199	240,008	253,034	229,676	225,595					
	t-value			3.8681***	-4.4309***	8.5083***	1.1124						

\* p<0.05 \*\*p<0.01 \*\*\*p<0.001

(단위: 원)



(단위: 원)

월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전체	N	7,216	7,216	7,216	7,216	7,216	7,216	7,216	7,216	7,216	7,216	7,216
	mean	240,746	256,411	256,967	267,111	265,977	269,593	274,303	278,083	272,953	270,983	306,663
	t-value	-8.3377***	-0.7212	-5.5100***	1.3158	-2.4295*	-2.8810**	-1.9301	2.4476*	0.8331	-12.2515***	
17]	mean	257,249	270,194	273,567	286,556	282,932	287,308	289,023	306,869	289,235	283,167	316,056
	t-value	-2.7367**	-0.7211	-2.9850**	0.8209	-1.1336	-0.4237	-3.5214***	3.7133***	-5.1105***	-5.1105***	
	mean	272,310	279,384	279,384	294,848	290,382	292,423	291,641	292,481	295,958	287,635	332,487
27]	t-value	-1.2419	.	-3.1794**	1.1158	-0.5511	0.2002	-0.1820	-0.6610	1.3757	-5.8797***	
	mean	218,086	243,974	243,974	255,057	264,746	276,515	273,527	273,466	268,140	278,038	320,542
	t-value	-2.5196*	.	-0.9268	-1.1768	-1.3773	0.3963	0.0061	0.6959	-1.1419	-3.2470**	
37]	mean	239,590	249,477	249,477	269,997	264,707	265,346	268,055	270,561	252,588	275,485	293,687
	t-value	-2.8464**	.	-4.1627***	1.3541	-0.1828	-0.8244	-0.6110	3.5610***	-3.7734***	-2.7412**	
	mean	226,601	247,058	247,058	258,399	253,729	258,019	264,447	272,472	267,085	259,850	307,704
47]	t-value	-5.2869***	.	-2.3157*	1.3469	-1.3518	-1.7999	-1.6734	1.15229	1.3982	-6.9332***	
	mean	225,595	247,179	247,179	246,508	249,786	254,534	266,242	260,467	268,801	256,296	290,823
	t-value	-5.8672***	.	0.1736	-1.0884	-1.6424	-3.1090**	1.4879	-1.9157	2.6500**	-5.8822***	

\* p<0.05 \*\* p<0.01 \*\*\* p<0.001

(단위: 원)

월	1112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전체	N	7,216	7,216	7,216	7,216	7,216	7,216	7,216	7,216	7,216	7,216	7,216
	mean	306,663	288,802	265,465	304,017	304,459	303,052	316,602	306,516	307,983	300,809	300,809
	t-value	6.6276***	7.2798***	-11.8926***	-0.21933	7.0449***	-4.9925***	-5.7442***	5.1623***	-0.6651	2.9947**	2.9947**
171 N=1,190	mean	316,056	304,819	306,583	324,049	318,773	311,301	311,609	340,434	336,518	323,357	313,266
	t-value	1.6630	-0.3038	-2.8738**	1.0596	1.7314	-0.0670	-4.7189***	0.7514	2.8107**	1.8511	1.8511
	mean	332,487	307,228	297,851	335,851	328,812	315,772	327,875	332,650	319,909	312,863	334,201
N=1,149	t-value	4.0290***	1.3404	-4.7942***	1.0448	2.7630**	-2.1819*	0.7418	2.2391*	1.0390	-2.9594**	-2.9594**
	mean	320,542	290,072	270,697	313,326	308,765	311,443	315,697	315,011	307,602	318,633	284,313
	t-value	2.1740*	1.4599	-3.0486**	0.4614	-0.2671	-0.3436	0.0578	1.0109	-1.0368	3.0173**	3.0173**
471 N=1,412	mean	293,687	280,831	267,507	297,500	298,618	286,426	297,283	311,490	294,227	300,484	286,675
	t-value	2.0791*	2.2882*	-4.9677***	-0.2383	2.9294**	-2.2073*	-2.8403**	4.3779***	-1.2735	2.8605**	2.8605**
	mean	307,704	287,119	241,561	296,493	294,563	281,262	296,262	303,190	289,626	300,679	287,178
N=1,452	t-value	3.3086**	5.3999***	-6.4206***	0.44859	3.8797***	-3.3449***	-1.4202	3.4981***	-2.3034*	2.5976**	2.5976**
	mean	290,823	273,439	233,618	280,123	291,003	275,772	28,931	305,345	301,085	304,826	295,525
	t-value	3.2021**	5.0422***	-6.1641***	-2.8239**	5.0263***	-3.0331**	-3.3048**	1.0433	-0.8704	1.8800	1.8800

\* p<0.05 \*\*p<0.01 \*\*\*p<0.001

□ 회망기업통장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 변화(사업 참여시점 대비 최종 분석시점)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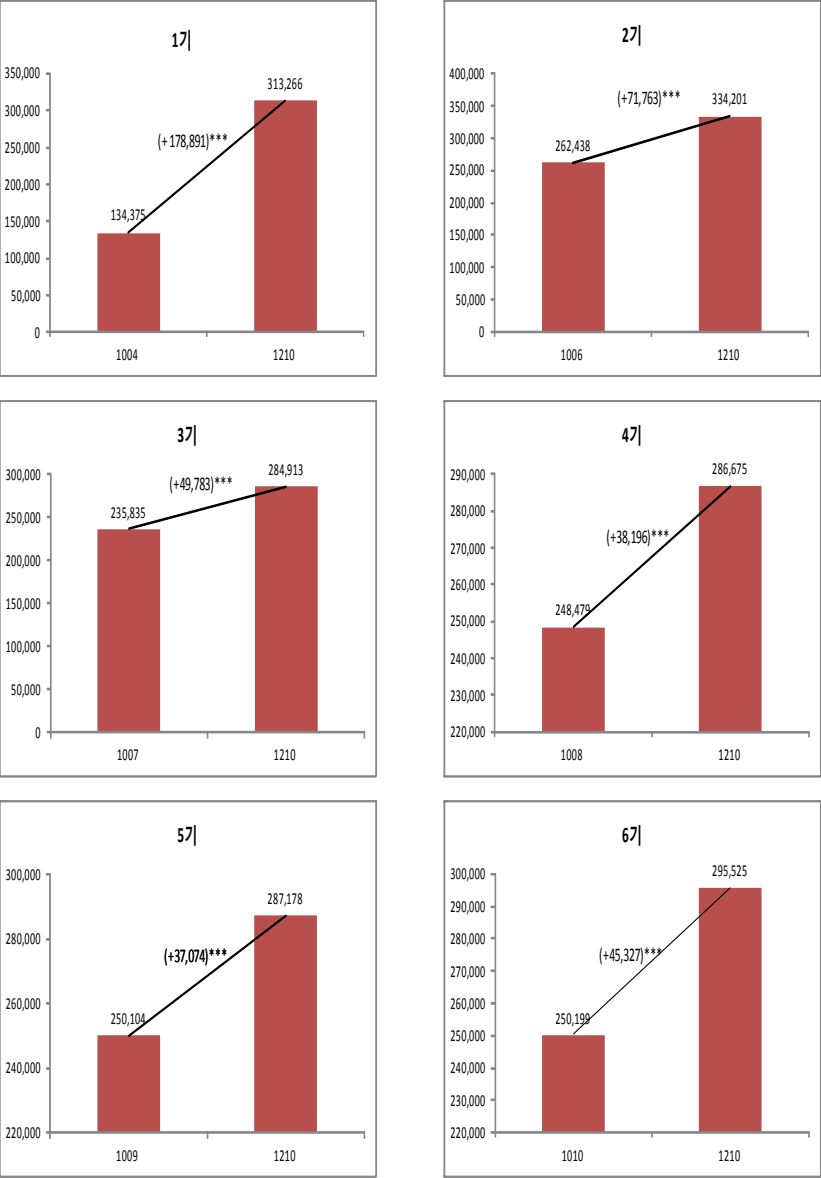
- 참여기수별로 사업 참여시점 대비 최종 분석시점('12.10)까지의 근로소득장려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기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참여시점에 따라 1~2기(2010년 상반기) / 3~6기(2010년 하반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2기의 경우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월	1004	1210	1006	1210	1007	1210	1008	1210	1009	1210	1010	1210
구분	17 (N=1,190)		27 (N=1,149)		37 (N=264)		47 (N=1,412)		57 (N=1,452)		67 (N=1,749)	
mean	134,375	313,266	262,438	334,201	235,835	284,913	248,479	286,675	250,104	287,178	250,199	295,525
t-value	-26.4053***		-8.4695***		-3.3933***		-5.9109***		-6.0885***		-7.8522***	
1~67	17 (N=1,190)		1~27 (N=2,399)		1~37 (N=2,603)		1~47 (N=4,015)		1~57 (N=5,467)		1~67 (N=7,216)	
mean	134,375	313,266	228,044	323,550	255,423	319,631	271,959	308,041	254,158	302,500	257,075	300,809
t-value	-26.4053***		-17.8155***		-13.2319***		-9.1649***		-15.0723***		-15.3573***	
3~67					37 (N=264)		3~47 (N=1,676)		3~57 (N=3,218)		3~67 (N=4,877)	
mean					235,835	284,913	247,929	286,398	242,513	286,760	244,340	289,903
t-value					-3.3933***		-6.4676***		-10.4673***		-13.2341***	

\* p<0.05      \*\*p<0.01      \*\*\*p<0.001

□ 희망키움통장 참여기수별 사업 참여시점 대비 근로소득장려금 변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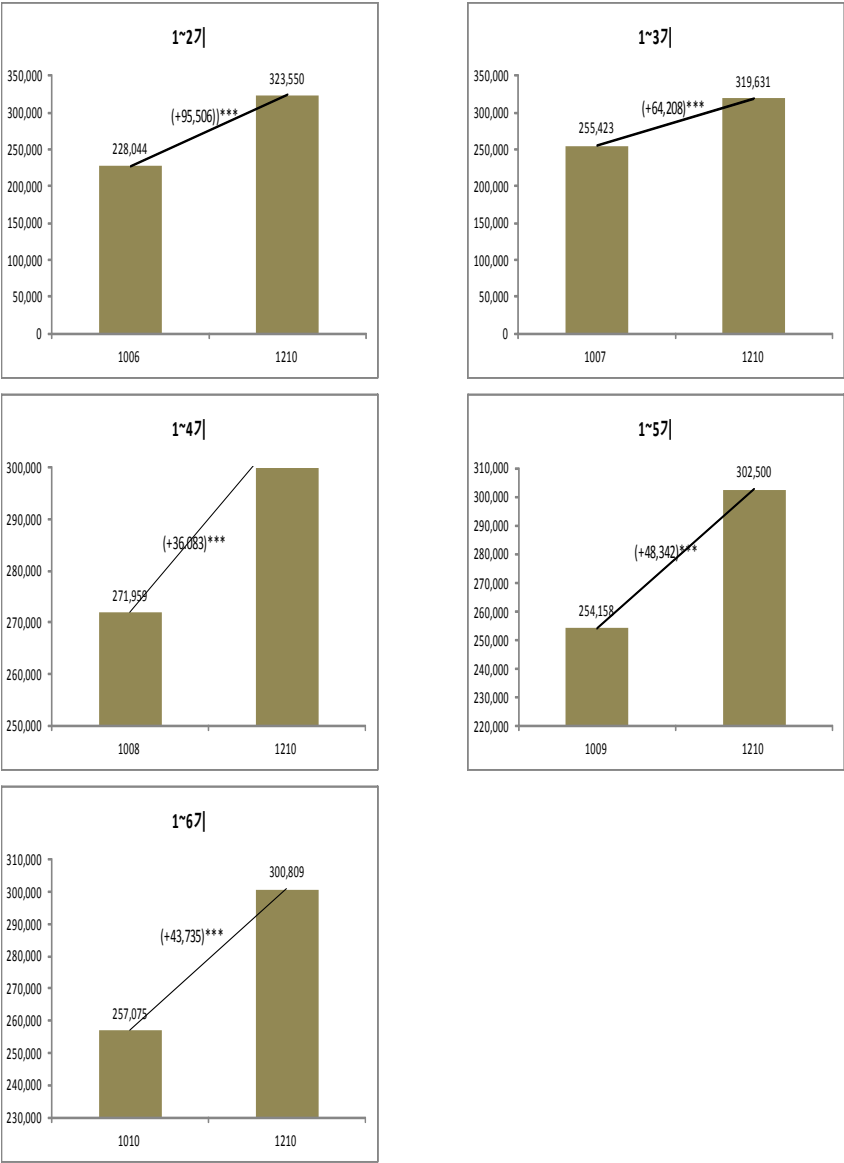
(단위: 원)



주: \* p<0.05 \*\*p<0.01 \*\*\*p<0.001

□ 희망키움통장 참여기수별 사업 참여시점 대비 근로소득장려금 변화 (2)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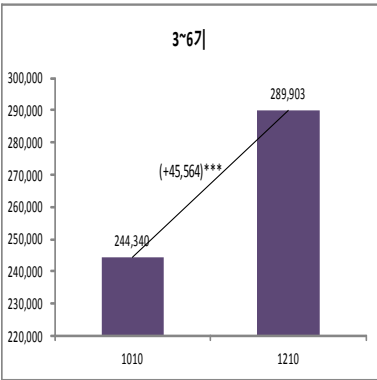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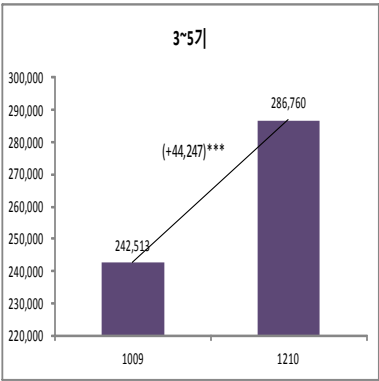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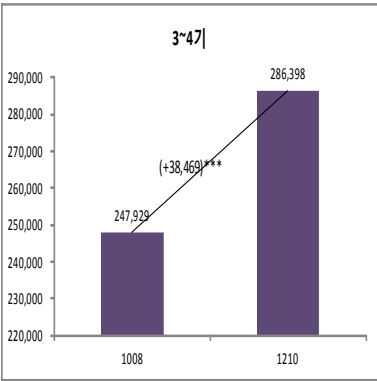


주: \*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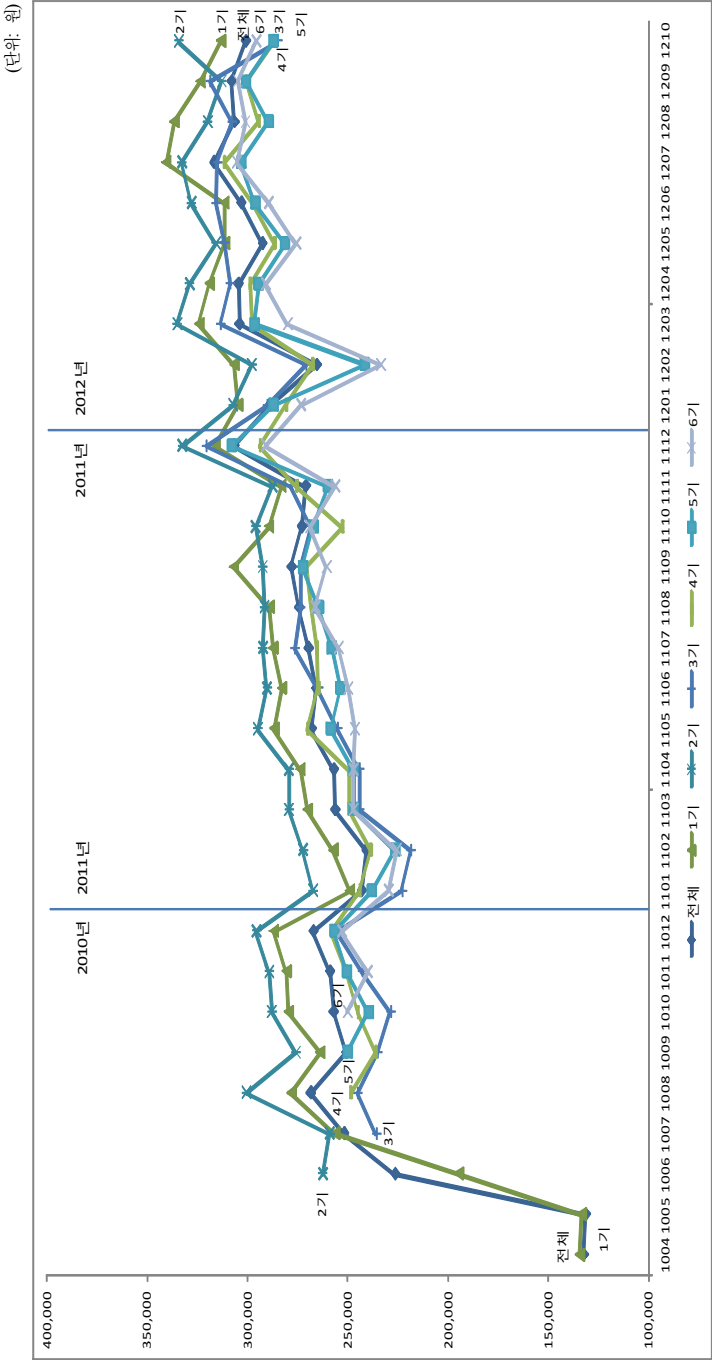
□ 희망키움통장 참여기수별 사업 참여시점 대비 근로소득장려금 변화 (3)

— 2010년 하반기에 참여한 3~6기만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1~2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폭은 작지만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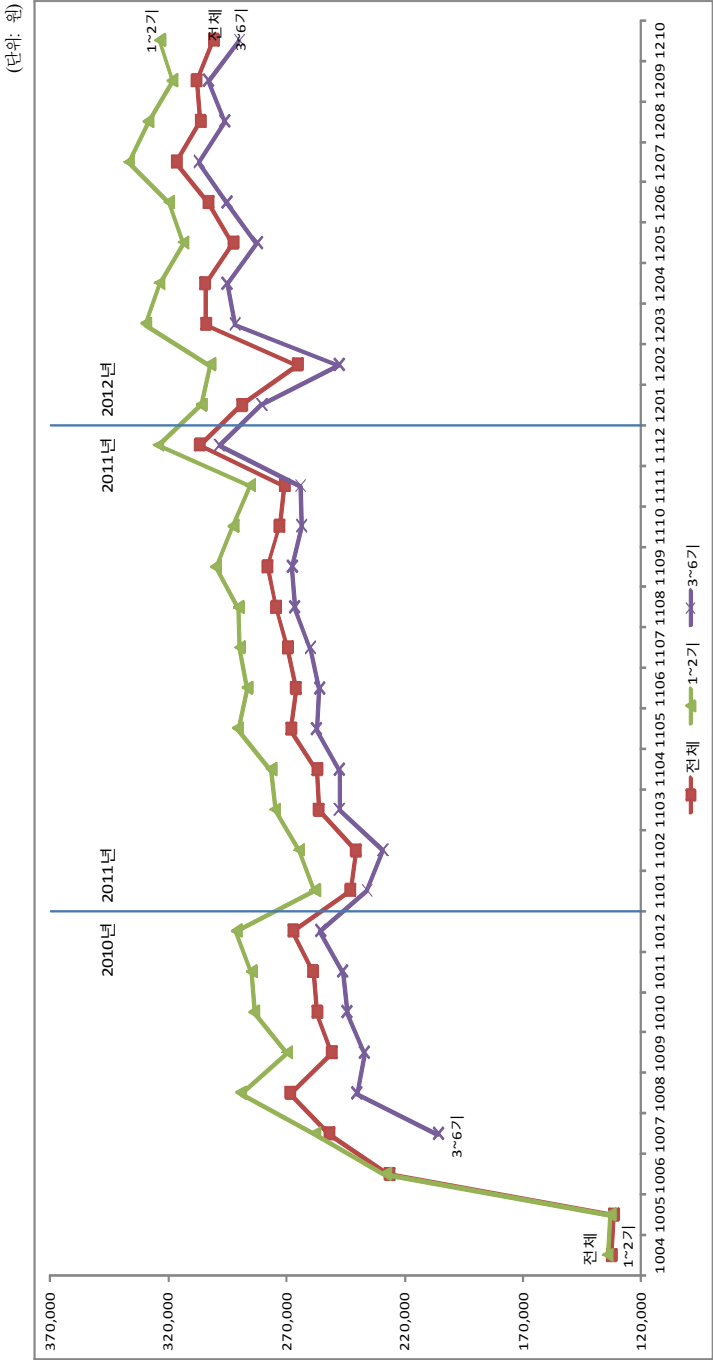
(단위: 원)



□ 희망키움통장 참여기수별 평균 근로소득장려금 월별 변화 추이 (1~6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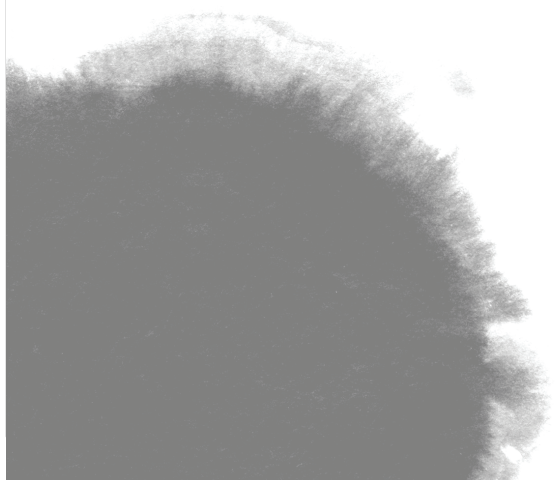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수별 평균 근로소득장려금 월별 변화 추이 (1~2기 / 3~6기 비교)





# 4장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설계





# 제4장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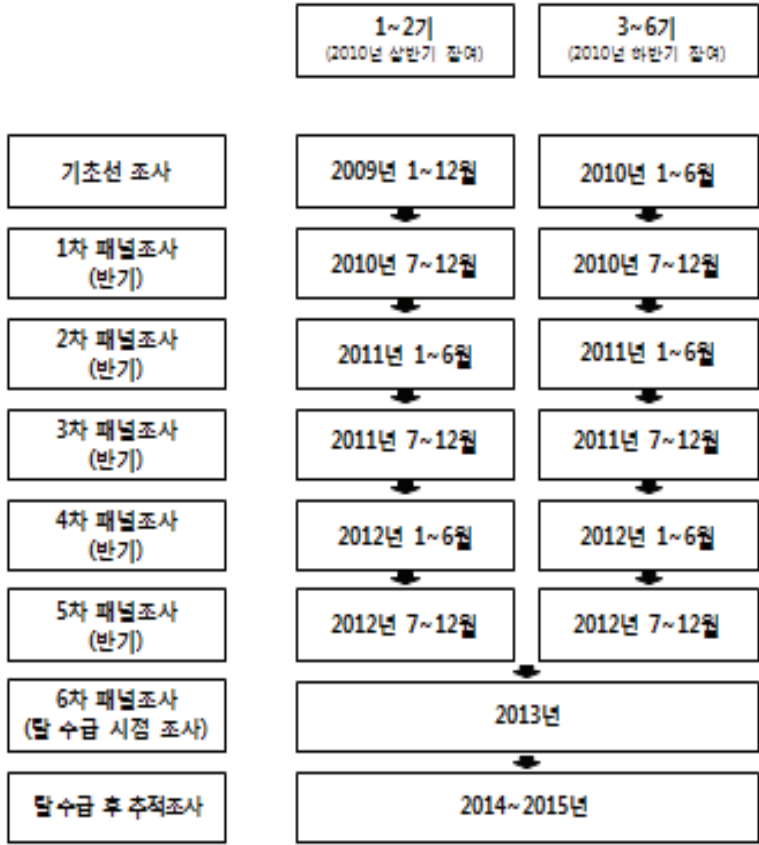
### 제1 절 조사설계

#### 1. 조사구조 및 주기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패널조사의 기본구조는 사업 참여이전 시점에 대한 기초선(Baseline) 조사와 6차에 걸쳐 반기(6개월) 단위로 수행되는 패널조사(반기), 그리고 탈 수급 이후 실질적인 자립여부 및 기초생활보장 재수급 관련 추적조사로 구성됨
  - 앞서 살펴본 외국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평가연구 사례로부터 확인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 참여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효과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험조사설계가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 시행이 선행된 이후 참여가구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시행된 정책을 대상으로 인위적 통제집단을 구성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구성할 수 없음
  -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참여대상 가구의 신청 및 통장 개설에 의해 시작되는 특성에 따라 기초선(Baseline) 조사를 사전에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가구를 대상

으로 초기에 표본을 확정된 직후 희망키움통장 참여 이전 및 신청 과정에 대한 회상을 바탕으로 기초선 조사를 수행함

[그림 4-1] 희망키움통장 기초선·패널조사 구조 및 조사주기(기준시점)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패널조사 대상을 실험집단으로 설정하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패널조사가 진행되어 자료가 구축된 이후 전형적인 의미의 통제 집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초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통계는 한국복지패널 등 유사 조사로부터 비교 가능한 통계를 추출하여 비교할 예정임

- － 특히, 전체 연구기간 동안 수행되는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중 희망키움통장 참여 중도포기 및 조기 탈 수급 등으로 인하여 희망키움통장을 중도에 해지한 탈락 가구 유형별로 비교 집단에 해당하는 일부 표본가구를 재선정하여 탈락 이후 생활실태와 탈 수급 및 자산형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인식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이를 기초로 4~5차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에 해당하는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 가구와 비교집단에 해당하는 중도해지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할 예정임

## 2. 조사대상

- 앞서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 현황 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는 소득기준 변경 및 탈 수급 후 이행급여 지원 등 참여대상 기준 변화 전후에 해당하는 1~2기와 3~6기를 구분하여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함
  -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시행 초기, 1~2기가 신청 및 참여할 당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대비 70% 수준이었으나, 이후 3~6기 신청 및 참여 과정에서 최저생계비 대비 60% 수준으로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급여로 탈 수급 이후 현물급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신청 초기부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 － 여기서는 이러한 참여기수 구분(1~2기/ 3~6기)에 따른 최초 조사대상 표본가구 선정과정 및 규모를 1~2기 참여가구와 3~6기 참여가구로 구분하여 개괄적으로 제시함

□ 2010년 1~2기 조사대상 표본가구

- 2010년 상반기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한 1~2기 전체 참여가구 중에 조사대상 표본가구 선정을 위한 모집단은,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지역자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자활센터에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사례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사례관리요원이 직접 방문 면접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로 설정함
- 조사대상 표본가구 선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2010년 상반기 중 희망키움통장 신청 및 개설을 마친 1~2기 참여가구의 명단을 전국 232개 시군구로부터 취합하여 연구진에 제공함
-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요원에 의해서 1차적으로 신청 초기 중도해지한 탈락 가구를 우선 제외한 후, 나머지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각 지역자활센터별로 1~2기 참여가구 중에서 참여가구수와 실제 배치된 사례관리요원 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조사대상 표본가구 규모를 결정하고 각 지역별 참여가구 중 무작위로 추출함
  - 이 때, 사례관리요원의 담당 업무와 역할, 조사 부담을 고려하여 사례관리요원 1인당 1~2기 조사대상 표본가구를 20가구 이하로 제한하여 지역별 조사대상 표본가구를 최종 추출함
  - 최종적으로, 희망키움통장 1~2기 전체 참여가구 3,466가구 중에 약 53.7%에 해당하는 1,861가구를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함

□ 2010년 3~6기 조사대상 표본가구

- 최초 1차 연구 조사설계 당시 1~2기 참여가구만으로 조사대상 표본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1~2기 참여가구에 대한 표본

추출 및 기초선 조사를 2010년 하반기 실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소득기준 변경 및 탈 수급 이후의 이행급여 지원여부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3~6기 참여가구 중 일부를 조사대상 표본가구로 추가 선정하여 2011년 상반기부터 기초선 조사를 수행함

- 이러한 과정에서 희망키움통장 전체 참여가구 대상 사례관리 등 일선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요원에게 주어진 업무 및 당초 조사 설계에 따라 이미 수행 중인 1~2기 참여가구에 대한 조사(1인당 최대 20가구)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3~6기 표본가구에 대한추가 조사수행의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3~6기 참여가구 중에 조사대상 표본가구의 규모를 축소하여 구성함
- 이처럼 추가로 구성된 3~6기 조사대상 표본가구 선정과 조사과정은 앞서 제시한 1~2기와 동일함
- 2010년 하반기 중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한 3~6기 전체 참여가구 중 조사대상 표본가구 선정을 위한 모집단은,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지역자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자활센터에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사례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사례관리요원이 방문 면접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3~6기 참여가구로 설정함
- 조사대상 표본가구 선정을 위하여, 2010년 하반기 중에 희망키움통장 신청 및 개설을 마친 3~6기 참여가구의 명단을 바탕으로 각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요원에 의해 1차적으로 신청 초기 중도해지한 탈락 가구를 우선 제외한 후, 나머지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각 지역자활센터별로 3~6기 참여가구와 사례관리요원 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조사대상 표본가구 규모를 결정하고 각 지역별 참여가구 중 무작위로 추출함

- 이 때, 사례관리요원의 업무 부담, 이미 수행 중인 1~2기에 대한 조사 부담과 3~6기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조사 부담, 조사 수행 관련 예산과 조사수행을 인한 연구기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요원 1인당 3~6기 조사대상 표본가구를 최대 10가구 이하로 제한한 상태에서 최종 표본가구를 추출함
  - 최종적으로, 희망키움통장 3~6기 전체 참여가구 7,548가구 중 에 약 17.3%에 해당하는 1,861가구를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함
- 이상과 같이, 다양한 제약조건 속에서 3~6기 조사대상 표본가구가 사후에 추가됨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표본 모집단(기수별 전체 참여가구) 규모가 1~2기(3,466가구)보다 2.2배 정도 큰 3~6기(7,548가구) 참여가구의 조사대상 표본가구 규모가 1~2기보다 오히려 작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
- 향후, 조사결과 분석과정에서 참여기수별 표본추출 비율을 고려한 가중치를 활용하여 이를 보완할 예정임

〈표 4-1〉 2010년 1~2기 &amp; 3~6기 전체 참여가구수 및 조사대상 표본가구수

구분	2010년 전체		2010년 1~2기		2010년 3~6기	
	전체 참여가구	조사대상 표본가구	전체 참여가구	조사대상 표본가구	전체 참여가구	조사대상 표본가구
가구 (표본비율)	11,014	3,168 (28.8%)	3,466	1,861 (53.7%)	7,548	1,307 (17.3%)
전체 대비 비중	100%	100%	31.5%	58.7%	68.5%	41.3%

### 3. 조사방법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기초선 조사와 패널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의 협조 하에 위와 같이



사전에 추출된 조사표본을 대상으로, 전국 140여개의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요원이 연구진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방문 면접조사 및 참여가구의 자기기입방식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함

- 주요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의 내용은 2절에서 제시하며, 조사표는 부록으로 첨부함

□ 앞서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집단에 대한 기초선 조사는 사업 참여시점의 차이(1~2기 2010년 상반기, 3~6기 2010년 하반기)로 인해 조사대상 기준시점의 차이가 존재함

- 그러나, 2010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참여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의 조사주기(반기) 및 조사대상 기준시점은 동일함
- 희망키움통장 참여기수별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1~3차)의 조사 대상기간 및 기준시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2〉 참여기수별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의 조사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구분		조사대상기간	기준시점	조사수행
1~2기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	2009.1.1~2009.12.31	2009.12.31	2010.10~12
	1차 패널조사	2010.7.1~2010.12.31	2010.12.31	2011.2~4
3~6기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	2010.1.1~2010.6.30	2010.6.30	2011.3~4
	1차 패널조사	2010.7.1~2010.12.31	2010.12.31	2011.4~6
1~6기 전체 참여가구	2차 패널조사	2011.1.1~2011.6.30	2011.6.30	2011.7~10
	3차 패널조사	2011.7.1~2011.12.31	2011.12.31	2012.2~5
	4차 패널조사	2012.1.1~2012.6.30	2012.6.30	2012.8~11

—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수행

- 일부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요원 배치 지연, 사례관리요원 변동에 따른 추가교육 실시, 조사대상 모집단 명단 확보 지연으로 인한 표본가구 선정의 지연, 표본가구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유지여부 및 조사 지속가능성 확인과 일선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요원의 업무여건 상 조사수행기간의 연장 필요성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1~2기 표본가구에 대한 기초선 조사는 2009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되었으며, 2010년 하반기를 조사대상으로 한 1차 패널조사는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수행되었음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참여대상 소득기준 및 탈 수급 후 이행급여 지원사항이 변경된 이후 참여하기 시작한 3~6기 가구의 경우에는 2011년 3월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표본가구로 추가 선정됨
- 이에 따라, 3~6기 표본가구 대상 기초선 조사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전인 2010년 상반기를 대상으로 2011년 3~4월 실시되었으며, 패널조사는 1~2기 표본가구와 동일하게 2010년 하반기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수행됨
- 한편, 2차 이후 패널조사는 1~6기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동일한 시점에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수행되었는데, 2011년 상반기를 조사대상으로 한 2차 패널조사는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2011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한 3차 패널조사는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수행되었음
- 2013년 4차 연구를 위한 4차 패널조사 역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수행되었음

## 제2절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주요내용

### 1.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공통 조사내용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조사문항의 구성은 가구일반사항, 경제활동상태, 생활비, 소득, 부채·이자, 재산, 주거, 생활여건 등은 2006년 시작되어 매년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복지패널』의 문항 중에 일부를 조사목적에 맞게 활용하였음

〈표 4-3〉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공통 조사영역

조사표 구분	조사 영역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공통	A. 가구일반사항 C. 생활비 E. 부채 및 이자 G. 주거	B. 경제활동상태 D. 소득 F. 재산 H. 생활여건

- 가구원 일반사항은 가구원번호,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장애종류 및 등급, 혼인상태, 동거여부 항목으로 구성됨
- 가구일반사항은 가구형태와 기초보장수급형태, 의료급여 수급형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제활동상태 영역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영역으로 세부적으로 근로능력정도, 경제활동 참여상태, 취업자 일자리 특성, 비취업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생활비 영역은 식료품비 등 비목별 생활비, 부양의무자 대상 사적이전지출,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총생활비 영역으로 세분화됨
- 소득 영역은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원천별 소득 영역으로 세분됨.
-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부문은 만 15세 이상 가구원 대

상으로 1년간 경제활동상태

- 상용근로자 1일 평균 근로시간, 연간 총급여액
- 임시 및 일용근로자 월평균 일한 일수, 일당, 연간 총급여액
- 고용주 및 자영자 연간 총매출액, 연간 총비용, 연간 순소득
- 농림축산업 경영주 경지규모, 자가소비액, 판매수입, 연간총비용, 연간순소득
- 어업경영주 수산물 자가소비액, 판매수입, 연간총비용, 연간순소득
- 기타 근로소득(주 1시간 미만 근로소득)을 파악함
- 원천별 소득(근로소득 제외)은 재산소득, 사회보험 급여액, 민간보험 급여액, 기타정부보조금 총액,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액을 파악함

□ 부채 및 이자 영역은 부채형태(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 탄 계돈, 기타) 및 금액,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기타이자(주거이자 제외))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됨

□ 재산 영역은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 영역으로 세분됨

- 부동산 부문은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 소유부동산 형태와 총액 문항, 전세보증금 준 것, 기타 권리금 등 소유부동산 형태와 총액 문항, 전세보증금 준 것, 기타 권리금 등 점유부동산 형태와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음
- 동산 부문은 보유 농기계 종류 및 가격, 사육 농축산물 종류 및 가격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자산 부문은 소유 금융자산 형태(예금, 적금, 주식·채권, 타기전 부은 계돈, 기타)와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타 재산은 자동차 대수 및 총 가격, 회원권, 선박 등 재산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거 영역은 주택 유형 및 주거 점유형태 부문은 집의 유형, 집의 점유 형태, 사용하는 방의 개수, 건평으로, 주택가격 부문은 주택가격, 주택월

세액 문항으로 구성됨

□ 생활여건 영역은 식생활 관련 문항들과 박탈지표로 구성됨

- 식생활 관련 문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료품 미구입 또는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한 경험 정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식 및 결식 경험여부의 문항으로 구성됨
- 박탈지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세 미납여부, 공과금 미납 여부, 공교육비 미납 여부, 난방 못한 경험 여부, 의료서비스 이용 못한 경험 여부, 신용불량 경험 여부, 건강보험 경험 여부, 의료서비스 이용 못한 경험 여부, 신용불량 경험 여부, 건강 보험 미납으로 인한 보험 급여 자격 정지 여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됨

〈표 4-4〉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공통 조사항목

영역	세부영역 및 세부항목
A. 가구일반사항	1. 가구원수
	2. 가구원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태어난 연도, 동거여부, 교육수준, 혼인상태, 장애종류 및 등급, 건강상태, 만성질환,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여부</li></ul>
	3. 가구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구형태: 단독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조손가구, 기타</li><li>- 노인가구원 유무: 있음, 없음</li><li>- 기초보장수급형태: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특례, 전부수급, 일부수급</li><li>- 의료급여수급형태: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전부수급, 일부수급</li></ul>
B. 경제활동상태	1. 근로능력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로능력정도, 근로무능력사유</li></ul>
	2. 경제활동참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준시점동안)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li></ul>
	3. (취업자) 일자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근로지속가능성, 근로지속불가능사유, 업종, 직종, 사업장규모</li></ul>
	4. (비취업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경제활동 사유</li></ul>
C. 생활비	1. 비목별 생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월평균 식료품비, 월평균 주거비, 월평균 보건의료비, 월평균 교육비, 월평균 기타생활비, 월평균 총 생활비</li></ul>
	2. 생활비 우선지출항목 및 우선제한항목

〈표 4-4〉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 공통 조사항목(계속)

영역	세부영역 및 세부항목
D. 소득	1.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기준시점동안의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연간 총급여액, 상용근로자 1일 평균 근로시간, 연간(6개월간) 총급여액, 임시 및 일용근로자 월평균 일한 일수, 일당, 연간(6개월간) 총급여액, 고용주 및 자영자 연간 총매출액, 연간 총비용, 연간(6개월간) 순소득, 농림축산업 경영주 경자유모, 자가소비액, 판매수입, 연간총비용, 연간(6개월간)순소득, 어업경영주 수산물 자가소비액, 판매수입, 연간총비용, 연간(6개월간)순소득, 기타 근로소득(주 1시간 미만 근로소득)</li> </ul>
	2. 원천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기타정부보조금,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li> </ul>
E. 부채 및 이자	1.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형태(금융기관대출, 서민금융,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탄계돈, 기타부채) 및 부채액</li> </ul>
	2. 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에 대한 연간(6개월간) 이자액</li> </ul>
F. 재산	1. 소유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외 건물(가족명의로 사업장 등), 토지, 양식장 기타 부동산 금액</li> </ul>
	2. 점유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보증금 준 것 및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금액</li> </ul>
	3.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적금, 갯돈불입금, 주식·채권·펀드, 개인연금, 저축성 보험,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 등) 금액</li> </ul>
	4.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대수 및 가격</li> </ul>
	5. 기타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권, 영업용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굴삭기, 포크레인 등 금액</li> </ul>
G. 주거	집의 유형, 집의 점유형태, 사용하는 방의 개수, 건평, 주택가격, 주택(월세액)
H. 생활여건	1. 식생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품 구입 또는 균형잡힌 식사를 못한 경험 정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식 및 결식 경험여부 등</li> </ul>
	2. 박탈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세 미납여부, 공과금 미납 여부, 공교육비 미납 여부, 난방 못한 경험 여부, 의료서비스 이용 못한 경험 여부, 신용불량 경험 여부, 건강보험 경험 여부, 의료서비스 이용 못한 경험 여부, 신용불량 경험 여부, 건강 보험 미납으로 인한 보험 급여 자격 정지 여부 등</li> </ul>

2. 기초선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 앞서 살펴본 공통 조사내용 외에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기초선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복지서비스 수혜여부 및 만족도, 희망키움통장 신청 및 인식, 그리고 직업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의 3가지 추가 조사영역으로 구성됨
  -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 영역은 희망키움통장 사업 신청 및 참여과정,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제도적인 특징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및 자산형성 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조사임

〈표 4-5〉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추가 조사영역

조사표 구분	조사 영역
기초선 조사	I. 복지서비스 J. 신청 및 인식 K. 직업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 복지서비스 영역은 정부제공 복지서비스 수급여부 및 만족도를 파악함
  - 감면(주민세 비과세 및 TV수신료 감면, 전기 및 전화요금 감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주거(임대주택, 월세지원, 주택 및 전세자금 융자, 집수리 사업)
  - 융자(생업자금, 생계비 및 생활안정금 융자)
  - 영유아, 아동·청소년(보육료지원, 방과후공부방, 양육수당, 바우처, 인터넷수능방송,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양로 및 요양시설 입소, 노인돌봄 바우처, 노인주간 보호사업, 노인 건강검진)
  - 장애인(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아동 지원 바우처, 장애인 보장구, 재활기구 보조, 가사간병 서비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 취업(근로장려세제,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 신청 및 인식 영역은 희망키움통장 사업 알게 된 경로, 신청이유, 신청과정상의 어려움, 선정조건에 대한 인지여부, 장려금 동의수준, 근로활동계획, 신청당시 갈등, 수령시 수급자격 상실 동의여부, 탈수급시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정부지원, 탈수급시 걱정되는 부분, 참여이전 저축습관, 재무설계, 자산관리 계획 유무, 미래 대비 상품 등의 문항으로 구성됨
- 직업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영역은 취업 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 경험, 취업상담 경험, 취업알선 경험여부 등으로 구성됨

〈표 4-6〉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주요 조사항목

영역	세부영역 및 세부항목
I. 복지서비스	<p>정부제공의 복지서비스 현수급여부 및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주민세 비과세 및 TV수신료 감면, 전기 및 전화요금 감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li> <li>- 주거(임대주택, 월세지원, 주택 및 전세자금 융자, 집수리 사업)</li> <li>- 융자(생업자금, 생계비 및 생활안정금 융자)</li> <li>- 영유아, 아동·청소년(보육료지원, 방과후공부방, 양육수당, 바우처, 인터넷수능방송,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li> <li>-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양로 및 요양시설 입소, 노인돌봄 바우처, 노인주간 보호사업, 노인 건강검진)</li> <li>- 장애인(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아동 지원 바우처, 장애인 보장구, 재활기구 보조, 가사간병 서비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li> <li>- 취업(근로장려세제 지원,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및 노인일자리)</li> </ul>
J. 신청 및 인식	<p>희망키움통장 사업 알게 된 경로, 신청이유, 신청과정상의 어려움, 선정조건에 대한 인지여부, 장려금 동의수준, 근로활동계획, 신청당시 갈등, 수령시 수급자격 상실 동의여부, 탈수급시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정부지원, 탈수급시 걱정되는 부분, 참여이전 저축습관, 재무설계, 자산관리 계획 유무, 미래대비상품 등</p>
K. 직업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p>취업 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 경험, 취업상담 경험, 취업알선 경험여부 등</p>

3. 패널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패널조사 설문문항 구성은 인식 및 태도,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사례관리 3개 조사 영역으로 구성됨

〈표 4-7〉 희망키움통장 패널조사 추가 조사영역

조사표 구분	조사 영역
패널조사	I. 인식 및 태도 J.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K. 사례관리

- 인식 및 태도 영역은 자산활용계획, 희망키움통장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인식, 저축에 관한 인식,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후 생각,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저축습관에 대한 생각, 탈수급 이후 정부 지원에 대한 도움예상정도 및 희망순위, 희망키움통장 참여 중 정기적 저축 포기 생각 및 이유,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전후 일에 대한 생각 변화, 일을 하는 이유,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복지의식, 불평등 수준, 희망키움통장 참여 중 관심정도, 소비성향, 생활설계, 자아인식, 삶의 만족도, 일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됨
-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영역은 교육경험에 따르는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 경험, 노후설계 및 노후대비 교육 경험,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 교육 경험,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 교육이나 직업훈련 경험, 그리고 향후 교육희망 여부, 취업상담 경험, 취업알선 경험으로 구성됨
- 사례관리 영역은 담당 사례관리자와의 연락 여부 및 방법, 다양한 지원 및 정서적 지지체계 제공, 담당 사례관리자의 도움정도 등으로 구성됨

〈표 4-8〉 희망키움통장 패널조사 주요 조사항목

영역	세부영역 및 세부항목
I. 인식 및 태도	1. 자산활용계획
	2. 희망키움통장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적 자립, 장기적 정기저축, 매칭물의 적절성, 이자창출, 탈수급 시점의 적절성</li> <li>- 목표성 저축, 저축 격려,</li> </ul>
	3. 저축에 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비 중요, 저축 어려움, 소비절제 어려움, 소비요청, 생필품 소비, 탈수급 두려움</li> </ul>
	4.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후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수급 이후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자신감, 경제적인 안정감, 삶에 대한 주도적 자세</li> </ul>
	5.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저축습관에 대한 생각
	6. 탈수급 이후 정부 지원에 대한 도움예상정도 및 희망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li> </ul>
	7. 희망키움통장 참여 중 정기적 저축 포기 생각 및 이유
	8.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전후 일에 대한 생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에 대한 즐거움,</li> </ul>
	9. 일을 하는 이유
	10.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11. 복지인식
	12. 불평등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의 집행, 도시와 농촌의 생활격차, 소득(수입, 봉급, 노임 등)격차, 재산(건축물, 토지, 금융자산 등)격차,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 남성과 여성간의 차별</li> </ul>
	13. 희망키움통장 참여 중 관심정도
	14. 소비성향, 생활설계, 자아인식, 삶의 만족도, 일에 대한 태도 등
J.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1. 교육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 경험, 노후설계 및 노후대비 교육 경험,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 교육 경험,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 교육이나 직업훈련 경험</li> </ul>
	2. 향후 교육희망 여부
	3. 희망하는 교육내용, 교육희망 목적, 교육비희망 이유
	4. 취업상담 경험
	5. 취업알선 경험
K. 사례관리	1. 담당 사례관리자와의 연락 여부 및 방법
	2. 다양한 지원 및 정서적 지지체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지원 및 정서적 지지체계 제공여부, 상담빈도, 소요시간</li> </ul>
	3. 담당 사례관리자의 도움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키움통장 유지, 희망키움통장 관련 궁금증 및 고충해소 등 문제 해결, 탈수급 이후 미래에 대한 계획 수립</li> </ul>

□ 측정도구

－ 일에 대한 생각(패널조사표 문8)

- 근로태도는 ‘일에 대한 준비태세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정의
- 기존 연구에서는 ‘일을 하려는 마음의 상태’ 또는 ‘일을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근로의욕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연구하였음
- 근로태도의 개념과 근로의욕의 개념이 동일하다고 여겨지므로 근로태도를 기존의 연구 중에서 근로의욕에 대하여 연구를 한 것에 근거를 삼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희망키움통장 참여자의 일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미(2002)와 노효경(2003) 연구에서 Latham & Steele(1983)과 Erez & Arad(1986), Mossholder(1980)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재인용한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총 8문항으로 재구성함

－ 자아존중감(패널조사표 문16)

-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조혜진(2006) 연구에서 활용된 Tafarodi & Swann(2001)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재인용함
-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기호감’과 ‘자기유능성’의 두 하위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자기호감’ 9문항, ‘자기유능성’ 6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됨

－ 삶의 만족도(패널조사표 문17)

- 삶의 만족도 척도는 Havighurst와 동료들에 의하여 개발된 LSI-A(Life Satisfaction Index-A)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5개의 구성요소를 가진 18개 문항으로 되어 있음
- 첫째, 현지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열성 또는 자아투입, 둘째, 자산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느끼는 통합력, 셋째, 인생에서 바라던 목적과 성취한 목적

간의 일치감, 넷째, 긍정적인 자아관, 다섯째, 행복하고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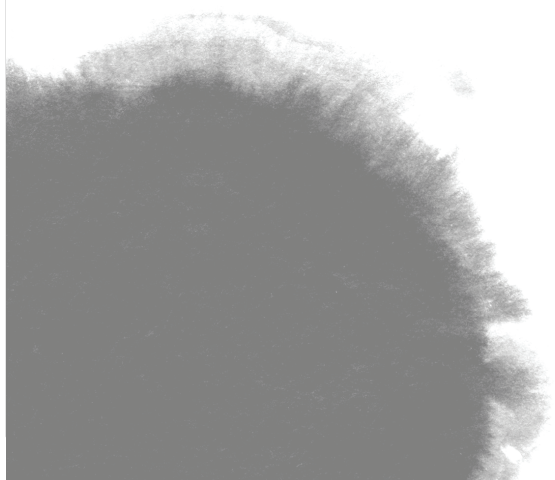
— 일에 대한 태도(패널조사표 문18)

- 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경숙 외(2001)와 이병하(2003)가 개발 및 보완한 근로의욕 측정도구를 노희경(2004) 연구에서 재인용하였음
- 근로의욕의 개념은 경제적 자립달성을 위한 매개적 요소인 자활의지 수준으로 정의함(노희경, 2004)
- 자활의지를 묻는 총 9문항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및 일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묻는 4개 문항, 근로활동의 가치에 대해 묻는 2개 문항, 근로를 통한 국가보호탈피의지를 묻는 2개 문항, 그리고 근로의욕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정도를 묻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됨



# 5장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결과: 가구특성 및 경제상태







## 제5장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결과 : 가구특성 및 경제상태

### 제1 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 수행결과

□ 최초 1차 연구 조사설계 당시 1~2기 참여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표본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한 상태에서 1~2기 참여가구에 대한 표본추출과 기초선 조사를 2010년 하반기에 실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소득기준 변경 및 탈 수급 이후의 이행급여 지원여부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3~6기 참여가구를 조사대상 표본가구로 추가 선정하여 2011년 상반기부터 기초선 조사를 수행함

— 1~2기 표본가구에 대한 기초선 조사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되었으며, 2010년 하반기를 조사대상으로 한 1차 패널조사는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였음

- 일부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요원 배치 지연, 사례관리요원 변동에 따른 추가교육 실시, 조사대상 모집단 명단 확보 지연으로 인한 표본가구 선정의 지연, 표본가구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유지여부 및 조사 지속가능성 확인과 일선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요원의 업무여건 상 조사수행 기간 연장 필요성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조사 수행시점이 다소 늦었음

— 참여대상 소득기준 및 탈 수급 후 이행급여 지원사항 등이 변경된 이후 참여하기 시작한 3~6기 가구의 경우, 2011년 3월 보건복지

부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 기간 중에 사후적으로 희망키움통장 기초선 조사 및 패널조사의 표본가구에 추가 선정됨

- 이에 따라, 3~6기 표본가구에 대한 기초선 조사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전인 2010년 상반기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는 1~2기 표본가구와 동일한 시점에 해당하는 2010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수행되었음

#### □ 희망키움통장 표본가구에 대한 기초선 조사 수행결과

- 희망키움통장 1~2기 참여가구에 대한 기초선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표본가구 1,861가구 중에 1,603가구(1~2기 원표본 가구)에서 기초선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완료율은 86.1%로 나타남
- 연구수행 중 표본으로 추가된 희망키움통장 3~6기 참여가구의 경우, 조사대상으로 추출한 전체 1,307가구 가운데 기초선 조사가 완료된 원표본 가구는 1,098가구로 완료율은 84.0%에 해당하며, 1~2기에 비해 약 2.1%p 낮았음
- 전체 기초선 조사대상 표본가구 3,168가구 중 기초선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85.3%인 2,701가구로 집계되었음
  - 기초선 조사가 완료된 2,701가구가 최종 원표본 가구에 해당하여 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패널조사를 실시함

〈표 5-1〉 희망키움통장 표본가구(1~2기 / 3~6기) 기초선 조사 수행결과

(단위: 가구)

구분	전체 참여 가구	기초선 조사대상 표본가구	기초선 조사 완료가구	기초선 조사 완료율 (%)	기초 조사 미완	조사 거부	기타 (중도탈락/ 탈수급 /사망 등)
1~2기	3,466	1,861	1,603	86.1	258	208	50
3~6기	7,548	1,307	1,098	84.0	209	198	11
전체	11,014	3,168	2,701	85.3	467	406	61

- 한편,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1~2기 표본가구 258가구 중에는 조사거부가 208가구였으며, 나머지 50가구는 조사기간 전 중도해지 및 조기 탈수급 등의 사유로 인해 조사가 완료되지 못함
  - 3~6기 표본가구 중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209가구 중에는 조사거부가 198가구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 이처럼 조사거부가 초기부터 다수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외국의 평가연구와 달리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시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임
  - 일부 표본가구의 경우 패널조사에 참여를 강제할 경우 희망키움통장 사업 자체의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존재함

## 제2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일반적 특성

### □ 지역분포

- 1~6기 전체 참여가구의 지역분포는 경기(15.1%), 서울(9.4%)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지역은 울산(1.1%), 제주(2.1%) 순으로 나타남
  - 1~2기 참여가구의 지역분포는 전체적인 흐름과 동일하게 경기(16.5%), 서울(11.8%)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지역은 울산(1.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2.1%), 제주(2.4%)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는 경기(13.2%), 서울과 부산(9.7%)이 역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지역은 울산(1.6%), 제주(1.7%)순이었음
  - 참여기수별 지역분포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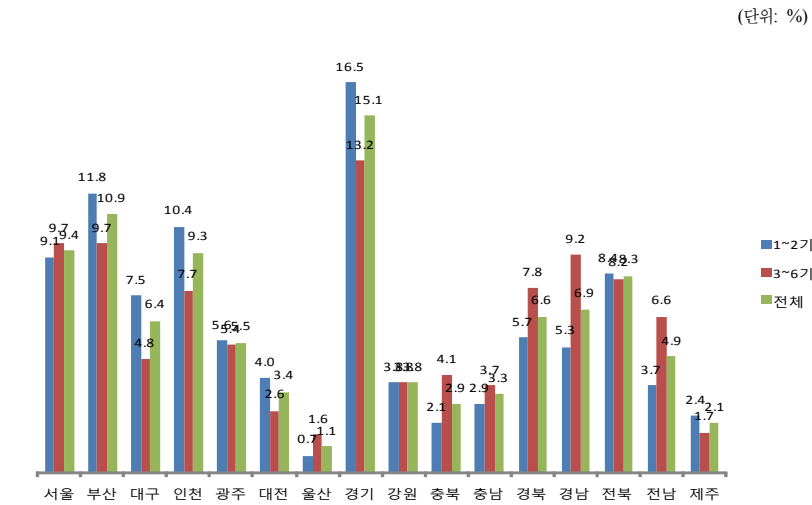
〈표 5-2〉 참여기수별 지역분포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서울	9.1	9.7	9.4
부산	11.8	9.7	10.9
대구	7.5	4.8	6.4
인천	10.4	7.7	9.3
광주	5.6	5.4	5.5
대전	4.0	2.6	3.4
울산	0.7	1.6	1.1
경기	16.5	13.2	15.1
강원	3.8	3.8	3.8
충북	2.1	4.1	2.9
충남	2.9	3.7	3.3
경북	5.7	7.8	6.6
경남	5.3	9.2	6.9
전북	8.4	8.2	8.3
전남	3.7	6.6	4.9
제주	2.4	1.7	2.1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69.297^{**}$  ( $p < .01$ )

〔그림 5-1〕 참여기수별 지역분포



$\chi^2 = 69.297^{**}$  ( $p < .01$ )

## □ 가구원수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 가구원수는 3.12명으로 가구원수 분포는 3명(38.4%)이 가장 높았으며, 4명(22.9%)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23명, 3~6기 참여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96명이었으며, 이는 참여기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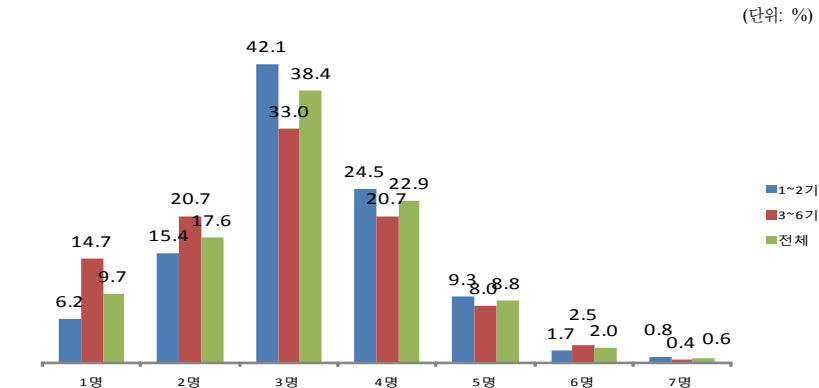
〈표 5-3〉 참여기수별 가구원수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평균 (표준편차)	3.23 (1.114)	2.96 (1.266)	3.12 (1.187)
1명	6.2	14.7	9.7
2명	15.4	20.7	17.6
3명	42.1	33.0	38.4
4명	24.5	20.7	22.9
5명	9.3	8.0	8.8
6명	1.7	2.5	2.0
7명	0.8	0.4	0.6
합 계	100.0	100.0	100.0

$t = 5.864^{**}$  ( $p < .01$ );  $\chi^2 = 80.510^{**}$  ( $p < .01$ )

〔그림 5-2〕 참여기수별 가구원수



$t = 5.864^{**}$  ( $p < .01$ );  $\chi^2 = 80.510^{**}$  ( $p < .01$ )

□ 가구주의 성별

- 전체 참여가구 중 가구주의 성별은 여성(63.7%)이 남성(36.3%)에 비해 27.4%p 높았음
- 1~2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성별은 여성이 64.1%, 남성이 35.9%, 3~6기 참여가구의 경우에도 여성이 63.0%, 남성이 37.0%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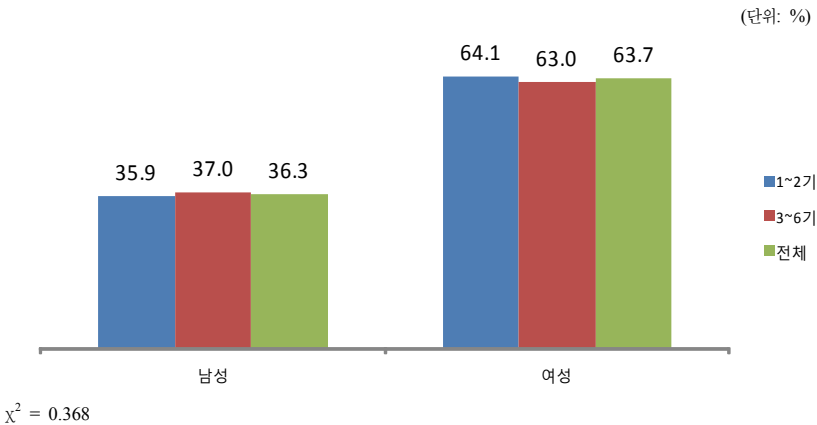
〈표 5-4〉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성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남성	35.9	37.0	36.3
여성	64.1	63.0	63.7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0.368$

〔그림 5-3〕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성별



## □ 가구주의 연령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45.75세로 연령집단별로 보면 40~49세(56.8%)가 가장 많았으며, 50~64세(27.1%), 30~39세(13.2%)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45.24세, 3~6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46.51세로 연령집단별 분포는 약간의 비율 차이만 보일 뿐 전체적인 흐름 그 맥을 같이함

〈표 5-5〉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연령별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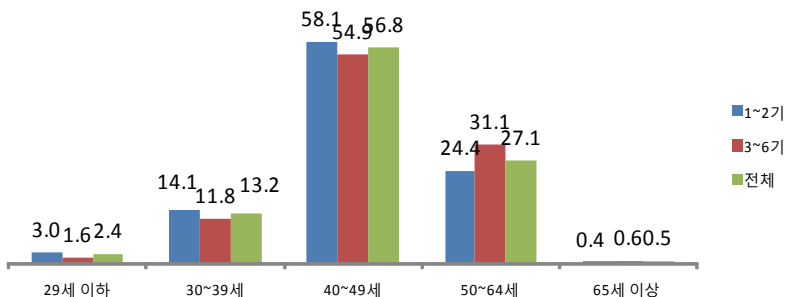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평균	45.24	46.51	45.75
(표준편차)	(7.229)	(7.455)	(7.346)
29세 이하	3.0	1.6	2.4
30~39세	14.1	11.8	13.2
40~49세	58.1	54.9	56.8
50~64세	24.4	31.1	27.1
65세 이상	0.4	0.6	0.5
합 계	100.0	100.0	100.0

$t=-4.392^{**}$  ( $p<.01$ );  $\chi^2=19.540^{**}$  ( $p<.01$ )

〔그림 5-4〕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연령별 집단

(단위: %)



$t=-4.392^{**}$  ( $p<.01$ );  $\chi^2=19.540^{**}$  ( $p<.01$ )

□ 가구주의 동거여부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동거여부는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이 97.9%로 대부분이 가구원과 동거하고 있음
- 참여기수별 동거여부 역시 1~2기의 97.8%, 3~6기의 97.9%가 가구원과 같이 살고 있으며, 단지 1~2기의 2.2%, 3~6기의 2.1%만이 같이 살고 있지 않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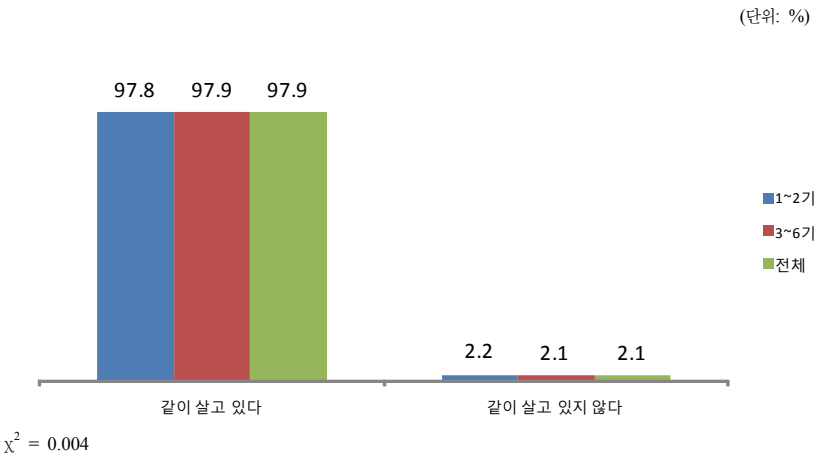
〈표 5-6〉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동거여부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같이 살고 있다	97.8	97.9	97.9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2	2.1	2.1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0.004$

〔그림 5-5〕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동거여부





## □ 가구의 교육수준

- 전체 참여가구 가구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55.2%)가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17.9%), 초등학교(8.7%), 대학 또는 전문대(7.1%)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가구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57.3%), 중학교(17.3%), 대학 또는 전문대(8.2%), 초등학교(8.1%)순이었음
- 반면, 3~6기 참여가구 가구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52.0%), 중학교(18.7%), 초등학교(10.9%), 대학 또는 전문대(9.3%)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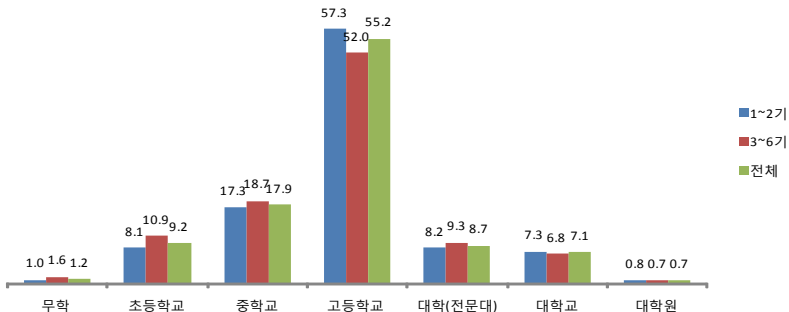
〈표 5-7〉 참여기수별 가구의 교육수준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무학	1.0	1.6	1.2
초등학교	8.1	10.9	9.2
중학교	17.3	18.7	17.9
고등학교	57.3	52.0	55.2
대학(전문대)	8.2	9.3	8.7
대학교	7.3	6.8	7.1
대학원	0.8	0.7	0.7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2.256$   
 [그림 5-6] 참여기수별 가구의 교육수준

(단위: %)

 $\chi^2 = 12.256$

□ 가구주의 혼인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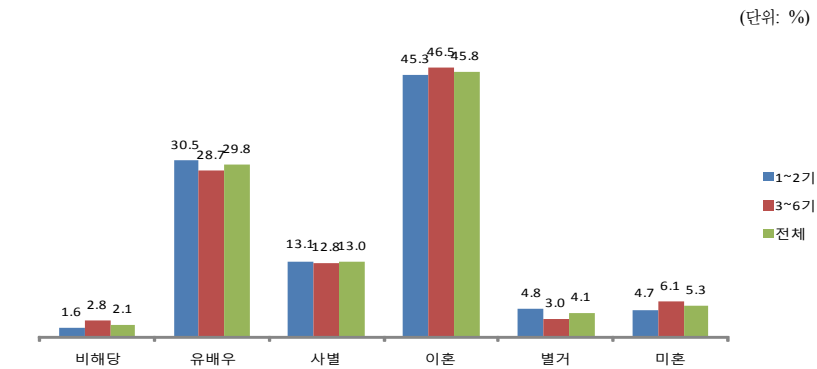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이혼(45.8%)이 가장 많았으며, 유배우(29.8%), 사별(13.0%)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혼인상태 역시 이혼(45.3%), 유배우(30.5%), 사별(13.1%)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이혼(46.5%), 유배우(28.7%), 사별(12.8%)순으로 동일하나 그 다음은 미혼(6.1%), 별거(3.0%)순으로 1~2기와 조금 다른 양상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표 5-8〉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혼인상태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비해당	1.6	2.8	2.1
유배우	30.5	28.7	29.8
사별	13.1	12.8	13.0
이혼	45.3	46.5	45.8
별거	4.8	3.0	4.1
미혼	4.7	6.1	5.3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2.418^*$  ( $p < .05$ )

〔그림 5-7〕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혼인상태



$\chi^2 = 12.418^*$  ( $p < .05$ )

## □ 장애종류 및 등급

- 전체적으로 장애종류는 비장애인(89.8%)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체장애(5.8%)순이었으며, 장애등급은 비해당(90.7%), 6급(2.6%), 5급(2.0%)순이었음

〈표 5-9〉 참여기수별 가구의 장애종류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비해당(비장애인)	90.8	88.3	89.8
지체	5.0	7.0	5.8
뇌병변	0.5	0.4	0.4
시각	1.0	1.2	1.1
청각	0.5	0.4	0.5
언어	0.1	0.1	0.1
지적	0.1	0.2	0.1
정신	0.1	0.4	0.2
신장	0.5	1.3	0.9
심장	0.3	-	0.2
호흡기	0.4	0.3	0.4
간	0.1	0.2	0.1
안면	0.1	-	0.0
장루요루	0.1	-	0.0
간질	0.1	0.1	0.1
비등록장애인	0.5	0.1	0.4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2.617$ 

〈표 5-10〉 참여기수별 가구의 장애등급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비해당	91.6	89.5	90.7
1급	0.2	0.6	0.4
2급	1.0	0.7	0.9
3급	1.2	1.9	1.5
4급	1.5	1.2	1.4
5급	1.7	2.4	2.0
6급	2.0	3.5	2.6
7급	0.7	0.3	0.5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2.617$

□ 가구주의 건강상태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28.3%)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6.1%), 보통이다(25.8%)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건강상태는 보통이다(27.8%), 건강한 편이다(26.9%),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6.4%)순이었으며, 3~6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건강상태는 보통이다(2.7%), 건강한 편이다(27.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5.7%)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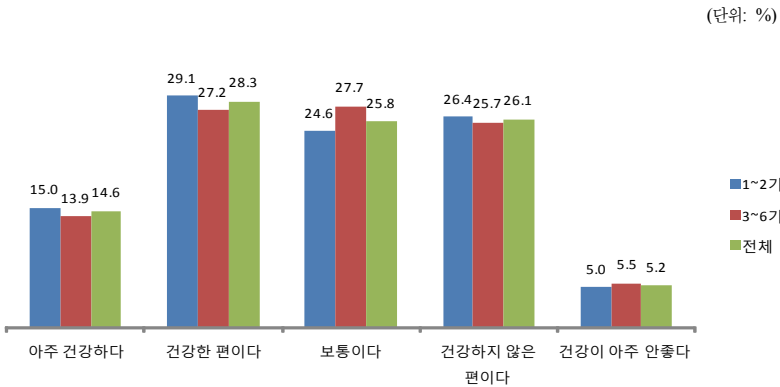
〈표 5-11〉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아주 건강하다	15.0	13.9	14.6
건강한 편이다	29.1	27.2	28.3
보통이다	24.6	27.7	25.8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6.4	25.7	26.1
건강이 아주 안 좋다	5.0	5.5	5.2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4.163$

〔그림 5-8〕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건강상태



$\chi^2 = 4.163$

## □ 만성질환

- 전체 참여가구 가구의 만성질환은 비해당(69.4%)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 투병투약중(23.9%)순이었음
- 1~2기와 3~6기 참여가구 가구주 모두 비해당, 6개월 이상 투병투약중, 3개월 미만 투병투약중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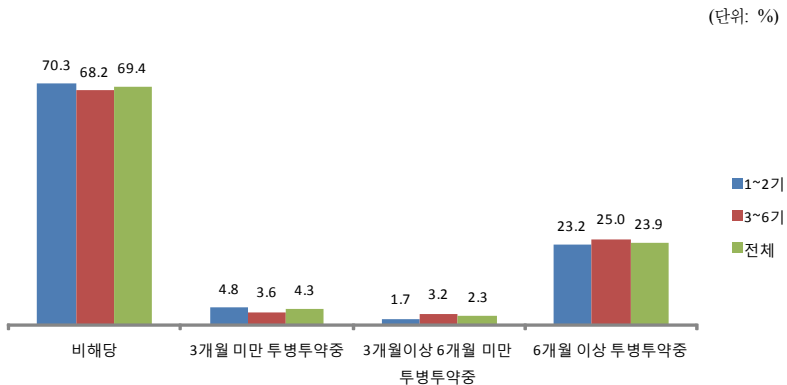
〈표 5-12〉 참여기수별 가구의 만성질환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비해당	70.3	68.2	69.4
3개월 미만 투병투약중	4.8	3.6	4.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중	1.7	3.2	2.3
6개월 이상 투병투약중	23.2	25.0	23.9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9.331^* (p < .05)$$

〔그림 5-9〕 참여기수별 가구의 만성질환



$$\chi^2 = 9.331^* (p < .05)$$

□ 금융채무불이행여부

- 전체 참가가구 가구의 금융채무불이행 여부를 살펴보면 비해당이 74.3%, 해당이 25.7%이었음
- 1~2기 참가가구 가구의 금융채무불이행 여부는 비해당 75.2%, 해당이 24.8%이었음
- 3~6기 참가가구 가구의 금융채무불이행 여부는 비해당 73.1%, 해당이 26.9%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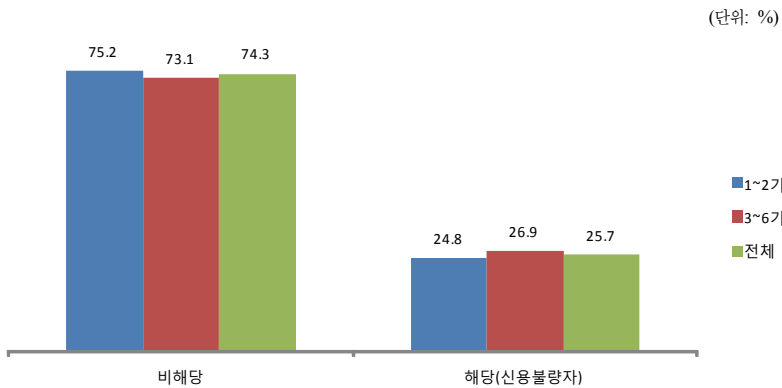
〈표 5-13〉 참여기수별 가구의 금융채무불이행여부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비해당	75.2	73.1	74.3
해당(신용불량자)	24.8	26.9	25.7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418$

〔그림 5-10〕 참여기수별 가구의 금융채무불이행여부



$\chi^2 = 1.418$

## □ 가구형태

- 전체 참여가구 가구형태는 모자가구(45.9%), 기타(33.2%), 단독 (14.5%), 부자(5.9%)가구 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가구형태는 모자(46.4%), 기타(36.2%), 단독 (10.5%), 부자(6.5%)가구 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가구형태는 모자(45.2%), 기타(29.0%), 단독 (20.2%), 부자(5.0%)가구 순으로 비율순서는 동일하나 가구형 태별 실제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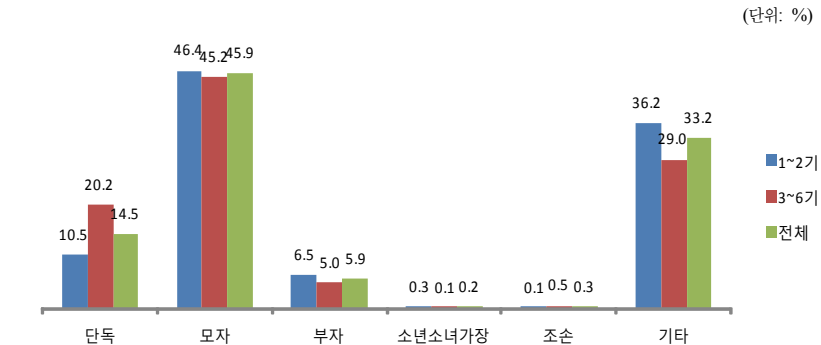
〈표 5-14〉 참여기수별 가구형태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단독	10.5	20.2	14.5
모자	46.4	45.2	45.9
부자	6.5	5.0	5.9
소년소녀가장	0.3	0.1	0.2
조손	0.1	0.5	0.3
기타	36.2	29.0	33.2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57.617^{**} (p < .01)$$

[그림 5-11] 참여기수별 가구형태



$$\chi^2 = 57.617^{**} (p < .01)$$

□ 노인가구원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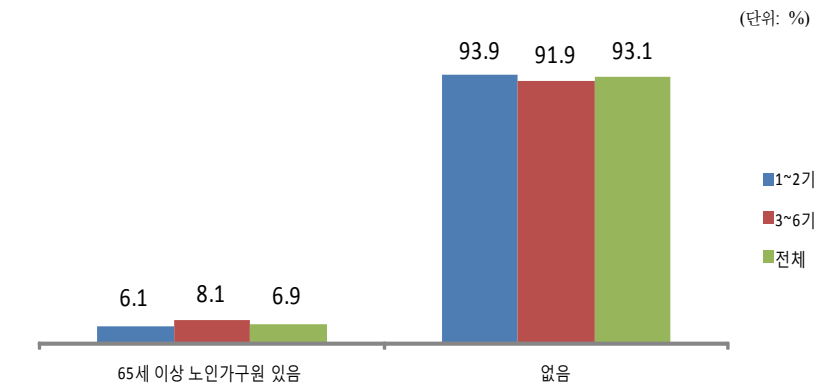
- 전체 참여가구 중 노인가구원 유무의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원이 없는 경우가 93.1%로 노인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비해 무려 86.2%p 높음
  - 1~2기 참여가구 노인가구원 유무의 비율은 노인가구원이 없는 경우가 93.9%, 노인가구원이 있는 경우가 6.1%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노인가구원 유무의 비율은 노인가구원이 없는 경우가 91.9%, 노인가구원이 있는 경우가 8.1%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표 5-15〉 참여기수별 노인가구원 유무

구분	참여기수		(단위: %)
	1~2기	3~6기	전체
65세 이상 노인가구원 있음	6.1	8.1	6.9
없음	93.9	91.9	93.1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3.751^* \text{ (} p < .05 \text{)}$

〔그림 5-12〕 참여기수별 노인가구원 유무



$\chi^2 = 3.751^* \text{ (} p < .05 \text{)}$



## □ 기초보장수급형태

- 전체 참여가구 기초보장수급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수급가구(55.5%), 조건부수급가구(37.4%), 특례가구(7.1%)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기초보장수급형태는 일반수급가구(61.1%), 조건부수급가구(38.5%), 특례가구(0.4%)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기초보장수급형태는 일반수급가구(47.7%), 조건부수급가구(35.7%), 특례가구(16.6%)순으로 비율순서는 동일하나 가구형태별 실제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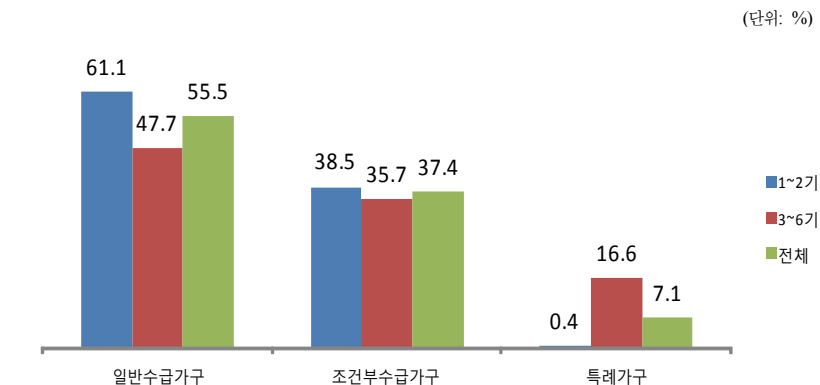
〈표 5-16〉 참여기수별 기초보장수급형태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일반수급가구	61.1	47.7	55.5
조건부수급가구	38.5	35.7	37.4
특례가구	0.4	16.6	7.1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58.486^{**} (p < .01)$$

〔그림 5-13〕 참여기수별 기초보장수급형태



$$\chi^2 = 258.486^{**} (p < .01)$$

□ 기초보장수급형태(전부수급/일부수급)

- 전체 참여가구 기초보장수급형태를 살펴보면 가구원 전부수급이 88.6%, 가구원 일부수급으로 11.4%로 77.2%p 높음
- 1~2기 참여가구 기초보장수급형태는 가구원 전부수급이 88.6%, 가구원 일부수급이 11.4%임
- 3~6기 참여가구 기초보장수급형태 역시 가구원 전부수급이 88.7%, 가구원 일부수급이 11.3%임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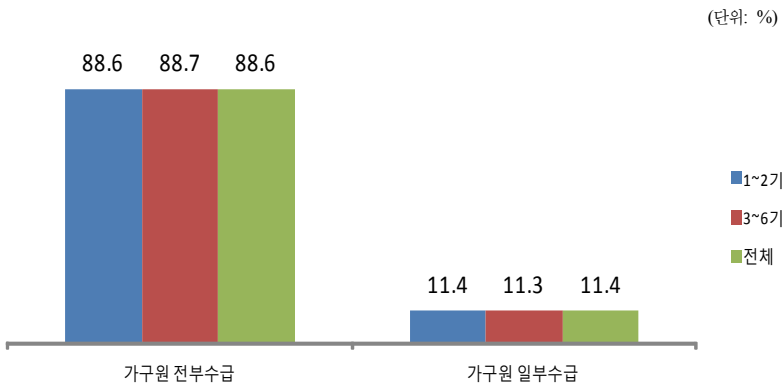
〈표 5-17〉 참여기수별 기초보장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가구원 전부수급	88.6	88.7	88.6
가구원 일부수급	11.4	11.3	11.4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0.002$

〔그림 5-14〕 참여기수별 기초보장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chi^2 = 0.002$

## □ 의료급여 수급형태

- 전체 참여가구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의료급여(2종)가 89.1%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급여(1종) 8.5%, 비해당 2.4%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의료급여(2종) 88.9%, 의료급여(1종) 8.3%, 비해당 2.8%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의료급여(2종) 89.3%, 의료급여(1종) 9.0%, 비해당 1.8%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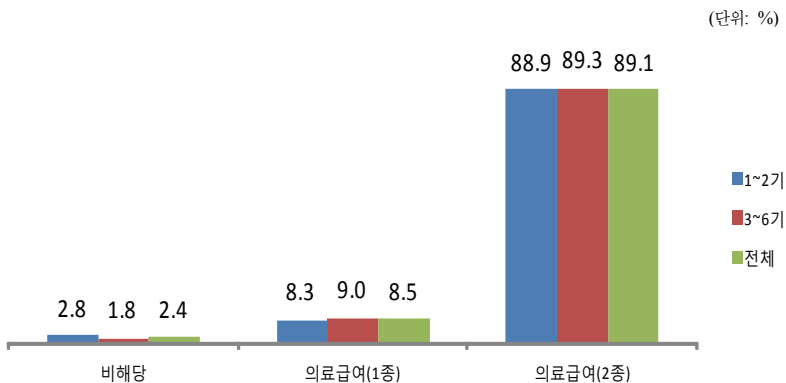
〈표 5-18〉 참여기수별 의료급여 수급형태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비해당	2.8	1.8	2.4
의료급여(1종)	8.3	9.0	8.5
의료급여(2종)	88.9	89.3	89.1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3.523$$

〔그림 5-15〕 참여기수별 의료급여 수급형태



$$\chi^2 = 3.523$$

□ 의료급여 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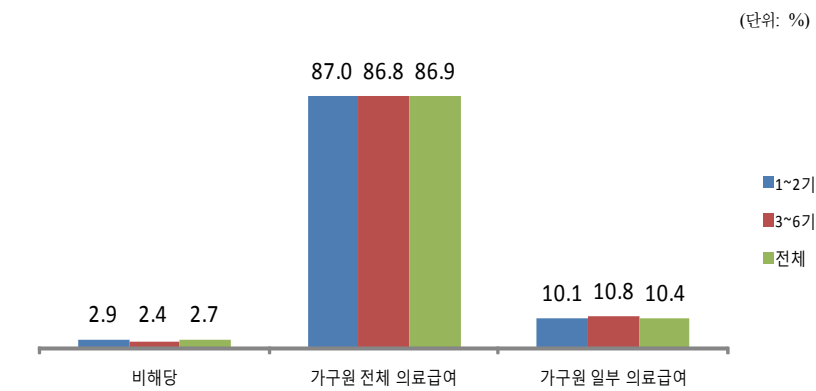
- 전체 참여가구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86.9%),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10.4%), 비해당(2.7%)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87.0%),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10.1%), 비해당(2.9%) 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86.8%),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10.8%), 비해당(2.4%)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표 5-19〉 참여기수별 의료급여 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비해당	2.9	2.4	2.7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87.0	86.8	86.9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10.1	10.8	10.4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0.754$

〔그림 5-16〕 참여기수별 의료급여 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chi^2 = 0.754$

### 제3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경제활동상태

#### □ 근로활동 가구원수

- 근로활동 가구원수는 전체 평균 1.27명이었으며, 1명(76.4%), 2명(17.5%), 3명 이상(5.3%), 0명(0.8%)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근로활동 가구원수는 평균 1.29명이었으며, 1명(77.1%), 2명(16.7%), 3명 이상(5.6%), 0명(0.6%)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근로활동 가구원수는 평균 1.24명이었으며, 1명(75.5%), 2명(18.6%), 3명 이상(4.9%), 0명(0.8%)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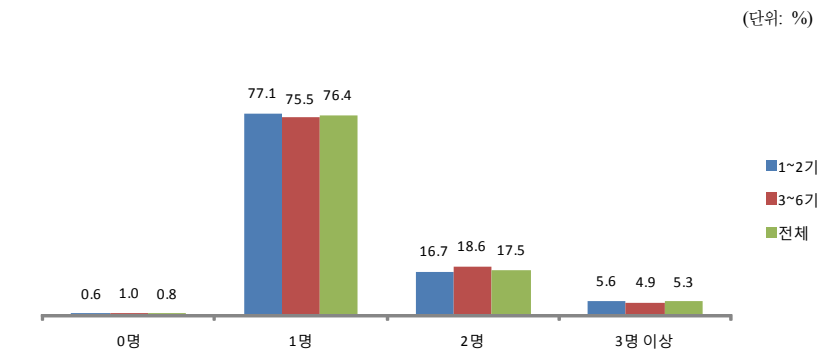
〈표 5-20〉 참여기수별 근로활동 가구원수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평균 (표준편차)	1.29 (0.633)	1.24 (0.537)	1.27 (0.597)
0명	0.6	1.0	0.8
1명	77.1	75.5	76.4
2명	16.7	18.6	17.5
3명 이상	5.6	4.9	5.3
합 계	100.0	100.0	100.0

$t=2.224^*$  ( $p<.05$ );  $\chi^2=3.283$

〔그림 5-17〕 참여기수별 근로활동가구원수



$t=2.224^*$  ( $p<.05$ );  $\chi^2=3.283$

□ 근로능력정도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능력정도는 근로가능(87.8%), 단순근로가능(6.5%),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2.6%) 등의 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능력정도는 근로가능(88.6%), 단순근로가능(5.8%),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3.0%) 등의 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능력정도는 근로가능(86.6%), 단순근로가능(7.6%),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3.2%) 등의 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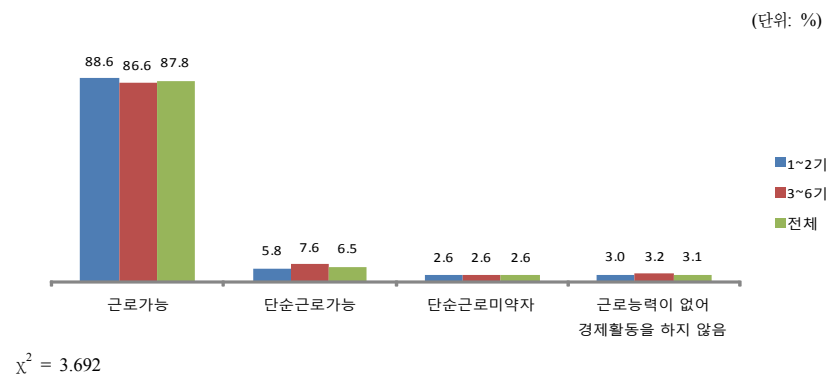
〈표 5-21〉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능력정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근로가능	88.6	86.6	87.8
단순근로가능	5.8	7.6	6.5
단순근로미약자	2.6	2.6	2.6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3.0	3.2	3.1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3.692$

〔그림 5-18〕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능력정도



## □ 근로무능력 사유

- 전체 참여가구 가구의 근로무능력 사유는 질병 또는 부상(51.6%), 중증장애(32.0%), 기타(8.2%),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8.2%) 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가구의 근로무능력 사유는 질병 또는 부상(51.9%), 중증장애(32.9%)등의 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가구의 근로무능력 사유는 질병 또는 부상(51.2%), 중증장애(30.2%)등의 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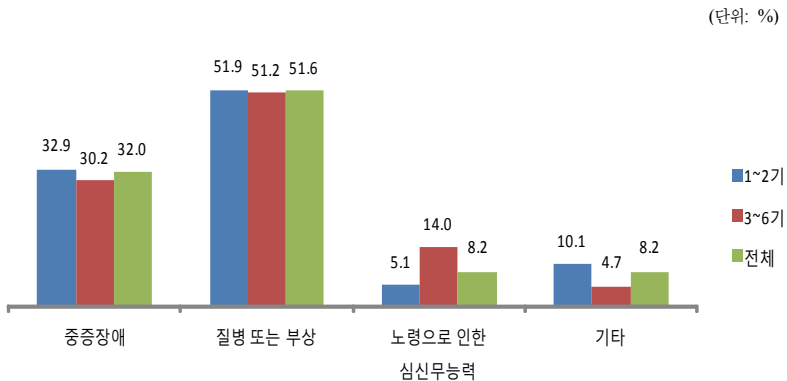
〈표 5-22〉 참여기수별 가구의 근로무능력 사유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중증장애	32.9	30.2	32.0
질병 또는 부상	51.9	51.2	51.6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5.1	14.0	8.2
기타	10.1	4.7	8.2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3.769$$

〔그림 5-19〕 참여기수별 가구의 근로무능력 사유



$$\chi^2 = 3.769$$

□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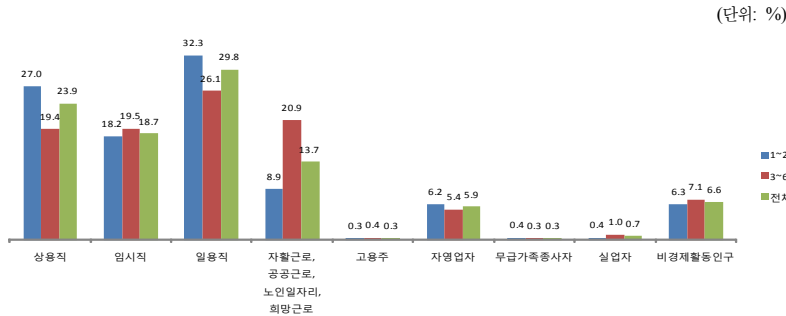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일용직 (29.8%), 상용직(23.9%), 임시직(18.7%) 등의 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일용직 (32.3%), 상용직(27.0%), 임시직(18.2%)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일용직 (26.1%),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희망근로(20.9%)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5-23〉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상용직	27.0	19.4	23.9
임시직	18.2	19.5	18.7
일용직	32.3	26.1	29.8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8.9	20.9	13.7
고용주	0.3	0.4	0.3
자영업자	6.2	5.4	5.9
무급가족종사자	0.4	0.3	0.3
실업자	0.4	1.0	0.7
비경제활동인구	6.3	7.1	6.6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96.472^{**}$  ( $p < .01$ )

〔그림 5-20〕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chi^2 = 96.472^{**}$  ( $p < .01$ )



## □ 고용관계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고용관계는 직접고용 74.5%, 간접고용 20.3%, 특수고용 5.2%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고용관계는 직접고용 74.9%, 간접고용 19.5%, 특수고용 5.6%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고용관계는 직접고용 74.0%, 간접고용 21.3%, 특수고용 4.7%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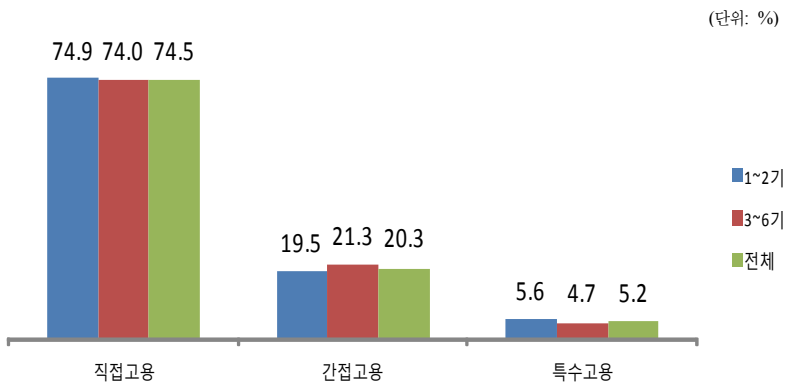
〈표 5-24〉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고용관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직접고용	74.9	74.0	74.5
간접고용	19.5	21.3	20.3
특수고용	5.6	4.7	5.2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840$$

〔그림 5-21〕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고용관계



$$\chi^2 = 1.840$$

□ 근로시간형태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시간형태는 전일제 64.8%, 시간제 35.2%로 29.6%p 차이가 남
  - 1~2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시간형태는 전일제 66.1%, 시간제 33.9%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시간형태는 전일제 62.9%, 시간제 37.1%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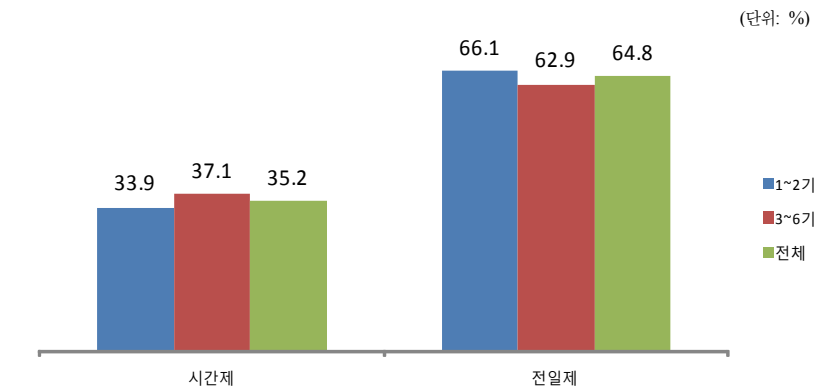
〈표 5-25〉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시간형태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시간제	33.9	37.1	35.2
전일제	66.1	62.9	64.8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456$

〔그림 5-22〕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시간형태



$\chi^2 = 2.456$

## □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68.1%,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31.9%임
- 1~2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73.7%,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26.3%임
- 3~6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59.8%,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41.2%로 1~2기 참여가구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를 보임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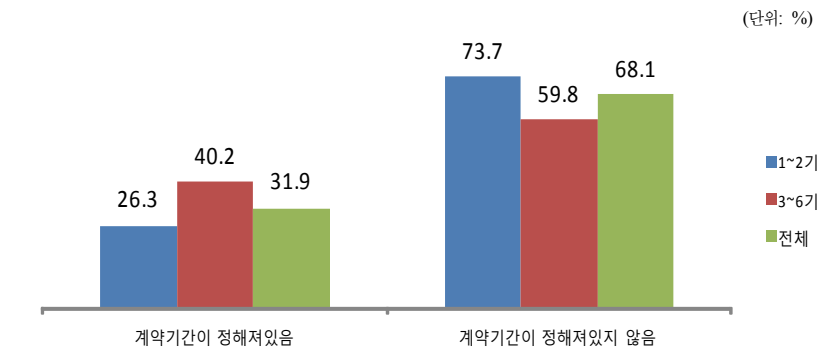
〈표 5-26〉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음	26.3	40.2	31.9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음	73.7	59.8	68.1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49.580^{**} (p < .01)$$

[그림 5-23]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chi^2 = 49.580^{**} (p < .01)$$

□ 근로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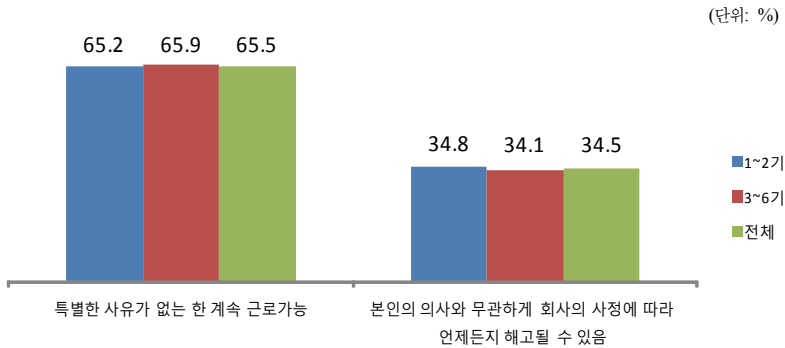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지속가능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능 65.5%,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34.5%로 31%p 차이남
  - 1~2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지속가능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능 65.2%,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34.8%임.
  - 3~6기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지속가능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능 65.9%,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34.1%임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표 5-27〉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지속가능성

구분	참여기수		(단위: %)
	1~2기	3~6기	전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능	65.2	65.9	65.5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34.8	34.1	34.5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0.123$

[그림 5-24]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지속가능성



$\chi^2 = 0.123$

## □ 근로지속불가능사유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는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60.0%,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이 만료되어서가 15.9%,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므로 13.4%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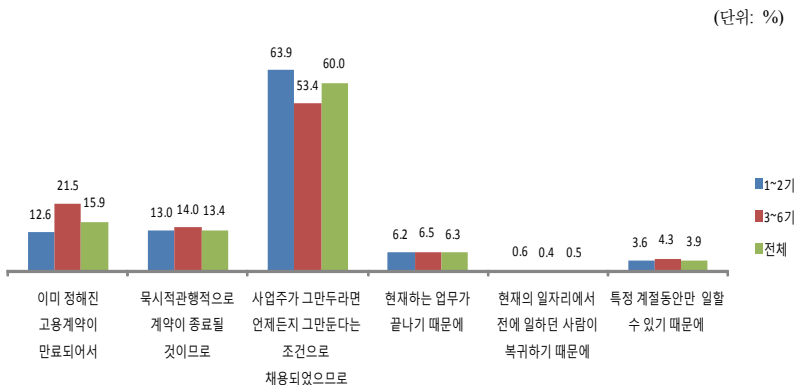
〈표 5-28〉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이 만료되어서	12.6	21.5	15.9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므로	13.0	14.0	13.4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63.9	53.4	60.0
현재하는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6.2	6.5	6.3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0.6	0.4	0.5
특정 계절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3.6	4.3	3.9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2.488^* (p < .05)$$

〔그림 5-25〕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chi^2 = 12.488^* (p < .05)$$

□ 사업장 규모

- 전체 참여가구 가구의 사업장 규모는 1~4명이 40.6%로 가장 많았고, 5~9명 18.4%, 10~29명 17.1%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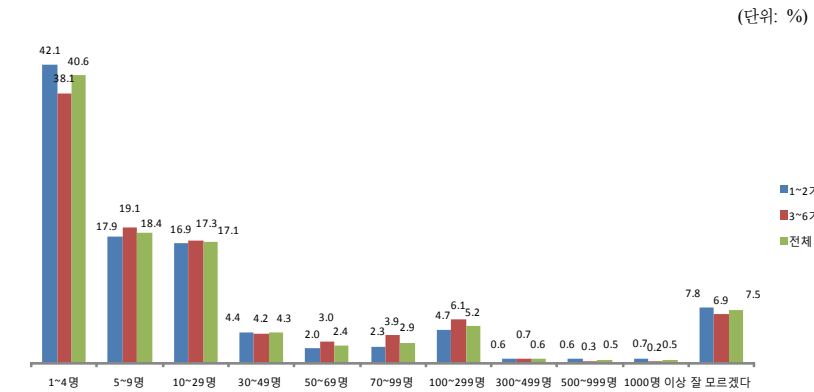
〈표 5-29〉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4명	42.1	38.1	40.6
5~9명	17.9	19.1	18.4
10~29명	16.9	17.3	17.1
30~49명	4.4	4.2	4.3
50~69명	2.0	3.0	2.4
70~99명	2.3	3.9	2.9
100~299명	4.7	6.1	5.2
300~499명	0.6	0.7	0.6
500~999명	0.6	0.3	0.5
1000명 이상	0.7	0.2	0.5
잘 모르겠다	7.8	6.9	7.5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5.796$

〔그림 5-26〕 참여기수별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chi^2 = 15.796$

## □ 비경제활동사유

- 전체 참여가구 가구의 비경제활동사유는 근로무능력(38.9%), 정규교육기관학업(11.4%) 등의 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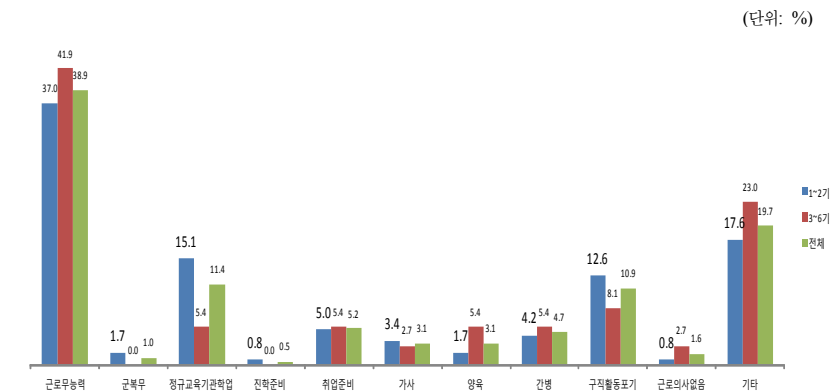
〈표 5-30〉 참여기수별 가구의 비경제활동사유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근로무능력	37.0	41.9	38.9
군복무	1.7	-	1.0
정규교육기관학업	15.1	5.4	11.4
진학준비	0.8	-	0.5
취업준비	5.0	5.4	5.2
가사	3.4	2.7	3.1
양육	1.7	5.4	3.1
간병	4.2	5.4	4.7
구직활동포기	12.6	8.1	10.9
근로의사없음	0.8	2.7	1.6
기타	17.6	23.0	19.7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0.708$$

〔그림 5-27〕 참여기수별 가구의 비경제활동사유



$$\chi^2 = 10.708$$

□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

- 전체 참여가구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은 받아본 경험이 없다가 90.7%로 대부분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직업훈련 및 교육경험은 받아본 경험이 없다가 91.4%, 경험이 있다 8.6%임
- 3~6기 참여가구 직업훈련 및 교육경험은 받아본 경험이 없다가 89.7%, 경험이 있다 10.3%임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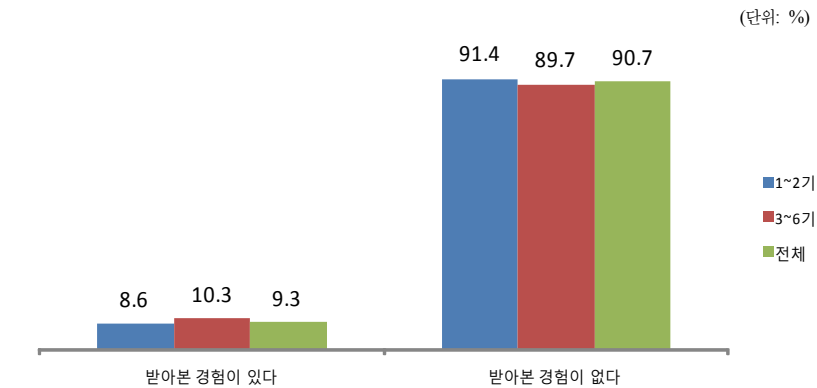
〈표 5-31〉 참여기수별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받아본 경험이 있다	8.6	10.3	9.3
받아본 경험이 없다	91.4	89.7	90.7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072$

〔그림 5-28〕 참여기수별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



$\chi^2 = 2.072$



## □ 취업상담 경험

- 전체 참여가구 취업상담 경험은 받아본 경험이 없다가 87.8%, 받아본 경험이 있다가 12.2%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취업상담 경험은 받아본 경험이 없다가 87.3%, 받아본 경험이 있다가 12.7%이었음
- 전체 참여가구 취업상담 경험은 받아본 경험이 없다가 88.3%, 받아본 경험이 있다가 11.7%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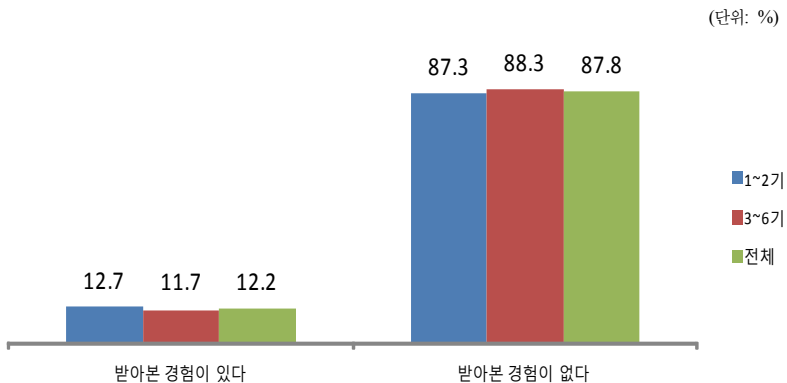
〈표 5-32〉 참여기수별 취업상담 경험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받아본 경험이 있다	12.7	11.7	12.2
받아본 경험이 없다	87.3	88.3	87.8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0.599$$

〔그림 5-29〕 참여기수별 취업상담 경험



$$\chi^2 = 0.599$$

□ 취업알선 경험

- 전체 참가자 취업알선 경험을 살펴보면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90.3%, 경험이 있다고 9.7%임
  - 1~2기 참가자 취업알선 경험을 살펴보면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90.2%, 경험이 있다고 9.8%임
  - 3~6기 참가자 취업알선 경험을 살펴보면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90.5%, 경험이 있다고 9.5%임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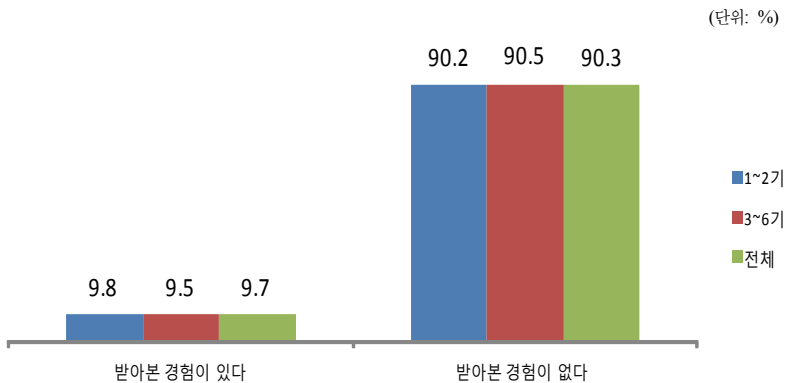
〈표 5-33〉 참가기수별 취업알선 경험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받아본 경험이 있다	9.8	9.5	9.7
받아본 경험이 없다	90.2	90.5	90.3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0.045$

〔그림 5-30〕 참가기수별 취업알선 경험



$\chi^2 = 0.045$

## 제4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생활여건

### □ 주택유형

- 전체 참여가구 주택유형은 단독주택(34.7%), 아파트(32.9%), 연립 및 다세대주택(27.5%)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주택유형은 단독주택(35.4%), 아파트(31.5%), 연립 및 다세대주택(28.9%)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주택유형은 아파트(34.9%), 단독주택(33.7%), 연립 및 다세대주택(25.5%)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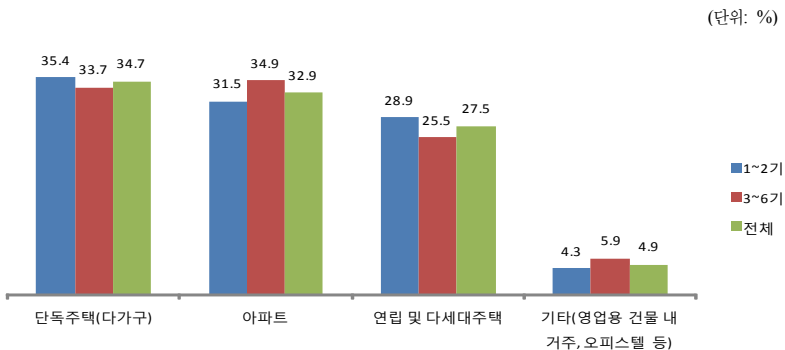
〈표 5-34〉 참여기수별 주택유형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단독주택(다가구)	35.4	33.7	34.7
아파트	31.5	34.9	32.9
연립 및 다세대주택	28.9	25.5	27.5
기타(영업용 건물 내 거주, 오피스텔 등)	4.3	5.9	4.9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8.846^* (p < .05)$$

〔그림 5-31〕 참여기수별 주택유형



$$\chi^2 = 8.846^* (p < .05)$$

□ 주택 점유형태

- 전체 참가가구 주택 점유형태는 보증부월세(32.7%), 월세(25.9%), 전세(18.6%)순이었음
  - 1~2기 참가가구 주택 점유형태는 보증부월세(32.7%), 월세(25.7%), 전세(20.0%)순이었음
  - 3~6기 참가가구 주택 점유형태는 보증부월세(30.3%), 월세(26.3%), 기타(18.5%)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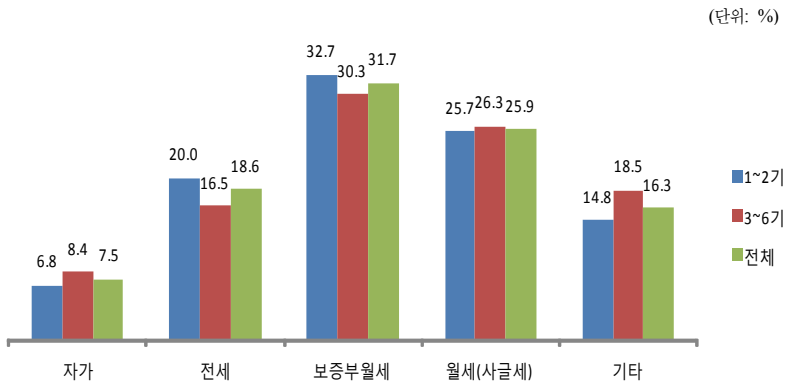
〈표 5-35〉 참가기수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참가기수		전체
	1~2기	3~6기	
자가	6.8	8.4	7.5
전세	20.0	16.5	18.6
보증부월세	32.7	30.3	31.7
월세(사글세)	25.7	26.3	25.9
기타	14.8	18.5	16.3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2.812^* (p < .05)$

〔그림 5-32〕 참가기수별 주택 점유형태



$\chi^2 = 12.812^* (p < .05)$

## □ 주택의 방 수

- 전체 참여가구 주택의 방수는 2개(59.1%), 3개(29.6%), 1개(10.4%)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주택의 방수는 2개(59.4%), 3개(30.9%), 1개(8.7%)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주택의 방수는 2개(58.6%), 3개(27.7%), 1개(12.8%)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표 5-36〉 참여기수별 주택의 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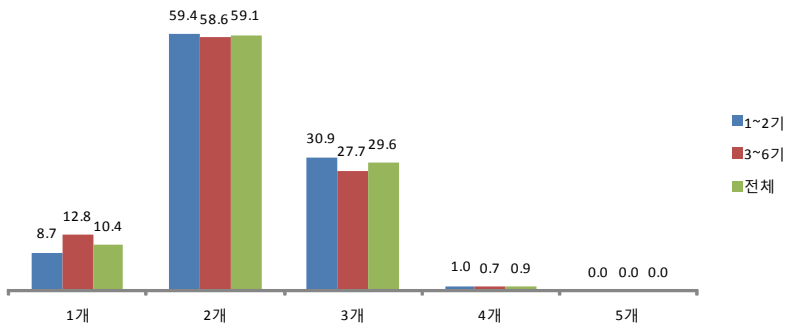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개	8.7	12.8	10.4
2개	59.4	58.6	59.1
3개	30.9	27.7	29.6
4개	1.0	0.7	0.9
5개	-	-	-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4.750^{**}$  ( $p < .01$ )

〔그림 5-33〕 참여기수별 주택의 방 수

(단위: %)


 $\chi^2 = 14.750^{**}$  ( $p < .01$ )

□ 우선지출 1순위

- 전체 참여가구 우선지출 1순위는 교육비(29.2%), 식료품비(19.7%), 주거비(17.9%) 등의 순이었음
- 참여기수별 우선지출 1순위는 1~2기와 3~6기 모두 교육비, 식료품비, 주거비, 기타소비지출, 피복신발비 등의 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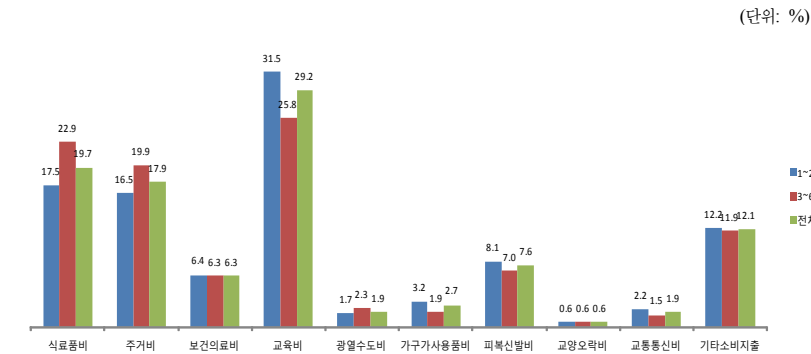
〈표 5-37〉 참여기수별 우선지출 1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식료품비	17.5	22.9	19.7
주거비	16.5	19.9	17.9
보건의료비	6.4	6.3	6.3
교육비	31.5	25.8	29.2
광열수도비	1.7	2.3	1.9
가구가사용품비	3.2	1.9	2.7
피복신발비	8.1	7.0	7.6
교양오락비	0.6	0.6	0.6
교통통신비	2.2	1.5	1.9
기타소비지출	12.2	11.9	12.1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8.561^{**}$  ( $p < .01$ )

〔그림 5-34〕 참여기수별 우선지출 1순위



$\chi^2 = 28.561^{**}$  ( $p < .01$ )

## □ 우선지출 2순위

- 전체 참여가구 우선지출 2순위는 식료품비(21.5%), 교육비(18.9%), 주거비(14.8%), 피복신발비(12.8%) 등의 순이었음
- 참여가구별 우선지출 2순위는 식료품비, 교육비, 주거비, 피복신발비로 전체 참여가구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함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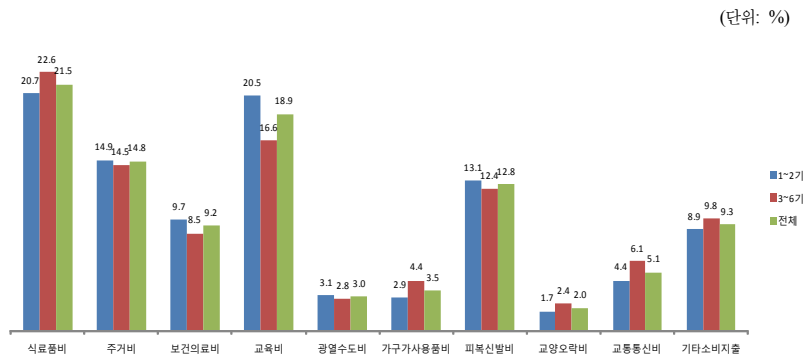
〈표 5-38〉 참여가구별 우선지출 2순위

(단위: %)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식료품비	20.7	22.6	21.5
주거비	14.9	14.5	14.8
보건의료비	9.7	8.5	9.2
교육비	20.5	16.6	18.9
광열수도비	3.1	2.8	3.0
가구가사용품비	2.9	4.4	3.5
피복신발비	13.1	12.4	12.8
교양오락비	1.7	2.4	2.0
교통통신비	4.4	6.1	5.1
기타소비지출	8.9	9.8	9.3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5.908$$

〔그림 5-35〕 참여가구별 우선지출 2순위



$$\chi^2 = 15.908$$

□ 지출제한 1순위

- 전체 참여가구 지출제한 1순위는 식료품비(38.5%), 기타소비지출 (15.9%), 피복신발비(13.8%) 등의 순이었음
- 참여기수별 지출제한 1순위는 1~2기는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기타소비지출 등의 순이었으며, 3~6기는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피복신발비 등의 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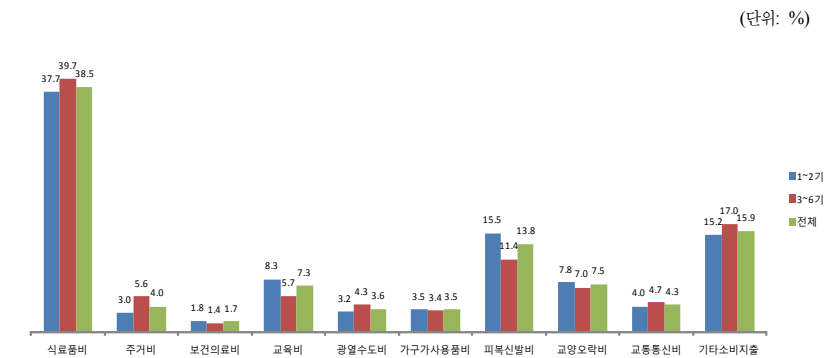
〈표 5-39〉 참여기수별 지출제한 1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식료품비	37.7	39.7	38.5
주거비	3.0	5.6	4.0
보건의료비	1.8	1.4	1.7
교육비	8.3	5.7	7.3
광열수도비	3.2	4.3	3.6
가구가사용품비	3.5	3.4	3.5
피복신발비	15.5	11.4	13.8
교양오락비	7.8	7.0	7.5
교통통신비	4.0	4.7	4.3
기타소비지출	15.2	17.0	15.9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30.887^{**}$  ( $p < .01$ )

〔그림 5-36〕 참여기수별 지출제한 1순위



$\chi^2 = 30.887^{**}$  ( $p < .01$ )



## □ 지출제한 2순위

- 전체 참여가구 지출제한 2순위는 피복신발비(21.7%), 식료품비(15.4%), 기타소비지출(13.8%) 등의 순이었음
- 참여가구별 지출제한 2순위는 1~2기와 3~6기 모두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등의 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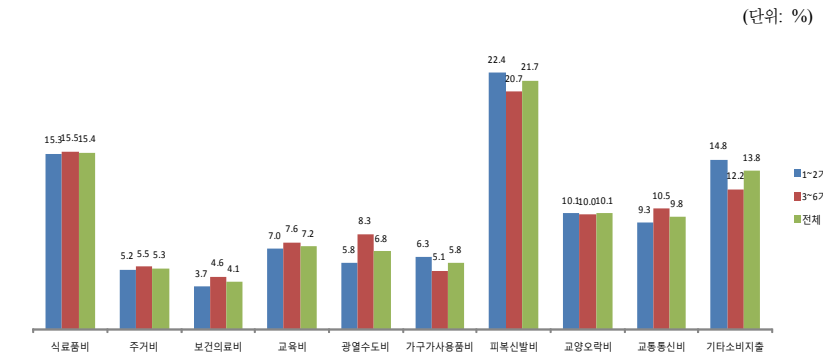
〈표 5-40〉 참여가구별 지출제한 2순위

(단위: %)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식료품비	15.3	15.5	15.4
주거비	5.2	5.5	5.3
보건의료비	3.7	4.6	4.1
교육비	7.0	7.6	7.2
광열수도비	5.8	8.3	6.8
가구가사용품비	6.3	5.1	5.8
피복신발비	22.4	20.7	21.7
교양오락비	10.1	10.0	10.1
교통통신비	9.3	10.5	9.8
기타소비지출	14.8	12.2	13.8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3.407$$

〔그림 5-37〕 참여가구별 지출제한 2순위



$$\chi^2 = 13.407$$

□ 식생활(식생활 관련 구입비용 부족경험)

- 전체 참여가구 식생활 관련 구입비용 부족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다 (45.3%), 가끔 그렇다(42.2%), 자주 그렇다(7.6%) 등의 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식생활 관련 구입비용 부족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다(48.0%), 가끔 그렇다(38.6%), 자주 그렇다(7.4%) 등의 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식생활 관련 구입비용 부족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다(47.6%), 가끔 그렇다(38.9%), 자주 그렇다(7.6%) 등의 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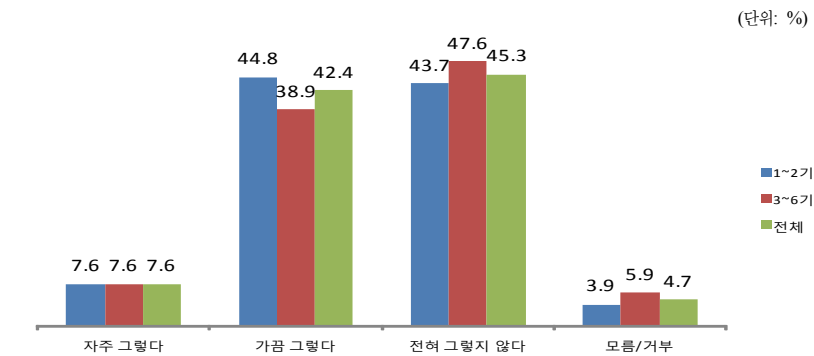
〈표 5-41〉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식생활(식생활 관련 구입비용 부족 경험)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자주 그렇다	7.6	7.6	7.6
가끔 그렇다	44.8	38.9	42.4
전혀 그렇지 않다	43.7	47.6	45.3
모름/거부	3.9	5.9	4.7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3.760^{**}$  ( $p < .01$ )

[그림 5-38]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식생활(식생활 관련 구입비용 부족 경험)



$\chi^2 = 13.760^{**}$  ( $p < .01$ )

## □ 식생활(식사량 축소 등)

- 전체 참여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거른 적이 있나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64.6%), 가끔 그렇다(26.6%), 모름 또는 거부(5.2%) 등의 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거른 적이 있나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64.3%), 가끔 그렇다(28.1%), 모름 또는 거부(4.3%) 등의 순이었으며, 3~6기 참여가구의 경우도 비율순은 전체적인 흐름과 동일함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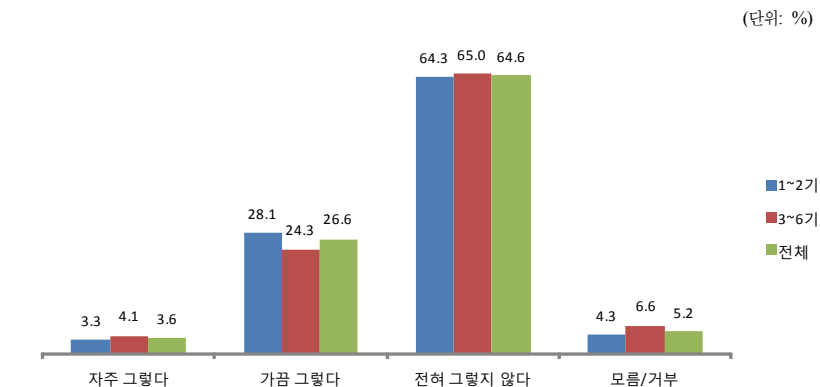
〈표 5-42〉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식생활(식사량 축소 등)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자주 그렇다	3.3	4.1	3.6
가끔 그렇다	28.1	24.3	26.6
전혀 그렇지 않다	64.3	65.0	64.6
모름/거부	4.3	6.6	5.2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1.722^{**} (p < .01)$$

〔그림 5-39〕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식생활(식사량 축소 등)



$$\chi^2 = 11.722^{**} (p < .01)$$

□ 집세 연체 및 미납

- 전체 참가가구 중 집세를 연체 및 미납한 경험은 없다(60.7%), 비해당(21.4%), 있다(17.9%) 순이었음
  - 1~2기 참가가구 중 집세를 연체 및 미납한 경험은 없다 (59.9%), 있다(20.5%), 비해당(19.5%)순이었음
  - 3~6기 참가가구 중 집세를 연체 및 미납한 경험은 없다 (61.9%), 비해당(24.1%), 있다(14.0%)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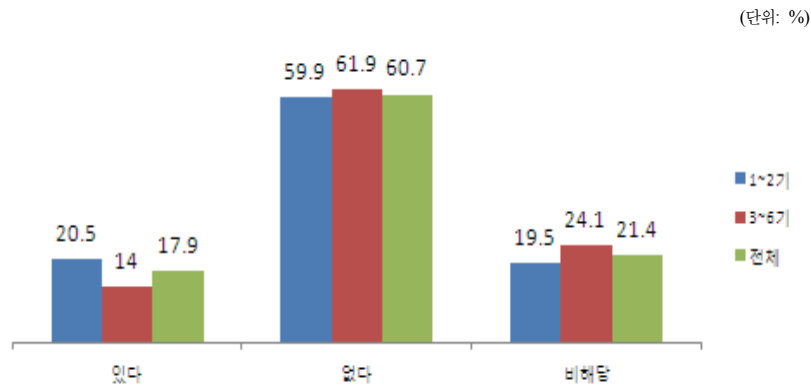
〈표 5-43〉 참가기수별 생활여건 집세 연체 및 미납

(단위: %)

구분	참가기수		전체
	1~2기	3~6기	
있다	20.5	14.0	17.9
없다	59.9	61.9	60.7
비해당	19.5	24.1	21.4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1.819^{**}$  ( $p < .01$ )

〔그림 5-40〕 참가기수별 생활여건 집세 연체 및 미납



$\chi^2 = 21.819^{**}$  ( $p < .01$ )

## □ 공과금 기한 내 미납

- 전체 참여가구 중 공과금 기한 내 미납한 경험은 있다(53.5%), 없다(46.5%)로 7.0%p차이를 보임
  - 1~2기 참여가구 중 공과금 기한 내 미납한 경험은 있다(57.6%), 없다(42.4%)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중 공과금 기한 내 미납한 경험은 없다(52.5%), 있다(47.5%)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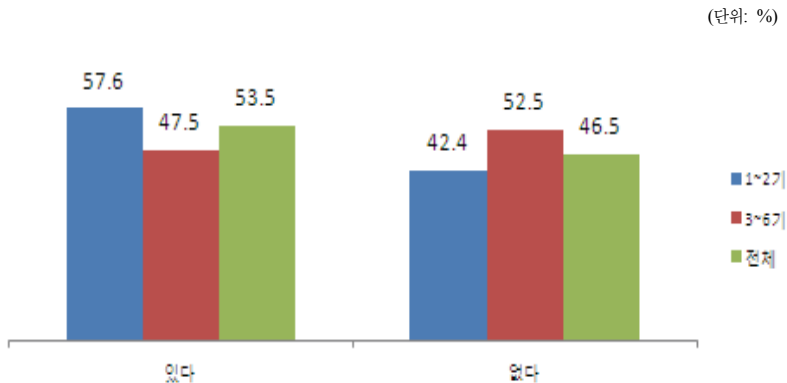
〈표 5-44〉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과금 기한 내 미납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있다	57.6	47.5	53.5
없다	42.4	52.5	46.5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6.712^{**} (p < .01)$$

〔그림 5-41〕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과금 기한 내 미납



$$\chi^2 = 26.712^{**} (p < .01)$$

□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 경험

- 전체 참여가구 중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된 경험은 없다 (84.7%), 있다(15.3%)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중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된 경험은 없다 (83.9%), 있다(16.1%)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중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된 경험은 없다 (86.1%), 있다(13.9%)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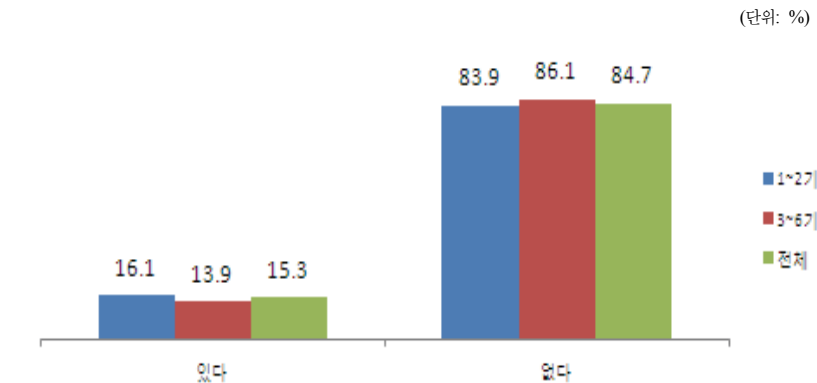
〈표 5-45〉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 경험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있다	16.1	13.9	15.3
없다	83.9	86.1	84.7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410$

〔그림 5-42〕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 경험



$\chi^2 = 2.410$

## □ 공교육비 연체

- 전체 참여가구 중, 공교육비 연체 경험은 없다(55.1%), 비해당(28.1%), 있다(16.8%) 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중, 공교육비 연체 경험은 없다(56.4%), 비해당(25.5%), 있다(18.1%) 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중, 공교육비 연체 경험은 없다(53.2%), 비해당(31.9%), 있다(15.0%) 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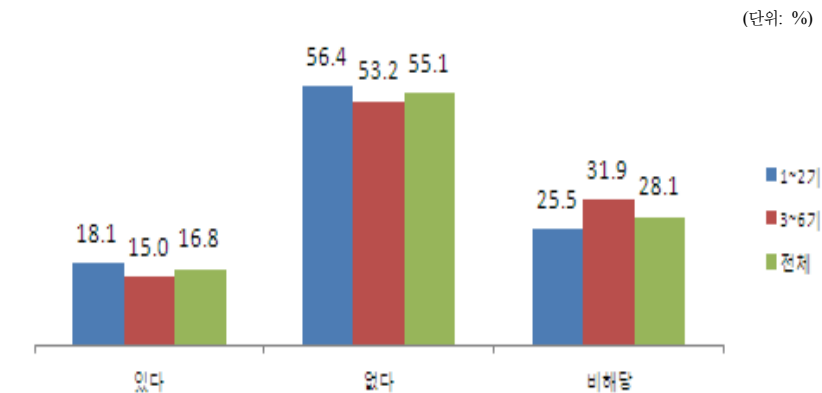
〈표 5-46〉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교육비 연체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있다	18.1	15.0	16.8
없다	56.4	53.2	55.1
비해당	25.5	31.9	28.1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4.048^{**} (p < .01)$$

〔그림 5-43〕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공교육비 연체



$$\chi^2 = 14.048^{**} (p < .01)$$

□ 겨울철 난방 사용불가 경험

- 전체 참여가구 중, 겨울철 난방 사용을 하지 못한 경험은 없다 (61.3%), 없다(38.7%) 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중 겨울철 난방 사용을 하지 못한 경험은 없다 (60.2%), 없다(39.8%) 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중 겨울철 난방 사용을 하지 못한 경험은 없다 (63.0%), 없다(37.0%) 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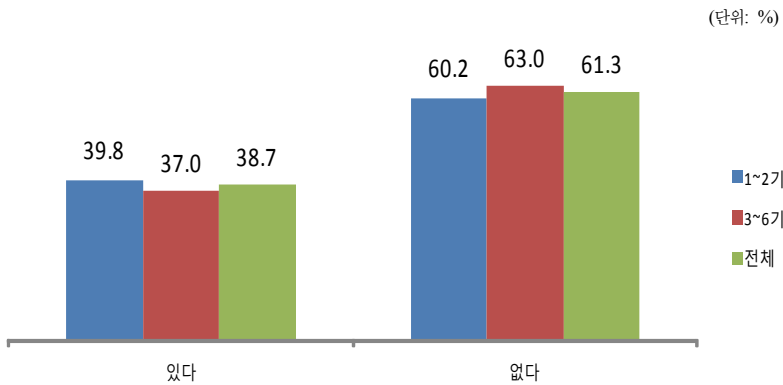
〈표 5-47〉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겨울철 난방 사용불가 경험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있다	39.8	37.0	38.7
없다	60.2	63.0	61.3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180$

〔그림 5-44〕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겨울철 난방 사용불가 경험



$\chi^2 = 2.180$



## □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

- 전체 참여가구 중,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은 없다(79.2%), 있다(20.8%) 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중,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은 없다(77.6%), 있다(81.2%) 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중,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은 없다(81.5%), 있다(18.5%) 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표 5-48〉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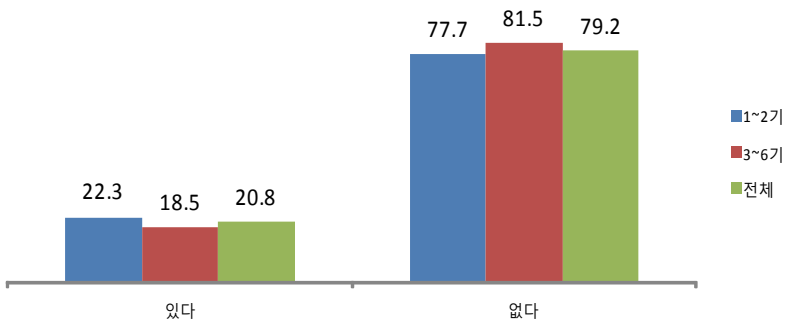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있다	22.3	18.5	20.8
없다	77.7	81.5	79.2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5.701$$

〔그림 5-45〕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

(단위: %)



$$\chi^2 = 5.701$$

□ 신용불량자 유무

- 전체 참가가구 중,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유무는 없다(66.3%), 있다(33.7%) 순이었음
  - 1~2기 참가가구 중,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유무는 없다(66.1%), 있다(33.9%) 순이었음
  - 3~6기 참가가구 중,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유무는 없다(66.6%), 있다(33.4%) 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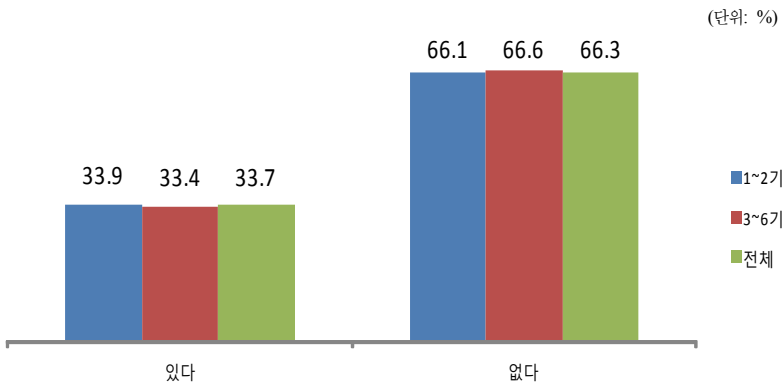
〈표 5-49〉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신용불량자 유무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있다	33.9	33.4	33.7
없다	66.1	66.6	66.3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0.067$

〔그림 5-46〕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신용불량자 유무



$\chi^2 = 0.067$

## □ 건강보험급여자격정지

- 전체 참여가구 중, 건강보험 급여자격정지된 경험은 없다(49.5%), 비해당(46.1%), 있다(4.3%) 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중, 건강보험 급여자격정지된 경험은 없다(50.1%), 비해당(45.1%), 있다(4.8%) 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중, 건강보험 급여자격정지된 경험은 없다(48.8%), 비해당(47.6%), 있다(3.6%) 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표 5-50〉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건강보험급여자격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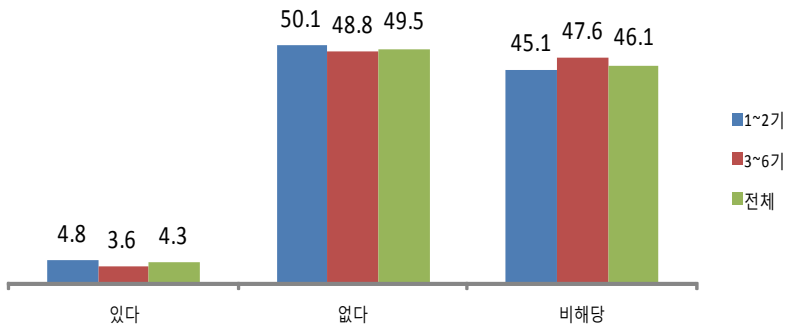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있다	4.8	3.6	4.3
없다	50.1	48.8	49.5
비해당	45.1	47.6	46.1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3.397$$

〔그림 5-47〕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건강보험급여자격정지

(단위: %)



$$\chi^2 = 3.397$$

□ 학업중단경험

- 전체 참여가구 중,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험은 없다 (66.3%), 비해당(26.0%), 있다(7.7%) 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중,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험은 없다 (66.9%), 비해당(25.4%), 있다(7.8%) 순이었음
  - 3~6기 참여가구 중,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험은 없다 (62.5%), 비해당(29.2%), 있다(8.3%) 순이었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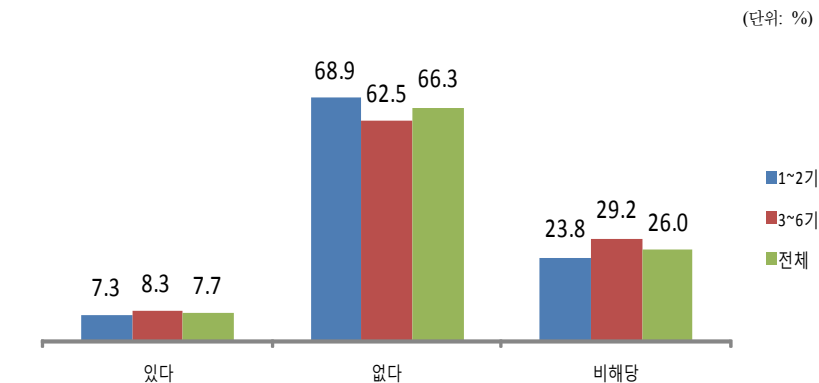
〈표 5-51〉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학업중단경험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있다	7.3	8.3	7.7
없다	68.9	62.5	66.3
비해당	23.8	29.2	26.0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1.764^*$  ( $p < .01$ )

〔그림 5-48〕 참여기수별 생활여건 학업중단경험



$\chi^2 = 11.764^*$  ( $p < .01$ )

## □ 경제적 생활상태

- 참여가구 경제적 생활상태 인식은 전체 평균 2.89로 3점(29.5%), 2점(21.5%), 1점(19.4%)순이었음
- 참여기수별 경제적 생활상태 인식은 1~2기와 3~6기 모두 3점, 2점, 1점 순으로 나타남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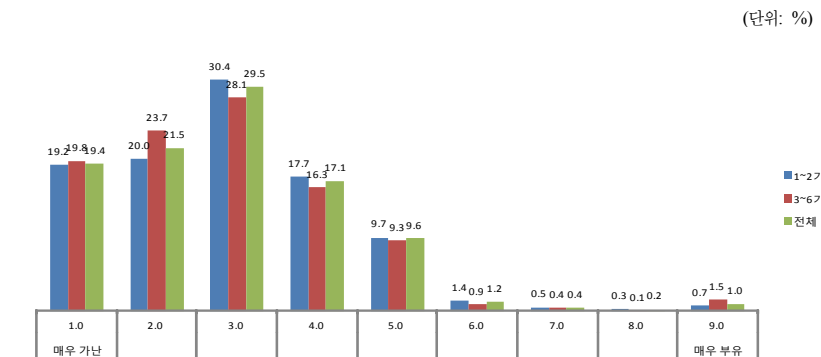
〈표 5-52〉 참여기수별 경제적 생활상태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평균		2.91	2.85	2.89
(표준편차)		(1.443)	(1.493)	(1.464)
매우 가난	1	19.2	19.8	19.4
	2	20.0	23.7	21.5
	3	30.4	28.1	29.5
	4	17.7	16.3	17.1
	5	9.7	9.3	9.6
	6	1.4	0.9	1.2
	7	0.5	0.4	0.4
	8	0.3	0.1	0.2
매우 부유	9	0.7	1.5	1.0
합 계		100.0	100.0	100.0

t=1.071;  $\chi^2=12.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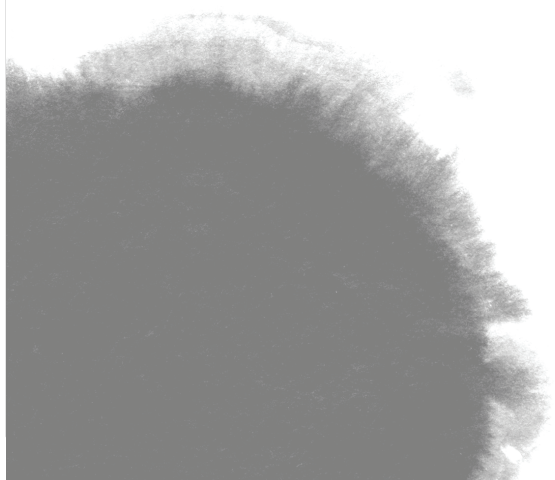
〔그림 5-49〕 참여기수별 경제적 생활상태

t=1.071;  $\chi^2=12.492$



# 6장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결과: 신청 · 참여 · 인식







## 제6장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기초선

### 조사결과·신청·참여·인식

- 앞서 희망키움통장 참여 표본가구에 대하여 수행한 기초선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가구 및 가구주 일반사항, 경제활동상태 및 생활여건 등에 이어서, 여기서는 최초 희망키움통장 사업 인지, 신청 및 참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 및 자산형성과 탈 수급 이후의 기대와 걱정, 필요한 정부지원 등 다양한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봄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시행 초기, 1~2기 신청 및 참여할 당시 신청 및 참여 가능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70% 수준에서, 이후 3~6기 신청 및 참여 과정에서 최저생계비 대비 60% 수준으로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사업 종료시점에 탈 수급 이후에도 현물급여 등을 이행급여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확대 변경됨
  - 이에 따라, 3장에서 이미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 현황 분석에 있어서 소득기준 변경 전후(1~2기 / 3~6기)로 구분하여 참여기수별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을 비교한 바 있음
  - 5장에 이어서 6장에서도 기초선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이와 동일하게 사업내용의 변경 전후 참여기수에 따라 두 집단(1~2기/3~6기)으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특히,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봄

## 제1 절 희망키움통장 사업내용에 대한 인지 및 신청과정

### □ 희망키움통장 사업 신청 전 인지경로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가 사업 참여를 신청하기 전에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인지한 경우가 82.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대중매체의 홍보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 참여기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2기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에 상대적으로 대중매체의 홍보 비중 (13.8%)이 높았으며, 3~6기의 경우 참여대상 추가 모집과정에서 이웃 등 주변사람에 의해 확산된 경우가 8.1%를 차지하여 1~2기(4.5%)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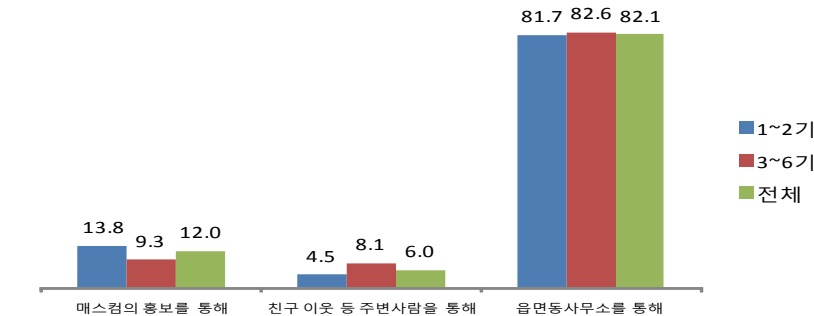
〈표 6-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인지경로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매스컴의 홍보를 통해	13.8	9.3	12.0
친구·이웃 등 주변사람을 통해	4.5	8.1	6.0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81.7	82.6	82.0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5.176^{**} (p < .01)$$

〔그림 6-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인지경로



$$\chi^2 = 25.176^{**} (p < .01)$$

## □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선정을 위한 충족조건 인지여부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를 신청할 당시, 참여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가 약 78.1%로 나타남
- 참여기수별로 살펴보면, 참여가구 선정기준 및 사업 참여 이후의 지원사항 등이 다소 변경된 이후인 2010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참여한 3~6기의 인지여부가 81.9%로 1~2기(75.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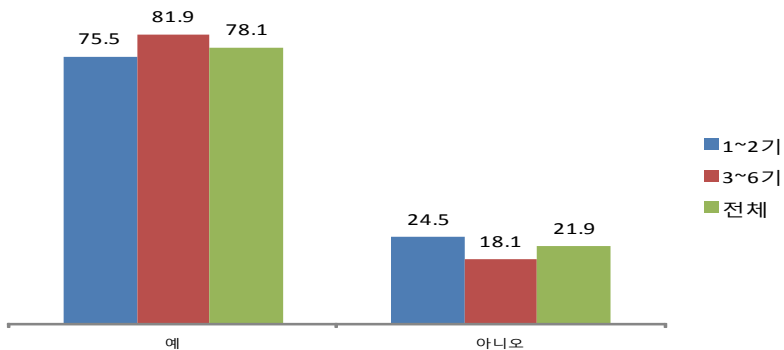
〈표 6-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충족조건 인지여부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예	75.5	81.9	78.1
아니오	24.5	18.1	21.9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5.254^{**} (p < .01)$$

〔그림 6-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충족조건 인지여부



$$\chi^2 = 15.254^{**} (p < .01)$$

□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세부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에 대한 신청 당시 인지여부 및 설명여부

-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세부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하여,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 당시 각 내용에 대한 참여가구의 인지여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설명여부를 살펴봄
- 7가지 세부 선정기준과 지원사항은 참여대상, 소득기준,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 본인 저축액에 대한 매칭금 지원,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 기준, 사업 참여기간 중 지원내용, 사업 종료시점에서 탈 수급 이후 지원내용으로 분류하여 조사함

〈표 6-3〉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 당시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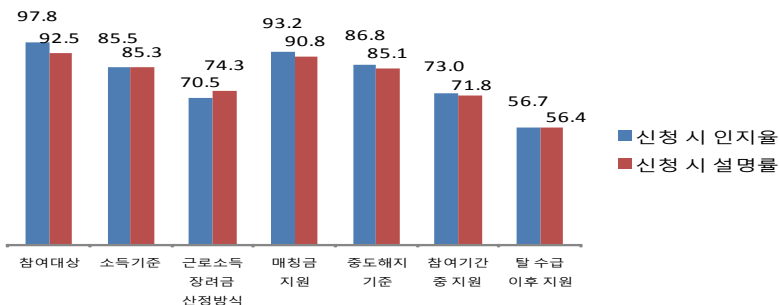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신청 당시 인지여부		신청 당시 공무원의 설명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가) 참여대상	근로활동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97.8	2.2	92.5	7.5
나) 소득기준	(1~2기)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가구 (3~6기)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85.5	14.5	85.3	14.7
다)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	근로소득 증가 시 생계급여 감소액보다 많은 근로소득장려금 지급하여 정부 지원금 증가 (산정방식 : 기준소득(최저생계비 60%) 초과분 105%)	70.5	29.5	74.3	25.7
라) 매칭금 지원	본인저축액에 민간재원으로 1:1 매칭금 지원	93.2	6.8	90.8	9.2
마) 중도해지 기준	적립기간 중 근로소득이 일정기간 연속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 중도해지	86.8	13.2	85.1	14.9
바) 참여기간 중 지원내용	3년간 탈 수급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교육지원 및 사례관리	73.0	27.0	71.8	28.2
사) 탈 수급 이후 지원	탈 수급 이후 일정기간 동안 이행급여로 현물서비스(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	56.7	43.3	56.4	43.6

- 먼저, 전체(1~6기)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인지 및 설명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사업 참여대상 선정기준, 희망키움통장 유지

및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4가지 사항에 대한 인지비율 및 신청 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모두 8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기본적 구조인 참여대상(근로활동 중인 기초보장수급가구)과 본인 저축액에 대한 1:1 매칭방식에 대한 인지 및 설명비율은 90%를 넘었으며, 다음으로 중도해지 기준과 참여대상 소득기준에 대한 인지 및 설명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과 인지비율은 약 74.3%와 70.5%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근로소득장려금이 별도로 적립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산정체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사업 참여기간 중 지원사항과 사업 참여종료 시점에 탈 수급한 후 지원사항에 대한 인지 및 설명비율은 다른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특히, 탈 수급 후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약 56%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지원사항 확대 및 변경에 따른 참여기수별(1~2기/3~6기) 차이가 분명하게 확인됨

[그림 6-3]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 시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 인지 및 설명여부



- 참여기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4가지 핵심사항 중 실제 선정기준의 완화가 있었던 소득기준(최저생계비 대비 70% →60%로 완화)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음
  - 소득기준의 경우, 3~6기의 경우 88% 내외로 1~2기(약 83%)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가구의 인지 및 설명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표 6-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단위: %)			
구분	조건	참여기수			
		1~2기	3~6기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참여대상	근로활동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97.9	92.1	97.7	93.1

인지여부  $\chi^2 = 0.091$ ; 설명여부  $\chi^2 = 0.760$

〈표 6-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소득기준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단위: %)			
구분	조건	참여기수			
		1~2기	3~6기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소득기준	(1~2기) 최저생계비 70% 이상 (3~6기) 최저생계비 60% 이상	83.3	83.8	88.5	87.5

인지여부  $\chi^2 = 10.956^{**}$  ( $p < .01$ ); 설명여부  $\chi^2 = 5.127^*$  ( $p < .05$ )

〈표 6-6〉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단위: %)			
구분	조건	참여기수			
		1~2기	3~6기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근로소득 장려금 산정방식	근로소득 증가 시 생계급여 감소액보다 많은 근로소득장려금 지급하여 정부 지원금 증가 (산정방식: 기준소득(최저생계비 60%) 초과분 105%)	63.9	69.2	79.6	81.8

인지여부  $\chi^2 = 60.062^{**}$  ( $p < .01$ ); 설명여부  $\chi^2 = 39.196^{**}$  ( $p < .01$ )

〈표 6-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지원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단위: %)

구분	조건	참여기수			
		1~2기		3~6기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매칭금 지원	본인저축액에 민간재원으로 1:1 매칭금 지원	92.8	90.7	93.6	91.0
인지여부 $\chi^2 = 0.457$ ; 설명여부 $\chi^2 = 0.050$					

〈표 6-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 기준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단위: %)

구분	조건	참여기수			
		1~2기		3~6기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중도해지 기준	적립기간 중 근로소득이 일정기간 연속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 중도해지	86.5	85.1	87.1	85.0
인지여부 $\chi^2 = 0.181$ ; 설명여부 $\chi^2 = 0.006$					

〈표 6-9〉 참여기수별 참여기간 중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단위: %)

구분	조건	참여기수			
		1~2기		3~6기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참여기간 중 지원	3년간 탈 수급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교육지원 및 사례관리	66.6	66.4	81.8	79.9
인지여부 $\chi^2 = 59.678^{**}$ ( $p < .01$ ); 설명여부 $\chi^2 = 42.317^{**}$ ( $p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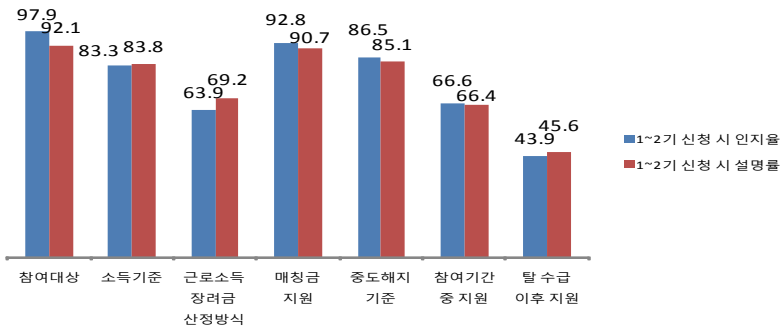
〈표 6-10〉 참여기수별 탈 수급 이후 지원사항에 대한 인지 및 설명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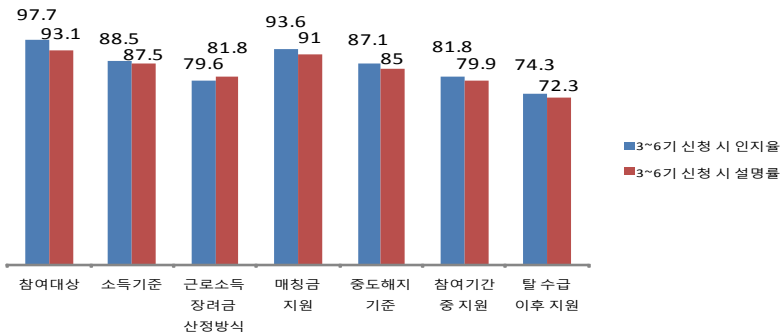
구분	조건	참여기수			
		1~2기		3~6기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신청 시 인지여부	신청 시 설명여부
탈 수급 이후 지원	탈 수급 이후 일정기간 동안 이행급여로 현물서비스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	43.9	45.6	74.3	72.3
인지여부 $\chi^2 = 188.458^{**}$ ( $p < .01$ ); 설명여부 $\chi^2 = 135.275^{**}$ ( $p < .01$ )					

- 참여기수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 희망키움통장 세부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산정방식으로 인해 설명비율에 비해 인지비율이 낮은 근로소득장려금의 경우, 3~6기의 경우 약 80% 내외로 1~2기(63.9%, 69.2%)에 비해 크게 높았음
  - 적립을 유지하고 탈 수급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 참여기간 중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1~2기(약 66%)에 비해 3~6기의 경우 약 80% 내외로 월등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그림 6-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인지 및 설명여부 (1~2기)



[그림 6-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인지 및 설명여부 (3~6기)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기준과 함께 변경되었던 탈 수급 이후 지원사항에 대한 참여가구의 인지 및 담당공무원의 설명비율의 경우 참여기수별로 약 30%p 내외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였음
  - 사업 시행초기부터 희망키움통장 종료 시점에서 탈 수급 이후의 지원 필요성과 내용들이 검토되었으나, 이행급여로서 현물급여의 제공 등 구체적 지원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던 1~2기의 경우 이와 관련된 인지비율 및 신청 당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설명비율이 각각 43.9%와 45.6% 수준에 그쳤음
  - 반면, 3~6기의 경우 인지 및 설명비율이 각각 74.3%와 72.3%로 나타나, 사업 시행초기보다 희망키움통장 참여와 탈 수급 후 지원 관련 정책적 관심과 제도의 확대가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줌
  - 이러한 차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당초 조사설계를 변경하면서 3~6기 참여가구를 조사대상 표본가구로 추가하였으며, 참여현황 및 기초선 조사와 패널조사 결과의 분석에서 참여기수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 희망키움통장 신청 이유

- 다음으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가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이유, 즉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봄
- 가장 중요한 신청 이유 또는 목표는, 주택구입을 위한 자산형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집단 모두 약 40% 내외로 유사하게 응답함
  - 자녀 교육비 활용을 위한 자산 축적(22.3%)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1~2기의 경우 24.1%로 3~6기(1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다음으로, 창업자금 마련(14.6%)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3~6기의 경우 16.1%로 1~2기(13.6%)에 비해 다소 높았음
  - 마지막으로, 탈 수급을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는 경우도 8.3%로

- 나타났는데, 이것은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산형성과 더불어 탈 수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근로소득장려금을 통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신청한 이유로 응답한 가구는 4.2%에 불과하지만, 이는 탈 수급을 예상하거나 목표로 할 경우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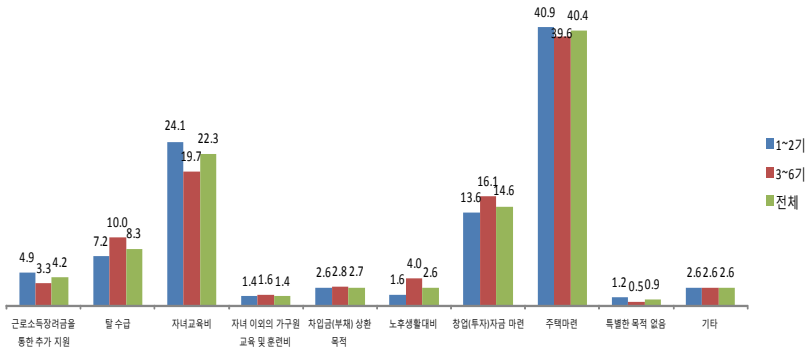
〈표 6-1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이유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근로소득장려금을 통한 추가 지원	4.9	3.3	4.2
탈 수급	7.2	10.0	8.3
자녀교육비	24.1	19.7	22.3
자녀 이외의 가구원 교육 및 훈련비	1.4	1.6	1.4
차입금(부채) 상환 목적	2.6	2.8	2.7
노후생활대비	1.6	4.0	2.6
창업(투자)자금 마련	13.6	16.1	14.6
주택마련	40.9	39.6	40.4
특별한 목적 없음	1.2	0.5	0.9
기타	2.6	2.6	2.6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36.418^{**}$  ( $p < .01$ )

〔그림 6-6〕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이유



$\chi^2 = 36.418^{**}$  ( $p < .01$ )

- 이와 같은 희망키움통장 신청 이유는 참여기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 이유 및 목표의 순서상에 차이는 없었으나, 1~2기의 경우 자녀교육비 마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6기는 창업자금 마련 및 탈 수급에 있어서 다소 높게 나타남

#### □ 희망키움통장 신청과정 상 어려움

-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한 가구들이 최초 신청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 하였던 가구는 약 14%로 대부분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시행 초기인 1~2기에서 15.1%로 3~6기(1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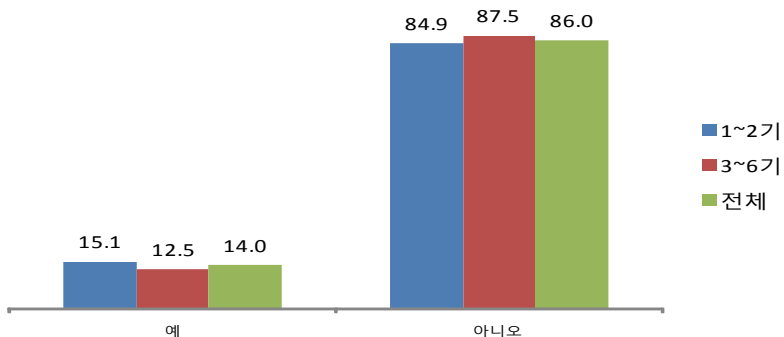
〈표 6-1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과정 상 어려움 경험여부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예	15.1	12.5	14.0
아니오	84.9	87.5	86.0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3.715$$

〔그림 6-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과정 상 어려움 경험여부



$$\chi^2 = 3.715$$

- － 한편, 희망키움통장 신청과정 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던 참여가구(전체 참여가구의 14%)가 응답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기타 의견을 제외하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제도의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약 32%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은 본인 저축액과 1:1 매칭금으로 구성된 자산형성프로그램보다는 근로인센티브를 위해 적립되는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 탈 수급 및 중도해지 조건의 복잡성 등에서 기인함
  - 그밖에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이나 공무원의 충분치 않은 설명이나 불친절함, 상담환경의 문제를 각각 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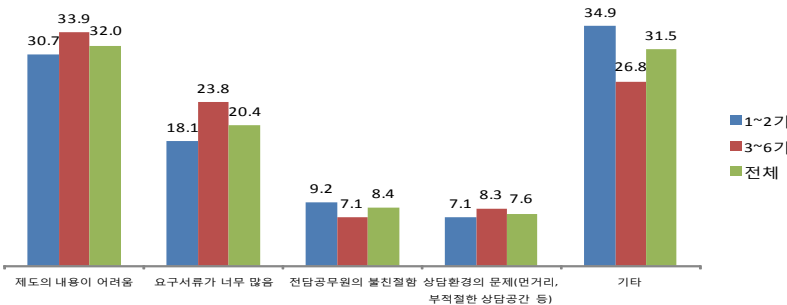
〈표 6-1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시 어려운 점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제도의 내용이 어려움	30.7	33.9	32.0
요구서류가 너무 많음	18.1	23.8	20.4
공무원의 불친절함	9.2	7.1	8.4
상담환경의 문제	7.1	8.3	7.6
기타	34.9	26.9	31.6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4.660$

〔그림 6-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시 어려운 점



$\chi^2 = 4.660$

## □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갈등 경험여부

- 다음으로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최종적으로 참여 결정과 관련하여 갈등이나 망설임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참여가구 중에서 약 41.7%가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시 말해서, 현재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10가구 중에 약 4가구 정도는 최초 신청 및 사업 참여 당시 3년 후 탈 수급 전제조건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갈등이나 혼란을 거쳐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같이 어려운 결정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희망키움통장 적립을 유지하고 탈 수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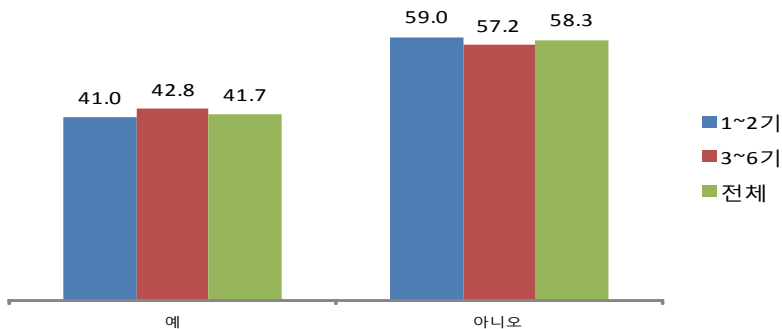
〈표 6-1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당시 갈등이나 망설임 경험여부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경험이 있다	41.0	42.8	41.7
경험이 없다	59.0	57.2	58.3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0.872$$

〔그림 6-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당시 갈등이나 망설임 경험여부



$$\chi^2 = 0.872$$

- 다음으로,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어떠한 내용과 관련해 갈등하거나 고민했는지 살펴보면, 전체의 약 60%가 사업 참여 및 모든 적립금수령의 전제조건이었던 3년 후 탈 수급 자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장 크게 고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참여기수에 상관없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탈 수급에 성공할지라도 향후 실질적으로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으로 갈등을 경험했던 가구가 전체의 약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현재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에 신청 당시에도, 그리고 현재도 가장 큰 고민은 3년 이후 탈 수급에 대한 부담과 탈 수급 후 실질적으로 자립에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사업 참여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근로활동이나 정기적인 저축, 지자체의 관리 등은 신청 당시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됨

〈표 6-1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갈등이나 망설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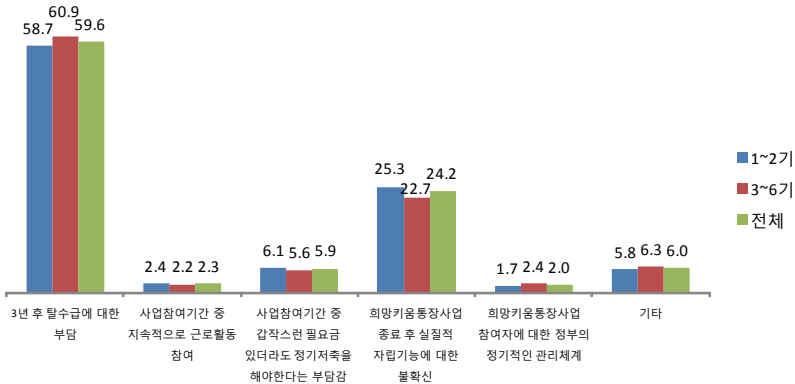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3년 후 탈 수급에 대한 부담	58.7	60.9	59.6
사업참여기간 중 지속적으로 근로활동 참여	2.4	2.2	2.3
사업 참여기간 중 필요한 돈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저축해야 한다는 부담감	6.1	5.6	5.9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실질적인 자립 가능성에 대한 확신 부족	25.3	22.7	24.2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정기적인 관리체계	1.7	2.4	2.0
기타	5.8	6.3	6.0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783$

[그림 6-10]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신청당시 갈등이나 망설임 이유

(단위: %)

 $\chi^2 = 1.783$ 

##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의 의미와 영향 요인

- 앞서 제시한 바 있는 희망키움통장 신청 이유와 함께,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미와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저축과 매칭금을 통한 목돈 마련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이러한 응답은 자산형성을 통해 주택구입, 자녀교육비, 창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자돈(seed money)을 마련하는데 우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희망키움통장 참여의 의미와 요인으로, 탈 수급을 통한 자립의 기회로 삼아 자녀에게 수급자격이나 빈곤을 대물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나 의지를 표명한 가구가 29.5%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탈 수급 자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빈곤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장기적인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지닌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근로소득장려금의 제공이 생계급여 감소보다 일하는 것을 유리하게 만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경우도 21.5%로 높게 나타났음
  - 이것은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이 현행 생계급여 체계가 지닌 보충급여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표 6-16〉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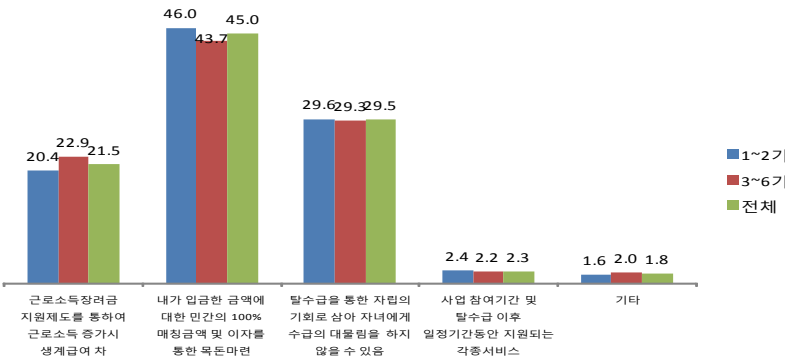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하여 근로소득 증가시 생계급여 차감을 통한 감소액보다 더욱 많은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20.4	22.9	21.5
내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민간의 100% 매칭금 및 이자를 통한 목돈 마련	46.0	43.7	45.0
탈수급을 통한 자립의 기회로 삼아 자녀에게 수급의 대물림을 하지 않을 수 있음	29.6	29.3	29.5
사업 참여기간 및 탈수급 이후 일정기간동안 지원되는 각종서비스	2.4	2.2	2.3
기타	1.6	2.0	1.8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490$

〔그림 6-1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1순위

(단위: %)



$\chi^2 = 2.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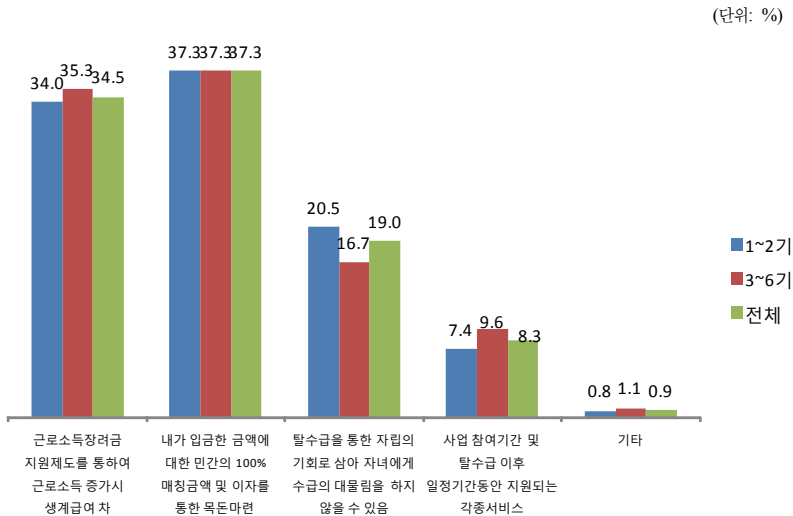
〈표 6-1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2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하여 근로소득 증가시 생계급여 차감을 통한 감소액보다 더욱 많은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34.0	35.3	34.5
내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민간의 100% 매칭금액 및 이자를 통한 목돈마련	37.3	37.3	37.3
탈수급을 통한 자립의 기회로 삼아 자녀에게 수급의 대물림을 하지 않을 수 있음	20.5	16.7	19.0
사업 참여기간 및 탈수급 이후 일정기간동안 지원되는 각종서비스	7.4	9.6	8.3
기타	0.8	1.1	0.9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7.141$$

〔그림 6-1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2순위



$$\chi^2 = 7.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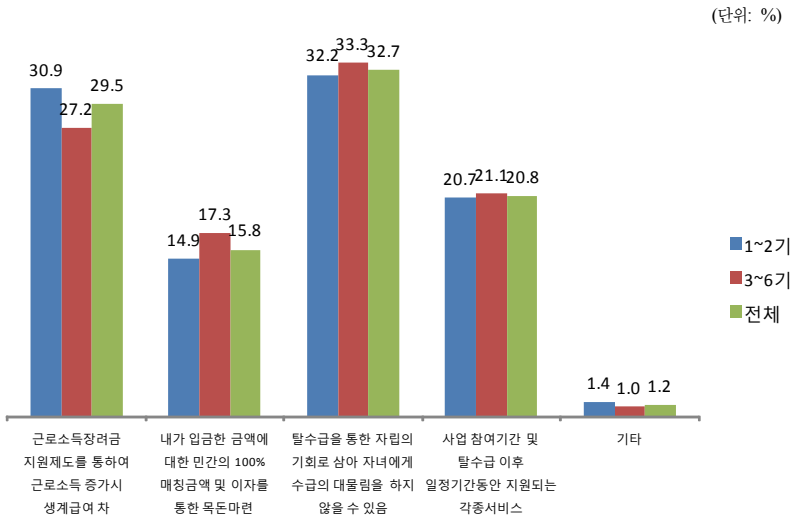
〈표 6-1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3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하여 근로소득 증가시 생계급여 차감을 통한 감소액보다 더욱 많은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30.9	27.2	29.5
내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민간의 100% 매칭금액 및 이자를 통한 목돈마련	14.9	17.3	15.8
탈수급을 통한 자립의 기회로 삼아 자녀에게 수급의 대물림을 하지 않을 수 있음	32.2	33.3	32.7
사업 참여기간 및 탈수급 이후 일정기간동안 지원되는 각종서비스	20.7	21.1	20.8
기타	1.4	1.0	1.2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4.156$

〔그림 6-1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3순위



$\chi^2 = 4.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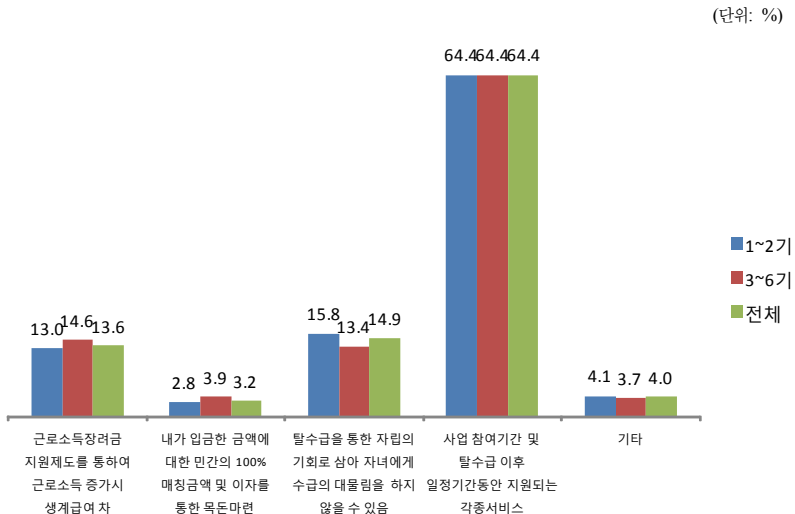
〈표 6-1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4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하여 근로소득 증가시 생계급여 차감을 통한 감소액보다 더욱 많은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13.0	14.6	13.6
내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민간의 100% 매칭금액 및 이자를 통한 목돈마련	2.8	3.9	3.2
탈수급을 통한 자립의 기회로 삼아 자녀에게 수급의 대물림을 하지 않을 수 있음	15.8	13.4	14.9
사업 참여기간 및 탈수급 이후 일정기간동안 지원되는 각종서비스	64.4	64.4	64.4
기타	4.1	3.7	4.0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3.759$$

〔그림 6-1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요인 4순위



$$\chi^2 = 3.759$$

제2절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정부지원 필요성

□ 여기서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운영방식과 탈 수급 등에 대한 참여가구의 인식을 살펴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과정에서 가장 갈등하거나 고민했던 요인인 탈 수급 전제조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다양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를 살펴봄

□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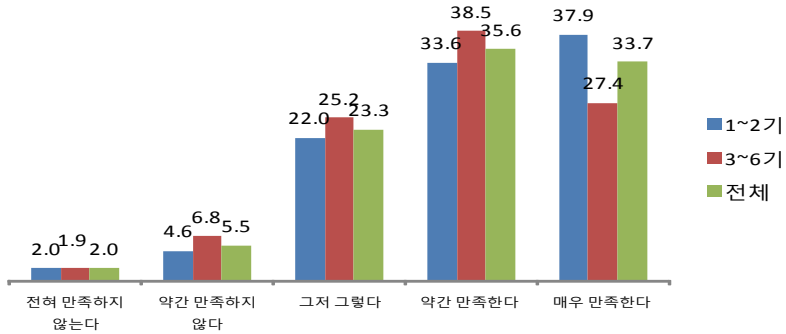
- 현행 희망키움통장의 자산형성지원과 함께 획기적인 근로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결합되어 운영 중인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참여가구의 33.7%가 매우 만족하였으며 1~2기의 경우 37.9%로 3~6기(27.4%)에 비해 10%p 이상 높았음
- 전체 참여가구의 약 70%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불과 7.5%만이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평가결과는 참여기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기준 완화 전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신청 및 참여한 1~2기의 경우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4.01점으로 3~6기(3.83)에 비해서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 6-20〉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평균	4.01	3.83	3.94
(표준편차)	(0.979)	(0.973)	(0.98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0	1.9	2.0
약간 만족하지 않다	4.6	6.8	5.5
그저 그렇다	22.0	25.2	23.3
약간 만족한다	33.6	38.5	35.6
매우 만족한다	37.9	27.4	33.7
합 계	100.0	100.0	100.0

t = 4.732\*\* (p<.01);  $\chi^2$  = 34.318\*\* (p<.01)

[그림 6-15]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



$\chi^2 = 34.318^{**}$  ( $p < .01$ )

#### □ 근로소득장려금의 영향으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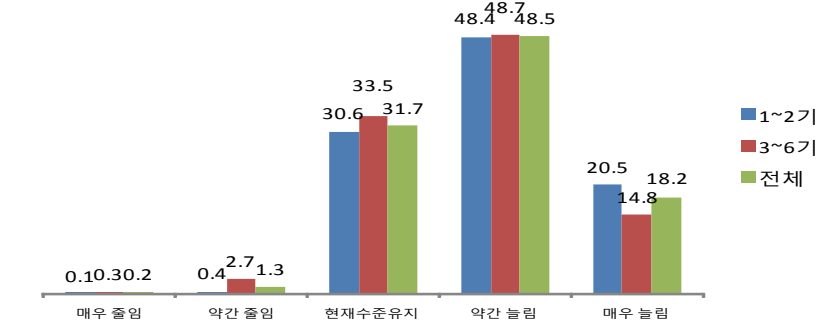
- 한편, 이처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을 감안할 때 향후 근로활동을 얼마나 증가시킬 계획인지 조사한 결과, 약 2/3(66.7%)의 가구가 근로활동을 증가시킬 예정이며 31.7%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였음
- 반면, 근로활동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하였으며, 이와 같은 근로활동 증가 계획 역시 앞서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만족 수준과 동일하게 1~2기에서 3.89점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높았음

〈표 6-21〉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의 영향으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계획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평균	3.89	3.75	3.83
(표준편차)	(0.725)	(0.745)	(0.736)
매우 줄임	0.1	0.3	0.2
약간 줄임	0.4	2.7	1.3
현재수준 유지	30.6	33.5	31.7
약간 늘림	48.4	48.7	48.5
매우 늘림	20.5	14.8	18.2
합 계	100.0	100.0	100.0

$t = 4.711^{**}$  ( $p < .01$ );  $\chi^2 = 40.194^{**}$  ( $p < .01$ )

[그림 6-16] 참여기수별 근로소득장려금의 영향으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계획



$\chi^2 = 40.194^{**}$  ( $p < .01$ )

#### □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탈 수급 조건에 대한 인식

- 현행 희망키움통장 참여 및 전체 적립금 수령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탈 수급에 대한 인식 및 동의여부를 살펴봄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체 가구의 70.9%가 이와 같은 전제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기가 72.6%로 3~6기 (6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 사업 참여 3년 이후 탈 수급 전제조건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가구 역시 29.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가구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시점까지 참여를 유지하게 될지라도 최종적으로 탈 수급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임
  - 3장에서 분석한 희망키움통장 참여현황 및 참여유지비율 예측에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다면, 2010년 전체 참여가구 중 향후 참여유지가 예상되는 가구 중에서 약 70%가 최소한 탈 수급 조건에 동의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구는 사업 참여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적립금을 모두 수령하고 탈 수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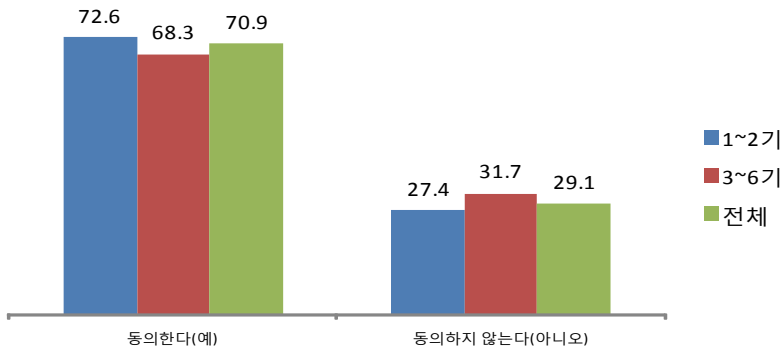
〈표 6-2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탈 수급 조건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동의한다(예)	72.6	68.3	70.9
동의하지 않는다(아니오)	27.4	31.7	29.1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5.820^* (p < .05)$$

[그림 6-1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탈 수급 조건에 대한 인식



$$\chi^2 = 5.820^* (p < .05)$$

## □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수급자격 상실에 대한 생각

- 탈 수급에 대한 인식(동의여부)에 이어,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탈 수급으로 인해 기초보장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참여기수와 상관없이 44.4%가 사업 참여 3년 후 즉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유예기간을 일정 정도 갖고 탈 수급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 역시, 3년 동안 중도해지 하지 않고 참여를 유지하더라도 탈 수급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의미함
  - 이와 관련해서 3년이라는 사업 참여기간의 충분성 또는 적정성 검토 및 사례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유지뿐만 아니라 탈 수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물급여 제공 등 이행급여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와 연계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전체의 26.9%가 사업 종료시점에서 정부지원 중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11.4%의 가구는 자활 성공여부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기초보장수급을 받고 싶다는 응답도 13.8%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업 종료시점에 탈 수급한 가구일지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수급 가능성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으며 1~2기의 경우 15.4%로 상대적으로 더욱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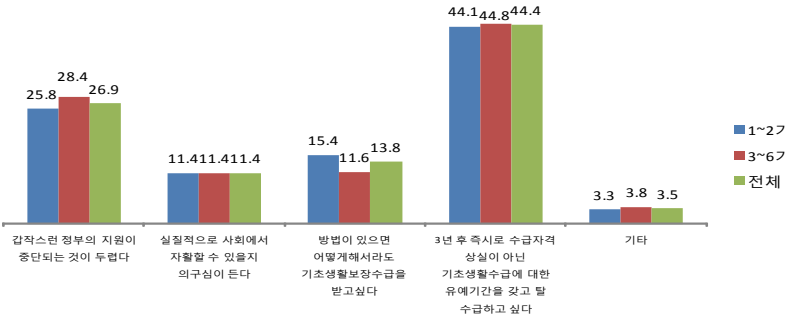
〈표 6-2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수급자격 상실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갑작스런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두렵다	25.8	28.4	26.9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자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11.4	11.4	11.4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든 계속 수급받고 싶다	15.4	11.6	13.8
3년 후 즉시로 수급자격 상실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유예기간을 갖고 탈 수급하고 싶다	44.1	44.8	44.4
기타	3.3	3.8	3.5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3.053$

〔그림 6-1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수급자격 상실에 대한 생각



$\chi^2 = 3.053$



## □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시점에 탈 수급하게 될 경우 가장 걱정되는 지출 및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0.7%가 자녀교육비를 가장 걱정하였으며 이어서 보건의료비, 주거비(주거환경) 순으로 응답함
- 참여기수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1~2기는 자녀교육비, 3~6기는 의료비, 생활비, 실직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걱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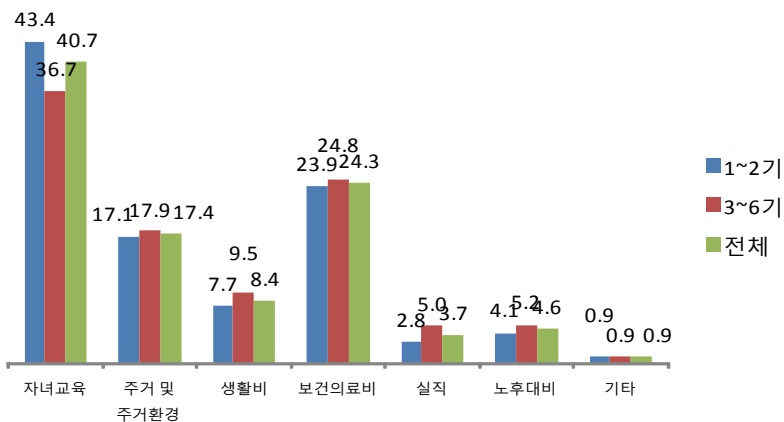
〈표 6-2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1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자녀교육	43.4	36.7	40.7
주거비 및 주거환경	17.1	17.9	17.4
생활비	7.7	9.5	8.4
보건의료비	23.9	24.8	24.3
실직	2.8	5.0	3.7
노후대비	4.1	5.2	4.6
기타	0.9	0.9	0.9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9.462^{**}$  ( $p < .01$ )

[그림 6-1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1순위

 $\chi^2 = 19.462^{**}$  ( $p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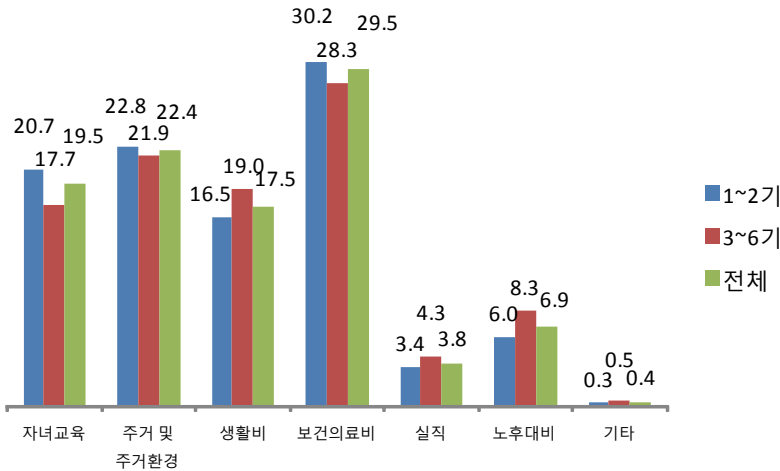
〈표 6-2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2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자녀교육	20.7	17.7	19.5
주거 및 주거환경	22.8	21.9	22.4
생활비	16.5	19.0	17.5
보건의료비	30.2	28.3	29.5
실직	3.4	4.3	3.8
노후대비	6.0	8.3	6.9
기타	0.3	0.5	0.4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2.307$

〔그림 6-20〕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2순위



$\chi^2 = 12.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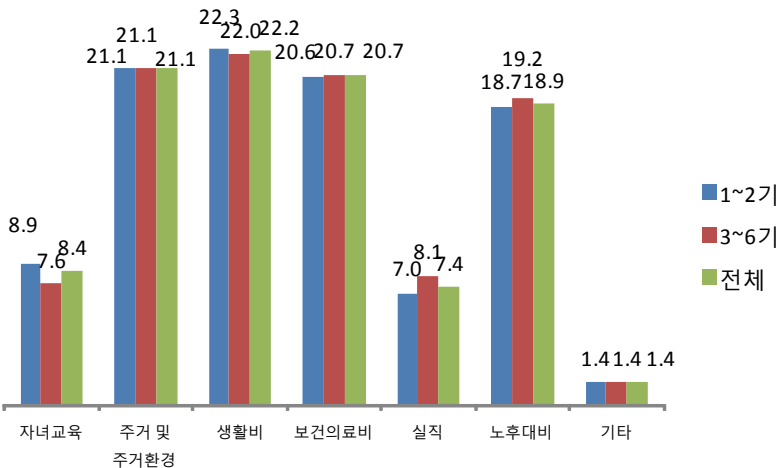
〈표 6-26〉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3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자녀교육	8.9	7.6	8.4
주거 및 주거환경	21.1	21.1	21.1
생활비	22.3	22.0	22.2
보건의료비	20.6	20.7	20.7
실직	7.0	8.1	7.4
노후대비	18.7	19.2	18.9
기타	1.4	1.4	1.4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359$ 

〔그림 6-2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우려사항 3순위

 $\chi^2 = 2.359$ 

## □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 필요사항

- 앞서 살펴본 희망키움통장 참여 및 적립금 수령을 위한 전제조건인 탈 수급에 대한 참여가구가 가진 인식과 걱정뿐만 아니라,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자산형성을 통해 탈 수급을 촉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탈 수급 후에 실질적으로 자립에

성공하여 수급자로 재진입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 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의 연계 및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 이러한 방안을 통해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시점에서 탈 수급을 선택할 경우에도 현재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우려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자립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해야 함

〈표 6-2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의료급여)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의료급여	희망	95.2	96.0	95.5
	비희망	4.8	4.0	4.5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0.956$

〈표 6-2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주택지원)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영구임대아파트	희망	77.4	79.2	78.1
입주 지원	비희망	22.6	20.8	21.9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181$

〈표 6-2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주거비 보조)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주거비 보조 (월세)	희망	54.4	57.0	55.4
	비희망	45.6	43.0	44.6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547$

〈표 6-30〉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초중고 교육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희망	50.8	51.2	50.9
	비희망	49.2	48.8	49.1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0.046$$

〈표 6-3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대학교육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대학 교육비 지원	희망	80.8	76.7	79.2
	비희망	19.2	23.3	20.8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6.069^* (p < .05)$$

〈표 6-3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취업지원)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취업 지원	희망	65.3	71.5	67.7
	비희망	34.7	28.5	32.3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0.216^{**} (p < .01)$$

〈표 6-3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근로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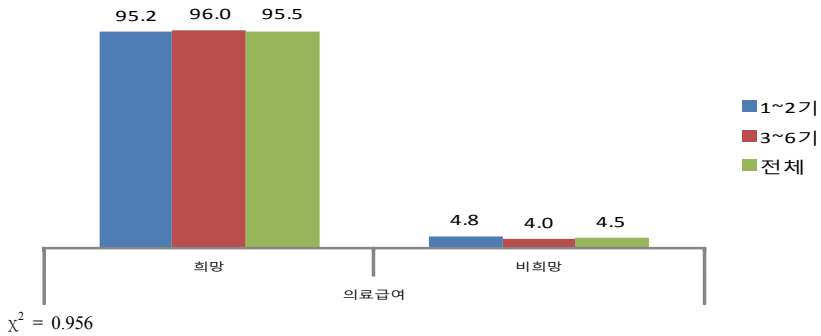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희망	78.4	80.1	79.0
	비희망	21.6	19.9	21.0
합 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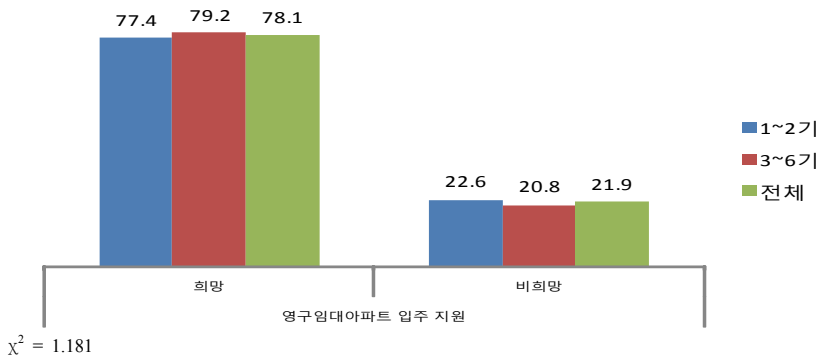
$$\chi^2 = 1.099$$

- 7가지(의료급여, 주택지원, 주거비 보조, 초중고 교육비, 대학교육비, 취업지원, 근로소득장려금) 영역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욕구를 조사한 결과, 의료급여에 대한 욕구와 지원 필요성이 9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육비와 근로소득장려금(근로인센티브)에 대한 필요성이 약 79%,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등 주택지원 78.1%, 취업지원 67.7% 등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주거비 보조와 초중고 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각각 전체의 55.4%와 50.9%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항목에서 참여가구수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학교육비 지원은 1~2기, 취업지원은 3~6기에서 희망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정부지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욕구를 고려할 때, 탈 수급 후 2년간 의료 및 주거급여 등 이행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희망키움통장 참여 3년 및 추가 2년간 자산형성 및 자립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고 재수급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대학교육비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탈 수급 이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것은 최근 논의 중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방안과 연계되어야 함
  - 근로소득장려금과 같은 근로인센티브에 대한 지속적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국세청이 조세체계를 통해 운영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및 연계,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탈 수급에 성공한 가구들이 근로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과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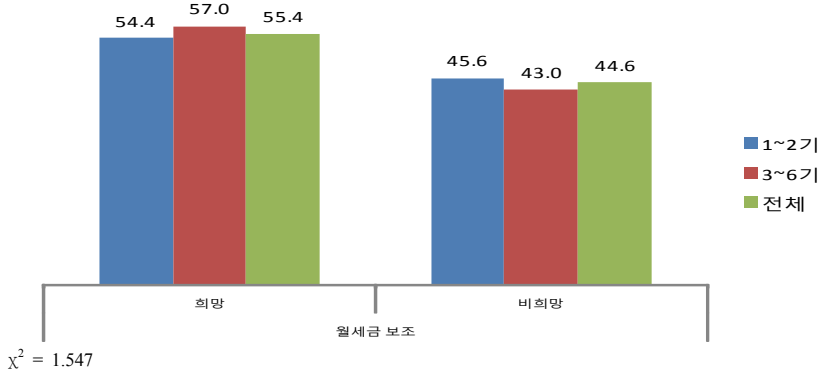
[그림 6-22]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의료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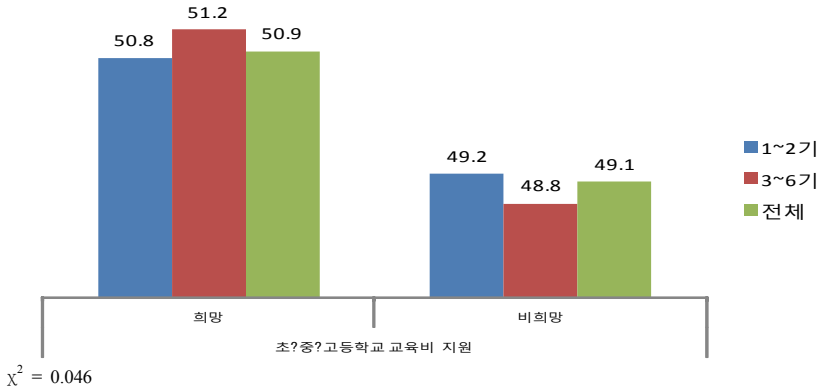
[그림 6-23]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주택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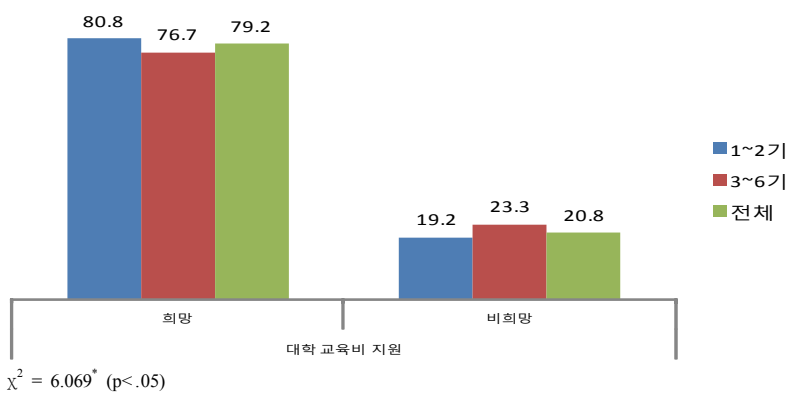
[그림 6-2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주거비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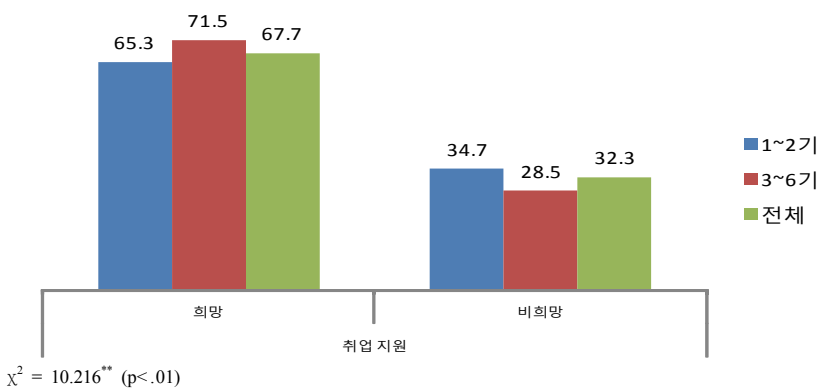
[그림 6-2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초·중고 교육비)



[그림 6-26]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대학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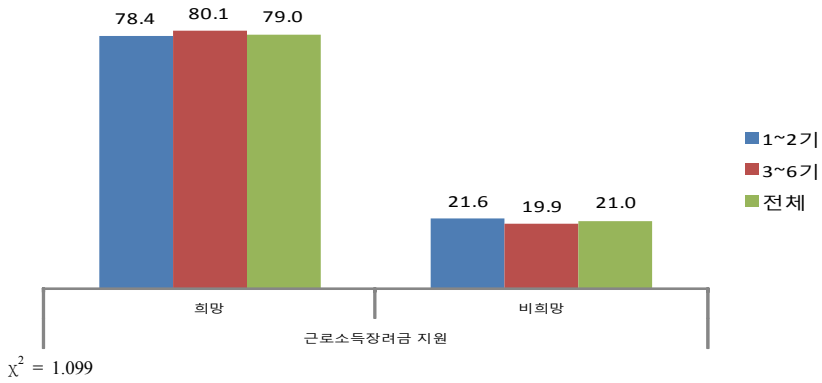


[그림 6-27]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취업지원)





[그림 6-28]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탈 수급 시 정부지원(근로인센티브)



### 제3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저축 관련 인식과 행태

□ 여기서는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저축 및 자산관리 등에 대한 인식 및 행태, 선호 등에 대한 기초선 조사결과를 살펴봄

□ 희망키움통장 참여 이전의 저축 행태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사업 참여 이전의 저축 행태를 살펴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을 해왔던 가구는 전체의 15.6%에 불과했음
  -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만 저축을 했다고 응답한 가구도 약 1/4인 26.3%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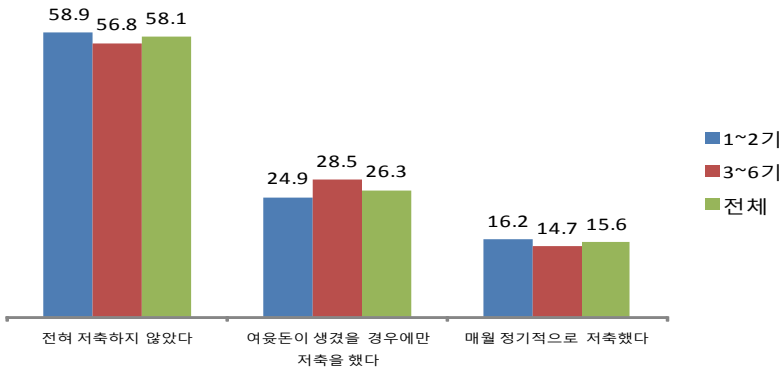
〈표 6-34〉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전의 저축 행태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전혀 저축하지 않았다	58.9	56.8	58.1
여윌돈이 생겼을 경우에만 저축을 했다	24.9	28.5	26.3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했다	16.2	14.7	15.6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4.579$$

[그림 6-29]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전의 저축 행태



$$\chi^2 = 4.579$$

- 반면, 전체 참여가구의 58.1%는 전혀 저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참여기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 이것은 참여가구 10가구 중에 약 6가구가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에는 하지 않았던 정기적 저축을 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수급가구에 대한 저축률 제고효과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우리 희망키움통장의 중요하고 특징적인 정책목표인 ‘자산형성을 통한 탈 수급’ 외에도 사업 참여과정에서 저축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 희망키움통장 참여 이전 금융교육 경험여부

- 사업 참여 이전 저축 행태와 더불어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금융교육에 대한 경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금융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약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참여기수별로 금융교육을 경험한 가구비율을 비교해보면, 1~2기(10.2%, 1.60점)에 비해서 3~6기(14.4%, 1.91점) 참여가구에 상대적으로 경험 정도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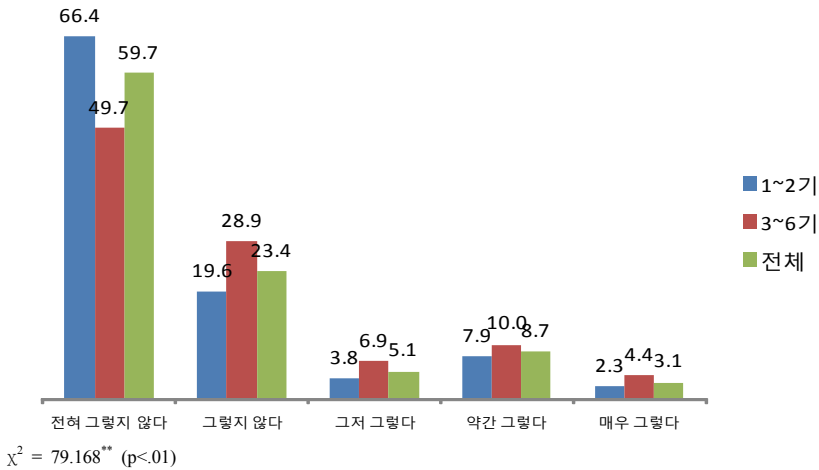
〈표 6-3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참여 이전 금융교육 경험여부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평균 (표준편차)	1.60 (1.030)	1.91 (1.166)	1.72 (1.097)
	전혀 그렇지 않다	66.4	49.7	59.7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전 금융교육 경험 정도	그렇지 않다	19.6	28.9	23.4
	그저 그렇다	3.8	6.9	5.1
	약간 그렇다	7.9	10.0	8.7
	매우 그렇다	2.3	4.4	3.1
합 계		100.0	100.0	100.0

t = -6.987\*\* (p<.01);  $\chi^2$  = 79.168\*\* (p<.01)

- 반면, 전체의 약 60%는 저축 등 금융상품 또는 자산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83%는 이와 같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매칭금 지원과 더불어 중요한 구성요소인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산형성과 탈 수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이전에 사업에 참여한 가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과 함께 자산관리, 금융상품 교육을 통해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그림 6-30] 참여가구별 희망키움통장 참여 이전 금융교육 경험여부



□ 미래 상황에 대비한 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미래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산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2% 이상이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반면, 전혀 필요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3.3%에 불과하여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1~2기의 경우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61점으로, 3~6기(4.42점)에 비해서 미래 상황에 대비한 준비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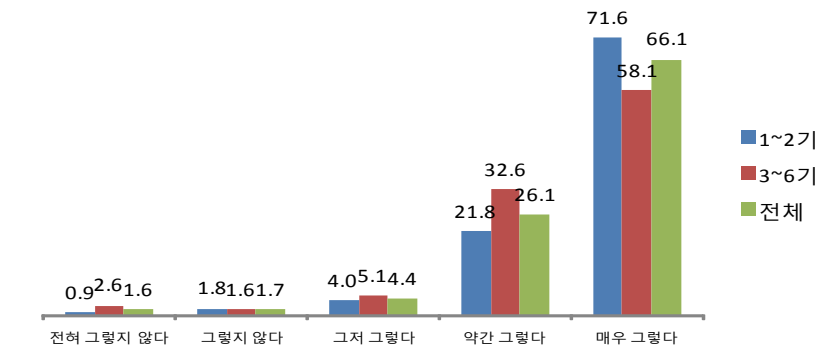
- 이처럼 90%를 넘는 대부분의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가 미래 상황에 대비한 자산 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반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 60%에 해당하는 가구는 저축하는 습관 및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요컨대, 이와 같은 가구들은,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저축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사례관리요원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례관리 및 금융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6-36〉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에 대비한 준비 필요성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평균	4.61	4.42	4.53
	(표준편차)	(0.732)	(0.869)	(0.795)
	전혀 그렇지 않다	0.9	2.6	1.6
	그렇지 않다	1.8	1.6	1.7
	그저 그렇다	4.0	5.1	4.4
	약간 그렇다	21.8	32.6	26.1
	매우 그렇다	71.6	58.1	66.1
합 계		100.0	100.0	100.0

$t = 5.967^{**}$  ( $p < .01$ );  $\chi^2 = 59.247^{**}$  ( $p < .01$ )

〔그림 6-31〕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에 대비한 준비 필요성



$\chi^2 = 59.247^{**}$  ( $p < .01$ )

□ 미래 상황에 대비한 준비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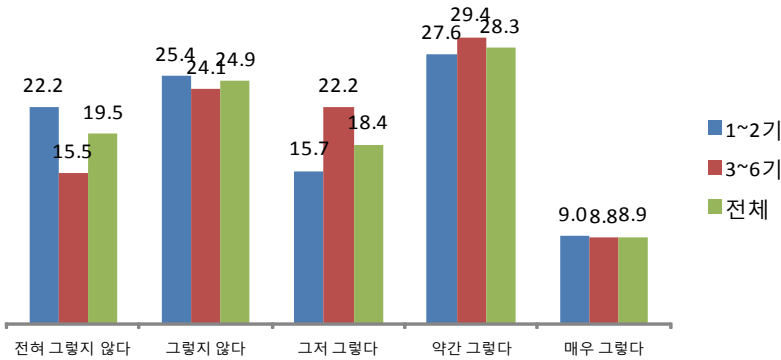
- 참여가구들이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자산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 만큼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약 37.2%만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10가구 중에 약 4가구만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며, 약 2가구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6-37〉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에 대비한 현재 준비여부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평균		2.76	2.92	2.82
(표준편차)		(1.312)	(1.224)	(1.280)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2	15.5	19.5
	그렇지 않다	25.4	24.1	24.9
	그저 그렇다	15.7	22.2	18.4
	약간 그렇다	27.6	29.4	28.3
	매우 그렇다	9.0	8.8	8.9
	합 계	100.0	100.0	100.0

$t = -3.213^{**}$  ( $p < .01$ );  $\chi^2 = 30.623^{**}$  ( $p < .01$ )

〔그림 6-32〕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에 대비한 현재 준비여부



$\chi^2 = 30.623^{**}$  ( $p < .01$ )

## □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준비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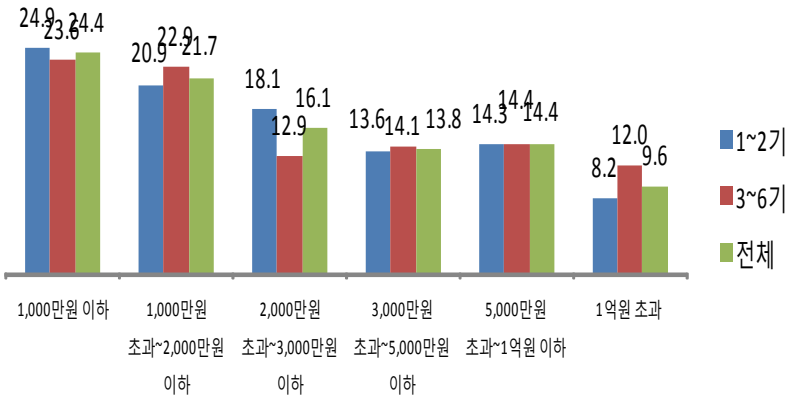
-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자금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5,8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참여기수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3~6기 참여가구의 경우 평균 약 6,400만원으로 1~2기 참여가구가 생각하는 필요자금 5,400만원에 비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타남
  - 구간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가 약 24.4%로 가장 높았으며, 3천만원 이하로 응답한 가구의 누적비율은 약 62.2%, 5천만원 이하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운영체계를 설계하거나 개편할 경우, 최종적인 탈 수급 시 약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저축액 선택 범위, 매칭금 비율, 적립기간을 설계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참여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표 6-38〉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자금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평균(만원)		5,380.21	6,423.70	5,779.24
(표준편차)		(8620.222	(9658.574	(9043.749
		)	)	)
미래를 대비한 필요 자금	1,000만원 이하	24.9	23.6	24.4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20.9	22.9	21.7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18.1	12.9	16.1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3.6	14.1	13.8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4.3	14.4	14.4
	1억원 초과	8.2	12.0	9.6
합 계		100.0	100.0	100.0

t = -2.752\* (p<.05);  $\chi^2$  = 20.764\*\* (p<.01)

[그림 6-33] 참여기수별 미래 상황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자금



$\chi^2 = 20.764^{**}$  ( $p < .01$ )

□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된 자금규모 및 준비율

— 앞서, 미래 상황 대비를 위해 필요한 준비자금 평균이 약 5,800만원, 전체 가구의 62.2%가 3천만원 이하, 약 76%가 5천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하여, 희망키움통장 참여 이전까지 준비된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6-39> 참여기수별 미래 대비를 위해 준비된 자금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평균(만원)		191.04	217.37	200.47
(표준편차)		(1067.217)	(691.706)	(949.810)
미래를 대비한 현재 준비자금	1,000만원 이하	96.9	95.4	96.4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3	2.4	1.7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1.0	1.3	1.1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0.5	0.7	0.6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1	0.2	0.2
	1억원 초과	0.1	-	0.1
	합 계	100.0	100.0	100.0

$t = -0.664$ ;  $\chi^2 = 6.171$



〈표 6-40〉 참여기수별 미래 대비를 위한 필요자금 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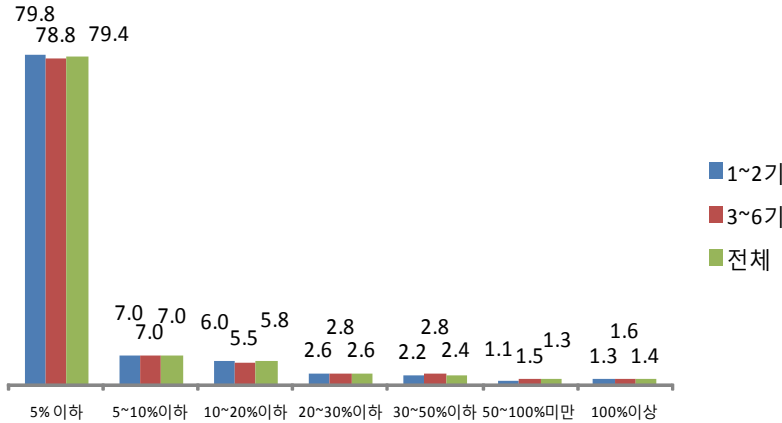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평균(%)	5.96	6.70	6.23
(표준편차)	(19.713)	(19.264)	(19.548)
필요자금 준비율	5% 이하	79.8	78.8
	5~10%이하	7.0	7.0
	10~20%이하	6.0	5.5
	20~30%이하	2.6	2.8
	30~50%이하	2.2	2.8
	50~100%미만	1.1	1.5
	100%이상	1.3	1.6
	합 계	100.0	100.0

t = -0.894;  $\chi^2 = 2.189$

- 전체 참여가구의 준비자금 평균금액은 약 200만원에 불과했으며 ‘필요자금 대비 준비자금 비율(이하 준비율)’ 평균은 약 6.23%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미래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된 자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96.4%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필요자금 대비 준비자금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약 95% 정도에서 30% 이하인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필요자금에 대한 준비상태는 참여기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유사한 수준이었음
- 요컨대,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약 60%는 사업 참여 이전까지는 저축 및 금융 관련 교육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평균 5,800만원으로 약 76%의 가구에서 5천만원 이하의 준비자금을 필요로 하는 반면, 평균 200만원의 필요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 96%의 가구가 1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자금을 준비하고 있어

필요자금 대비 준비자금의 비율이 약 6.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되었음

[그림 6-34] 참여기수별 미래 대비를 필요자금 준비율



$\chi^2 = 2.189$

□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자산관리계획 수립여부

—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이후 자산관리계획 수립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을 조금 넘는 약 54.8%의 참여가구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참여기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70%로 3~6기(최저생계비 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1~2기의 경우에는 자산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약 58.2%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3~6기(49.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및 다양한 금융교육을 통해서 3년이 경과한 후 사업 종료시점에서 탈 수급에 대한 준비와 함께 독립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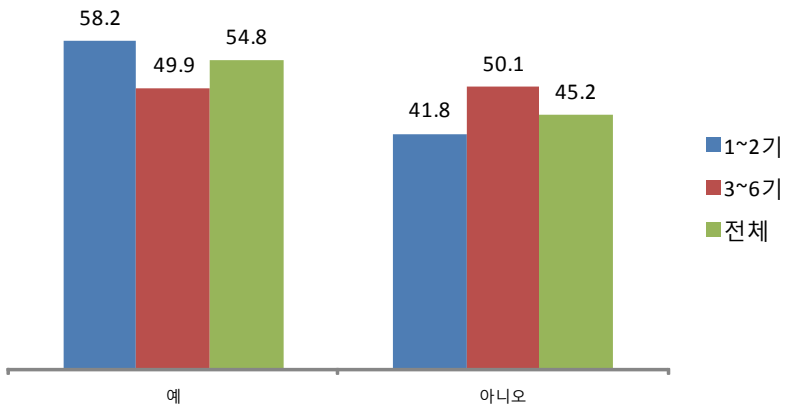
〈표 6-41〉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자산관리계획 수립여부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예	58.2	49.9	54.8
아니오	41.8	50.1	45.2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7.877^{**} (p < .01)$$

〔그림 6-35〕 참여기수별 희망키움통장 종료 후 자산관리계획 수립여부



$$\chi^2 = 17.877^{**} (p < .01)$$

##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가 선호하는 금융상품

- 마지막으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참여기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예금 및 적금이 69.3%로 가장 선호되는 금융상품이었으며 연금·보험(11.4%), 부동산(8.9%), 주식·채권(1.9%) 순서로 나타남
  - 5점 척도 기준으로 조사한 금융상품 유형별 선호정도 역시 예금·적금(4.17점), 연금·보험(3.57점), 부동산(2.80점), 주식·채권(2.03점) 순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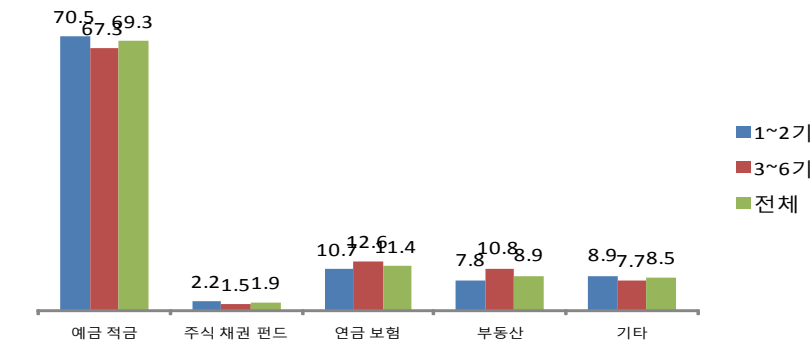
〈표 6-42〉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예금·적금	70.5	67.3	69.3
주식·채권	2.2	1.5	1.9
연금·보험	10.7	12.6	11.4
부동산	7.8	10.8	8.9
기타	8.9	7.7	8.5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6.752$

〔그림 6-36〕 참여기수별 선호하는 금융상품



$\chi^2 = 6.752$

〈표 6-43〉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예금·적금)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평균	4.20	4.14	4.17
(표준편차)	(0.791)	(0.789)	(0.791)
예금·적금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1.0	1.0
	대체로 좋아하지 않는다	1.9	1.9
	그저 그렇다	11.9	12.7
	대체로 좋아한다	47.1	47.8
	매우 좋아한다	38.2	36.6
합 계	100.0	100.0	100.0

$t = 1.857; \chi^2 = 2.766$

〈표 6-44〉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 (보험·연금)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7	3~67	
보험·연금	평균	3.57	3.56	3.57
	(표준편차)	(1.017)	(1.003)	(1.012)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4.4	4.8	4.6
	대체로 좋아하지 않는다	8.6	7.8	8.3
	그저 그렇다	30.3	29.6	30.0
	대체로 좋아한다	39.0	42.0	40.2
	매우 좋아한다	17.7	15.8	16.9
합 계		100.0	100.0	100.0

t = 0.189;  $\chi^2 = 3.553$ 

〈표 6-45〉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주식·채권)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7	3~67	
주식·채권	평균	1.98	2.10	2.03
	(표준편차)	(1.030)	(1.040)	(1.035)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41.7	36.2	39.5
	대체로 좋아하지 않는다	28.2	28.8	28.4
	그저 그렇다	22.5	25.7	23.8
	대체로 좋아한다	5.3	7.4	6.2
	매우 좋아한다	2.3	1.9	2.1
	합 계	100.0	100.0	100.0

t = -2.845;  $\chi^2 = 12.032^*(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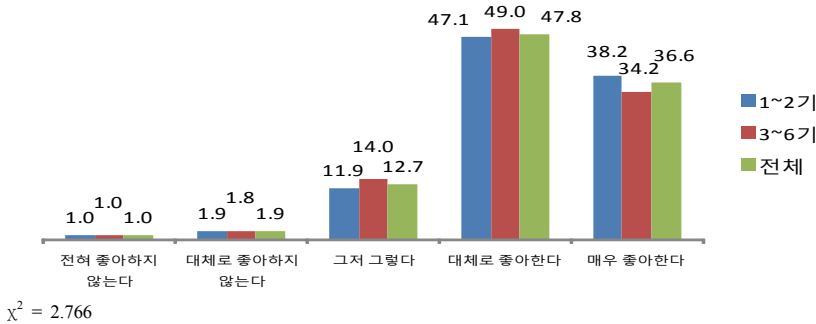
〈표 6-46〉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부동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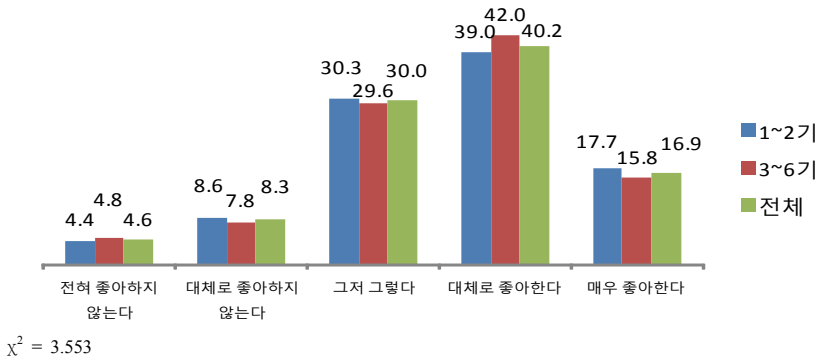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7]	3~67]	
부동산	평균	2.79	2.81	2.80
	(표준편차)	(1.342)	(1.256)	(1.308)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23.7	19.9	22.2
	대체로 좋아하지 않는다	18.7	19.6	19.0
	그저 그렇다	25.8	30.3	27.6
	대체로 좋아한다	18.8	19.6	19.2
	매우 좋아한다	13.0	10.5	12.0
	합 계	100.0	100.0	100.0

t = -0.467;  $\chi^2 = 12.113^*$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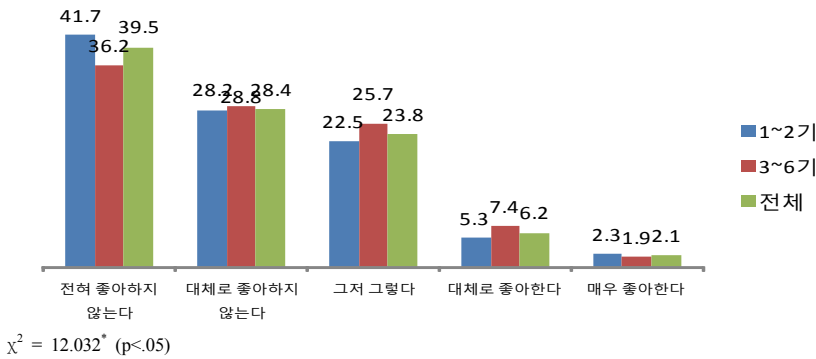
[그림 6-37]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예금·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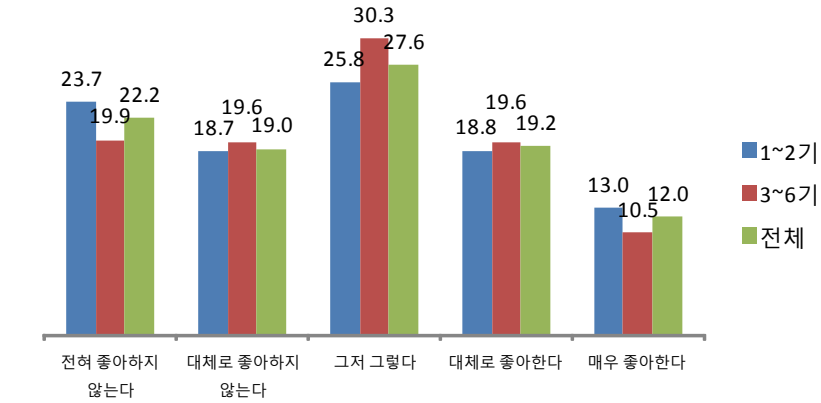
[그림 6-38]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보험·연금)



[그림 6-39]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주식·채권)



[그림 6-40] 참여기수별 금융상품 선호정도(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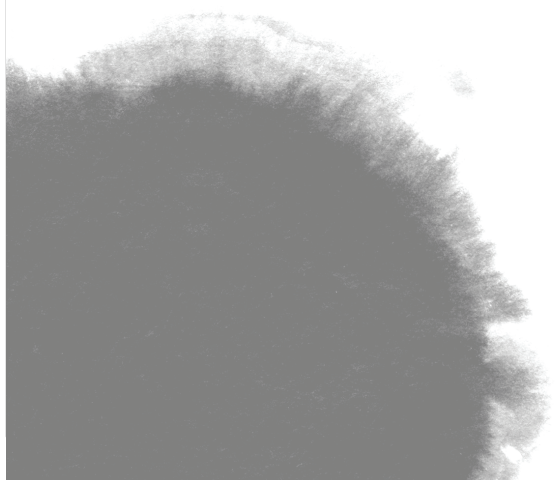

 $\chi^2 = 12.113^* (p < .05)$





# 7장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패널 조사결과: 가구특성 및 경제상태





## 제7장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패널 조사결과

### : 가구특성 및 경제상태

#### 제1 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패널조사 수행결과

□ 앞서 5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 1차 연구 조사 설계 당시 2010년 1~2기 참여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표본가구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1~2기 표본가구 추출과 기초선 및 패널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소득기준 변경 및 탈 수급 이후의 이행급여 지원여부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3~6기 참여가구를 조사대상 표본가구로 추가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음

□ 먼저, 2010년 하반기를 조사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1차 패널조사의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2기 참여가구의 경우, 기초선 조사가 완료된 조사대상(원표본가구) 1,603가구 중에 1,366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1차 패널조사 완료율과 원표본 유지율은 85.2%로 나타남
  - 기초선 조사를 마친 1~2기 참여가구 중에 237가구는 조사거부 또는 조사기간 전 중도해지 및 조기 탈수급 등의 사유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함
- 3~6기 참여가구의 경우, 기초선 조사를 마친 조사대상(원표본가

구) 1,098가구 중 1,065가구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1차 패널 조사 완료율은 97.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3~6기의 경우, 표본 추가로 인해 1~2기에 비해서 기초선 조사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으며, 1차 패널조사가 기초선 조사가 완료된 직후 바로 수행됨에 따라 완료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3~6기 표본가구 중 33가구는 조사거부 또는 조사기간 직전 중도해지 및 조기 탈 수급 등의 사유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함

- 이에 따라, 기초선 조사가 완료된 2010년 1~6기 전체 원표본가구 2,701가구 중에 2,431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70가구의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1차 패널조사의 완료율과 원표본 유지율은 90.0%로 나타남

□ 한편, 2011년 상반기를 조사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2차 패널조사의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2기 참여가구는, 1차 패널조사가 완료된 조사대상 1,366가구 중 1,113가구가 완료되어 2차 패널조사 완료율은 81.5%, 2차 패널조사까지의 원표본 유지율은 69.4%로 각각 나타남

- 2차 패널조사 중에는 253가구가 조사거부 또는 조사기간 직전 중도해지 및 조기 탈 수급 등의 사유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총 490가구가 원표본 가구에서 탈락함

- 3~6기 참여가구의 경우 1~2기에 비해서 완료율과 원표본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차 패널조사가 완료된 조사대상 1,065가구 중 903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2차 패널조사 완료율과 원표본 유지율은 각각 84.8%와 82.2%인 것으로 나타남

- 3~6기의 경우 2차 패널조사 중에 162가구가 조사거부 또는 조

사기간 직전 중도해지 및 조기 탈 수급을 사유로 조사가 완료  
되지 못하여 원표본 가구 중에 총 195가구가 탈락함

- 요컨대, 2010년 전체 표본가구의 경우 1차 패널조사가 완료된 조  
사대상 2,431가구 중 2,016가구에 대한 2차 패널조사가 완료되어  
2차 패널조사 완료율은 82.9%로 나타남
- 2차 패널조사 중에는 415가구가 조사거부 또는 조사기간 직전  
중도해지 및 조기 탈 수급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원표본 가구(2,701가구)에서 1~2차 패널조사 중 총 685가구가  
탈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표본 유지율은 74.6%로 분석됨

〈표 7-1〉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1~2기/3~6기) 기초선 조사 및 1~3차 패널조사 수행결과

(단위: 가구)

구분		전체 참여가구	원표본가 구	조사대상 가구	조사 완료	조사 완료율 (%)	원표본 유지율 (%)	조사미완 표본탈락
기초선	1~2기	3,466	-	1,861	1,603	86.1	100.0	258
	3~6기	7,548	-	1,307	1,098	84.0	100.0	209
	전체	11,014	-	3,168	2,701	85.3	100.0	467
1차 패널	1~2기	3,466	1,603	1,603	1,366	85.2	85.2	237
	3~6기	7,548	1,098	1,098	1,065	97.0	97.0	33
	전체	11,014	2,701	2,701	2,431	90.0	90.0	270
2차 패널	1~2기	3,466	1,603	1,366	1,113	81.5	69.4	253
	3~6기	7,548	1,098	1,065	903	84.8	82.2	162
	전체	11,014	2,701	2,431	2,016	82.9	74.6	415
3차 패널	1~2기	3,466	1,603	1,113	1,004	90.2	62.6	109
	3~6기	7,548	1,098	903	804	89.0	73.3	99
	전체	11,014	2,701	2,016	1,808	89.7	66.9	208

제2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일반적 특성

□ 가구원수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 가구원수는 약 3.12명으로 가구원 수 분포는 3명이 가장 높았으며, 4명이 그 다음 순이었음
- 이는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조사에서 참여가구 별로 가구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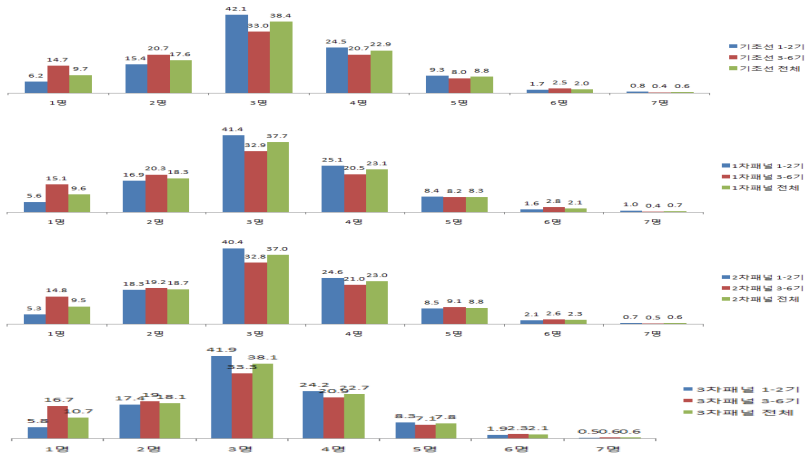
〈표 7-2〉 가구원수

(단위: %)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평균 (표준편차)	3.23 (1.114)	3.23 (1.109)	3.22 (1.115)	2.96 (1.266)	2.96 (1.284)	3.00 (1.293)	3.12 (1.187)	3.11 (1.194)	3.12 (1.202)
1명	6.2	5.6	5.3	14.7	15.1	14.8	9.7	9.6	9.5
2명	15.4	16.9	18.3	20.7	20.3	19.2	17.6	18.3	18.7
3명	42.1	41.4	40.4	33.0	32.9	32.8	38.4	37.7	37.0
4명	24.5	25.1	24.6	20.7	20.5	21.0	22.9	23.1	23.0
5명	9.3	8.4	8.5	8.0	8.2	9.1	8.8	8.3	8.8
6명	1.7	1.6	2.1	2.5	2.8	2.6	2.0	2.1	2.3
7명	0.8	1.0	0.7	0.4	0.4	0.5	0.6	0.7	0.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t= 5.864** (p<.01); $\chi^2_1$ =80.510** (p<.01) 1차패널 t= 5.248** (p<.01); $\chi^2_1$ =80.603** (p<.01) 2차패널 t= 3.941** (p<.01); $\chi^2_1$ =57.587* (p<.01)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평균 (표준편차)	3.2 (1.094)			2.92 (1.288)			3.07 (1.192)		
1명	5.8			16.7			10.7		
2명	17.4			19.0			18.1		
3명	41.9			33.3			38.1		
4명	24.2			20.9			22.7		
5명	8.3			7.1			7.8		
6명	1.9			2.3			2.1		
7명	0.5			0.6			0.6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t= 4.658\*\* (p<.01);  $\chi^2$ = 59.545\*\* (p<.01)

[그림 7-1] 가구원수



## □ 가구의 성별

- 전체 참여가구 중 가구의 성별은 여성(약 63%)이 남성(약 36%)에 비해 약 27%p 높았음
- 이는 참여기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표 7-3〉 가구의 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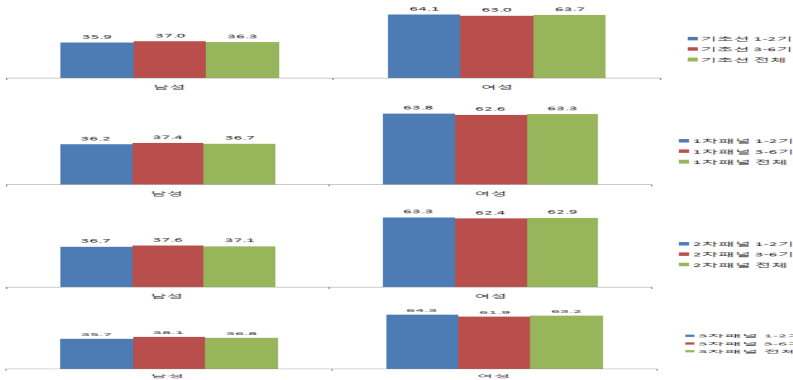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남성	35.9	36.2	36.7	37.0	37.4	37.6	36.3	36.7	37.1
여성	64.1	63.8	63.3	63.0	62.6	62.4	63.7	63.3	62.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0.368$ ; 1차패널  $\chi^2 = 0.360$ ; 2차패널  $\chi^2 = 0.139$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남성	35.7	38.1	36.8
여성	64.3	61.9	63.2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0.981$

[그림 7-2] 가구의 성별



□ 가구의 연령

- 전체 참여가구 가구의 연령은 평균 약 46세로 연령집단별로 보면 40~49세가 가장 많았으며, 50~64세, 30~39세 순이었음
- 1~2기 참여가구 가구의 연령은 평균 약 46세, 3~6기 참여가 구 가구의 연령은 평균 약 47세로 연령집단별 분포는 약간의 비율 차이만 보일 뿐 전체적인 흐름 그 맥을 같이 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표 7-4〉 가구의 연령별 집단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평균 (표준편차)	45.24 (7.229)	46.3 (7.090)	46.2 (6.761)	46.51 (7.455)	47.4 (7.645)	47.3 (7.447)	45.8 (7.346)	46.7 (7.345)	46.7 (7.093)
29세 이하	3.0	2.8	3.0	1.6	2.1	1.6	2.4	2.5	2.4
30~39세	14.1	13.8	13.3	11.8	12.4	12.6	13.2	13.3	13.0
40~49세	58.1	58.5	59.3	54.9	53.6	55.0	56.8	56.5	57.4
50~64세	24.4	24.5	24.3	31.1	31.5	30.4	27.1	27.4	27.0
65세 이상	0.4	0.4	0.2	0.6	0.4	0.4	0.5	0.4	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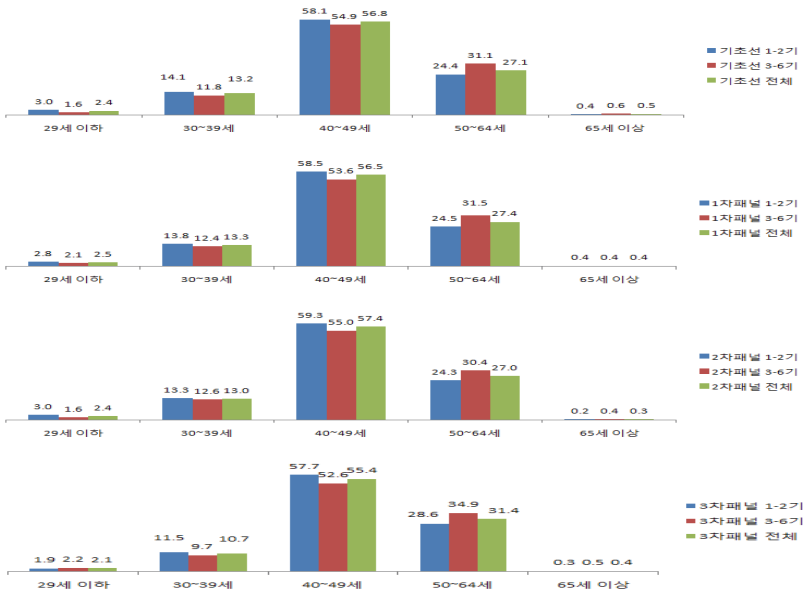
기초선  $t=-4.392^{**}$  ( $p<.01$ );  $\chi^2=19.540^{**}$  ( $p<.01$ )  
1차패널  $t=14.380^{**}$  ( $p<.01$ );  $\chi^2=14.380^{**}$  ( $p<.01$ )  
2차패널  $t=12.335^{*}$  ( $p<.05$ );  $\chi^2=12.335^{*}$  ( $p<.05$ )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평균 (표준편차)	46.1 (6.974)	47.2 (7.664)	46.6 (7.307)
29세 이하	1.9	2.2	2.1
30~39세	11.5	9.7	10.7
40~49세	57.7	52.6	55.4
50~64세	28.6	34.9	31.4
65세 이상	0.3	0.5	0.4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t = -2.944^{**}$  ( $p < .01$ );  $\chi^2 = 9.001$

[그림 7-3] 가구의 연령별 집단



#### □ 가구의 동거여부

- 전체 참여가구 가구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약 98%가 가구원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참여기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7-5〉 가구주의 동거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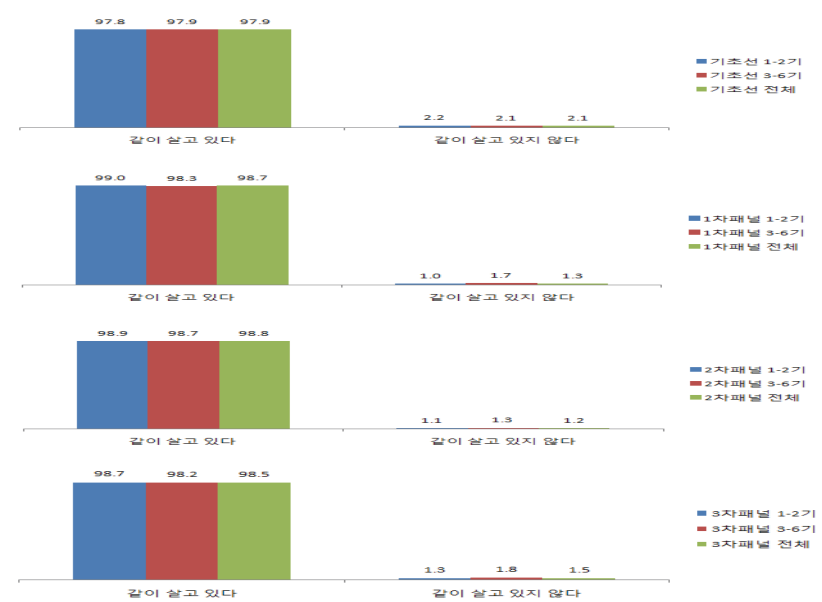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같이 살고 있다	97.8	99.0	98.9	97.9	98.3	98.7	97.9	98.7	98.8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2	1.0	1.1	2.1	1.7	1.3	2.1	1.3	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0.004$ ; 1차패널  $\chi^2 = 1.877$ ; 2차패널  $\chi^2 = 0.095$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같이 살고 있다	98.7	98.2	98.5
같이 살고 있지 않다	1.3	1.8	1.5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0.851$

〔그림 7-4〕 가구주의 동거여부



## □ 가구주의 교육수준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순이었음
-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참여기수별로 1차패널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표 7-6〉 가구주의 교육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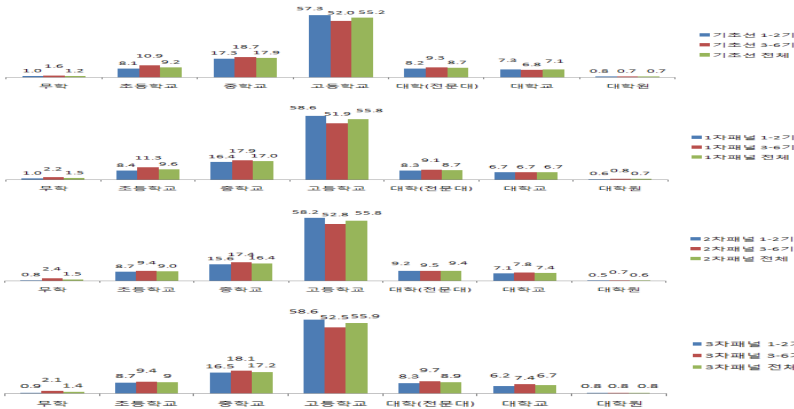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무학	1.0	1.0	0.8	1.6	2.2	2.4	1.2	1.5	1.5
초등학교	8.1	8.4	8.7	10.9	11.3	9.4	9.2	9.6	9.0
중학교	17.3	16.4	15.6	18.7	17.9	17.4	17.9	17.0	16.4
고등학교	57.3	58.6	58.2	52.0	51.9	52.8	55.2	55.8	55.8
대학(전문대)	8.2	8.3	9.2	9.3	9.1	9.5	8.7	8.7	9.4
대학교	7.3	6.7	7.1	6.8	6.7	7.8	7.1	6.7	7.4
대학원	0.8	0.6	0.5	0.7	0.8	0.7	0.7	0.7	0.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12.256$ ; 1차패널  $\chi^2 = 16.652^*$  ( $p < .05$ ); 2차패널  $\chi^2 = 11.841$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무학	0.9	2.1	1.4
초등학교	8.7	9.4	9.0
중학교	16.5	18.1	17.2
고등학교	58.6	52.5	55.9
대학(전문대)	8.3	9.7	8.9
대학교	6.2	7.4	6.7
대학원	0.8	0.8	0.8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9.807$

[그림 7-5] 가구주의 교육수준



□ 가구주의 혼인상태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이혼상태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유배우, 사별 순이었음
- 위와 같은 흐름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나,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조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표 7-7> 가구주의 혼인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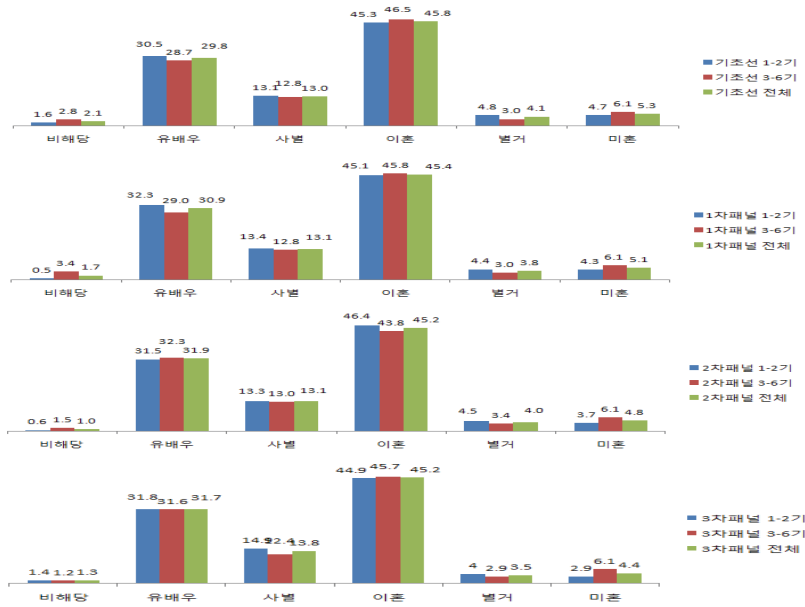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비해당	1.6	0.5	0.6	2.8	3.4	1.5	2.1	1.7	1.0
유배우	30.5	32.3	31.5	28.7	29.0	32.3	29.8	30.9	31.9
사별	13.1	13.4	13.3	12.8	12.8	13.0	13.0	13.1	13.1
이혼	45.3	45.1	46.4	46.5	45.8	43.8	45.8	45.4	45.2
별거	4.8	4.4	4.5	3.0	3.0	3.4	4.1	3.8	4.0
미혼	4.7	4.3	3.7	6.1	6.1	6.1	5.3	5.1	4.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12.418^*$  ( $p < .05$ ); 1차패널  $\chi^2 = 35.294^{**}$  ( $p < .01$ ); 2차패널  $\chi^2 = 11.281^*$  ( $p < .05$ )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비해당	1.4	1.2	1.3
유배우	31.8	31.6	31.7
사별	14.9	12.4	13.8
이혼	44.9	45.7	45.2
별거	4.0	2.9	3.5
미혼	2.9	6.1	4.4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13.250^*$  ( $p < .05$ )

[그림 7-6] 가구주의 혼인상태



□ 가구주의 장애종류

- 전체적으로 가구주의 장애종류는 ‘비장애인’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 순이었음
- 이는 참여기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표 7-8〉 가구주의 장애종류

(단위: %)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비해당(비장애인)	90.8	91.0	91.6	88.3	89.4	89.8	89.8	90.3	90.8
지체	5.0	4.9	4.8	7.0	6.9	7.0	5.8	5.7	5.8
뇌병변	0.5	0.8	0.6	0.4	0.4	0.1	0.4	0.7	0.4
시각	1.0	1.1	1.1	1.2	1.0	1.0	1.1	1.0	1.0
청각	0.5	0.6	0.6	0.4	0.3	0.6	0.5	0.5	0.6
언어	0.1	-	-	0.1	0.1	-	0.1	0.0	-
지적	0.1	0.2	0.1	0.2	-	0.1	0.1	0.1	0.1
정신	0.1	0.3	0.2	0.4	0.4	0.2	0.2	0.4	0.2
신장	0.5	0.5	0.5	1.3	0.9	0.5	0.9	0.7	0.5
심장	0.3	-	-	-	-	-	0.2	-	-
호흡기	0.4	0.1	-	0.3	0.2	0.2	0.4	0.1	0.1
간	0.1	-	-	0.2	0.2	0.2	0.1	0.1	0.1
안면	0.1	-	0.1	-	-	-	0.0	-	0.1
장루요루	0.1	0.2	-	-	-	-	0.0	0.1	-
간질	0.1	0.1	0.1	0.1	0.1	-	0.1	0.1	0.1
비등록장애인	0.5	0.3	0.5	0.1	0.1	0.1	0.4	0.2	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22.617$ ; 1차패널  $\chi^2 = 16.318$ ; 2차패널  $\chi^2 = 15.351$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비해당(비장애인)	91.4	88.8
지체	4.2	7.4
뇌병변	0.8	0.3
시각	1.2	1.1
청각	0.6	0.7
지적	0.2	0.0
정신	0.3	0.6
신장	0.6	0.6
호흡기	0.1	0.1
간	0.1	0.3
장루요루	0.1	0.0
비등록장애인	0.3	0.1
합 계	100.0	100.0

3차패널  $\chi^2 = 13.749$

## □ 가구주의 건강상태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순이었음
- 위와 같은 흐름은 1~2기 참여가구와 3~6기 참여가구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임
- 이는 기초선에서 3차 패널 조사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표 7-9〉 가구주의 건강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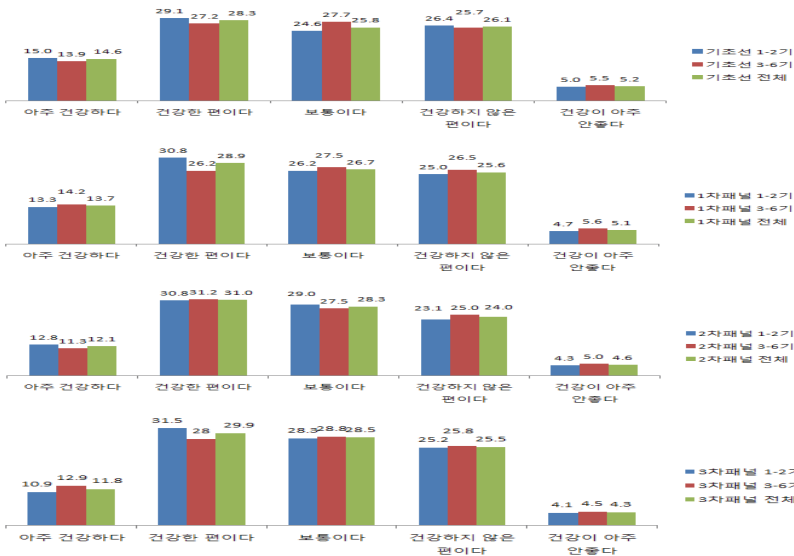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아주 건강하다	15.0	13.3	12.8	13.9	14.2	11.3	14.6	13.7	12.1
건강한 편이다	29.1	30.8	30.8	27.2	26.2	31.2	28.3	28.9	31.0
보통이다	24.6	26.2	29.0	27.7	27.5	27.5	25.8	26.7	28.3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6.4	25.0	23.1	25.7	26.5	25.0	26.1	25.6	24.0
건강이 아주 안좋다	5.0	4.7	4.3	5.5	5.6	5.0	5.2	5.1	4.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4.163$ ; 1차패널  $\chi^2 = 6.311$ ; 2차패널  $\chi^2 = 2.373$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아주 건강하다	10.9	12.9	11.8
건강한 편이다	31.5	28.0	29.9
보통이다	28.3	28.8	28.5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5.2	25.8	25.5
건강이 아주 안좋다	4.1	4.5	4.3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6.221$

[그림 7-8] 가구주의 건강상태



□ 가구주의 만성질환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만성질환은 ‘비해당’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6개월 이상 투병투약중’ 순이었으며, 이는 참여기수별로는 기초선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표 7-10> 가구주의 만성질환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비해당	70.3	70.5	71.2	68.2	67.0	68.3	69.4	69.1	70.0
3개월 미만	4.8	4.0	4.5	3.6	3.7	4.5	4.3	3.8	4.5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1.7	1.9	2.0	3.2	2.9	2.6	2.3	2.4	2.3
6개월 이상	23.2	23.6	22.3	25.0	26.3	24.6	23.9	24.7	23.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9.331^*$  ( $p < .05$ ); 1차패널  $\chi^2 = 4.949$ ; 2차패널  $\chi^2 = 2.358$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비해당	69.8	68.6	69.3
3개월 미만	3.0	5.4	4.1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2.2	2.6	2.4
6개월 이상	24.9	23.4	24.2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2.358$

[그림 7-9] 가구주의 만성질환



#### □ 금융채무불이행여부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금융채무불이행 여부를 살펴보면 ‘비해당’이 ‘해당’보다 높았음
- 1~2기 참여가구와 3~6기 참여가구 모두 위의 전체적인 흐름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표 7-11〉 가구주의 금융채무불이행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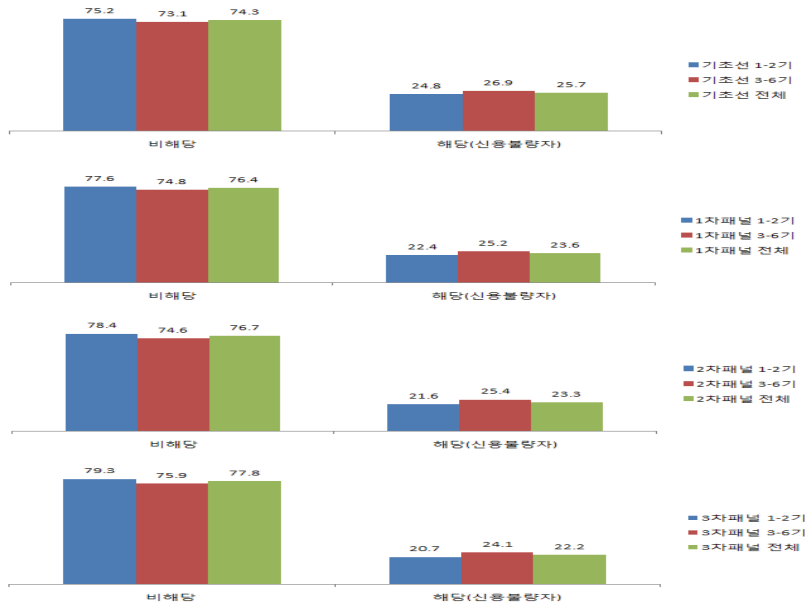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비해당	75.2	77.6	78.4	73.1	74.8	74.6	74.3	76.4	76.7
해당(신용불량자)	24.8	22.4	21.6	26.9	25.2	25.4	25.7	23.6	23.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1.418$ ; 1차패널  $\chi^2 = 2.393$ ; 2차패널  $\chi^2 = 3.742$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비해당	79.3	75.9	77.8
해당(신용불량자)	20.7	24.1	22.2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2.645$

〔그림 7-10〕 가구주의 금융채무불이행여부



## □ 가구형태

- 전체 참여가구 가구형태는 ‘모자가구’, ‘기타가구’, ‘단독가구’, ‘부자가구’ 순이었으며, 이는 참여기수별로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조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표 7-12〉 가구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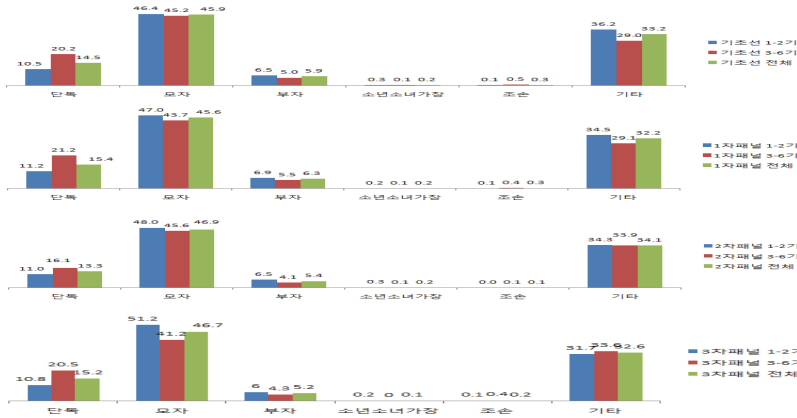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단독	10.5	11.2	11.0	20.2	21.2	16.1	14.5	15.4	13.3
모자	46.4	47.0	48.0	45.2	43.7	45.6	45.9	45.6	46.9
부자	6.5	6.9	6.5	5.0	5.5	4.1	5.9	6.3	5.4
소년소녀가장	0.3	0.2	0.3	0.1	0.1	0.1	0.2	0.2	0.2
조손	0.1	0.1	-	0.5	0.4	0.1	0.3	0.3	0.1
기타	36.2	34.5	34.3	29.0	29.1	33.9	33.2	32.2	34.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57.617^{**}$  ( $p < .01$ ); 1차패널  $\chi^2 = 48.426^{**}$  ( $p < .01$ ); 2차패널  $\chi^2 = 16.760^{**}$  ( $p < .01$ )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단독	10.8	20.5
모자	51.2	41.2
부자	6.0	4.3
소년소녀가장	0.2	0.0
조손	0.1	0.4
기타	31.7	33.6
합 계	100.0	100.0

3차패널  $\chi^2 = 41.674^{**}$  ( $p < .01$ )

[그림 7-11] 가구형태



□ 노인가구원 유무

- 전체 참여가구 중 노인가구원 유무의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원이 없는 경우’가 ‘노인가구원이 있는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약 85%p 이상 높았음
- 위와 같은 흐름은 참여기수별로 1~2기 참여가구와 3~6기 참여가구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1차패널 조사에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표 7-13> 노인(65세 이상)가구원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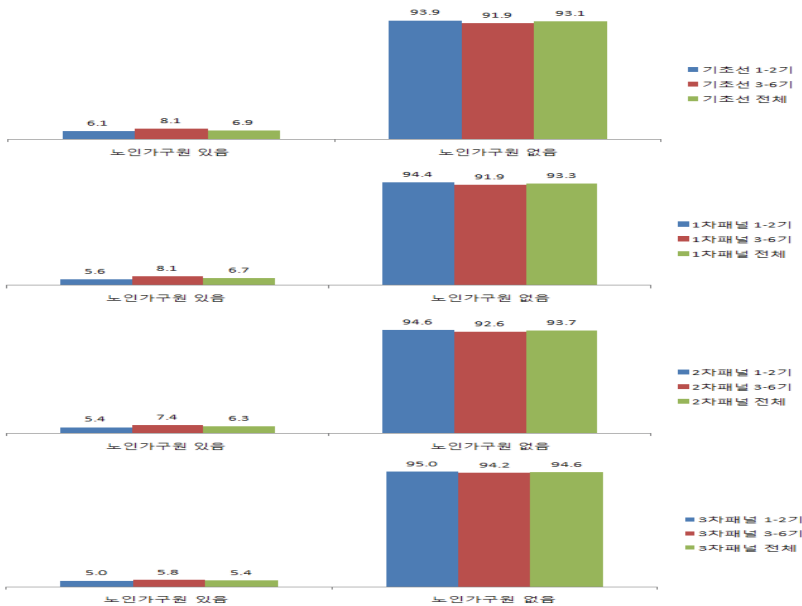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노인가구원 있음	6.1	5.6	5.4	8.1	8.1	7.4	6.9	6.7	6.3
노인가구원 없음	93.9	94.4	94.6	91.9	91.9	92.6	93.1	93.3	93.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3.751^*$  ( $p < .05$ ); 1차패널  $\chi^2 = 5.943^*$  ( $p < .05$ ); 2차패널  $\chi^2 = 3.240$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노인가구원 있음	5.0	5.8	5.4
노인가구원 없음	95.0	94.2	94.6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0.648$

[그림 7-12] 노인(65세 이상)가구원 유무



#### □ 기초보장수급형태

- 전체 참여가구 기초보장수급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수급가구’, ‘조진부수급가구’, ‘특례가구’ 순이었음
- 조사시점에 따라 전반적으로 ‘일반수급가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특례가구’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또한, 참여기수별로 1~2기에 비해 3~6기의 경우, ‘일반수급가구’보다 ‘특례가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1~2기와 3~6기의 가

입 대상 대상 선정의 과정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흐름은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조사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표 7-14〉 기초보장수급형태

(단위: %)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일반수급가구	61.1	60.9	57.0	47.7	47.8	45.0	55.5	55.2	51.5
조건부수급가구	38.5	30.6	29.7	35.7	34.6	34.1	37.4	32.3	31.7
특례가구	0.4	8.4	13.3	16.6	17.6	20.9	7.1	12.4	16.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258.486^{**}$  ( $p < .01$ ); 1차패널  $\chi^2 = 58.633^{**}$  ( $p < .01$ ); 2차패널  $\chi^2 = 29.266^{**}$  ( $p < .01$ )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일반수급가구	54.0	42.8
조건부수급가구	29.6	35.5
특례가구	16.4	21.7
합 계	100.0	100.0

3차패널  $\chi^2 = 18.686^{**}$  ( $p < .01$ )

□ 기초보장수급형태(전부수급/일부수급)

- 전체 참여가구 기초보장수급형태를 살펴보면 ‘가구원 전부수급’이 ‘가구원 일부수급’ 보다 높게 나타남

〈표 7-15〉 기초보장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단위: %)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가구원 전부수급	88.6	86.0	87.5	88.7	87.8	89.6	88.6	86.8	88.5
가구원 일부수급	11.4	14.0	12.5	11.3	12.2	10.4	11.4	13.2	11.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0.002$ ; 1차패널  $\chi^2 = 1.453$ ; 2차패널  $\chi^2 = 1.905$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가구원 전부수급	87.2	88.9	88.0
가구원 일부수급	12.8	11.1	12.0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0.945$

□ 의료급여 수급형태

- 전체 참여가구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의료급여(2종)’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급여(1종)’, ‘비해당’ 순이었음
- 이는 1~2기와 3~6기 참여가구에서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났으나, 1차 패널과 3차 패널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표 7-16〉 의료급여 수급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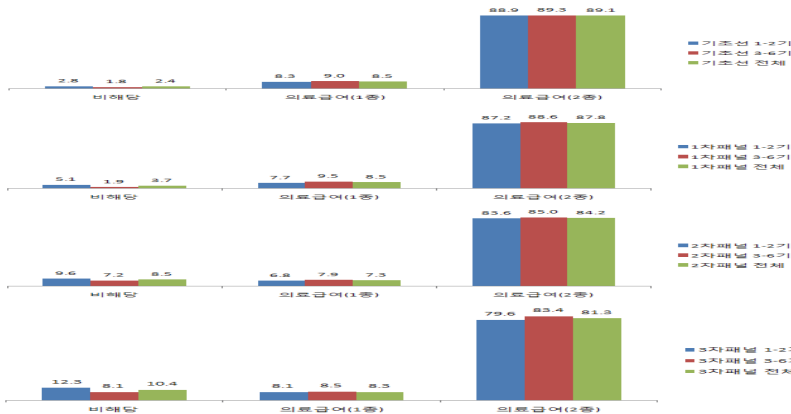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비해당	2.8	5.1	9.6	1.8	1.9	7.2	2.4	3.7	8.5
의료급여(1종)	8.3	7.7	6.8	9.0	9.5	7.9	8.5	8.5	7.3
의료급여(2종)	88.9	87.2	83.6	89.3	88.6	85.0	89.1	87.8	84.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3.523$ ; 1차패널  $\chi^2 = 17.847^{**}$  ( $p < .01$ ); 2차패널  $\chi^2 = 4.128$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비해당	12.3	8.1	10.4
의료급여(1종)	8.1	8.5	8.3
의료급여(2종)	79.6	83.4	81.3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7.775^*$  ( $p < .05$ )

〔그림 7-15〕 의료급여 수급형태



□ 의료급여 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 전체 참여가구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비해당’ 순이었음
- 조사시점에 따라 2차패널 조사 이후, 미미한 수준이지만 ‘비해당’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는 점차 감소하였음
- 이는 2차 패널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표 7-17〉 의료급여 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패널	2차패널	기초선	1차패널	2차패널	기초선	1차패널	2차패널
비해당	2.9	5.5	9.8	2.4	2.7	7.7	2.7	4.3	8.9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87.0	82.5	78.5	86.8	86.1	81.0	86.9	84.0	79.6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10.1	12.0	11.7	10.8	11.2	11.3	10.4	11.6	11.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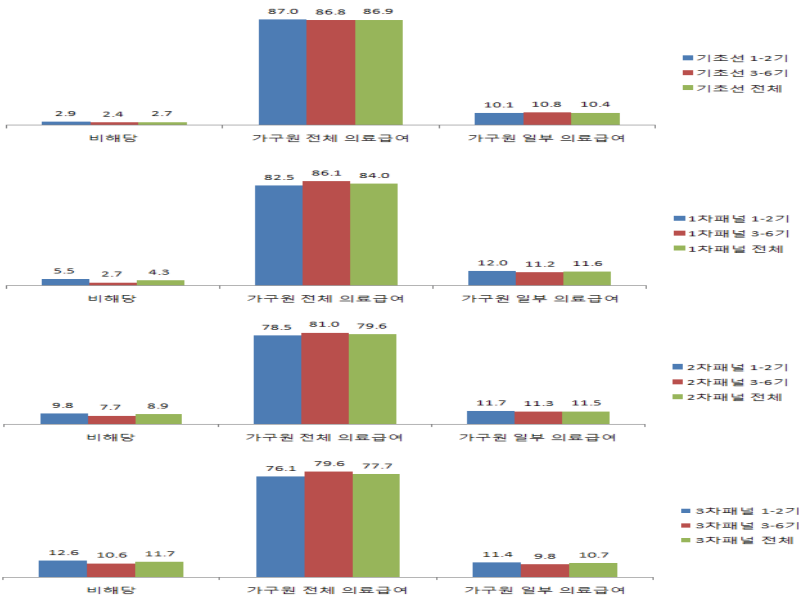
기초선  $\chi^2 = 0.754$ ; 1차패널  $\chi^2 = 11.432^{**}$  ( $p < .01$ ); 2차패널  $\chi^2 = 2.724$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비해당	12.6	10.6	11.7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76.1	79.6	77.7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11.4	9.8	10.7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3.070$

[그림 7-16] 의료급여 수급형태 (전부수급/일부수급)



제3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경제활동상태

□ 근로능력정도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능력정도는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등의 순이었음
- 조사시점에 따라 미미한 수준이지만 ‘근로가능’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였고, ‘단순근로가능’과 ‘단순근로미약자’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고 있었음
- 이는 1~2기와 3~6기 참여가구에서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났으나, 2차 패널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표 7-18〉 근로능력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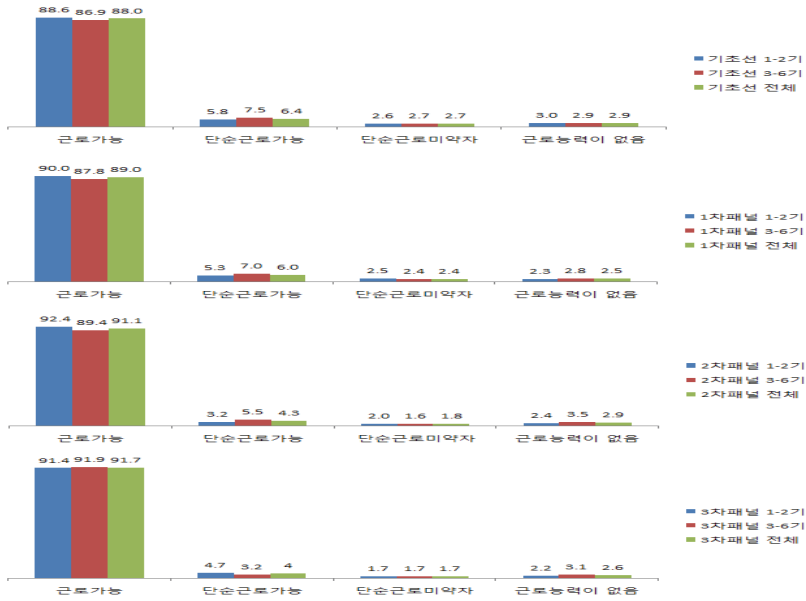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근로가능	88.6	90.0	92.4	86.6	87.8	89.4	87.8	89.0	91.1
단순근로가능	5.8	5.3	3.2	7.6	7.0	5.5	6.5	6.0	4.3
단순근로미약자	2.6	2.5	2.0	2.6	2.4	1.6	2.6	2.4	1.8
근로능력이 없음	3.0	2.3	2.4	3.2	2.8	3.5	3.1	2.5	2.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3.692$ ; 1차패널  $\chi^2 = 3.617$ ; 2차패널  $\chi^2 = 8.881^*$  ( $p < .05$ )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근로가능	91.4	91.9
단순근로가능	4.7	3.2
단순근로미약자	1.7	1.7
근로능력이 없음	2.2	3.1
합 계	100.0	100.0

3차패널  $\chi^2 = 3.406$

[그림 7-17] 근로능력정도



## □ 근로무능력 사유

- 전체 참여가구 가구의 근로무능력 사유는 ‘질병 또는 부상’, ‘중증장애’ 등의 순이었음
- 근로무능력 사유의 경우, 조사시점에 따라 1~2기와 3~6기 참여기술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표 7-19〉 근로무능력 사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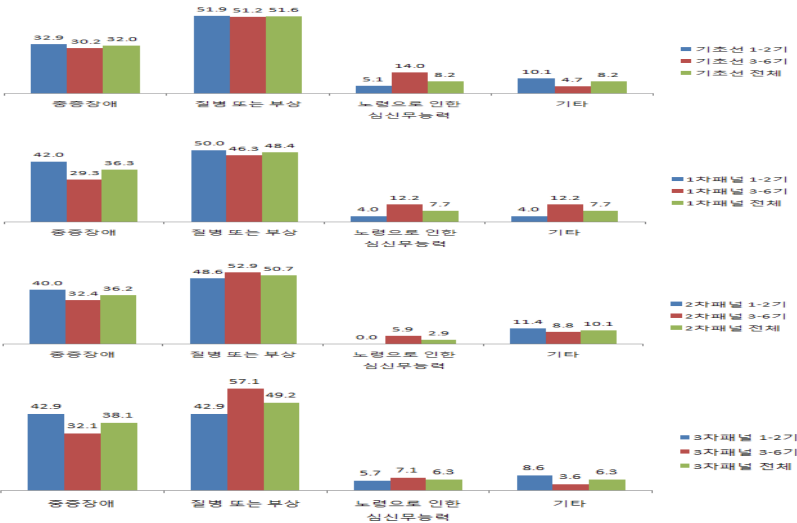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중증장애	32.9	42.0	40.0	30.2	29.3	32.4	32.0	36.3	36.2
질병 또는 부상	51.9	50.0	48.6	51.2	46.3	52.9	51.6	48.4	50.7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5.1	4.0	-	14.0	12.2	5.9	8.2	7.7	2.9
기타	10.1	4.0	11.4	4.7	12.2	8.8	8.2	7.7	1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3.769$ ; 1차패널  $\chi^2 = 5.003$ ; 2차패널  $\chi^2 = 2.517$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중증장애	42.9	32.1	38.1
질병 또는 부상	42.9	57.1	49.2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5.7	7.1	6.3
기타	8.6	3.6	6.3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1.776$

〔그림 7-18〕 근로무능력 사유



## □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일용직’, ‘상용직’, ‘임시직’ 등의 순이었음
- 참여기수별로 1~2기와 3~6기 참여가구에서는 ‘자활·공공·희망근로, 노인일자리’의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1~2기와 3~6기 희망키움통장 가입 당시 선정의 절차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조사 시점 전체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표 7-20〉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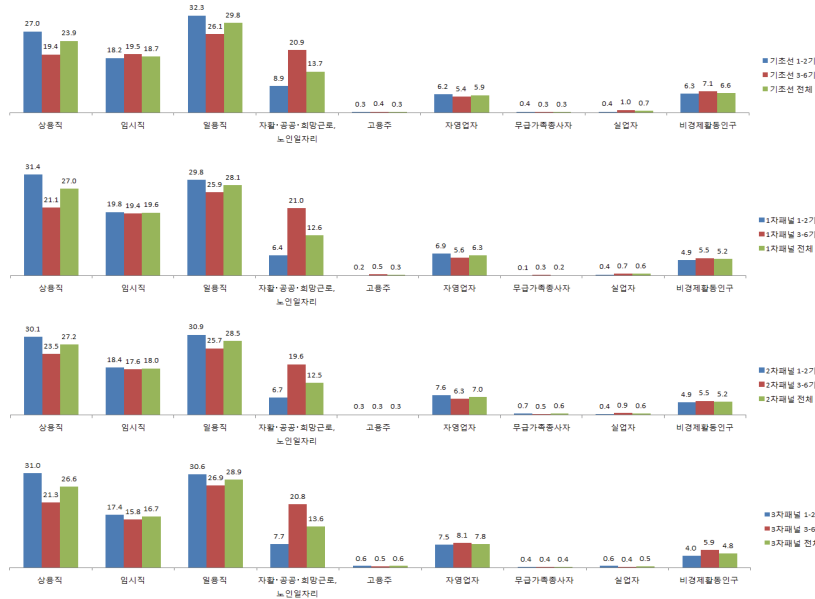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상용직	27.0	31.4	30.1	19.4	21.1	23.5	23.9	27.0	27.2
임시직	18.2	19.8	18.4	19.5	19.4	17.6	18.7	19.6	18.0
일용직	32.3	29.8	30.9	26.1	25.9	25.7	29.8	28.1	28.5
자활·공공·희망근로, 노인일자리	8.9	6.4	6.7	20.9	21.0	19.6	13.7	12.6	12.5
고용주	0.3	0.2	0.3	0.4	0.5	0.3	0.3	0.3	0.3
자영업자	6.2	6.9	7.6	5.4	5.6	6.3	5.9	6.3	7.0
무급가족종사자	0.4	0.1	0.7	0.3	0.3	0.5	0.3	0.2	0.6
실업자	0.4	0.4	0.4	1.0	0.7	0.9	0.7	0.6	0.6
비경제활동인구	6.3	4.9	4.9	7.1	5.5	5.5	6.6	5.2	5.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96.472^{**}$  ( $p < .01$ ); 1차패널  $\chi^2 = 124.953^{**}$  ( $p < .01$ ); 2차패널  $\chi^2 = 80.177^{**}$  ( $p < .01$ )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상용직	31.0	21.3	26.6
임시직	17.4	15.8	16.7
일용직	30.6	26.9	28.9
자활·공공·희망근로, 노인일자리	7.7	20.8	13.6
고용주	0.6	0.5	0.6
자영업자	7.5	8.1	7.8
무급가족종사자	0.4	0.4	0.4
실업자	0.6	0.4	0.5
비경제활동인구	4.0	5.9	4.8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74.006^{**}$  ( $p < .01$ )

[그림 7-19]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고용관계

- 전체 참여가구 가구의 고용관계는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순이었음
- 고용관계는 참여기수별로 1~2기와 3~6기 참여가구에서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7-21〉 가구의 고용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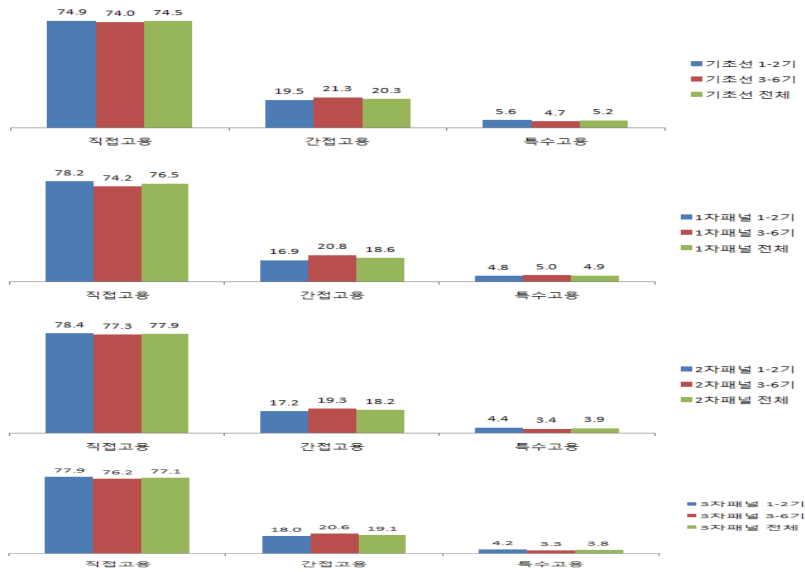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패널	2차패널	기초선	1차패널	2차패널	기초선	1차패널	2차패널
직접고용	74.9	78.2	78.4	74.0	74.2	77.3	74.5	76.5	77.9
간접고용	19.5	16.9	17.2	21.3	20.8	19.3	20.3	18.6	18.2
특수고용	5.6	4.8	4.4	4.7	5.0	3.4	5.2	4.9	3.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1.840$ ; 1차패널  $\chi^2 = 5.058$ ; 2차패널  $\chi^2 = 2.096$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직접고용	77.9	76.2	77.1
간접고용	18.0	20.6	19.1
특수고용	4.2	3.3	3.8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2.265$

[그림 7-20] 가구주의 고용관계



□ 근로시간형태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시간형태는 전일제가 시간제보다 약 30%p 차이가 남
  - 이는 3차 패널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표 7-22〉 가구주의 근로시간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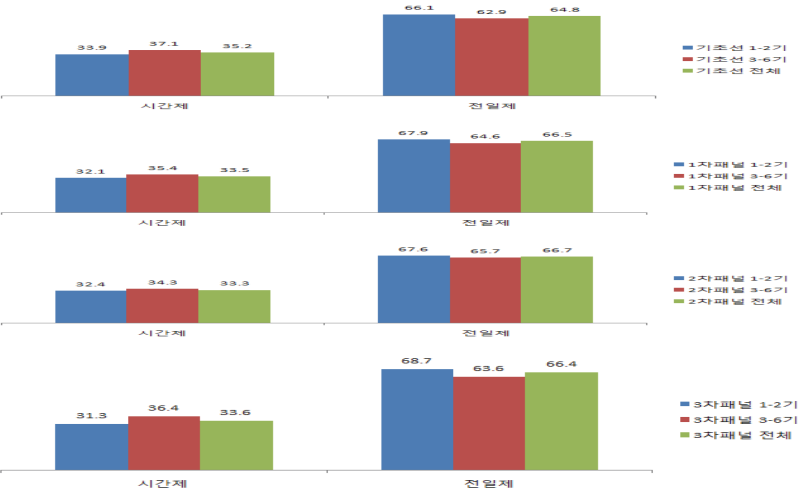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시간제	33.9	32.1	32.4	37.1	35.4	34.3	35.2	33.5	33.3
전일제	66.1	67.9	67.6	62.9	64.6	65.7	64.8	66.5	66.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2.456$ ; 1차패널  $\chi^2 = 2.481$ ; 2차패널  $\chi^2 = 0.663$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시간제	31.3	36.4	33.6
전일제	68.7	63.6	66.4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4.263^*$  ( $p < .05$ )

〔그림 7-21〕 가구주의 근로시간형태



□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보다 전반



적으로 약 30%p 이상 높았음

- 가구의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의 경우, 참여기수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3~6기 참여가구가 1~2기 참여가구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상태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조사시점별로 모두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표 7-23〉 가구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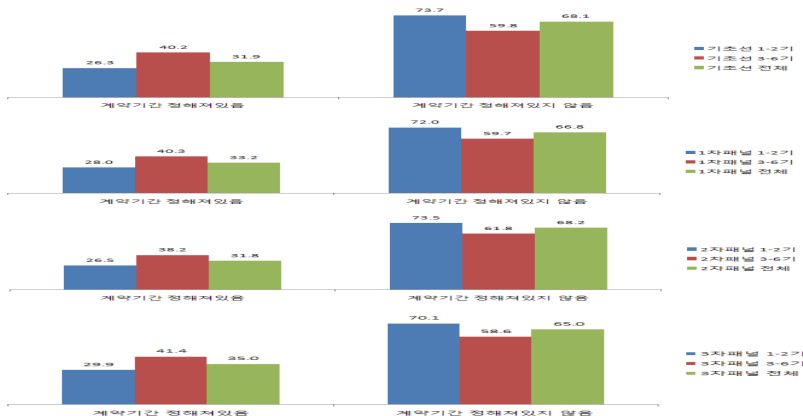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계약기간 정해져있음	26.3	28.0	26.5	40.2	40.3	38.2	31.9	33.2	31.8
계약기간 정해져있지 않음	73.7	72.0	73.5	59.8	59.7	61.8	68.1	66.8	68.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49.580^{**}$  ( $p < .01$ ); 1차패널  $\chi^2 = 33.972^{**}$  ( $p < .01$ ); 2차패널  $\chi^2 = 25.949^{**}$  ( $p < .01$ )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계약기간 정해져있음	29.9	41.4	35.0
계약기간 정해져있지 않음	70.1	58.6	65.0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20.900^{**}$  ( $p < .01$ )

〔그림 7-22〕 가구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 근로지속가능성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지속가능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능한 경우’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경우’보다 약 30%p 높게 나타남
  - 근로지속가능성에서는 3차 패널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표 7-24〉 근로지속가능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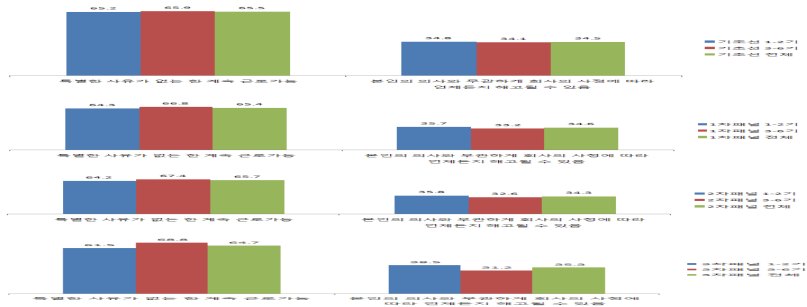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능	65.2	64.3	64.2	65.9	66.8	67.4	65.5	65.4	65.7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34.8	35.7	35.8	34.1	33.2	32.6	34.5	34.6	34.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0.123$ ; 1차패널  $\chi^2 = 1.293$ ; 2차패널  $\chi^2 = 1.847$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능	61.5	68.8	64.7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38.5	31.2	35.3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8.297^{**}$  ( $p < .01$ )

〔그림 7-23〕 근로지속가능성



## □ 근로지속불가능사유

- － 전체 참여가구 가구주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는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이 만료되어서’,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므로’ 순이었으며, 이는 기초선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표 7-25〉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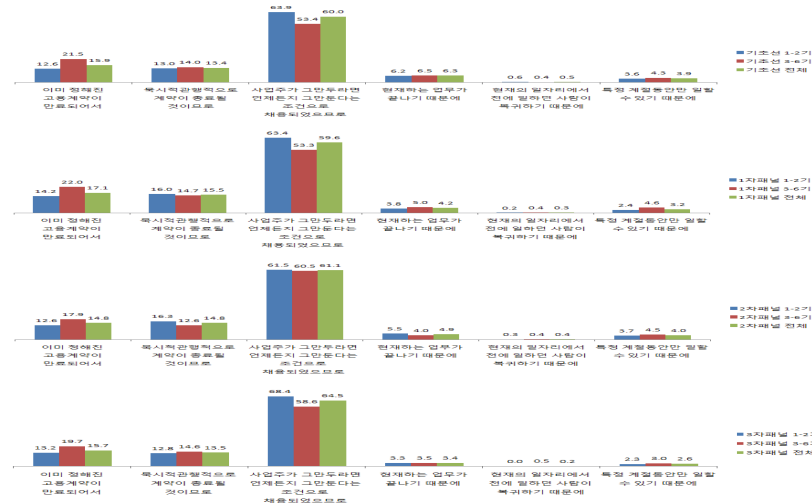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이 만료되어서	12.6	14.2	12.6	21.5	22.0	17.9	15.9	17.1	14.8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므로	13.0	16.0	16.3	14.0	14.7	12.6	13.4	15.5	14.8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63.9	63.4	61.5	53.4	53.3	60.5	60.0	59.6	61.1
현재하는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6.2	3.8	5.5	6.5	5.0	4.0	6.3	4.2	4.9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0.6	0.2	0.3	0.4	0.4	0.4	0.5	0.3	0.4
특정 계절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3.6	2.4	3.7	4.3	4.6	4.5	3.9	3.2	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12.488^*$  ( $p < .05$ ); 1차패널  $\chi^2 = 12.068$ ; 2차패널  $\chi^2 = 4.700$ 

구분	3차패널	
	1~2기	전체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이 만료되어서	13.2	15.7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므로	12.8	13.5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68.4	64.5
현재하는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3.3	3.4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0.0	0.2
특정 계절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2.3	2.6
합 계	100.0	100.0

3차패널  $\chi^2 = 7.149$

[그림 7-24]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

- 전체 참여가구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은 받아본 경험이 없다가 90%대로 대부분을 차지함
-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은 참여가구별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험 비율이 ‘받아본 경험이 없다’가 기초선 조사 당시보다 조사시점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희망키움통장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7-26〉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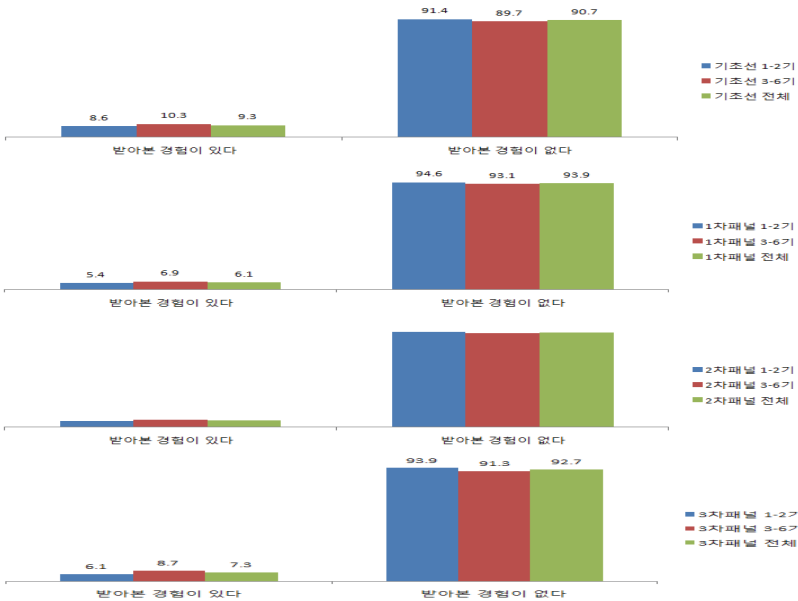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받아본 경험이 있다	8.6	5.4	6.1	10.3	6.9	7.2	9.3	6.1	6.6
받아본 경험이 없다	91.4	94.6	93.9	89.7	93.1	92.8	90.7	93.9	93.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2.072$ ; 1차패널  $\chi^2 = 2.154$ ; 2차패널  $\chi^2 = 1.006$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받아본 경험이 있다	6.1	8.7	7.3
받아본 경험이 없다	93.9	91.3	92.7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3.827$

[그림 7-25] 직업훈련 및 교육 경험



#### □ 취업상담 경험

- 전체 참여가구 취업상담 경험은 ‘받아본 경험이 없다’가 ‘받아본 경험이 있다’에 비해 약 80%p 높았음
- 취업상담 경험은 조사시점에 따라서도 참여기수별로도 유사한 경험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3차 패널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표 7-27〉 취업상담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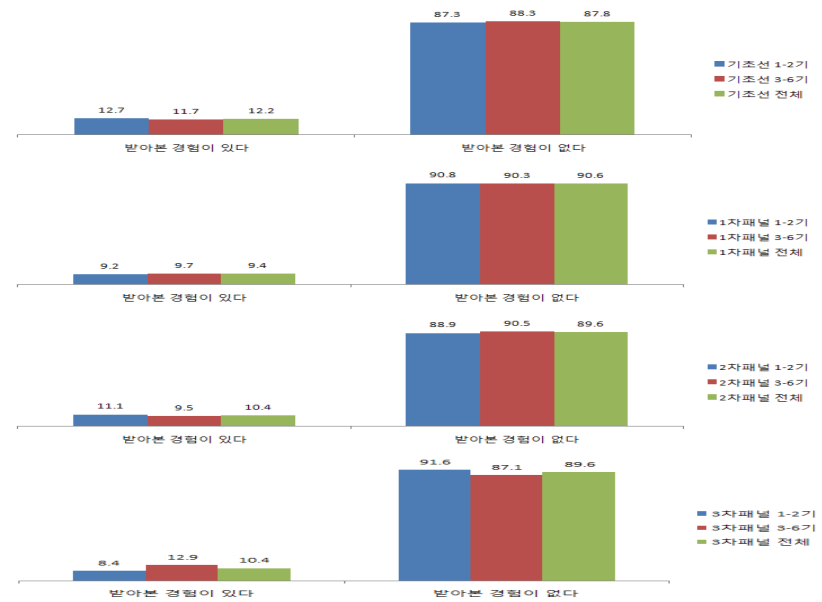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받아본 경험이 있다	12.7	9.2	11.1	11.7	9.7	9.5	12.2	9.4	10.4
받아본 경험이 없다	87.3	90.8	88.9	88.3	90.3	90.5	87.8	90.6	89.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0.599$ ; 1차패널  $\chi^2 = 0.192$ ; 2차패널  $\chi^2 = 1.219$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받아본 경험이 있다	8.4	12.9	10.4
받아본 경험이 없다	91.6	87.1	89.6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8.788^{**}$  ( $p < .01$ )

〔그림 7-26〕 취업상담 경험



□ 취업알선 경험

- 전체 참여가구의 취업알선 경험을 살펴보면 ‘받아본 경험이 없다’가 ‘경험이 있다’ 보다 전반적으로 약 80%p정도 높게 나타남

〈표 7-28〉 취업알선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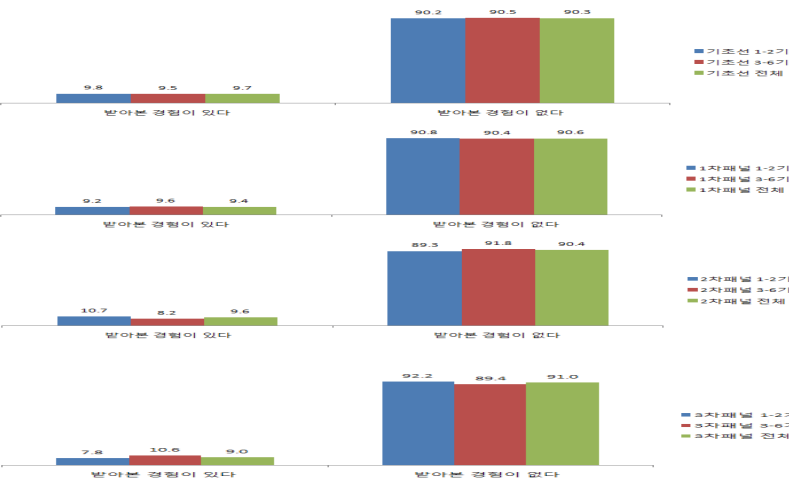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받아본 경험이 있다	9.8	9.2	10.7	9.5	9.6	8.2	9.7	9.4	9.6
받아본 경험이 없다	90.2	90.8	89.3	90.5	90.4	91.8	90.3	90.6	90.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0.045$ ; 1차패널  $\chi^2 = 0.117$ ; 2차패널  $\chi^2 = 3.539$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받아본 경험이 있다	7.8	10.6	9.0
받아본 경험이 없다	92.2	89.4	91.0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3.794$

〔그림 7-27〕 취업알선 경험



제4절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생활여건

□ 주택유형

- 전체 참여가구 주택유형은 기초선 조사 당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서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조사 당시에는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나타남
- 조사 시점에 따라 주택 유형의 비율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모든 조사에서 참여가구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표 7-29〉 주택유형

(단위: %)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단독주택(다가구)	35.4	27.7	25.0	33.7	31.4	30.5	34.7	29.3	27.4
아파트	31.5	32.7	34.7	34.9	37.0	38.2	32.9	34.5	36.3
연립 및 다세대주택	28.9	34.6	34.9	25.5	26.2	27.1	27.5	31.0	31.4
기타	4.3	4.9	5.4	5.9	5.5	4.2	4.9	5.2	4.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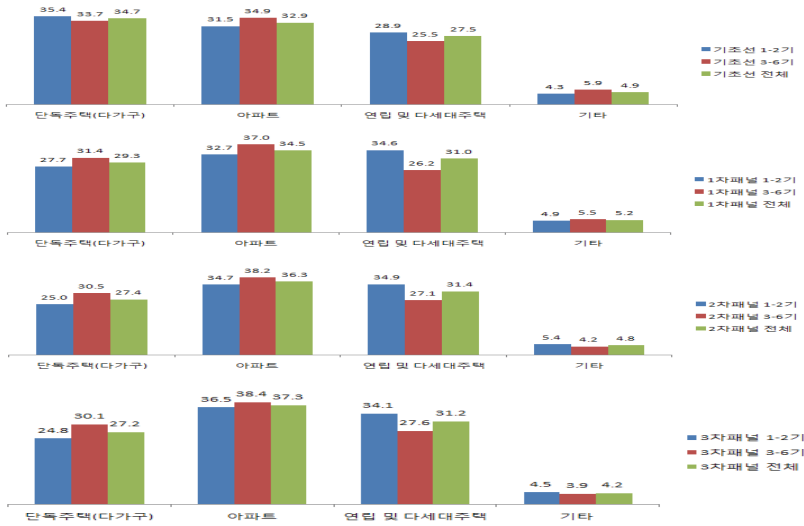
기초선  $\chi^2 = 8.846^*$  ( $p<.05$ ); 1차패널  $\chi^2 = 19.032^{**}$  ( $p<.01$ ); 2차패널  $\chi^2 = 17.464^{**}$  ( $p<.01$ )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단독주택(다가구)	24.8	30.1	27.2
아파트	36.5	38.4	37.3
연립 및 다세대주택	34.1	27.6	31.2
기타	4.5	3.9	4.2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10.778^*$  ( $p<.05$ )



[그림 7-28] 주택유형



## □ 주택 점유형태

- 전체 참여가구 주택 점유형태는 보증부월세, 월세, 전세 순이었음
- 조사시점에 따라서도 기초선 조사와 2차 패널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표 7-30〉 주택 점유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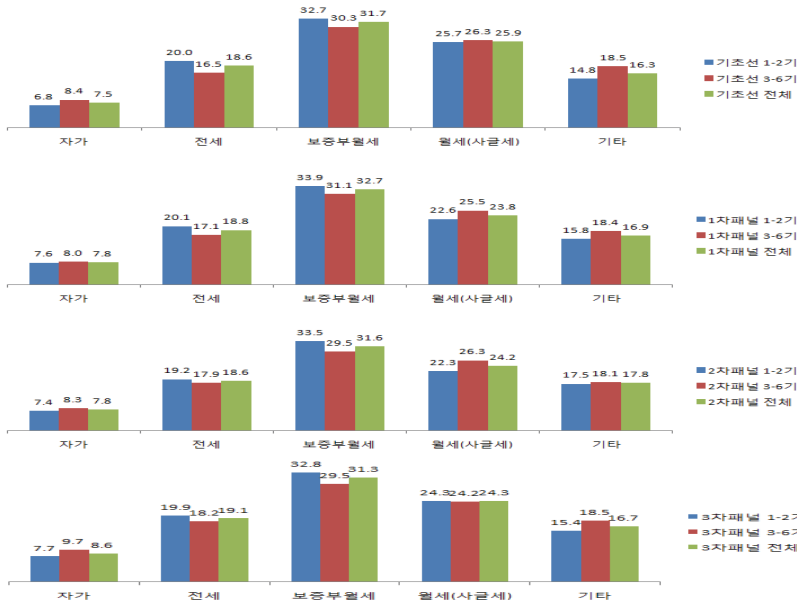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자가	6.8	7.6	7.2	8.4	8.0	8.7	7.5	7.8	7.9
전세	20.0	20.1	20.3	16.5	17.1	16.7	18.6	18.8	18.7
보증부월세	32.7	33.9	33.3	30.3	31.1	29.0	31.7	32.7	31.4
월세(사글세)	25.7	22.6	22.2	26.3	25.5	26.2	25.9	23.8	24.0
기타	14.8	15.8	17.0	18.5	18.4	19.4	16.3	16.9	18.0
합 계	100.0	100.0	100	100.0	100.0	100	100.0	100.0	100

기초선  $\chi^2 = 12.812^*$  ( $p < 0.05$ ); 1차패널  $\chi^2 = 8.480$ ; 2차패널  $\chi^2 = 12.168^*$  ( $p < 0.05$ )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자가	7.7	9.7	8.6
전세	19.9	18.2	19.1
보증부월세	32.8	29.5	31.3
월세(사글세)	24.3	24.2	24.3
기타	15.4	18.5	16.7
합 계	100.0	100.0	100

3차패널  $\chi^2 = 6.418$

[그림 7-29] 주택 점유형태



## □ 주택의 방 수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가구 주택의 방 수는 2개, 3개, 1개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조사에서 참여가구수별로 방의 개수가 3개인 비율과 1개인 비율이 미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7-31〉 주택의 방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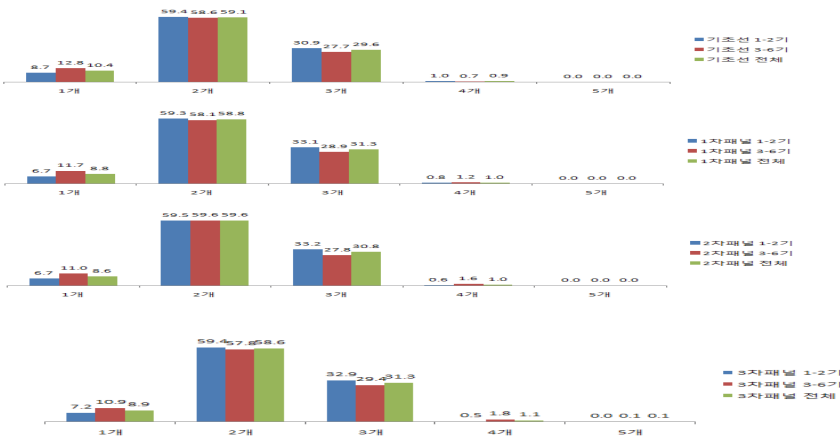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1개	8.7	6.7	6.7	12.8	11.7	11.0	10.4	8.8	8.6
2개	59.4	59.3	59.5	58.6	58.1	59.6	59.1	58.8	59.6
3개	30.9	33.1	33.2	27.7	28.9	27.8	29.6	31.3	30.8
4개	1.0	0.8	0.6	0.7	1.2	1.6	0.9	1.0	1.0
5개	-	-	-	-	-	-	-	-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14.750^{**}$  ( $p < .01$ ); 1차패널  $\chi^2 = 20.147^{**}$  ( $p < .01$ ); 2차패널  $\chi^2 = 18.968^*$  ( $p < .05$ )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1개	7.2	10.9	8.9
2개	59.4	57.8	58.6
3개	32.9	29.4	31.3
4개	0.5	1.8	1.1
5개	0.0	0.1	0.1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14.733^*$  ( $p < .05$ )

〔그림 7-30〕 주택의 방 수



□ 우선지출 1순위

- 전체 참여가구 우선지출 1순위는 교육비, 식료품비, 주거비, 기타 소비지출 등의 순이었음
- 참여가구별 우선지출 1순위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조사시점에 따라 식료품비 우선 지출 1순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음
- 이는 기초선과 3차 패널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 우선지출 2순위

- 전체 참여가구 우선지출 2순위는 식료품비, 교육비, 주거비, 피복 신발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참여가구별 우선지출 2순위는 전체 참여가구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였음

〈표 7-32〉 우선지출 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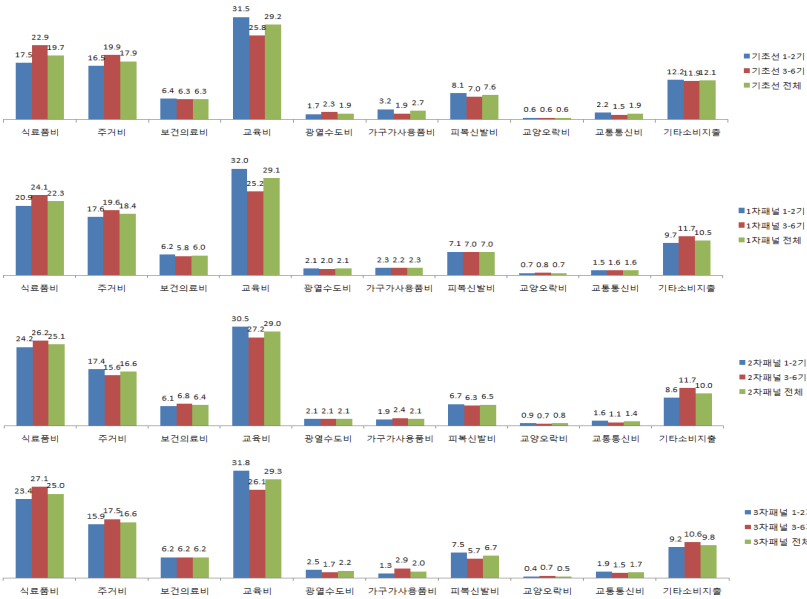
구분	참여자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식료품비	17.5	20.9	24.2	22.9	24.1	26.2	19.7	22.3	25.1
주거비	16.5	17.6	17.4	19.9	19.6	15.6	17.9	18.4	16.6
보건의료비	6.4	6.2	6.1	6.3	5.8	6.8	6.3	6.0	6.4
교육비	31.5	32.0	30.5	25.8	25.2	27.2	29.2	29.1	29.0
광열수도비	1.7	2.1	2.1	2.3	2.0	2.1	1.9	2.1	2.1
가구가사용품비	3.2	2.3	1.9	1.9	2.2	2.4	2.7	2.3	2.1
피복신발비	8.1	7.1	6.7	7.0	7.0	6.3	7.6	7.0	6.5
교양오락비	0.6	0.7	0.9	0.6	0.8	0.7	0.6	0.7	0.8
교통통신비	2.2	1.5	1.6	1.5	1.6	1.1	1.9	1.6	1.4
기타소비지출	12.2	9.7	8.6	11.9	11.7	11.7	12.1	10.5	1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28.561^{**}$  ( $p < .01$ ); 1차패널  $\chi^2 = 15.323$ ; 2차패널  $\chi^2 = 9.904$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식료품비	23.4	27.1	25.0
주거비	15.9	17.5	16.6
보건의료비	6.2	6.2	6.2
교육비	31.8	26.1	29.3
광열수도비	2.5	1.7	2.2
가구가사용품비	1.3	2.9	2.0
피복신발비	7.5	5.7	6.7
교양오락비	0.4	0.7	0.5
교통통신비	1.9	1.5	1.7
기타소비지출	9.2	10.6	9.8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18.370^*$  ( $p < .05$ )

[그림 7-31] 우선지출 1순위



〈표 7-33〉 우선지출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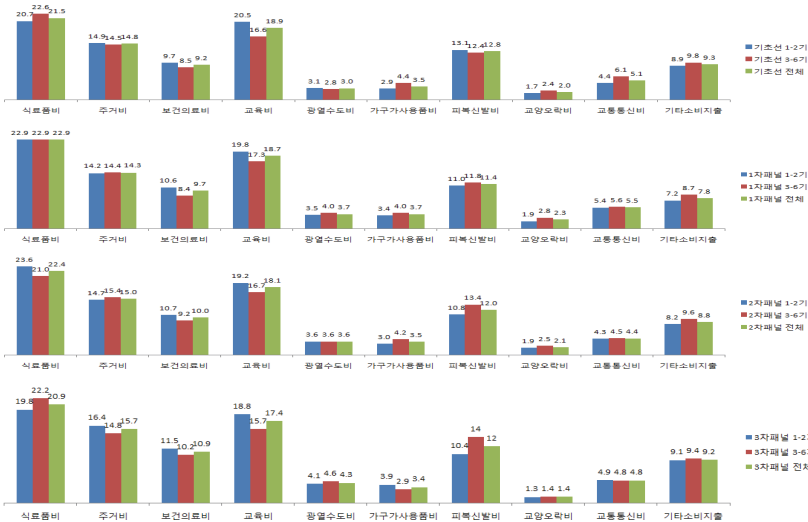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식료품비	20.7	22.9	23.6	22.6	22.9	21.0	21.5	22.9	22.4
주거비	14.9	14.2	14.7	14.5	14.4	15.4	14.8	14.3	15.0
보건의료비	9.7	10.6	10.7	8.5	8.4	9.2	9.2	9.7	10.0
교육비	20.5	19.8	19.2	16.6	17.3	16.7	18.9	18.7	18.1
광열수도비	3.1	3.5	3.6	2.8	4.0	3.6	3.0	3.7	3.6
가구가사용품비	2.9	3.4	3.0	4.4	4.0	4.2	3.5	3.7	3.5
피복신발비	13.1	11.0	10.8	12.4	11.8	13.4	12.8	11.4	12.0
교양오락비	1.7	1.9	1.9	2.4	2.8	2.5	2.0	2.3	2.1
교통통신비	4.4	5.4	4.3	6.1	5.6	4.5	5.1	5.5	4.4
기타소비지출	8.9	7.2	8.2	9.8	8.7	9.6	9.3	7.8	8.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15.908$ ; 1차패널  $\chi^2 = 9.091$ ; 2차패널  $\chi^2 = 10.001$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식료품비	19.8	22.2	20.9
주거비	16.4	14.8	15.7
보건의료비	11.5	10.2	10.9
교육비	18.8	15.7	17.4
광열수도비	4.1	4.6	4.3
가구가사용품비	3.9	2.9	3.4
피복신발비	10.4	14.0	12.0
교양오락비	1.3	1.4	1.4
교통통신비	4.9	4.8	4.8
기타소비지출	9.1	9.4	9.2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10.151$

[그림 7-32] 우선지출 2순위



## □ 지출제한 1순위

- 전체 참여가구 지출제한 1순위는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피복신발이 순이었음
- 참여기수별 지출제한 1순위는 참여기수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기초선과 3차 패널 조사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음

## □ 지출제한 2순위

- 전체 참여가구 지출제한 2순위는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등의 순이었음
- 참여기수별 지출제한 2순위는 1~2기와 3~6기 모두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등의 순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표 7-34〉 지출제한 1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식료품비	37.7	40.8	39.0	39.7	39.6	38.1	38.5	40.3	38.6
주거비	3.0	3.1	5.5	5.6	5.6	3.9	4.0	4.2	4.7
보건의료비	1.8	2.0	2.2	1.4	1.2	1.5	1.7	1.7	1.9
교육비	8.3	6.6	6.9	5.7	5.6	5.6	7.3	6.2	6.3
광열수도비	3.2	3.9	3.1	4.3	4.6	3.3	3.6	4.2	3.2
가구가사용품비	3.5	2.8	3.1	3.4	3.3	2.6	3.5	3.0	2.9
피복신발비	15.5	13.2	12.3	11.4	11.7	12.0	13.8	12.6	12.2
교양오락비	7.8	7.7	6.8	7.0	6.9	8.3	7.5	7.3	7.5
교통통신비	4.0	3.8	3.8	4.7	4.0	4.4	4.3	3.9	4.1
기타소비지출	15.2	16.0	17.4	17.0	17.6	20.4	15.9	16.7	18.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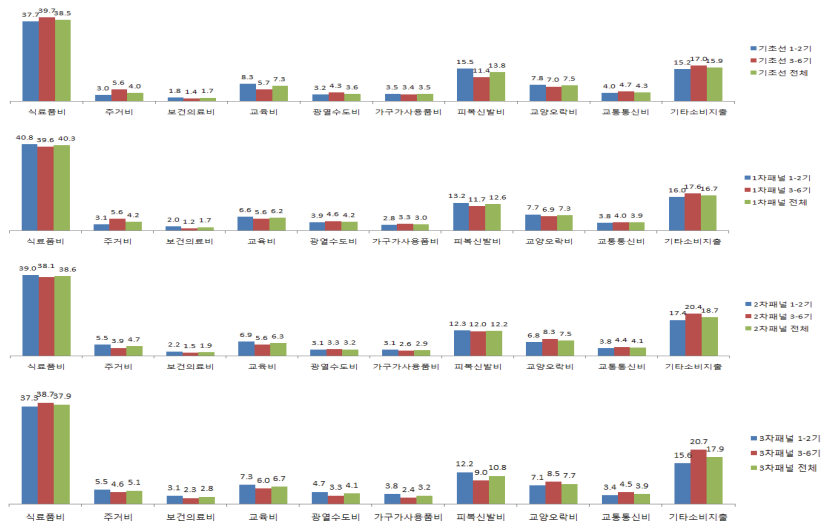
기초선  $\chi^2 = 30.887^{**}$  ( $p < .01$ ); 1차패널  $\chi^2 = 15.216$ ; 2차패널  $\chi^2 = 10.219$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식료품비	37.3	38.7	37.9
주거비	5.5	4.6	5.1
보건의료비	3.1	2.3	2.8
교육비	7.3	6.0	6.7
광열수도비	4.7	3.3	4.1
가구가사용품비	3.8	2.4	3.2
피복신발비	12.2	9.0	10.8
교양오락비	7.1	8.5	7.7
교통통신비	3.4	4.5	3.9
기타소비지출	15.6	20.7	17.9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20.108^*$  ( $p < .05$ )



[그림 7-33] 지출제한 1순위



<표 7-35> 지출제한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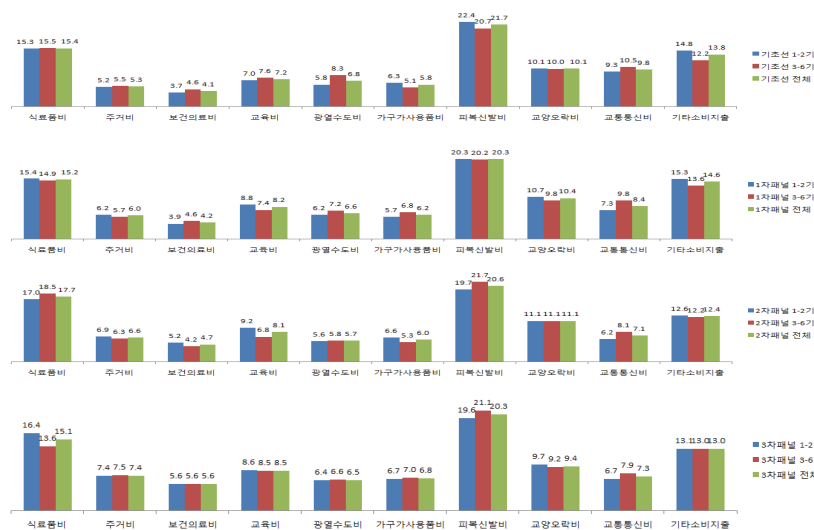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식료품비	15.3	15.4	17.0	15.5	14.9	18.5	15.4	15.2	17.7
주거비	5.2	6.2	6.9	5.5	5.7	6.3	5.3	6.0	6.6
보건의료비	3.7	3.9	5.2	4.6	4.6	4.2	4.1	4.2	4.7
교육비	7.0	8.8	9.2	7.6	7.4	6.8	7.2	8.2	8.1
광열수도비	5.8	6.2	5.6	8.3	7.2	5.8	6.8	6.6	5.7
가구가사용품비	6.3	5.7	6.6	5.1	6.8	5.3	5.8	6.2	6.0
피복신발비	22.4	20.3	19.7	20.7	20.2	21.7	21.7	20.3	20.6
교양오락비	10.1	10.7	11.1	10.0	9.8	11.1	10.1	10.4	11.1
교통통신비	9.3	7.3	6.2	10.5	9.8	8.1	9.8	8.4	7.1
기타소비지출	14.8	15.3	12.6	12.2	13.6	12.2	13.8	14.6	12.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13.407$ ; 1차패널  $\chi^2 = 9.868$ ; 2차패널  $\chi^2 = 9.488$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식료품비	16.4	13.6	15.1
주거비	7.4	7.5	7.4
보건의료비	5.6	5.6	5.6
교육비	8.6	8.5	8.5
광열수도비	6.4	6.6	6.5
가구가사용품비	6.7	7.0	6.8
피복신발비	19.6	21.1	20.3
교양오락비	9.7	9.2	9.4
교통통신비	6.7	7.9	7.3
기타소비지출	13.1	13.0	13.0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3.582$

[그림 7-34] 지출제한 2순위



□ 집세 연체 및 미납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가구 중, 집세를 연체 및 미납한 경험은 ‘경험이 없다’, ‘비해당’, ‘경험이 있다’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기초선 조사에서는 1~2기 참여가구 중 집세를 연체 및 미납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험

- 이 있다', '비해당' 순이었던 반면, 3~6기 참여가구는 '경험이 없다', '비해당', '경험이 있다' 순이었음
- 전체적인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였으며, 이는 기초선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표 7-36〉 집세 연체 및 미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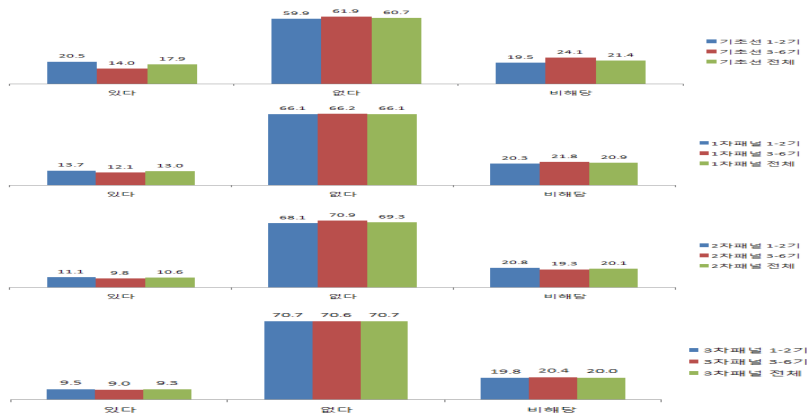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있다	20.5	13.7	11.1	14.0	12.1	9.8	17.9	13.0	10.6
없다	59.9	66.1	68.1	61.9	66.2	70.9	60.7	66.1	69.3
비해당	19.5	20.3	20.8	24.1	21.8	19.3	21.4	20.9	2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21.819^{**}$  ( $p < .01$ ); 1차패널  $\chi^2 = 1.761$ ; 2차패널  $\chi^2 = 1.846$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있다	9.5	9.0	9.3
없다	70.7	70.6	70.7
비해당	19.8	20.4	20.0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0.195$

[그림 7-35] 집세 연체 및 미납



□ 공과금 기한 내 미납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가구 중, 공과금 기한 내 미납한 경험은 기초선 조사 1~2기만이 ‘경험이 있다’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나머지는 ‘경험이 없다’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기초선과 3차 패널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표 7-37〉 공과금 기한 내 미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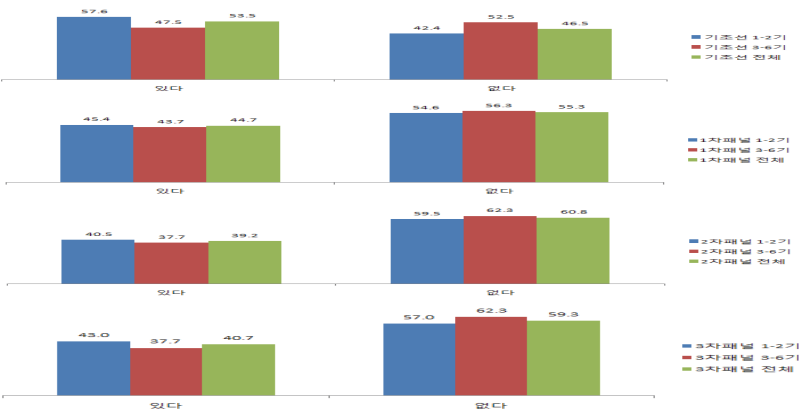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있다	57.6	45.4	40.5	47.5	43.7	37.7	53.5	44.7	39.2
없다	42.4	54.6	59.5	52.5	56.3	62.3	46.5	55.3	60.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26.712^{**}$  ( $p < .01$ ); 1차패널  $\chi^2 = 0.733$ ; 2차패널  $\chi^2 = 1.593$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있다	43.0	37.7	40.7
없다	57.0	62.3	59.3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4.889^*$  ( $p < .05$ )

[그림 7-36] 공과금 기한 내 미납



□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 경험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가구 중,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 경험은 ‘경험이 없다’가 ‘경험이 있다’보다 약 70~80%p 높았음
- 참여기수별로도 전체적인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였으나 조사시점에 따라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음

〈표 7-38〉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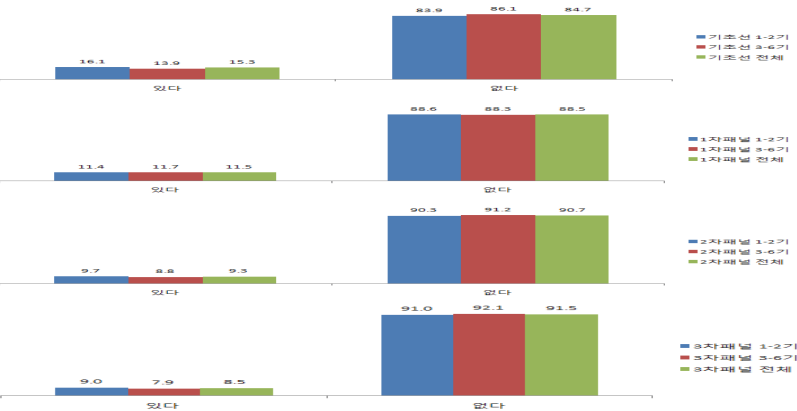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있다	16.1	11.4	9.7	13.9	11.7	8.8	15.3	11.5	9.3
없다	83.9	88.6	90.3	86.1	88.3	91.2	84.7	88.5	90.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2.410$ ; 1차패널  $\chi^2 = 0.053$ ; 2차패널  $\chi^2 = 0.461$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있다	9.0	7.9	8.5
없다	91.0	92.1	91.5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0.713$

〔그림 7-37〕 공과금 미납으로 공급 중단 경험



□ 공교육비 연체

- 전체 참여가구 중, 공교육비 연체는 ‘경험이 없다’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해당, ‘경험이 있다’ 순이었음
- 조사시점에 따라 전체적으로 경험이 없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였음
- 이는 3차 패널 조사를 제외한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조사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남

〈표 7-39〉 생활여건 공교육비 연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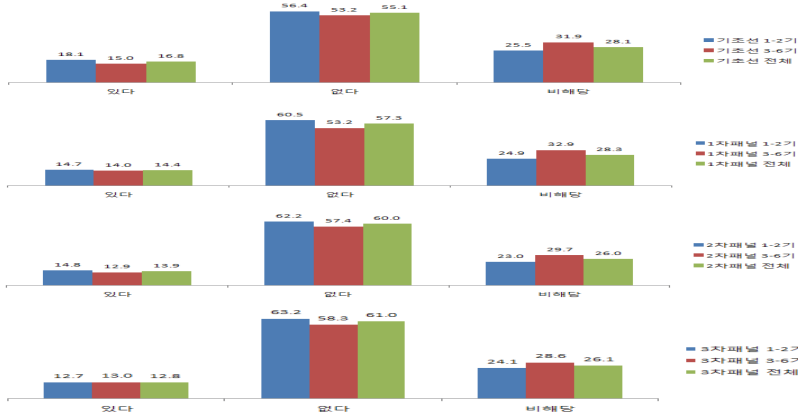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있다	18.1	14.7	14.8	15.0	14.0	12.9	16.8	14.4	13.9
없다	56.4	60.5	62.2	53.2	53.2	57.4	55.1	57.3	60.0
비해당	25.5	24.9	23.0	31.9	32.9	29.7	28.1	28.3	26.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14.048^{**}$  ( $p < .01$ ); 1차패널  $\chi^2 = 18.950^{**}$  ( $p < .01$ ); 2차패널  $\chi^2 = 11.286^{**}$  ( $p < .01$ )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있다	12.7	13.0	12.8
없다	63.2	58.3	61.0
비해당	24.1	28.6	26.1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4.871$

[그림 7-38] 생활여건 공교육비 연체



## □ 겨울철 난방 사용불가 경험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가구 중, 겨울철 난방 사용을 하지 못한 경험은 기초선 조사 당시 20%p차이에서 점차 차이폭이 커져 약 40%p 이상의 차이로 ‘경험이 없다’가 ‘경험이 있다’보다 높았음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참여기수별로 차이는 없었음

〈표 7-40〉 생활여건 겨울철 난방 사용불가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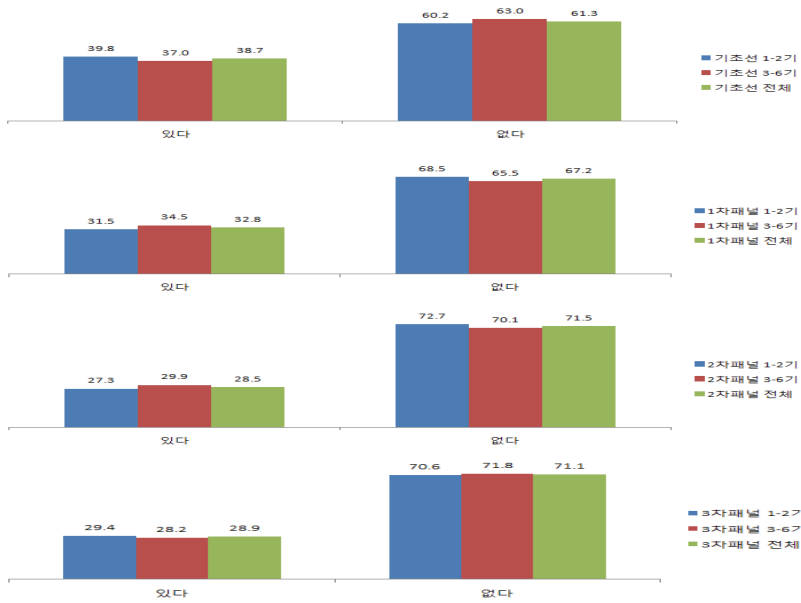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있다	39.8	31.5	27.3	37.0	34.5	29.9	38.7	32.8	28.5
없다	60.2	68.5	72.7	63.0	65.5	70.1	61.3	67.2	71.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2.180$ ; 1차패널  $\chi^2 = 2.351$ ; 2차패널  $\chi^2 = 1.556$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있다	29.4	28.2	28.9
없다	70.6	71.8	71.1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0.296$

[그림 7-39] 생활여건 겨울철 난방 사용불가 경험



□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가구 중,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은 기초선 조사 당시 약 60%p수준의 차이에서 점차 차이폭이 커져 3차 패널 조사 당시 약 70%p 이상 차이로 ‘경험이 없다’가 ‘경험이 있다’에 비해 높았음
-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은 참여기수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음



〈표 7-41〉 생활여건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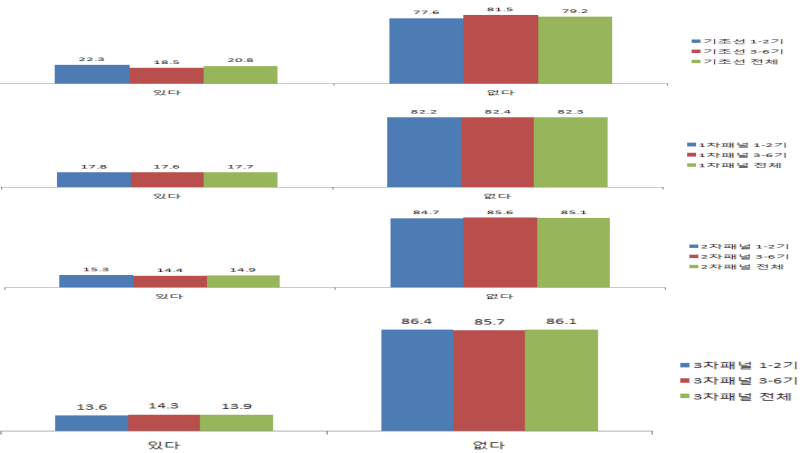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있다	22.3	17.8	15.3	18.5	17.6	14.4	20.8	17.7	14.9
없다	77.6	82.2	84.7	81.5	82.4	85.6	79.2	82.3	85.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5.701$ ; 1차패널  $\chi^2 = 0.008$ ; 2차패널  $\chi^2 = 0.307$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있다	13.6	14.3	13.9
없다	86.4	85.7	86.1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0.137$

〔그림 7-40〕 생활여건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경험



□ 신용불량자 유무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가구 중,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유무는 ‘신용불량자가 없다’가 ‘신용불량자가 있다’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조사시점에 따라 계속적으로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다’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며, ‘신용불량자가 없다’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즉, 희망키움통장 가입 이후 참여가구의 신용불량 가구원의 비중은 점점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2차패널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표 7-42〉 생활여건 신용불량자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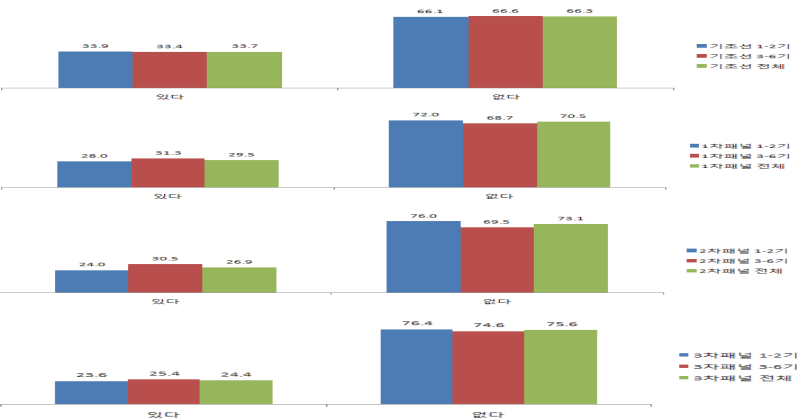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있다	33.9	28.0	24.0	33.4	31.3	30.5	33.7	29.5	26.9
없다	66.1	72.0	76.0	66.6	68.7	69.5	66.3	70.5	73.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0.067$ ; 1차패널  $\chi^2 = 2.966$ ; 2차패널  $\chi^2 = 10.206^{**}$  ( $p < .01$ )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있다	23.6	25.4	24.4
없다	76.4	74.6	75.6
합 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 = 0.732$

〔그림 7-41〕 생활여건 신용불량자 유무



## □ 건강보험급여자격정지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가구 중, 건강보험 급여자격 정지된 경험은 ‘경험이 없다’가 가장 많았으며, ‘비해당’, ‘경험이 있다’ 순이었음
- 조사시점에 따라 미미한 수준이지만 건강보험 급여자격 정지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이는 1차패널 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표 7-43〉 생활여건 건강보험급여자격정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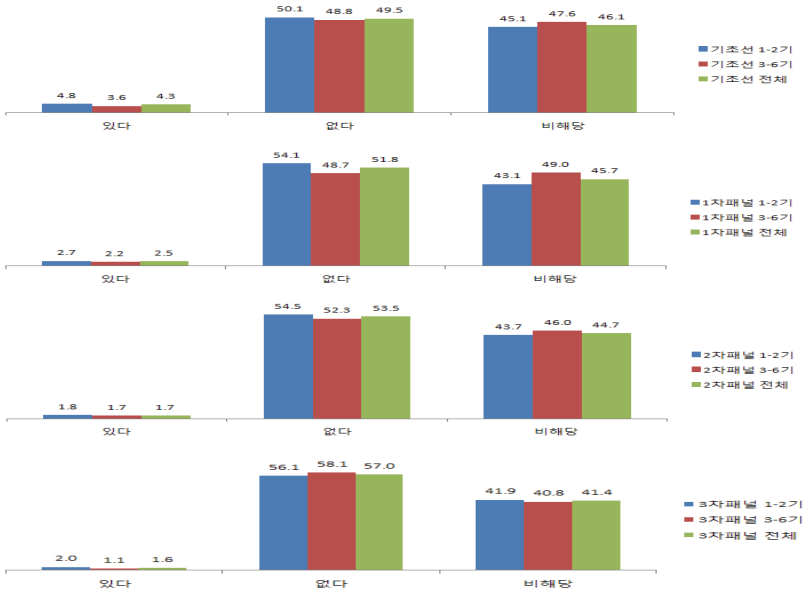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있다	4.8	2.7	1.8	3.6	2.2	1.7	4.3	2.5	1.7
없다	50.1	54.1	54.5	48.8	48.7	52.3	49.5	51.8	53.5
비해당	45.1	43.1	43.7	47.6	49.0	46.0	46.1	45.7	44.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chi^2 = 3.397$ ; 1차패널  $\chi^2 = 8.398^*$  ( $p < .05$ ); 2차패널  $\chi^2 = 0.982$ 

구분	3차패널		
	1~2기	3~6기	전체
있다	2.0	1.1	1.6
없다	56.1	58.1	57.0
비해당	41.9	40.8	41.4
합 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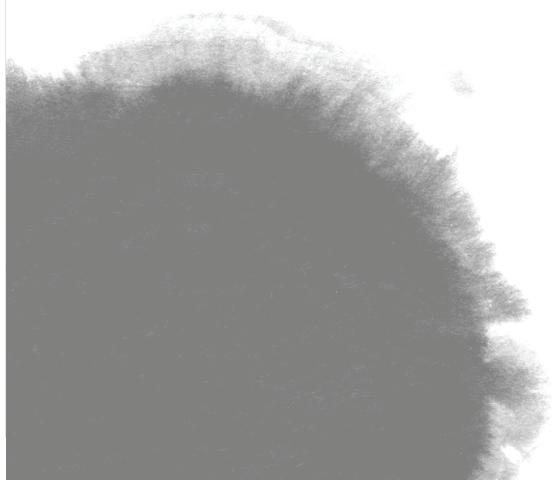
3차패널  $\chi^2 = 2.922$

[그림 7-42] 생활여건 건강보험급여자격정지



# 8장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패널 조사결과 : 희망키움통장 관련 인식 및 태도





## 제8장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패널 조사결과

### : 희망키움통장 관련 인식 및 태도

□ 여기서는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1~6기)를 대상으로 이번 3차 연구에서 수행한 3차 패널조사를 포함하여 1~3차 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과 전망,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과정에서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 사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제시함

#### 제1 절 가구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먼저, 기초선 조사와 동일하게 각각의 조사시점에서 현재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을 1점(매우 가난)~10점(매우 부유)의 척도로 조사하였음
- 다음으로, 기초선 조사 이후 추가 조사한 내용으로 패널조사부터 가구의 경제수준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살펴봄
- 단기 전망은 6개월 이후, 중장기 전망은 희망키움통장 참여종료 이후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예상을 조사함

□ 현재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 각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현재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은, 기초선 조사 이후 사업 참여과정에서의 패널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참여가구의 평균적 인식 정도는 기초선 조사 당시 2.89점에서, 1차 패널 3.04점, 2차 패널 3.15점, 그리고 3차 패널에서 3.31점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인식 수준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기초선 조사에서는 ‘3점-2점-1점-4점-5점’ 순서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1차 패널에서는 ‘3점-2점-4점-1점-5점’ 순서로, 그리고 2차 패널과 3차 패널의 경우는 ‘3점-4점-2점-5점-1점’ 순서로 점차 높은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8-1〉 현재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기초선	1차 패널	2차 패널
평균 (표준편차)		2.91 (1.443)	3.17 (1.353)	3.23 (1.383)	2.85 (1.493)	2.88 (1.429)	3.05 (1.352)	2.89 (1.464)	3.04 (1.394)	3.15 (1.372)
매우 가난	1	19.2	11.5	10.5	19.8	19.0	14.8	19.4	14.8	12.5
	2	20.0	20.4	19.3	23.7	22.7	20.1	21.5	21.4	19.7
	3	30.4	29.8	32.0	28.1	28.4	29.4	29.5	29.2	30.8
	4	17.7	20.7	19.9	16.3	16.7	19.9	17.1	18.9	19.9
	5	9.7	14.9	13.4	9.3	10.8	12.9	9.6	13.1	13.2
	6	1.4	1.9	3.3	0.9	0.9	2.2	1.2	1.4	2.8
	7	0.5	0.5	1.3	0.4	0.7	0.6	0.4	0.6	1.0
	8	0.3	0.4	0.1	0.1	0.2	0.1	0.2	0.3	0.1
매우 부유	9	0.7	0.1	0.3	1.5	0.7	-	1.0	0.4	0.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선 t=1.071,  $\chi^2=12.492$ ; 1차패널 t=5.244,  $\chi^2=46.626^{**}$ (p<.01); 2차패널 t=2.895,  $\chi^2=15.762^*$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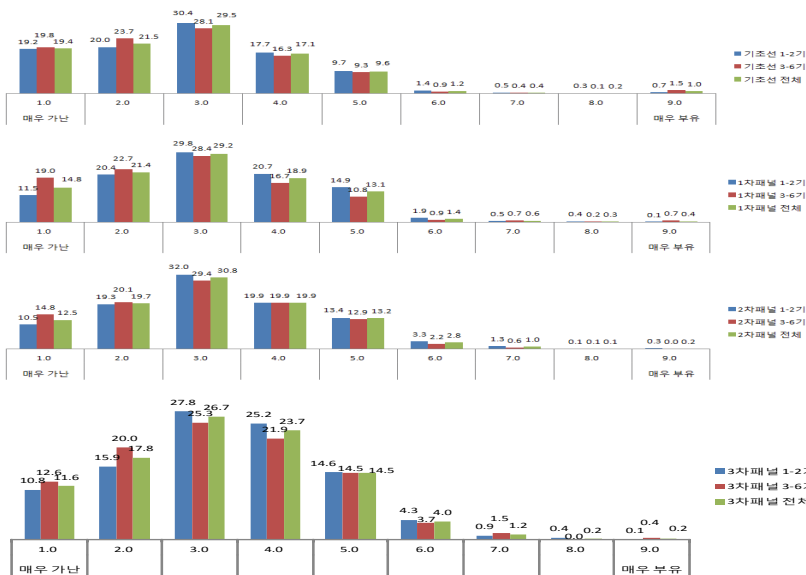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평균 (표준편차)		3.36 (1.406)	3.25 (1.472)	3.31 (1.436)
매우 가난	1	10.8	12.6	11.6
	2	15.9	20.0	17.8
	3	27.8	25.3	26.7
	4	25.2	21.9	23.7
	5	14.6	14.5	14.5
	6	4.3	3.7	4.0
	7	0.9	1.5	1.2
	8	0.4	0.0	0.2
매우 부유	9	0.1	0.4	0.2
합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t=1.566;  $\chi^2=14.446$

[그림 8-1] 현재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 참여기수별로 비교해보면, 사업 참가가구 선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1~2기 참가가구의 인식 수준이 3~6기에 비해서 보다

높게 나타났음

- 1~2기의 경우, 기초선 조사 당시 2.91점에서 1~3차 패널조사를 거치면서 3.17점, 3.23점, 3.36점으로 약 0.45점 높아졌으며, 3~6기 참여가구의 경우에도 역시 기초선 조사 당시 2.85점에서 1~3차 패널조사에서는 2.88점, 3.05점, 3.25점으로 약 0.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 6개월 이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단기 전망

- 1차 패널조사에서부터 조사문항으로 포함한 6개월 이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단기 전망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가구의 평균적 인식 수준은 1차 패널 3.57점, 2차 패널 3.66점, 그리고 3차 패널에서 3.84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앞서 현재 가구의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 정도(1차 패널 3.04점, 2차 패널 3.15점, 3차 패널 3.31점)와 비교해보면, 단기 전망의 경우 현재 수준에 대한 인식보다는 약 0.5점 높게 나타나,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가 현재 시점보다는 6개월 이후 경제적 생활수준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참여기수별로 살펴보면, 1차 패널조사 결과에서 6개월 이후 단기 전망의 경우 1~2기(3.72점)와 3~6기(3.37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2차 패널에서 3~6기 가구의 전망 수준이 크게 개선되면서 2~3차 패널조사에서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1~2기 참여가구의 경우 1~2차 패널에서 3.72점과 3.71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3차 패널에서는 3.90점으로 다시 0.19점 높아졌음
  - 3~6기 참여가구의 경우, 1차 패널 3.37점에서 2차 패널 3.60점으로 0.23점 상승하였으며 3차 패널에서는 3.77점으로 나타남

〈표 8-2〉 6개월 이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단기 전망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평균 (표준편차)		3.72 (1.579)	3.71 (1.567)	3.37 (1.586)	3.60 (1.613)	3.57 (1.592)	3.66 (1.588)
매우 가난	1	7.2	7.2	13.1	10.6	9.8	8.7
	2	16.4	15.2	17.3	15.3	16.8	15.2
	3	22.5	25.3	25.5	23.7	23.8	24.6
	4	22.7	22.3	20.9	21.5	21.9	21.9
	5	19.8	18.1	15.7	17.3	18.0	17.7
	6	7.2	7.9	4.6	7.5	6.0	7.7
	7	3.0	2.5	1.8	3.0	2.5	2.8
	8	0.5	1.0	0.5	0.8	0.5	0.9
	9	0.4	0.5	0.6	0.3	0.5	0.4
매우 부유	10	0.3	0.1	0.2	-	0.2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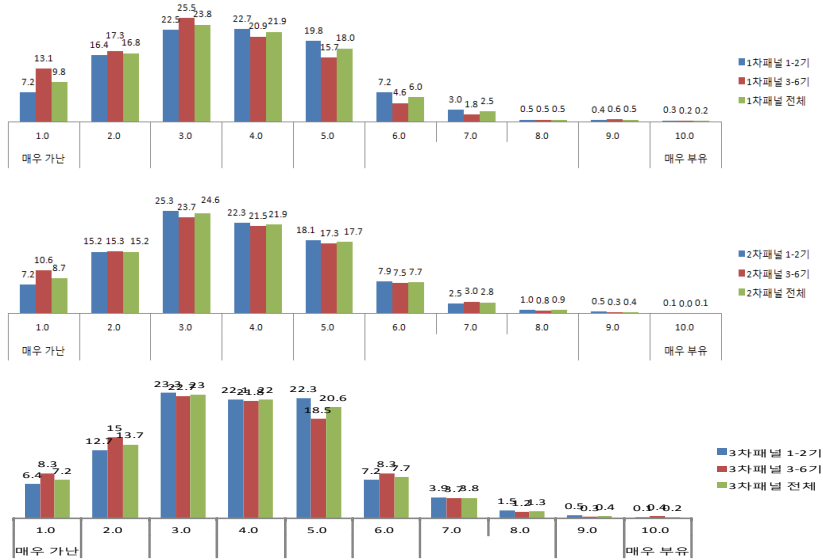
1차패널 t=5.418,  $\chi^2=41.161^{**}$ (p<.01); 2차패널 t=1.556,  $\chi^2=9.314$

(단위: %)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평균 (표준편차)		3.90 (1.604)	3.77 (1.662)	3.84 (1.631)
매우 가난	1.0	6.4	8.3	7.2
	2.0	12.7	15	13.7
	3.0	23.3	22.7	23
	4.0	22.1	21.8	22
	5.0	22.3	18.5	20.6
	6.0	7.2	8.3	7.7
	7.0	3.9	3.7	3.8
	8.0	1.5	1.2	1.3
	9.0	0.5	0.3	0.4
매우 부유	10.0	0.1	0.4	0.2
합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t=1.610;  $\chi^2=10.006$

[그림 8-2] 6개월 이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단기 전망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종료 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종료 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살펴보면, 참여가구들은 앞서 단기 전망에 비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전체 참여가구의 평균적 전망 수준이 1차 패널 4.76점, 2차 패널 4.84점에 이어서 3차 패널에서 5.00점으로 나타나, 현재 시점에서 경제적 생활실태에 대한 인식 수준(1차 패널 3.04점, 2차 패널 3.15점, 3차 패널 3.31점)과 비교할 때 약 1.7점, 단기 전망 수준(1차 패널 3.57점, 2차 패널 3.66점, 3차 패널 3.84점)에 비해서 약 1.2점 가량 높게 나타났음
- 특히, 이러한 전망 수준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10점 척도에서 5점에 이를 정도로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종료 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표 8-3〉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종료 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평균		4.93	4.90	4.56	4.77	4.76	4.84
(표준편차)		(1.689)	(1.646)	(1.690)	(1.736)	(1.699)	(1.687)
매우 가난	1	1.6	2.1	2.1	2.6	1.8	2.3
	2	6.4	4.8	8.6	7.8	7.4	6.1
	3	11.6	11.9	18.3	13.0	14.6	12.4
	4	18.4	20.8	18.6	18.0	18.5	19.6
	5	28.1	28.1	25.7	28.4	27.1	28.2
	6	16.9	15.4	14.0	14.1	15.6	14.8
	7	10.7	11.0	8.5	9.9	9.7	10.5
	8	4.3	4.3	2.6	4.7	3.6	4.5
	9	1.0	1.4	0.7	0.9	0.9	1.2
매우 부유	10	0.9	0.3	0.8	0.6	0.8	0.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패널 t=5.282,  $\chi^2=35.928^{**}$ (p<.01); 2차패널 t=1.692,  $\chi^2=13.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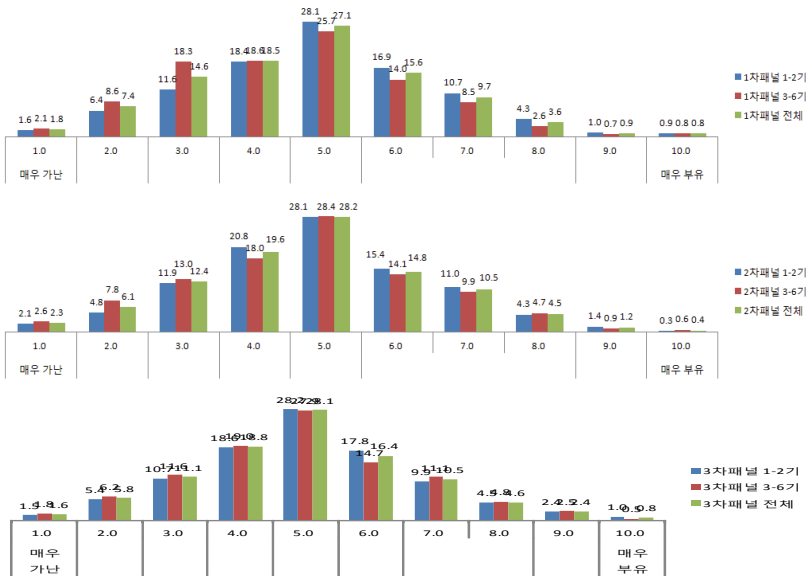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평균		5.03	4.96	5.00
(표준편차)		(1.715)	(1.745)	(1.728)
매우 가난	1,0	1.5	1.8	1.6
	2,0	5.4	6.2	5.8
	3,0	10.7	11.6	11.1
	4,0	18.6	19.0	18.8
	5,0	28.2	27.9	28.1
	6,0	17.8	14.7	16.4
	7,0	9.9	11.1	10.5
	8,0	4.5	4.8	4.6
	9,0	2.4	2.5	2.4
매우 부유	10,0	1.0	0.5	0.8
합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t=0.892;  $\chi^2=5.315$

- 참가기수별로 살펴보면, 단기 전망과 유사하게 1차 패널조사에서 1~2기(4.93점)와 3~6기(4.56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2차 패널조사 이후부터 참여대상 선정 시 근로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3~6기의 중장기 전망 수준이 높아지면서 2~3차 패널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점차 감소함
- 1~2기 참가가구의 경우 1~2차 패널에서 4.93점과 4.90점으로 이미 5점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3차 패널에서 5.03점으로 다소 높아져 1~3차 패널조사 기간 중 약 0.10점 상승함
- 반면, 3~6기 참가가구는 1차 패널 4.56점에서 2차 패널 4.77점으로 상승하였으며, 3차 패널에서 4.96점으로 더욱 더 상승하여 1~3차 패널조사 기간 중 약 0.40점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8-3]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종료 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 제2절 희망키움통장 및 저축 관련 인식 및 태도

□ 여기서는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사업 참여과정 및 이러한 과정에서 희망키움통장의 운영체계 및 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 저축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살펴봄

□ 희망키움통장 저축액 마련방법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는 3년간의 사업 참여과정에서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에 해당하는 저축액을 마련해야 함
- 이러한 저축액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3차 패널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절약하고 소비를 줄여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약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생계급여 등 정부지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순서로 나타났음
  - 사업 참여과정에서 수행된 1~3차 패널조사 결과로부터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절약하고 소비를 줄여서’ 저축액을 마련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1차 패널조사 시 73.6%에서 2차 패널 71.0%, 3차 패널 70.6%로 약 3%p 감소한 반면, 저축액 마련 방법 중에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마련한다는 응답이 1차 패널조사 시 17.8%에서 2차 패널 21.6%, 3차 패널 22.6%로 1~3차 패널조사 중 약 4.8%p 증가했다는 사실임
  - 한편, ‘생계급여 등 정부지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마련한다는 응답은 약 3~4% 수준으로 미미하였지만 1차 패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 참여기수별로 살펴보면, 1~2차 패널조사까지 이러한 응답률의 분포는 1~2기 및 3~6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음

- 그러나, 3차 패널조사의 경우에는 참여대상 선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1~2기 참여가구에서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마련한다는 응답이 24.8%로 3~6기 참여가구(20.0%)에 비해 높았으며, ‘절약하고 소비를 줄여서’ 마련한다는 응답은 선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3~6기 참여가구에서 72.6%로 1~2기 참여가구(68.9%)에 비해 높게 나타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

〈표 8-4〉 희망키움통장 저축액 마련방법 1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절약하고 소비를 줄여서	73.6	70.6	73.6	71.5	73.6	71.0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17.8	22.6	17.8	20.4	17.8	21.6
가족,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1.9	1.0	1.3	0.8	1.6	0.9
이전에 모아둔 돈으로	0.5	1.0	0.5	0.8	0.5	0.9
정부지원 급여 중 일부를 통해	4.3	3.4	4.6	4.0	4.4	3.7
기타	1.9	1.4	2.2	2.4	2.1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패널  $\chi^2=1.500$ ; 2차패널  $\chi^2=4.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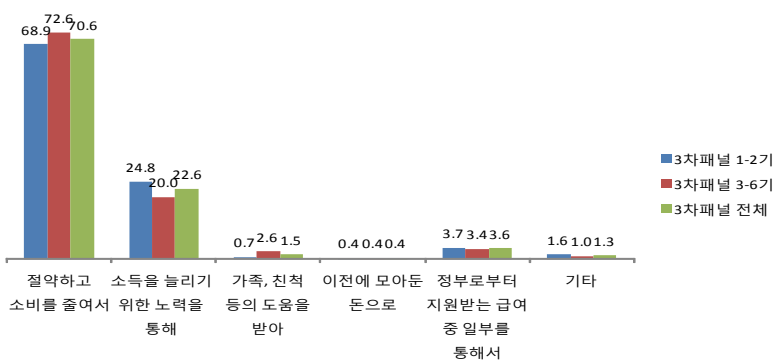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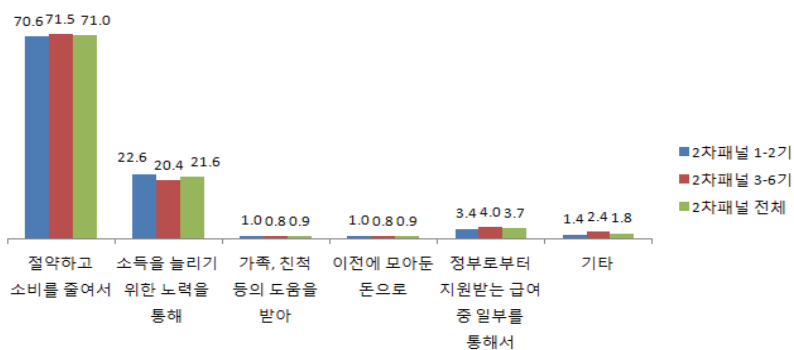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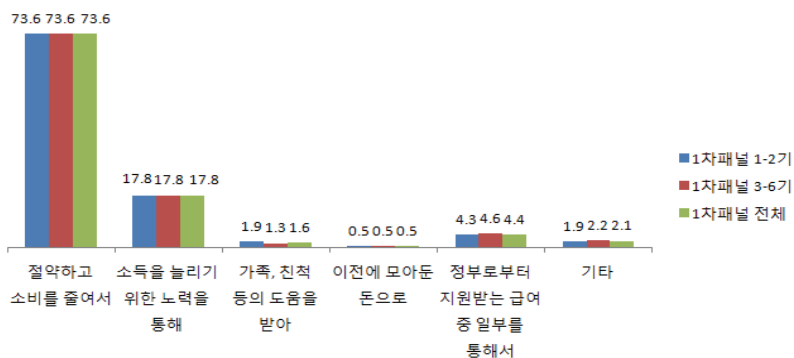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절약하고 소비를 줄여서	68.9	72.6	70.6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24.8	20.0	22.6
가족,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0.7	2.6	1.5
이전에 모아둔 돈으로	0.4	0.4	0.4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급여 중 일부 통해	3.7	3.4	3.6
기타	1.6	1.0	1.3
합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15.908^{**}$ ( $p<.01$ )



[그림 8-4] 희망키움통장 저축액 마련방법 1순위



－ 희망키움통장 저축액 마련방법 2순위는, 1~3차 패널조사에서 모두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마련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1~2차 패널조사까지는 참여기수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3차 패널조사에서는 차이가 존재함

〈표 8-5〉 희망키움통장 저축액 마련방법 2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절약하고 소비를 줄여서	21.7	27.3	23.9	26.8	22.6	27.1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55.7	56.1	50.8	52.1	53.7	54.4
가족,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7.0	4.6	6.5	4.6	6.8	4.6
이전에 모아둔 돈으로	3.5	3.1	3.6	3.7	3.5	3.4
정부지원 급여 중 일부를 통해	9.0	6.7	10.1	8.8	9.5	7.6
기타	3.2	2.0	5.0	4.0	3.9	2.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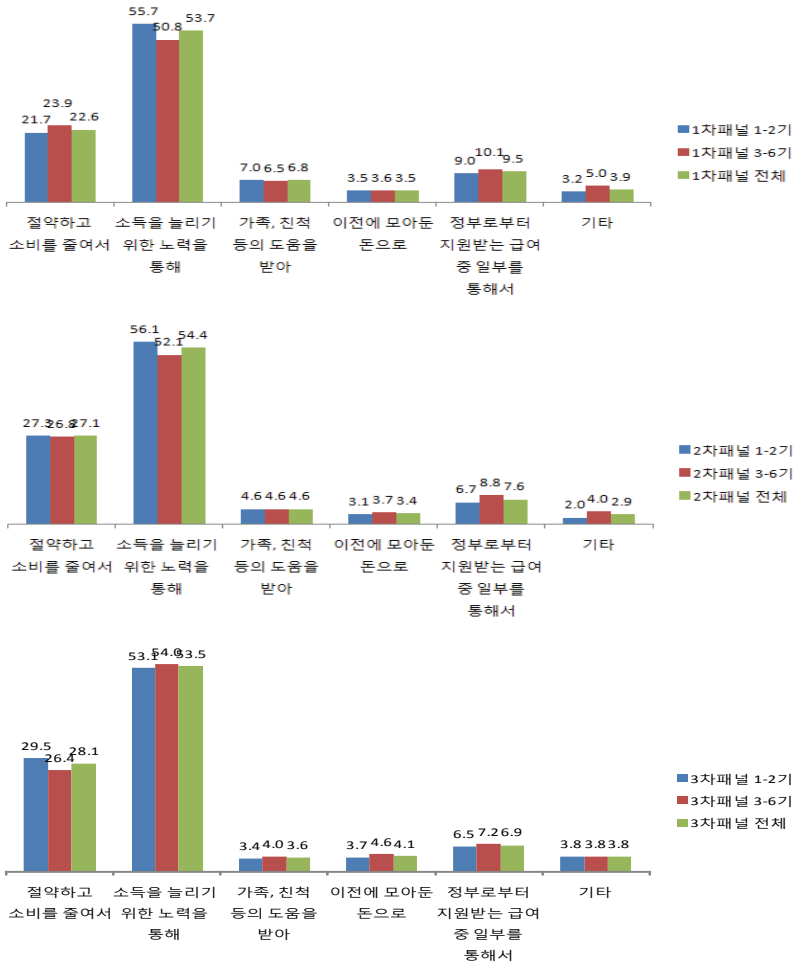
1차패널  $\chi^2=6.929$ ; 2차패널  $\chi^2=8.270$

(단위: %)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절약하고 소비를 줄여서	29.5	26.4	28.1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53.1	54.0	53.5
가족,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3.4	4.0	3.6
이전에 모아둔 돈으로	3.7	4.6	4.1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급여 중 일부 통해	6.5	7.2	6.9
기타	3.8	3.8	3.8
합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15.908^{**}(p<.01)$

[그림 8-5] 희망키움통장 저축액 마련방법 2순위



##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중 근로소득 증가를 위한 노력 정도

- 3년 후 탈 수급을 전제로 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기간 중에 근로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참여가구의 노력 정도를 조사한 결과, 1차 패널조사 당시 3.72점에서 2차 패널 3.82점, 3차 패널에서는 3.95점으로 계속해서 높아졌음
- 응답 분포 역시 전혀 또는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차

패널조사 당시 10.8%에서 2차 패널 8.1%, 3차 패널에서는 6.2%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기간 중 근로소득 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가구의 비율은 1차 패널 62.3%에서 2차 패널에는 65.2%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3차 패널에서는 71.5%로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참여기수별로 살펴보면, 1~2기가 3~6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증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차 패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3차 패널의 경우 3~6기의 증가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8-6〉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중 근로소득 증가를 위한 노력 정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평균	3.77	3.89	3.65	3.73	3.72	3.82
(표준편차)	(1.020)	(0.915)	(0.947)	(0.949)	(0.992)	(0.933)
전혀 그렇지 않다	3.3	0.8	1.7	1.3	2.7	1.0
그렇지 않다	7.1	5.9	9.4	8.7	8.1	7.1
그저 그렇다	24.7	25.7	30.1	27.7	26.9	26.6
약간 그렇다	38.7	39.1	40.0	39.8	39.2	39.4
매우 그렇다	26.2	28.5	18.8	22.4	23.1	25.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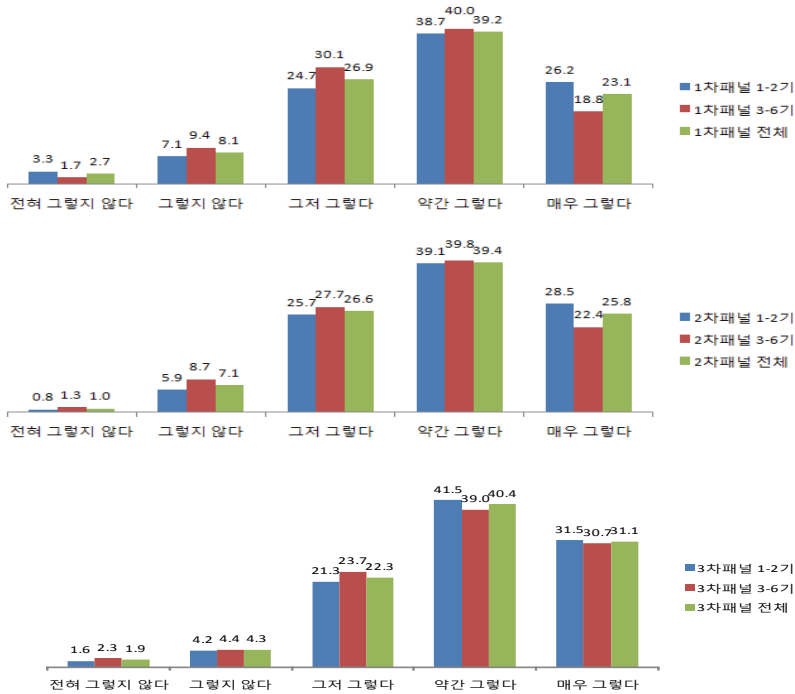
1차패널 t=2.968,  $\chi^2=27.572^{**}$ (p<.01); 2차패널 t=3.492,  $\chi^2=13.545^{**}$ (p<.01)

(단위: %)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평균	3.97	3.92	3.95
(표준편차)	(0.916)	(0.957)	(0.934)
전혀 그렇지 않다	1.6	2.3	1.9
그렇지 않다	4.2	4.4	4.3
그저 그렇다	21.3	23.7	22.3
약간 그렇다	41.5	39.0	40.4
매우 그렇다	31.5	30.7	31.1
합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t=1.166;  $\chi^2=2.628$

[그림 8-6]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중 근로소득 증가를 위한 노력 정도



## □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통한 자산형성 및 적립금 활용계획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기간인 3년 동안 각각의 가구는 저축액과 매칭금, 근로소득장려금,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자산을 축적하게 되며 탈수급 시 이러한 적립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음
- 적립금과 자산 활용계획 1순위로는 주택 마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자녀교육비, 창업자금 마련, 부채 상환 순서로 나타났음
  - 사업 참여기간 중 수행된 1~3차 패널조사를 통해 주택 마련은 47.0%에서 45.1%로 다소 낮아진 반면, 부채 상환에 활용하고자 하는 가구 비율은 5.4%에서 7.5%로 다소 높아졌고 자녀교육비 활용은 약 25%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참여기수별로 살펴보면, 적립금 활용계획 우선순위는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1~2기의 경우 주택 마련 및 자녀교육비 활용계획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3~6기는 창업자금 활용과 부채 상환 목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8-7〉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통한 자산형성 및 적립금 활용계획 1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자녀교육비	26.4	26.1	22.8	23.3	24.9	24.9
자녀외 가구원 교육훈련비	1.5	2.0	1.3	1.9	1.4	1.9
주택마련	47.8	47.8	45.9	44.2	47.0	46.2
탈수급	2.0	2.3	2.9	2.7	2.4	2.4
부채상환목적	5.6	5.4	5.1	7.1	5.4	6.2
노후생활 대비	1.7	1.4	3.7	2.9	2.6	2.0
창업자금 마련	13.5	13.4	16.2	15.3	14.7	14.3
특별한 목적 없음	0.2	0.5	0.1	0.6	0.2	0.5
기타	1.3	1.1	1.9	2.0	1.6	1.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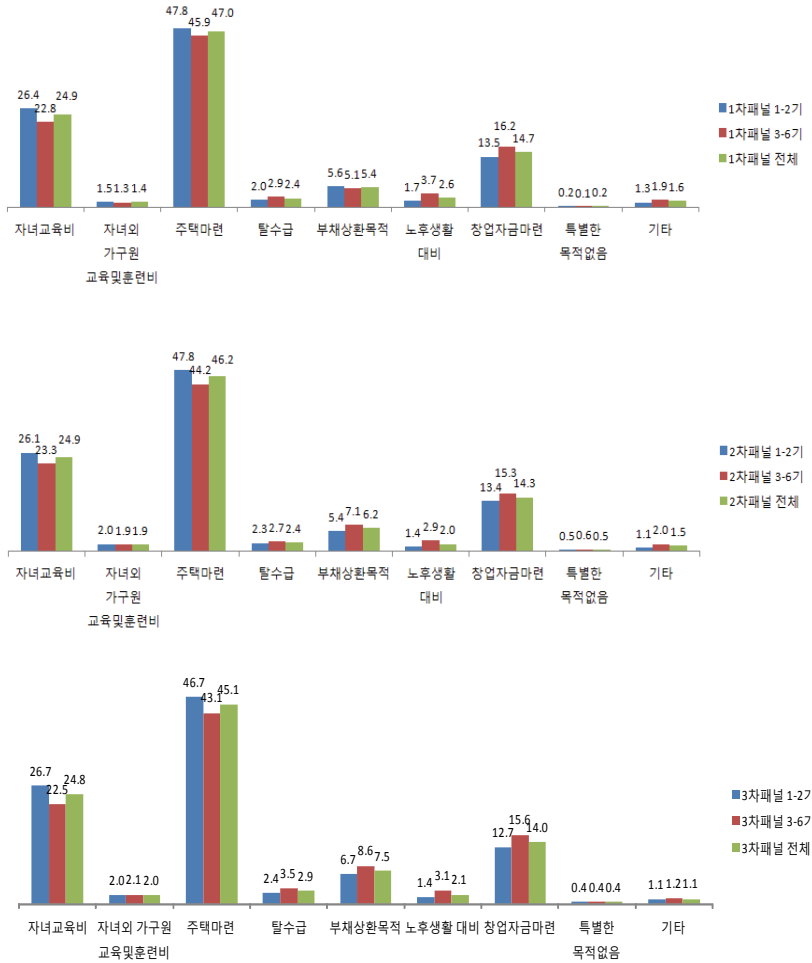
1차패널  $\chi^2=19.928^*(p<.05)$ ; 2차패널  $\chi^2=15.272$

(단위: %)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자녀교육비	26.7	22.5	24.8
자녀외 가구원 교육 및 훈련비	2.0	2.1	2.0
주택마련	46.7	43.1	45.1
탈수급	2.4	3.5	2.9
부채상환목적	6.7	8.6	7.5
노후생활 대비	1.4	3.1	2.1
창업자금 마련	12.7	15.6	14.0
특별한 목적 없음	0.4	0.4	0.4
기타	1.1	1.2	1.1
합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16.517^*(p<.05)$

[그림 8-7]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통한 자산형성 및 적립금 활용계획 1순위



〈표 8-8〉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통한 자산형성 및 적립금 활용계획 2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자녀교육비	24.5	25.1	24.9	20.0	24.7	22.8
자녀외 가구원 교육훈련비	6.3	8.7	4.4	5.4	5.5	7.2
주택마련	23.2	22.6	21.8	23.2	22.6	22.9
탈수급	5.8	7.0	8.1	8.7	6.8	7.7
부채상환목적	9.8	9.8	9.8	10.1	9.8	9.9
노후생활 대비	8.9	7.7	13.0	13.2	10.7	10.1
창업자금 마련	16.0	16.3	13.1	15.9	14.7	16.1
특별한 목적 없음	1.2	0.8	0.9	1.5	1.1	1.1
기타	4.3	2.1	3.9	1.9	4.1	2.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패널  $\chi^2=20.205^{**}$  ( $p<.01$ ); 2차패널  $\chi^2=28.366^{**}$  ( $p<.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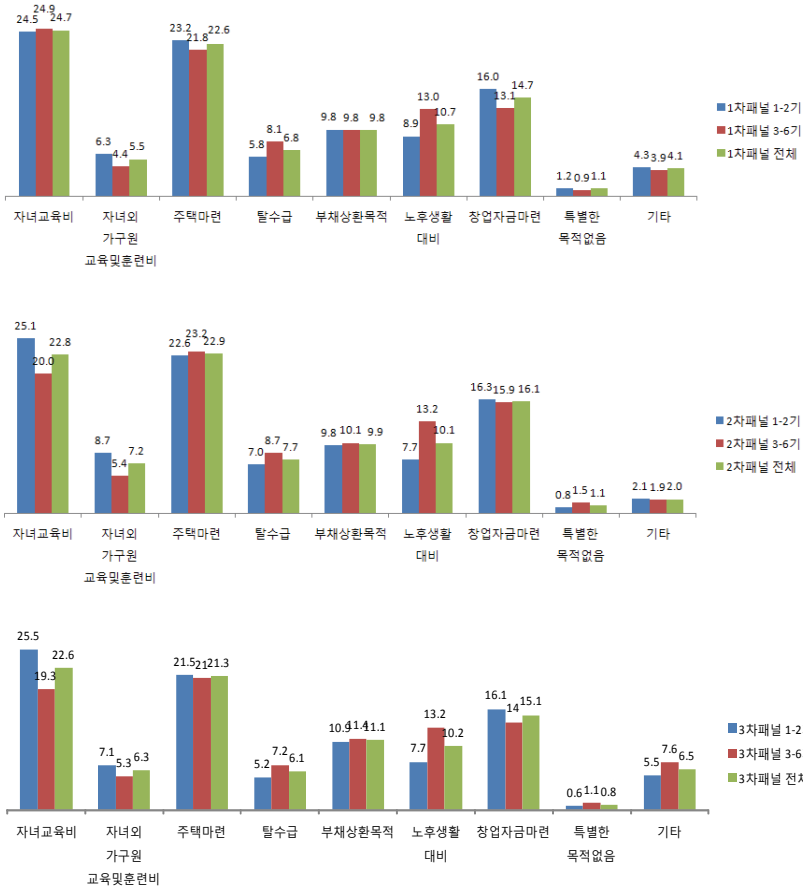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자녀교육비	25.5	19.3	22.6
자녀외 가구원 교육 및 훈련비	7.1	5.3	6.3
주택마련	21.5	21	21.3
탈수급	5.2	7.2	6.1
부채상환목적	10.9	11.4	11.1
노후생활 대비	7.7	13.2	10.2
창업자금 마련	16.1	14	15.1
특별한 목적 없음	0.6	1.1	0.8
기타	5.5	7.6	6.5
합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28.604^{***}$  ( $p<.001$ )



[그림 8-8]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통한 자산형성 및 적립금 활용계획 2순위



## □ 희망키움통장 참여 및 제도 운영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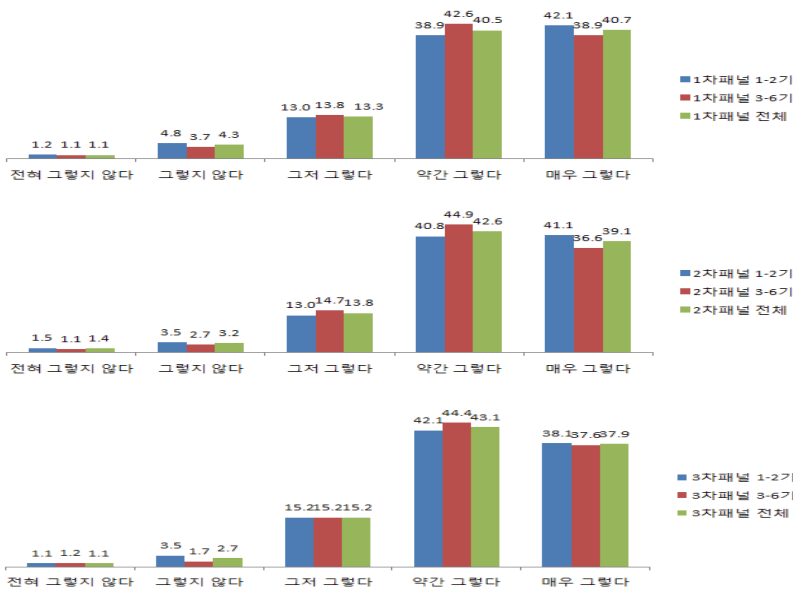
- 여기서는 희망키움통장 참여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참여가구의 인식과 관련하여, 재정자립에 대한 기대, 장기저축에 대한 도움, 매칭비율과 이자율 수준, 3년 후 탈수급 전제조건에 대한 인식, 저축 목표의식, 주변인의 저축 격려, 보충급여에 의한 생계급여 감소에 대한 인식,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인한 근로활동의 장려,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후 지급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고자 함

- 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인식: 재정자립
  -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을 희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차 패널 4.15점, 3차 패널 4.14점으로 재정적 자립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약 81%가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반면, 5~6%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 수준에는 참여기수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4.16	4.16	4.13	4.15	4.13	4.16	4.15	4.15	4.14
(표준편차)	(0.909)	(0.892)	(0.868)	(0.865)	(0.839)	(0.823)	(0.890)	(0.869)	(0.848)

1차패널 t=0.364,  $\chi^2=5.671$  ; 2차패널 t=0.842,  $\chi^2=7.463$  ; 3차패널 t=-0.696,  $\chi^2=5.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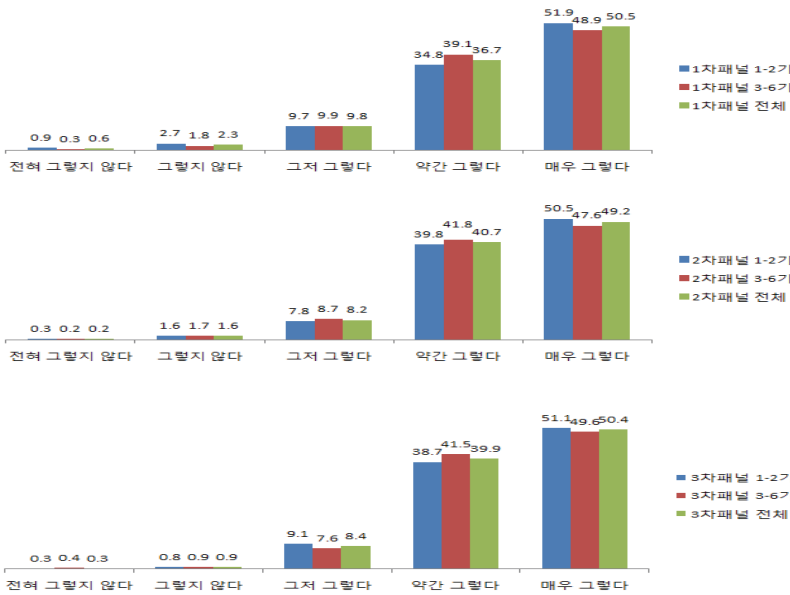


- 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인식: 장기저축
- － 희망키움통장 참여 유지가 장기간 규칙적으로 저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1차 패널 4.34점, 2차 패널 4.37점, 3차 패널 4.39점으로 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규칙적인 저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차 패널의 응답 분포를 제외하면, 참여기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4.34	4.39	4.39	4.34	4.35	4.39	4.34	4.37	4.39
(표준편차)	(0.831)	(0.724)	(0.714)	(0.753)	(0.727)	(0.702)	(0.797)	(0.725)	(0.708)

1차패널 t=-0.135,  $\chi^2=9.720^*$ (p<.05) ; 2차패널 t=1.134,  $\chi^2=1.859$  ; 3차패널 t=0.097,  $\chi^2=2.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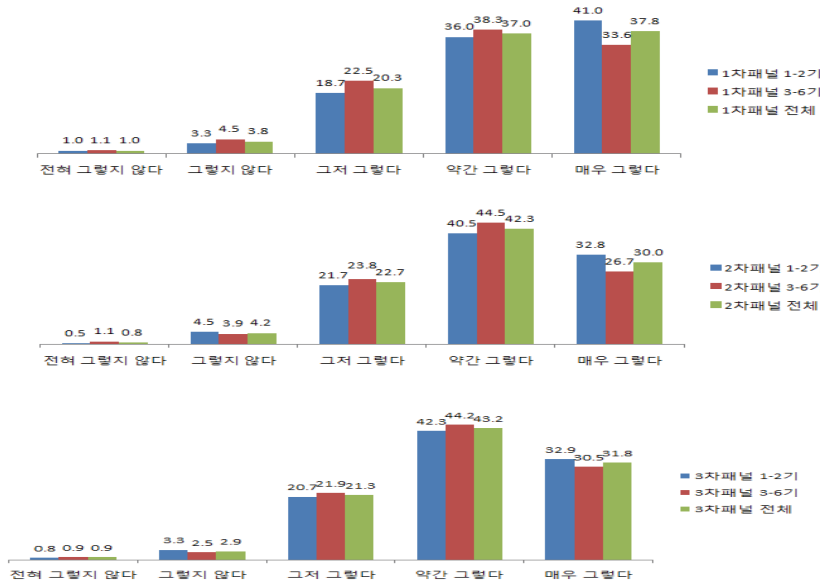


- 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인식: 매칭비율
- 현행 1:1로 적립되는 희망키움통장 민간 매칭비율 수준의 적절성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평균 4점 내외 수준으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1차 패널조사 시 4.07점에서 2차 패널 3.97점으로 낮아졌다가 3차 패널에서는 4.02점으로 나타남
    - 1~2차 패널에서는 응답 분포에 있어 매칭비율 적절성에 대한 1~2기의 긍정적 인식이 3~6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소 높았으나, 3차 패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단위: %)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4.13	4.01	4.03	3.99	3.92	4.01	4.07	3.97	4.02
(표준편차)	(0.898)	(0.875)	(0.862)	(0.915)	(0.869)	(0.84)	(0.908)	(0.873)	(0.852)

1차패널 t=3.656,  $\chi^2=15.776^{**}$  (p<.01) ; 2차패널 t=2.287,  $\chi^2=12.099^*$  (p<.05) ; 3차패널 t=0.522,  $\chi^2=2.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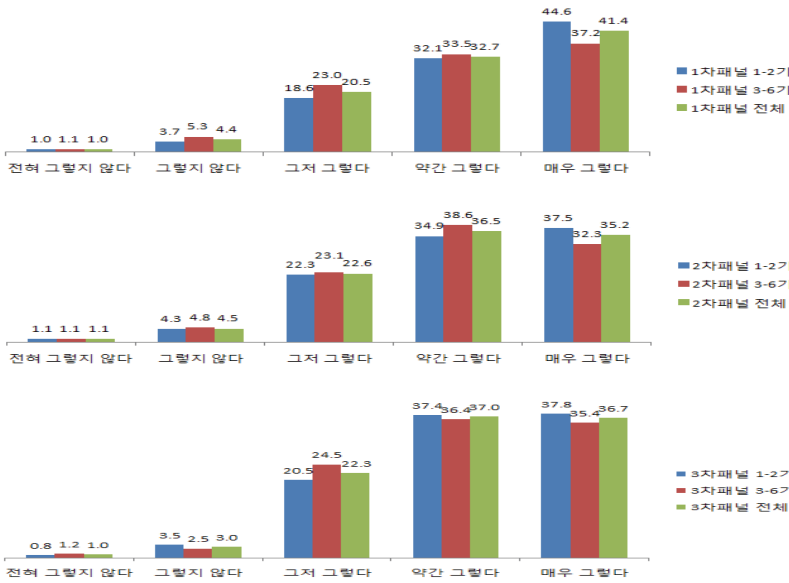


- 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인식: 이자율 수준
- － 희망키움통장의 적립금에 대한 이자율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1차 패널 4.09점, 2차 패널 4.00점, 3차 패널 4.05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희망키움통장 이자율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1차 패널의 응답 분포를 제외하면, 참여기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4.15	4.03	4.08	4.00	3.96	4.02	4.09	4.00	4.05
(표준편차)	(0.922)	(0.931)	(0.891)	(0.954)	(0.921)	(0.896)	(0.939)	(0.927)	(0.893)

1차패널 t=3.864,  $\chi^2=16.827^{**}$  ( $p<.01$ ) ; 2차패널 t=1.721,  $\chi^2=6.116$  ; 3차패널 t=1.217,  $\chi^2=5.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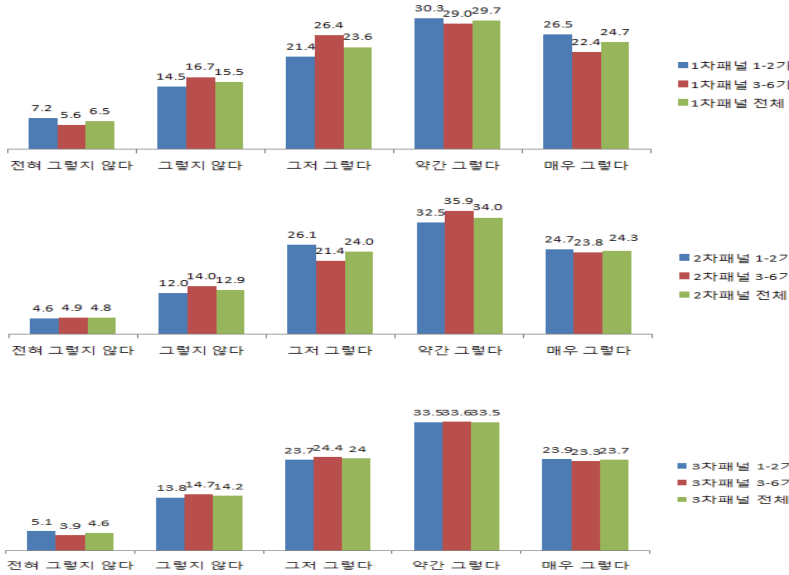


-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3년 후 탈수급 전제조건에 대한 인식
- 희망키움통장 참여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인 3년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수령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차 패널 3.51점, 2차 패널 3.60점, 3차 패널 3.58점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사업 참여과정에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1차 패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1~2기 참여가구의 동의 정도가 다소 높았으나, 2~3차 패널에서는 3~6기 참여가구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3.54	3.61	3.57	3.46	3.60	3.58	3.51	3.60	3.58
(표준편차)	(1.227)	(1.120)	(1.142)	(1.169)	(1.136)	(1.114)	(1.202)	(1.127)	(1.13)

1차패널 t=1.682,  $\chi^2=14.624^{**}$  (p<.01) ; 2차패널 t=0.194,  $\chi^2=7.955$  ; 3차패널 t=-0.062,  $\chi^2=1.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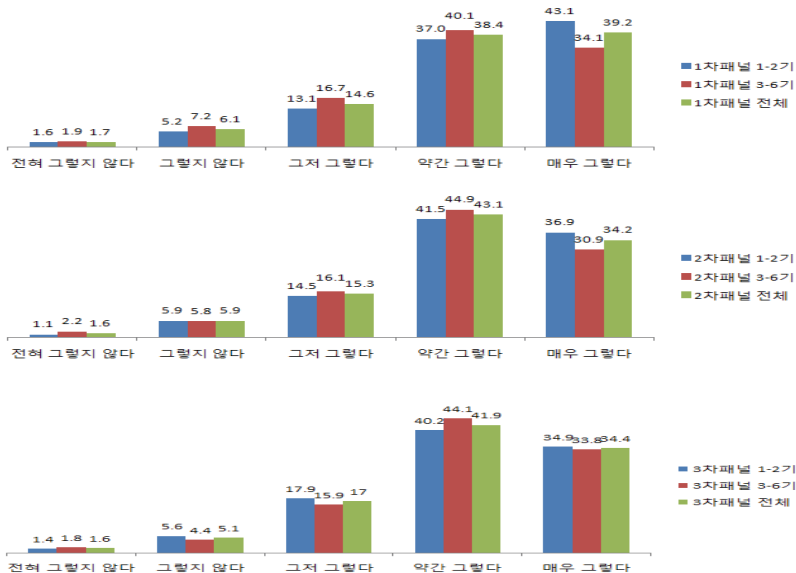
## ○ 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인식: 저축 목표

— 저축 목표를 가지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1차 패널 4.07점, 2차 패널 4.02점, 3차 패널 4.03점으로 나타났으며 약 77% 내외의 참여가구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2차 패널에서 선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1~2기 참여가구의 저축 목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3차 패널에서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2차	3차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4.15	4.07	4.02	3.97	3.96	4.04	4.07	4.02	4.03
(표준편차)	(0.944)	(0.919)	(0.936)	(0.984)	(0.951)	(0.916)	(0.965)	(0.935)	(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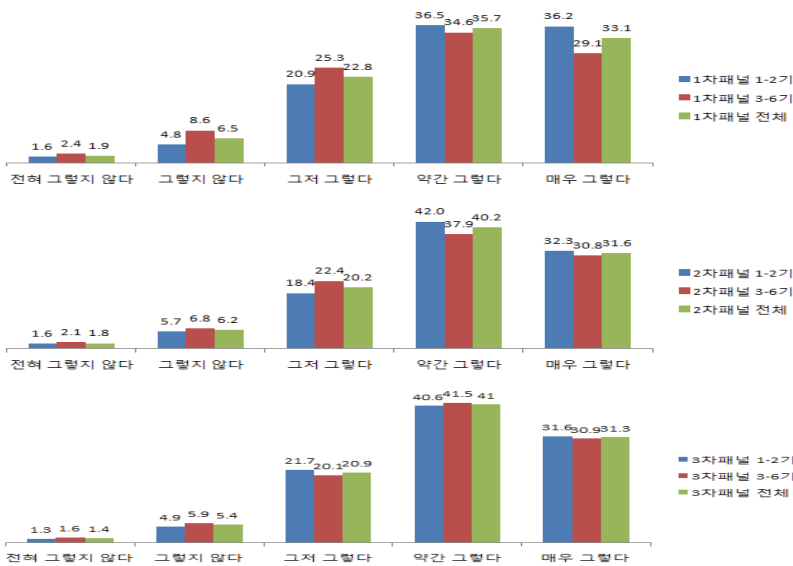
1차패널  $t = 3.920^{**}$  ( $p < .01$ ), 1차패널  $\chi^2 = 18.740^{**}$  ( $p < .01$ )2차패널  $t = 2.613^{**}$  ( $p < .01$ ), 2차패널  $\chi^2 = 13.182^*$  ( $p < .05$ )3차패널  $t = -0.406$ ,  $\chi^2 = 4.333$ 

- 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인식: 주변인의 저축 격려
  - 주변 사람들이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하며 저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차 패널 3.92점, 2차 패널 3.94점, 3차 패널 3.95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주변의 격려는 1~2기 참여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3차 패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단위: %)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4.01	3.98	3.96	3.79	3.88	3.94	3.92	3.94	3.95
(표준편차)	(0.952)	(0.935)	(0.919)	(1.031)	(0.992)	(0.941)	(0.993)	(0.962)	(0.928)

1차패널 t=5.241\*\*,  $\chi^2=29.645^{**}$ (p<.01) ; 2차패널 t=2.175,  $\chi^2=8.261^*$ (p<.05) ; 3차패널 t=0.420,  $\chi^2=1.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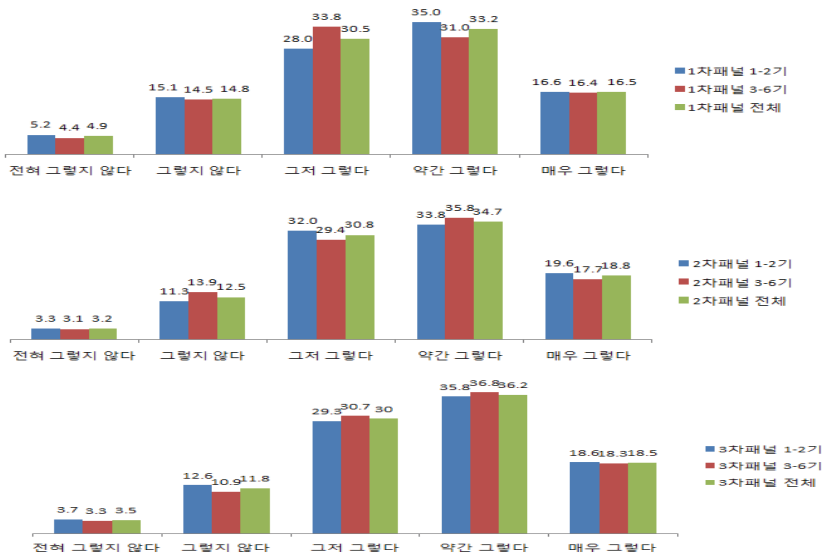


- 생계급여 감소(보충급여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
- 근로소득 증가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보충급여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사업 참여 3년 경과 후 탈수급을 전제로 한 적립금 수령 등 희망키움통장 참여방식에 대한 동의 수준보다 약간 낮았음
  - 1차 패널 당시 3.42점에서, 2차와 3차 패널에서 각각 3.53점과 3.54점으로 다소 높아졌으며, 1차 패널 응답 분포를 제외하고는 참여기수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음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3.43	3.55	3.53	3.41	3.51	3.56	3.42	3.53	3.54
(표준편차)	(1.094)	(1.032)	(1.046)	(1.059)	(1.036)	(1.014)	(1.079)	(1.034)	(1.032)

1차패널 t=0.463,  $\chi^2=10.436^*$ (p<.05) ; 2차패널 t=0.872,  $\chi^2=5.381$  ; 3차패널 t=-0.539,  $\chi^2=1.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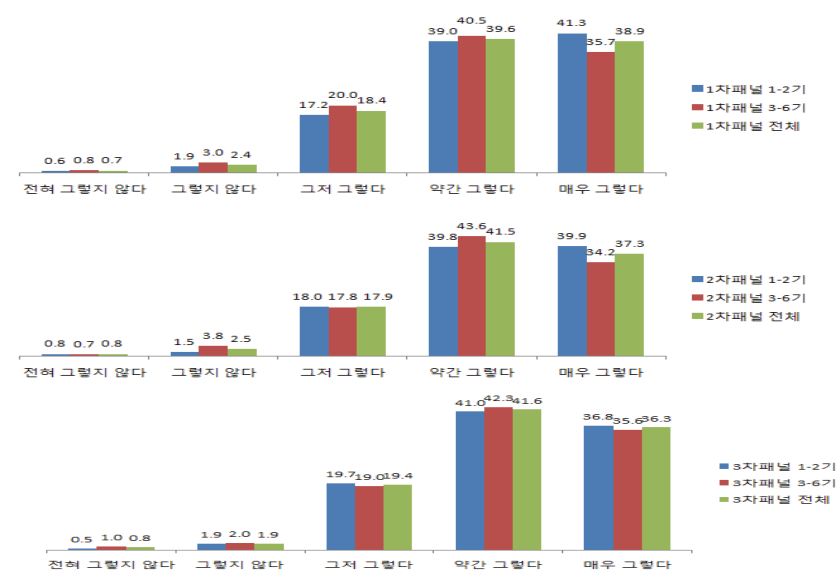


-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인한 근로활동 장려 측면
- 근로활동 참여나 근로시간 증가를 통하여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는 감소하지만, 희망키움통장 참여 시 생계급여 감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어 근로활동을 장려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80% 내외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차 패널 각각 4.14점, 4.12점, 3차 패널 4.11점으로 다른 특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선정기준이 다소 높았던 1~2기에서 유의미하게 더욱 높았으나, 3차 패널에서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표준편차)	4.19 (0.824)	4.16 (0.827)	4.12 (0.823)	4.07 (0.861)	4.07 (0.854)	4.10 (0.843)	4.14 (0.842)	4.12 (0.841)	4.11 (0.832)

1차패널 t=3.204,  $\chi^2=10.894^{**}$  (p<.01) ; 2차패널 t=2.582,  $\chi^2=17.010^{**}$  (p<.01) ; 3차패널 t=0.506,  $\chi^2=1.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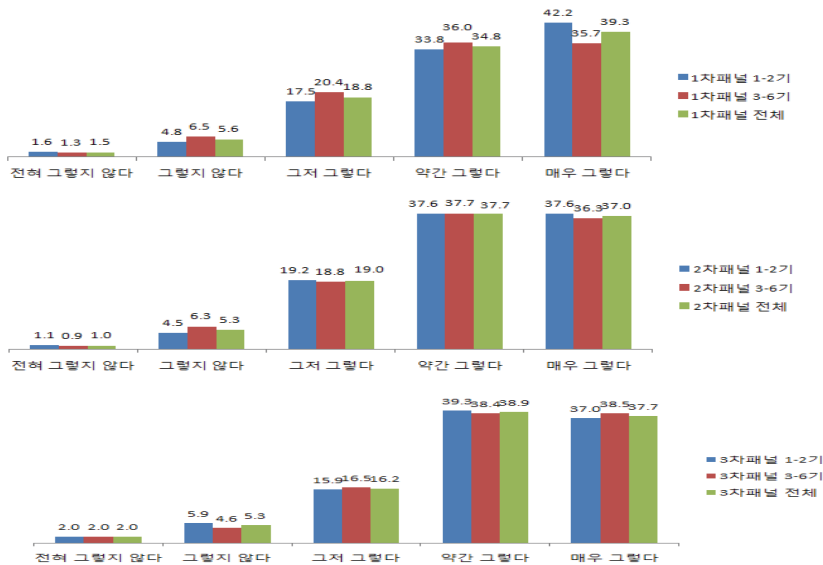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후 지급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 － 희망키움통장의 저축액 및 매칭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가상계좌에 적립하여 탈수급 시 수령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3차 패널에서 각각 4.05점 내외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차 패널의 응답 분포를 제외하면, 참여기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4.10	4.06	4.03	3.98	4.02	4.07	4.05	4.04	4.05
(표준편차)	(0.963)	(0.918)	(0.972)	(0.972)	(0.940)	(0.951)	(0.969)	(0.928)	(0.963)

1차패널 t=2.972,  $\chi^2=12.977^*$  (p<.05) ; 2차패널 t=0.925,  $\chi^2=3.493$  ; 3차패널 t=-0.796,  $\chi^2=1.849$



□ 희망키움통장 참여 종료 후 저축 습관에 대한 전망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가 3년이 지나 탈수급하여 사업 참여가 종료된 이후 저축 습관 또는 계획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저축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 10가구 중에서 7가구 이상이었으며 점차 이러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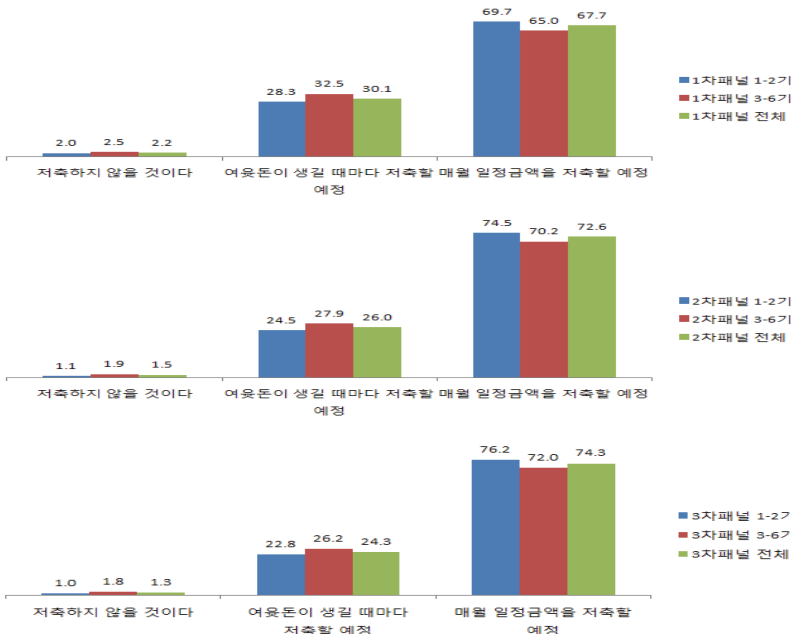
〈표 8-9〉 희망키움통장 참여 종료 후 저축 습관에 대한 전망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저축하지 않을 것이다	2.0	1.1	1.0	2.5	1.9	1.8	2.2	1.5	1.3
여유통이 생길 때마다 저축할 예정	28.3	24.5	22.8	32.5	27.9	26.2	30.1	26.0	24.3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할 예정	69.7	74.5	76.2	65.0	70.2	72.0	67.7	72.6	74.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패널  $\chi^2=6.033^*(p<.05)$  ; 2차패널  $\chi^2=5.658$  ; 3차패널  $\chi^2=5.232$

〔그림 8-9〕 희망키움통장 참여 종료 후 저축 습관에 대한 전망



- 1차 패널 시 67.7%에서 2차 패널 72.6%로 약 5%p 높아졌으며, 3차 패널에서는 다시 74.3%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참여기수별로 살펴보면, 1~2기 참여가구의 규칙적인 저축 습관 유지에 대한 의지가 3~6기에 비해 약 4~5%p 높게 나타남
  - 여유가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저축을 하겠다고 응답한 가구 역시, 1차 패널 30.1%, 2차 패널 26.0%, 3차 패널 24.3%로 나타났으며, 비정기적일지라도 저축을 하겠다는 응답이 다소 감소한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저축’ 하겠다는 가구의 비율이 증가함
  -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종료 후 계속해서 어떤 형태라도 저축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3차 패널에서 전체의 약 98.7%로 나타났음
    -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이후 저축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1차 패널 2.2%에서 3차 패널에는 1.3%로 감소함
- 앞서 6장에 제시한 기초선 조사결과에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10가구 중 6가구 정도는 사업 참여 이전에 저축했던 경험이 거의 없는 가구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약 75%에 이르는 가구가 향후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하겠다고 계획하고 전체의 98% 이상이 규칙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어떻게든 저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희망키움통장 참여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였던 저소득 근로빈곤층 참여가구에 나타난 변화 중에 매우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탈 수급 이후 정부지원의 도움 정도 및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종료 후 제공될 이행급여 등 정부지원이 탈수급 이후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약 92% 내외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3차 패널의 경우 평균 4.54점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응답 분포에는 1차 패널 당시 참여기수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2~3차 패널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8-10〉 탈수급 후 정부지원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전혀 도움 안된다	0.3	0.3	0.9	0.3	0.5	0.3
도움 안된다	0.7	1.0	1.2	0.6	1.0	0.8
그저그렇다	5.2	6.7	6.4	7.1	5.7	6.9
약간 도움된다	25.1	27.0	27.6	29.0	26.2	27.9
매우 도움된다	68.7	65.0	63.8	63.0	66.6	64.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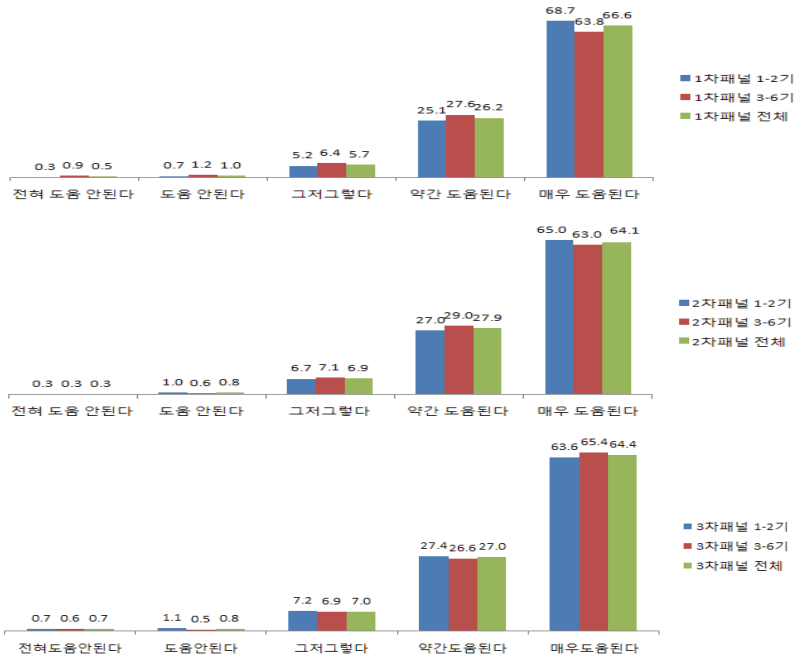
1차패널  $\chi^2=10.219^*(p<.05)$ ; 2차패널  $\chi^2=2.437$

(단위: %)

구분	3차 패널		전체
	1~2기	3~6기	
평균	4.52	4.56	4.54
(표준편차)	(0.740)	(0.703)	(0.724)
전혀도움안된다	0.7	0.6	0.7
도움안된다	1.1	0.5	0.8
그저그렇다	7.2	6.9	7.0
약간도움된다	27.4	26.6	27.0
매우도움된다	63.6	65.4	64.4
합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t=-0.988$ ,  $\chi^2=1.992$

[그림 8-10] 탈수급 후 정부지원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도



- 탈수급 후 정부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로 이행급여에 해당하는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이 각각 1~3차 패널조사에서 40%와 31%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주거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약 25% 내외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1~3차 패널조사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그러나, 참여기수별로 비교해보면 1~2기와 3~6기 참여가구 사이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유형별로 선호하는 정도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1~3차 패널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 우선순위가 의료-교육-주거 순서로 나타났으나, 1~2기의 경우 3~6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3~6기 참여가구는 의료지원에 대한 선호가 약 44% 내외로 더욱 높게 나타났음

〈표 8-11〉 탈수급 후 정부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1순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의료지원	38.5	36.4	44.0	43.8	40.9	39.7
교육지원	34.9	32.4	27.9	30.1	31.9	31.4
주거지원	24.6	28.1	23.8	23.2	24.3	25.9
고용지원	1.9	3.1	4.2	2.9	2.9	3.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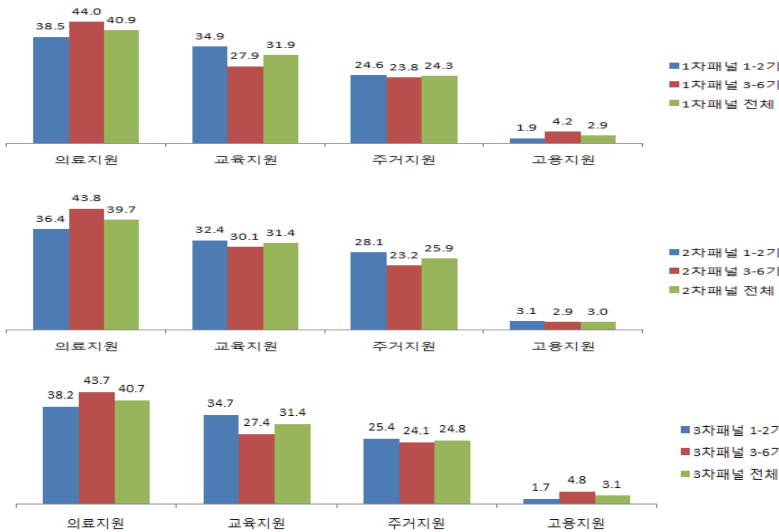
1차패널  $\chi^2=24.028^{**}$  ( $p<.01$ ); 2차패널  $\chi^2=12.110^{**}$  ( $p<.01$ )

(단위: %)

구분	1순위		
	3차 패널		전체
	1~2기	3~6기	
의료지원	38.2	43.7	40.7
교육지원	34.7	27.4	31.4
주거지원	25.4	24.1	24.8
고용지원	1.7	4.8	3.1
합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23.597^{***}$  ( $p<.001$ )

〔그림 8-11〕 탈수급 후 정부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1순위





## □ 저축 포기에 대한 생각 여부 및 사유

-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과정에 저축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거나 생각했던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1차 패널 조사 18.7%, 2차 패널 22.1%, 3차 패널에서는 23.0%의 가구가 이러한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높아짐
- 참여기수별로 살펴보면, 1차 패널에서 1~2기 참여가구의 경우 3~6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2~3차 패널조사에서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표 8-12〉 저축 포기에 대한 생각 여부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고민한 경험 있음	20.1	21.0	23.1	16.9	23.4	22.9	18.7	22.1	23.0
고민하지 않음	79.9	79.0	76.9	83.1	76.6	77.1	81.3	77.9	77.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패널  $\chi^2=4.059^*(p<.05)$  ; 2차패널  $\chi^2=1.696$  ; 3차패널  $\chi^2=0.006$ 

- － 이와 같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를 유지하면서 저축 중단이나 포기를 고민하게 되었던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비용부담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민했다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탈수급 이후 생활 유지에 대한 걱정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것인지를 고민했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 －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1차 패널조사 기준시점인 2010년 하반기 중 약 47.3%로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참여하였으며, 2차 패널조사 기준시점인 2011년 상반기에는 약 14.4%로 낮게 나타났으나, 다시 2011년 하반기를 기준시점으로 하는 3차 패널조사에서는 46.5%로 나타남

  - 이는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제공되어 사업 참여가구가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음
  - 참여기수별로 살펴보면, 2010년 상반기 사업에 참여한 1~2기의 경우 1차 패널에서 50.7%로 3~6기(42.9%)에 비해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10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3~6기는 2차 패널에서는 참여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반면, 3차 패널에서는 1~2기와 3~6기 각각 45.9%와 47.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을 제공한 담당자는 대부분의 경우 외부전문가였으며, 사례관리자가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도 일부 있었으며 이러한 비중이 다소 높아짐
- － 한편,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가 약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낮았으며, 반면 약 80% 내외의 가구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에 따라,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는 평균 4점 내외(1차 패널 3.96점, 2차 패널 4.12점, 3차 패널 4.06점)로 나타났고, 참여기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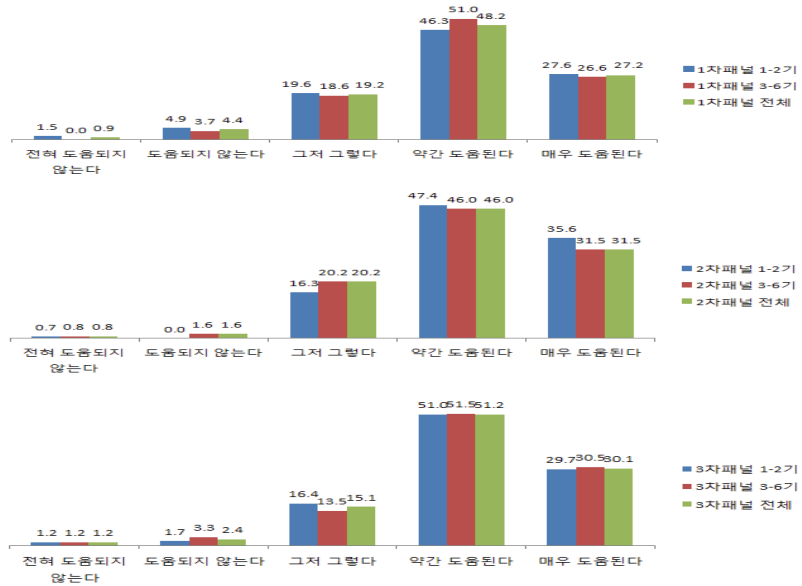
〈표 8-14〉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의 도움정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표준편차)	3.94 (0.897)	4.17 (0.749)	4.06 (0.798)	4.00 (0.776)	4.06 (0.810)	4.07 (0.823)	3.96 (0.851)	4.12 (0.779)	4.06 (0.809)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1.5	0.7	1.2	-	0.8	1.2	0.9	0.8	1.2
도움되지 않는다	4.9	-	1.7	3.7	1.6	3.3	4.4	0.8	2.4
그저 그렇다	19.6	16.3	16.4	18.6	20.2	13.5	19.2	18.1	15.1
약간 도움된다	46.3	47.4	51.0	51.0	46.0	51.5	48.2	46.7	51.2
매우 도움된다	27.6	35.6	29.7	26.6	31.5	30.5	27.2	33.6	3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패널 t=-1.345,  $\chi^2=8.822$ ; 2차패널 t=1.177,  $\chi^2=3.066$ ; 3차패널 t=-0.127,  $\chi^2=3.001$

〔그림 8-12〕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의 도움정도



## ○ 노후설계 및 노후대비 교육

-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된 교육프로그램 중 노후 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1차 패널조사 기준시점인 2010년 하반기 중 25.1%, 2차 패널조사 기준시점인 2011년 상반기 중에는 약 10%로 나타났으며, 2011년 하반기를 기준시점으로 했던 3차 패널조사에서는 다시 29.4%로 상승함
  -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 역시 하반기에 주로 제공되어 사업 참여 가구가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참여기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과 마찬가지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담당자는 대부분이 외부 전문가였으며, 사례관리자가 직접 교육을 제공한 경우도 약 30%로 나타났음

〈표 8-15〉 노후설계 및 노후대비 교육 참가여부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교육 경험 있다	26.2	9.6	23.7	10.2	25.1	9.9
교육 경험 없다	73.8	90.4	76.3	89.8	74.9	9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패널  $\chi^2=1.819$ ; 2차패널  $\chi^2=0.164$ 

(단위: %)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교육 경험 있다	28.6	30.4	29.4
교육 경험 없다	71.4	69.6	70.6
합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0.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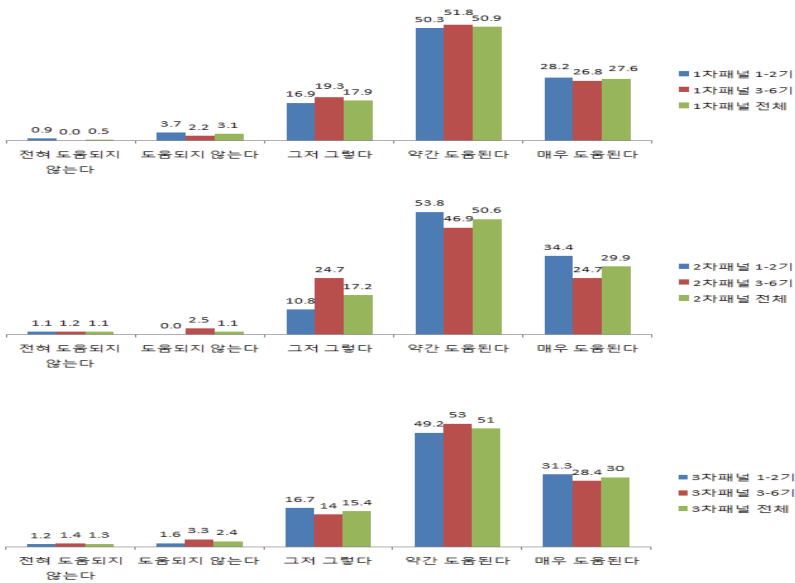
- 노후에 대비한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이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약 80%의 가구가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5% 미만에 그칠 정도로 낮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도움 정도는 1차 패널 4.02점, 2차 패널 4.07점, 3차 패널 4.06점으로 4점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음

〈표 8-16〉 노후설계 및 노후대비 교육의 도움정도

(단위: %)

구분	참여가구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4.01	4.20	4.08	4.03	3.91	4.04	4.02	4.07	4.06
(표준편차)	(0.826)	(0.716)	(0.804)	(0.741)	(0.840)	(0.825)	(0.792)	(0.787)	(0.813)

〔그림 8-13〕 노후설계 및 노후대비 교육의 도움정도



## ○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 교육

-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1차 패널조사 기준시점인 2010년 하반기에 약 12.4%에서 2차 패널조사 기준시점인 2011년 상반기에는 8.0%로 낮아졌으나, 2011년 하반기가 기준시점인 한 3차 패널조사에는 17.9%로 1차 패널 당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 노후설계 교육에 비해서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참여 기수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표 8-17〉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 교육여부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교육 경험 있다	13.3	7.2	11.3	8.9	12.4	8.0
교육 경험 없다	86.7	92.8	88.7	91.1	87.6	92.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패널  $\chi^2=1.944$ ; 2차패널  $\chi^2=1.934$ 

(단위: %)

구분	3차패널		전체
	1~2기	3~6기	
교육 경험 있다	17.0	19.0	17.9
교육 경험 없다	83.0	81.0	82.1
합계	100.0	100.0	100.0

3차패널  $\chi^2=1.144$ 

- 한편,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구의 비율은 1~3차 패널을 거치면서 약 80%에서 85%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는 약 2%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1~3차 패널조사를 거치면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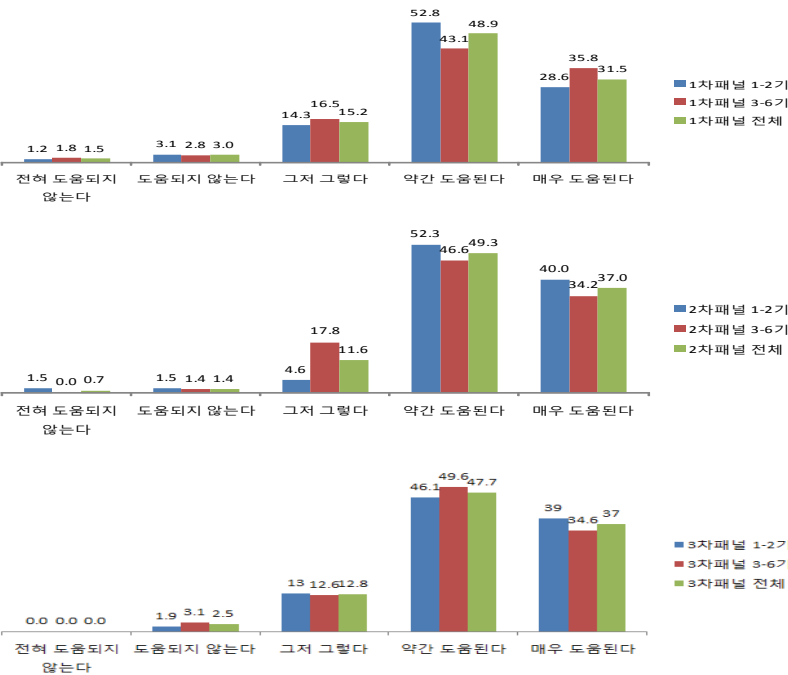
높아졌는데, 1차 패널조사 4.06점에서 2차 및 3차 패널에서는 각각 4.20점과 4.19점으로 나타남

〈표 8-18〉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 교육의 도움정도

(단위: %)

구분	참여자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4.04	4.28	4.22	4.08	4.14	4.16	4.06	4.20	4.19
(표준편차)	(0.817)	(0.761)	(0.743)	(0.894)	(0.751)	(0.76)	(0.847)	(0.756)	(0.75)

〔그림 8-14〕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 교육의 도움정도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와의 연락여부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약 95% 이상인 대부분의 가구는 해당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사례관리자와 실질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관리자가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가구만이 적극적으로 사례관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참여가구가 사례관리자와 연락을 하는 주된 방법으로, 약 75%가 전화 통화를 활용하고 있으며 약 14%는 핸드폰 문자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가구나 근로하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는 약 1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남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의 지원 및 지지체계 제공여부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가 다양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1~3차 패널을 거치면서 사업 참여과정에서 약 90%에 이르는 참여가구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사례관리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와의 상담 빈도 및 소요시간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와 사례관리자의 상담 빈도는 전체적으로 ‘1개월마다 1회’가 약 1/3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분기(3개월)나 반기(6개월)마다 1회 순서로 나타나, 사례관리자의 상담 빈도가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1~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참여가구와 사례관리자 간 상담 소요시간은 대부분 1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 1~3차 패널을 거치면서 사업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반적으로

상담 주기는 다소 길어지고 상담 소요시간은 점차 다소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8-19〉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와의 상담 빈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반기 1회	24.8	27.4	29.9	19.7	23.0	24.5	22.6	25.5	27.5
분기 1회	31.2	30.0	26.7	23.3	23.1	23.9	27.8	26.9	25.5
1개월 1회	31.4	30.1	29.3	35.7	35.5	33.2	33.2	32.5	31.1
2주 1회	8.1	8.7	9.8	14.7	13.1	11.9	10.9	10.6	10.7
1주 1회	3.1	1.3	2.8	4.9	4.1	4.5	3.9	2.5	3.6
1주 2회 이상	1.3	2.4	1.3	1.8	1.3	2.0	1.5	1.9	1.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패널  $\chi^2=42.274^{**}$ ( $p<.01$ ) ; 2차패널  $\chi^2=39.074^{**}$ ( $p<.01$ ) ; 3차패널  $\chi^2=12.336^{*}$ ( $p<.05$ )

〈표 8-20〉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와의 상담 소요시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5분 미만	24.1	30.2	31.9	25.8	26.5	31.2	24.9	28.6	31.6
15~30분	24.0	29.2	32.3	34.9	35.2	31.8	28.7	31.8	32.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30.8	29.4	26.4	28.9	29.9	26.6	30.0	29.6	26.5
1시간 이상	21.0	11.3	9.3	10.4	8.4	10.4	16.5	10.0	9.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패널  $\chi^2=54.097^{**}$ ( $p<.01$ ) ; 2차패널  $\chi^2=10.645^{*}$ ( $p<.05$ ) ; 3차패널  $\chi^2=0.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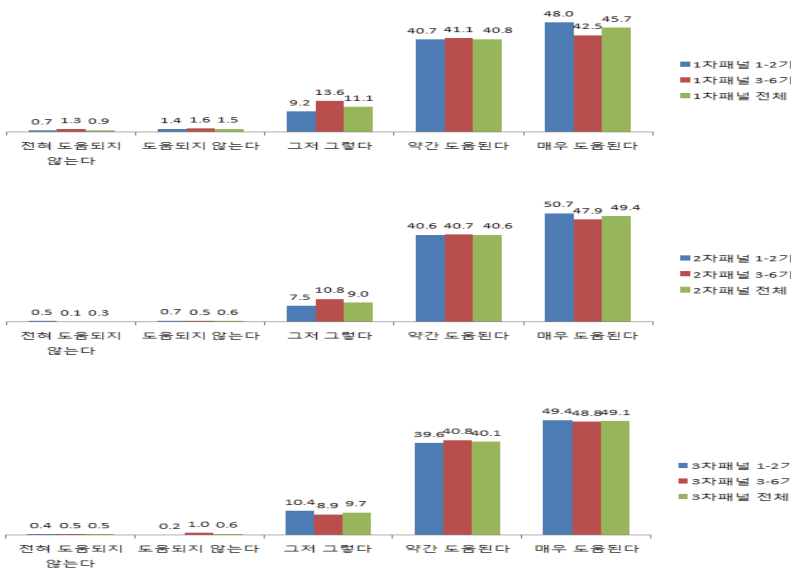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움정도
- － 먼저,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유지 및 관리 측면에서 사례관리의 전반적인 도움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1차 패널 86.5%에서, 2~3차 패널에서는 약 90%로 높아졌으며, 5점을 기준으로 4.29점에서 2~3차 패널조사에서 4.38점과 4.37점 수준으로 높아졌음

〈표 8-21〉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의 전반적인 도움정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4.34	4.40	4.37	4.22	4.36	4.36	4.29	4.38	4.37
(표준편차)	(0.759)	(0.700)	(0.711)	(0.831)	(0.699)	(0.731)	(0.793)	(0.700)	(0.72)

1차패널 t=3.629\*\* (p<.01),  $\chi^2=16.062^*$  (p<.05) ; 2차패널 t=1.432,  $\chi^2=9.389$  ; 3차패널 t=-0.308,  $\chi^2=6.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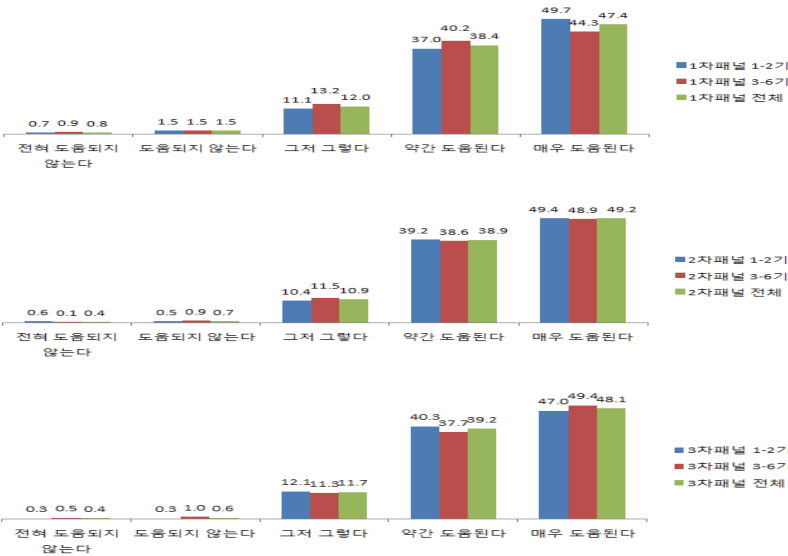
－ 다음으로, 희망키움통장 참여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 능력 측면에서 사례관리의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1차 패널 85.8%, 2차 패널 88.1%, 3차 패널 87.3%로 나타났으며, 5점 기준으로 1차 패널 4.30점에서 2~3차 패널 각각 4.36점과 4.34점으로 높아졌음

〈표 8-22〉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문제해결능력 측면에서 사례관리 도움정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4.34	4.36	4.33	4.26	4.35	4.34	4.30	4.36	4.34
(표준편차)	(0.785)	(0.731)	(0.722)	(0.805)	(0.726)	(0.76)	(0.795)	(0.728)	(0.739)

1차패널  $t=2.432$ ,  $\chi^2=7.445^*$  ( $p<.05$ ) ; 2차패널  $t=0.396$ ,  $\chi^2=4.778$  ; 3차패널  $t=-0.316$ ,  $\chi^2=5.399$



－ 마지막으로, 사례관리가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미래 계획수립 측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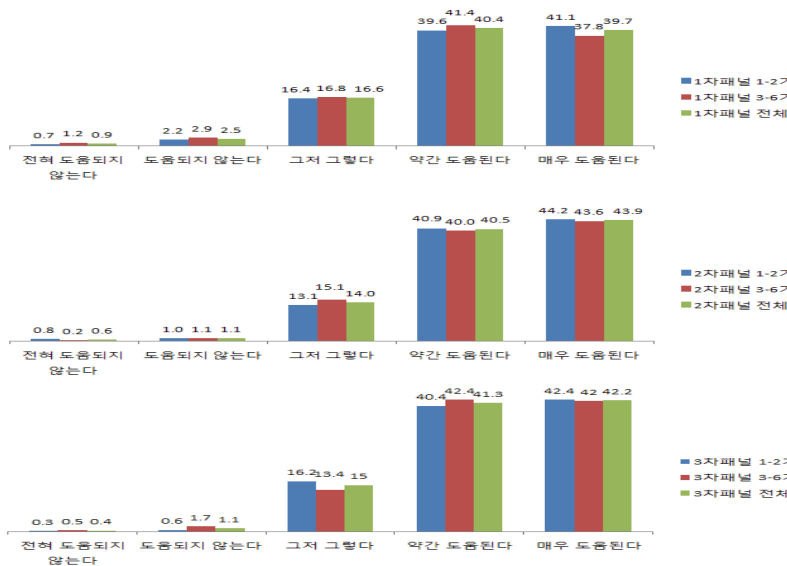
가구의 비율이 1차 패널 약 80%에서, 2~3차 패널 약 83~84%로 높아졌으며, 5점 기준으로 1차 패널 4.15점에서 2~3차 패널에는 4.26점과 4.24점으로 다소 높아졌음

〈표 8-23〉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미래계획 수립 측면에서 사례관리 도움정도

(단위: %)

구분	참여기수						전체		
	1~2기			3~6기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1차 패널	2차 패널	3차 패널
평균	4.18	4.27	4.24	4.12	4.26	4.24	4.15	4.26	4.24
(표준편차)	(0.831)	(0.786)	(0.764)	(0.868)	(0.766)	(0.784)	(0.848)	(0.777)	(0.773)

1차패널 t=1.869,  $\chi^2=4.808$  ; 2차패널 t=0.289,  $\chi^2=4.742$  ; 3차패널 t=0.091,  $\chi^2=7.458$



— 사례관리자에 대한 참여가구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사례관리요원이 배치되었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희망키움통장 참여 유지 및 관리, 더 나아가 다양한 문제해결 및

미래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희망키움통장 참여 과정에 참가자가 탈수급을 준비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양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참고문헌

- 이태진, 신영석, 김미곤, & 노대명 (2005).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5-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창근 (2006).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현황 및 이론적 논의와 한국에의 함의.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 정책의 쟁점과 과제 (안상훈 외, pp. 418-455). 한국노동연구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6-02.
- Sherraden, M. & 한창근 (2007). 사회투자정책과 자산형성지원정책: 한국 사회정책에 미치는 함의점에 관한 연구.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투자모델과 발전방안, 2007 서울복지재단 국제 학술 심포지엄 (pp. 11-28). 서울복지재단
- Albert, V. & King, W. (2011). Citizenship status and TANF exits: A proportional Hazard Model.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7, 294-308.
- Beverly, S.G. & Sherraden, M. (1999).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Saving: Implications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Socio-Economics, 28: 457-473.
- Cheng, L. (2007). Building assets for the poor as a strategy to social inclusion.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투자모델과 발전방안, 2007 서울복지

재단 국제 학술 심포지엄 (pp. 1109-123). 서울복지재단.

Chowa, G., Ansong, D., & Masa, R. (2010). Assets and child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A research review.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 1508-1519.

Curley, J., Ssewamala, F., & Han, C.-K. (2010). Assets and educational outcomes: Child Development Accounts (CDAs) for orphaned children in Ugand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11): 1585-1590.

Grinstein-Weiss, M., Lee, J., Greeson, J.K.P., Han, C.-K., Yeo, Y.H., & Irish, K. (2008). Fostering low-income homeownership through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A longitudinal, randomized experiment. *Housing Policy Debate*, 19(4): 711-739.

Han, C.-K. (2009). Unemployment, financial hardship, and savings in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Journal of Poverty*, 13(1), 74-95.

Han, C.-K. (2010). Asset-building policy throughout the lifecycle: Lessons from Singapore. The 7th East Asian Social Policy(EASP) Conference. Seoul, Korea, August 21.

Han, C.-K., Grinstein-Weiss, M., & Sherraden, M. (2009). Assets beyond savings in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Social Service Review*, 83(2): 221-244.

Han, C.-K. & Rothwell, D. W. (2010). Savings and family functioning during the 2008 recession: An exploratory study with lower income Singaporeans. Conference on Economic Stress, Human Capital, and Families in Asia: Research and Policy Challenges. Singapore, Jun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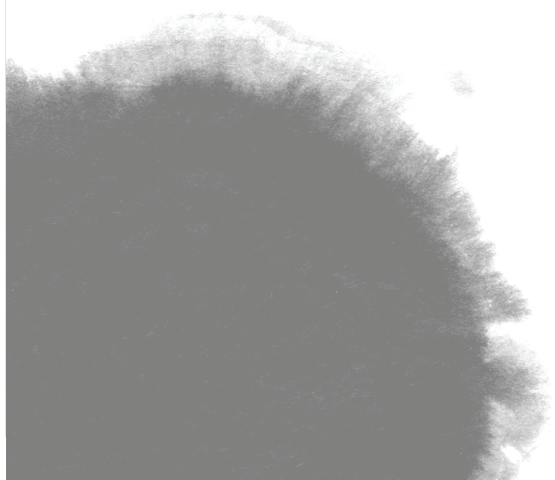
Han, C.-K. & Sherraden, M. (2009). Do institutions really matter for



- saving among low-income households? A comparative approach. *Journal of Socio-Economics*, 38(3) :475-483.
- Han, C.-K. & Sim, H. (2011). Asset building and decentralization: A case study of Taiwan's IDA programs. Working Pape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Holzer, H. (2000). Unemployment insurance and welfare recipients: What happens when the recession comes? New Federalism Policy Brief. A-46.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Lee, K.H. & Yoon, D. P. (2009). Determinants of unemployment and economic hardship of welfare leavers who have reached their lifetime limit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5, 125-134.
- Morillas, J.R. (2007). Assets, earning mobility and the black/white gap. *Social Science Research*, 36: 808-833.
- Pandey, S. & Guo, B.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welfare exit among American Indian families. *Social Work Research*, 31(2), 95-107.
- Rocha, C.J. (1997). Factors that contribute to economic well-being in female-headed household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3(1), 1-17.
- Schreiner, M., Clancy, M., and Sherraden, M. (2002). Saving performance in the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A national demonstration of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St.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E. Sharpe, Inc.
- Sherraden, M. & Barr, M.S. (2005). Institutions and inclusion in saving policy. In N. Retsinas & E. Belsky (Eds.), *Building*

- Assets, Building Credit: Creating Wealth in Low-Income Communiti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herraden, M. S. & McBride, A.M. (2010). Striving to Save: Creating Policies for Financial Security of Low-income Families.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herraden, M. & Stevens, J. (Eds.) (2010). Lessons from SEED: A national demonstration of Child Development Accounts.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 Spilerman, S. (2000). Wealth and Stratification Proces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497-524.
- Ssewamala, F., Han, C.-K., & Neilands, T. (2009). Asset ownership and health and mental health functioning among AIDS-orphaned adolescents: Findings from a randomized clinical trial in rural Uganda. Social Science & Medicine, 69(2): 191-198.
- Ssewamala, F., Han, C.-K., Neilands, T., Ismayilova, L., Sperber, E. (2010). Effects of economic assets on sexual risk taking intentions among orphaned adolescents in Ugand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3): 483-488.
- Williams Shanks, T.R., Kim, Y., Loke, V., & Destin, M. (2010). Assets and child well-being in developed countr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 1488-1496.

## 부록





[부록]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3차패널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패널조사

[2011. 7. 1 ~ 2011. 12. 31]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33 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191)

### 3차 패널

패널 ID	신청차수 -1차 신청가구: 01 -2차 신청가구: 02 -3차 신청가구: 03 -4차 신청가구: 04 -5차 신청가구: 05 -6차 신청가구: 06	지역명								
		시도	시군구							
주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_____ 통·리 _____ 번지 _____ 호 ( _____ 아파트 _____ 동 _____ 층 _____ 호)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원 번호			
	휴대폰					휴대폰				
	집 전화번호				- -					
기관명	사례관리자이름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 가구일반사항(※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현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원 수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명
가구원 번호	문 2)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문 3) 생년 월일	문 4) 태어난 연도	문 5) 동거여부	문 6) 교육수준	문 7) 혼인상태	문 8) 장애종류 및 등급	문 9-1) 건강상태	문 9-2) 만성질환	문 10) 제우불이형 (신용불량) 여부
1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조부모 ⑩ 배우자의 조부모 ⑪ 형제자매 ⑫ 형제자매의 형제자매 ⑬ 배우자의 형제자매 ⑭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⑮ 기타친인척 ⑯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 배우자가 없을 경우 2명은 모두 공란 처리	① 미취학 (만 6세이하) ② 무학 (만 8세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대학(전문대) ⑦ 대학교 ⑧ 대학원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취업 교육, 기타 이유 로 같이 살고 있 지 않다 ③ 2010년 1 월 - 9 월 중 사망 하였다	① 미취학 (만 6세이하) ② 중학(중학) ③ 중학(중학) ④ 고학(고학) ⑤ 고학(고학) ⑥ 대학(전문대) ⑦ 대학교 ⑧ 대학원	① 미혼 (남 17세 이하, 여 15세 이하) ② 유배우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⑥ 미혼 (남 18세 이상, 여 16세 이상, 미혼도 포함) ⑦ 기타(사망 등)	① 비장애 ② 지적장애 ③ 자폐장애 ④ 자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정신장애 ⑦ 학습장애 ⑧ 시각장애 ⑨ 청각장애 ⑩ 뇌성마비 ⑪ 뇌성마비 ⑫ 뇌성마비 ⑬ 뇌성마비 ⑭ 뇌성마비 ⑮ 뇌성마비 ⑯ 뇌성마비 ⑰ 뇌성마비 ⑱ 뇌성마비 ⑲ 뇌성마비 ⑳ 뇌성마비 ㉑ 뇌성마비 ㉒ 뇌성마비 ㉓ 뇌성마비 ㉔ 뇌성마비 ㉕ 뇌성마비 ㉖ 뇌성마비 ㉗ 뇌성마비 ㉘ 뇌성마비 ㉙ 뇌성마비 ㉚ 뇌성마비 ㉛ 뇌성마비 ㉜ 뇌성마비 ㉝ 뇌성마비 ㉞ 뇌성마비 ㉟ 뇌성마비 ㊱ 뇌성마비 ㊲ 뇌성마비 ㊳ 뇌성마비 ㊴ 뇌성마비 ㊵ 뇌성마비 ㊶ 뇌성마비 ㊷ 뇌성마비 ㊸ 뇌성마비 ㊹ 뇌성마비 ㊺ 뇌성마비 ㊻ 뇌성마비 ㊼ 뇌성마비 ㊽ 뇌성마비 ㊾ 뇌성마비 ㊿ 뇌성마비	① 비장애 ② 지적장애 ③ 자폐장애 ④ 자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정신장애 ⑦ 학습장애 ⑧ 시각장애 ⑨ 청각장애 ⑩ 뇌성마비 ⑪ 뇌성마비 ⑫ 뇌성마비 ⑬ 뇌성마비 ⑭ 뇌성마비 ⑮ 뇌성마비 ⑯ 뇌성마비 ⑰ 뇌성마비 ⑱ 뇌성마비 ⑲ 뇌성마비 ⑳ 뇌성마비 ㉑ 뇌성마비 ㉒ 뇌성마비 ㉓ 뇌성마비 ㉔ 뇌성마비 ㉕ 뇌성마비 ㉖ 뇌성마비 ㉗ 뇌성마비 ㉘ 뇌성마비 ㉙ 뇌성마비 ㉚ 뇌성마비 ㉛ 뇌성마비 ㉜ 뇌성마비 ㉝ 뇌성마비 ㉞ 뇌성마비 ㉟ 뇌성마비 ㊱ 뇌성마비 ㊲ 뇌성마비 ㊳ 뇌성마비 ㊴ 뇌성마비 ㊵ 뇌성마비 ㊶ 뇌성마비 ㊷ 뇌성마비 ㊸ 뇌성마비 ㊹ 뇌성마비 ㊺ 뇌성마비 ㊻ 뇌성마비 ㊼ 뇌성마비 ㊽ 뇌성마비 ㊾ 뇌성마비 ㊿ 뇌성마비	① 비장애 ② 지적장애 ③ 자폐장애 ④ 자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정신장애 ⑦ 학습장애 ⑧ 시각장애 ⑨ 청각장애 ⑩ 뇌성마비 ⑪ 뇌성마비 ⑫ 뇌성마비 ⑬ 뇌성마비 ⑭ 뇌성마비 ⑮ 뇌성마비 ⑯ 뇌성마비 ⑰ 뇌성마비 ⑱ 뇌성마비 ⑲ 뇌성마비 ⑳ 뇌성마비 ㉑ 뇌성마비 ㉒ 뇌성마비 ㉓ 뇌성마비 ㉔ 뇌성마비 ㉕ 뇌성마비 ㉖ 뇌성마비 ㉗ 뇌성마비 ㉘ 뇌성마비 ㉙ 뇌성마비 ㉚ 뇌성마비 ㉛ 뇌성마비 ㉜ 뇌성마비 ㉝ 뇌성마비 ㉞ 뇌성마비 ㉟ 뇌성마비 ㊱ 뇌성마비 ㊲ 뇌성마비 ㊳ 뇌성마비 ㊴ 뇌성마비 ㊵ 뇌성마비 ㊶ 뇌성마비 ㊷ 뇌성마비 ㊸ 뇌성마비 ㊹ 뇌성마비 ㊺ 뇌성마비 ㊻ 뇌성마비 ㊼ 뇌성마비 ㊽ 뇌성마비 ㊾ 뇌성마비 ㊿ 뇌성마비	① 비장애 ② 지적장애 ③ 자폐장애 ④ 자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정신장애 ⑦ 학습장애 ⑧ 시각장애 ⑨ 청각장애 ⑩ 뇌성마비 ⑪ 뇌성마비 ⑫ 뇌성마비 ⑬ 뇌성마비 ⑭ 뇌성마비 ⑮ 뇌성마비 ⑯ 뇌성마비 ⑰ 뇌성마비 ⑱ 뇌성마비 ⑲ 뇌성마비 ⑳ 뇌성마비 ㉑ 뇌성마비 ㉒ 뇌성마비 ㉓ 뇌성마비 ㉔ 뇌성마비 ㉕ 뇌성마비 ㉖ 뇌성마비 ㉗ 뇌성마비 ㉘ 뇌성마비 ㉙ 뇌성마비 ㉚ 뇌성마비 ㉛ 뇌성마비 ㉜ 뇌성마비 ㉝ 뇌성마비 ㉞ 뇌성마비 ㉟ 뇌성마비 ㊱ 뇌성마비 ㊲ 뇌성마비 ㊳ 뇌성마비 ㊴ 뇌성마비 ㊵ 뇌성마비 ㊶ 뇌성마비 ㊷ 뇌성마비 ㊸ 뇌성마비 ㊹ 뇌성마비 ㊺ 뇌성마비 ㊻ 뇌성마비 ㊼ 뇌성마비 ㊽ 뇌성마비 ㊾ 뇌성마비 ㊿ 뇌성마비	
2	0									
3	0									
4										
5										
6										
7										
8										
9										

문 11) 가구 형태	문 12) 노인 가구원 유무	문 13) 기초보장 수급형태	문 14) 의도된 수급형태	문 14-1) 의도된 수급가구원	문 14-2) 의도된 수급가구원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소년소녀가장 ⑤ 조손 ⑥ 기타	① 65세 이상 노인 있음 ② 없음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전부수급가구 ③ 특별가구 ④ 탈수급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원)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전부수급가구 ③ 특별가구 ④ 탈수급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원)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전부수급가구 ③ 특별가구 ④ 탈수급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원)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전부수급가구 ③ 특별가구 ④ 탈수급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원)

## B. 경제활동상태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현재 만14세 이하인 경우는 문 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C. 생활변]으로 넘어갑니다. ※ 현재 만15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인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귀 가구의 총 근로자수 _____ 명	
가구원 번호	문 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문 2) 근로무능력사유	문 3)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 ~ 2011.12.31) 동안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가져와요  ※ 배우자 가 없을 경우 2번 은 공란 처리	① 만14세 이하 → [C. 생활변]로 갈 것 ① 근로가능 → [문 3)으로 갈 것] ② 단순근로가능 → [문 3)으로 갈 것]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③ 단순근로미약자 → [문 3)으로 갈 것] (집안 일만 가능)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 [문 2)로 갈 것]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모든 응답자는 문3)에서 ⑨ 비경제활동인구로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문 4)로 갈 것]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문 4)로 갈 것]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문 4)로 갈 것]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 [문 4)로 갈 것] ⑤ 고용주 → [문 8)로 갈 것] ⑥ 자영업자 → [문 8)로 갈 것] ⑦ 무급가족종사자 → [문 8)로 갈 것]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C. 생활변]로 갈 것 ⑨ 비경제활동인구 → [문 11)로 갈 것]
1			
2			
3			
4			
5			
6			
7			
8			
9			

## &lt; 용어해설 &gt;

## 문 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1. 상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년 초과로 설정된 임금근로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2.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또는 일정한 사업원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
		3.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또는 매일 고용되어 일급, 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
		4. 자활 및 공공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 자영업자	유급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7. 무급가족종사자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8.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함
		9.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경우,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공공근로요원 등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함

※ 상용/임시/일용 구분은 근무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지침서 사례 참조)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비경제활동이 아니라 취업자로 파악하며, 일시휴직자도 취업자로 파악합니다.(지침서 사례 참조).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농업,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 12월 31일 현재는 쉬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 중 하나를 택해서 응답합니다. (지침서 사례 참조)

가구원 번호	문 4) 고용관계	문 5) 근로시간형태	문 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 7) 근로지속가능성	문 7-1)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 배우자가 없을 경우 2 번은 공란 처리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② 전일제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①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지 않음  ※아래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참조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 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문 8)로 갈 것]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 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문 7-1)로 갈 것]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 귀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문 4) 고용관계**

- ① 직접고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 사용자-종속관계가 긴밀함
-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사용자-사실상 사용자-근로자간의 삼각관계 성립.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근무
  - 용역근로: 용역회사(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 하에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일대일 대용관계가 있지만, 사용자-종속관계가 직접고용에 비해 느슨하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일용대기, 독립도급, 재택근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 방문학습지교사, 보행판매원, 골프장 캐디, 레미콘·화물·덤프·학원차량 등 차량을 직접 소유해 운전하는 지입차주 등 (단, 학원 차량기사 중 학원과 고용계약을 하여 학원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직접고용으로 봄)

**문 5) 근로시간 형태**

- ①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됨
- ②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문 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예, 6개월, 1년, 2년, 3년 등)되어 있는 경우
-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간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명백하면 계약기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심정(혹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문 7) 근로지속가능성: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문함**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로, 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i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와 i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번호	문 8) 업종	문 9) 직종	문 10) 사업장 규모	문 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가 구 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 오  ※ 배우자 가 없을 경우 2번 은 공란 처리	※ 가구원이 근무하 고 있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 로 기록함. (예 : 축산업, 작물재 배입, 과일·채소 가 공 및 저장 처리업, 담배 제조업, 직물제 조업, 의복 제조업, 가죽 및 가방 제조 업, 목재가공업, 종 이 및 판지 제조업, 전기업, 수도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도로 화물 운송업,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 자리 등)	※ 가구원이 문 8)에서 응답한 근무하고 있 는 회사에서 실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함. (예 : 매장 판매 종사자, 자동차 정비원, 용 접원,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자동차 운전원,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 및 검표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음식관련 단 순 종사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기타 서 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농림어업관련 단 순 종사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립원, 전 기·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장치 조립원, 물품 이동장치 조립원, 기타 제조관련 기 계조작원, 보철 및 보철관련 사무 종사자, 사무보조원, 회계 및 경리 사무원, 행정 사 무원, 작물 재배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 자, 영업 종사자, 전기공, 배관공, 직물 및 신발관련 기계조작 및 조립원, 도장 조립원)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진학준비 ⑤ 취업준비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군복무 대기자도 '② 군복무'로 응답
1				
2				
3				
4				
5				
6				
7				
8				
9				

## 〈 유의사항 〉

## 문 8)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를 따른다(지점서 참조).

## 문 9)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를 따른다(지점서 참조).

## 문 10) 사업장 규모

①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 종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OO은행의 OO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이다. 단,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차원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 1000명 이상'으로 기입한다.
- 하청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수가 되며, 명확하게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는지 아는 경우 주인(고용주)을 포함하되, 작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로 간주한다.
- 남의 집에서 혼자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일용임금근로자는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① 1~4명'로 응답**한다.

② 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고용주: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 C. 생활비

<p>〈 유의사항 〉</p> <p>※ 생활비 :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b>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b></p> <p>※ 천인적,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p> <p>※ 할부 구매의 경우 <b>구입시점 기준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구매한 품목만 해당되며, 매월 실제 지출금액을 기록합니다.</b></p> <p>※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p>									
문 1)	식료품비	문 1-1) 가정식비	<p>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월평균 가정식비는?</p> <p>※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음주비용, 제사비용</p> <p>※ 자가소비(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느(혹은 고용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p>	월평균					천원
		문 1-2) 외식비	<p>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월평균 외식비는?</p> <p>※ 직장인의 중식비(무로 중식비 포함), 가족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 밖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의 무료식사 등</p>	월평균					천원
문 2)	주거비 (주거임비제 외)	문 2-1) 세	<p>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p> <p>※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p> <p>※ 전세, 자기인 경우 '0' (단, 자가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p> <p>※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p> <p>※ 지난 하반기 동안 점유형태가 변화된 경우 월세로 산 기간 동안의 월세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입(예. 6개월 동안 월 30만원 낸 경우 월평균 50만원 기입)</p>	월평균					천원
		문 2-2) 주거관리비	<p>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p> <p>※ 주택세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p>	월평균					천원
문 3)	보건의료비		<p>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보건의료비는?</p> <p>※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p>	월평균					천원
문 4)	교육비		<p>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교육비는?</p> <p>※ 공교육비: 등록금, 납입금(유치원비 포함),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 아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p> <p>※ 사교육비: 학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등</p> <p>※ 보육비: 보육료(에이비시터, 놀이방) 포함</p>	월평균					천원
문 5)	기타생활비		<p>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기타생활비는?</p> <p>※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육비를 제외한 생활비</p> <p>※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담배, 이미용, 장신구, 경조사비, 교제비용, 보장성보험료 등)</p>	월평균					천원
문 6)	총 생활비		<p>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지출하신 총 생활비는?</p> <p>※ 총생활비 = 1~5의 합계</p> <p>※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발상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p>	월평균					천원
문 7)	<p>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여윌돈이 생겼을 경우 우선적으로 지출한 항목은 무엇입니까?</p>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문 8)	<p>① 식료품비    ② 주거비    ③ 보건의료비    ④ 교육비    ⑤ 광열수도비    ⑥ 가구가사용품비</p> <p>⑦ 피복신발비    ⑧ 교양오락비    ⑨ 교통통신비    ⑩ 기타소비지출(담배, 이미용, 장신구, 경조사비, 교제비용, 보장성보험료 등)</p>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p>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출을 제한한 항목은 무엇입니까?</p>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p>① 식료품비    ② 주거비    ③ 보건의료비    ④ 교육비    ⑤ 광열수도비    ⑥ 가구가사용품비</p> <p>⑦ 피복신발비    ⑧ 교양오락비    ⑨ 교통통신비    ⑩ 기타소비지출(담배, 이미용, 장신구, 경조사비, 교제비용, 보장성보험료 등)</p>									

## D. 소득

문 1)	가구의원의 경제활동: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이 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로 표시)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사일용 근로자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수업제외)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무급가족종사자·가사 또는 육아활동가
	해당 여부	해당 여부	해당 여부	해당 여부	해당 여부	해당 여부
1						
2						
3						
4						
5						
6						
7						
8						
9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문 2)로 가시오	문 3)으로 가시오	문 4)로 가시오	문 5)로 가시오	문 6)으로 가시오	문 7)로 가시오

## 〈 유의사항 〉

- ※ 15세 미만(14세도 포함)의 경우 공란으로 처리.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5에서 소득파악).
-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 주원활동구분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원경영자(월급 사장)들을 포함함.
②임사·일용근로자 :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③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수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④ 농 림 축 산 업 경 영 주 :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매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2011. 12. 31. 시점에 10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10a(약 300평) 미만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타소득에 기입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⑥ 무급 가족 종사자 :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 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수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	실업자,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376 • 탈 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참가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 3차 (2012)

문 2)

상용근로자: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지난 6개월 동안 벌어들인 반기 총급여액(원 천정수전 총급여)은 얼마였습니까?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 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기입하고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둘(이하 동일함).

※ 체불임금의 경우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포함.

→ 상용근로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가구원 번호	1일 평균 근로시간	지난 6개월간 총 급여액									
1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2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3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4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5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6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7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8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9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1] 합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문 3) 임시·일용근로자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벌어들인 반기 총급여(원천징수전 총급여)는 얼마였습니까?

※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2011년 하반기 동안 전체 일한 횟(일)수를 6개월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일한 횟수, 분기 급여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둘.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소득 포함.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둘.

※ 체불임금의 경우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포함.

→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가구원 번호	1일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일한횟수	지난 6개월간 총 급여액									
1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2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3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4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5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6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7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8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9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2] 합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문 4) 고용주 및 자영자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지난 반기 동안 총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순소득은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간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 ※ 순소득은 소득세, <b>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b> ,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b>공제하기 전 금액</b> 임. ※ 순소득에는 <b>자기소비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b> . ※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b>“-” 표(마이너스 표식)</b> 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 ※ 순서는 <b>반드시</b> 가구원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  <b>→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b>										가구원 번호	1일 평균 근로시간	지난 6개월간 총 순소득							
1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시간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합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농림축산업 경영주																															
5-1.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하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span style="float: right;">(참고) 1평≒33 m<sup>2</sup></span>																															
① 논				총								m <sup>2</sup>																			
② 밭				총								m <sup>2</sup>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총								m <sup>2</sup>																			
* 없음 0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총							m <sup>2</sup>																			
5-2.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수확한 농림축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농림축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반기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반기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반기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반기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재고량은 판매수입에 포함되어 계산 * 없음 0																															
5-3.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농업관련 기타접수입은 반기 총 얼마였습니까? ※ 농업접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지난 반기 접수입 총액(D)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4.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농림산물 생산과 가족사육에 소요된 반기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지난 반기 총비용(E)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접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귀 가구의 <b>농림축산업 순소득</b> 은 얼마였습니까? <b>→ 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b>													지난 반기 순소득 (A+B+C-D-E) [4]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어업 경영주																		
6-1.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출하한 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수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반 기 총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반 기 총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반 기 총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 세 고 랐 은 판 매 수 입 에 포 함 하 여 계 산 ※ 없 으 0																			
6-2.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어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총 얼마였습니까?												지난 6개월간 잡수입 총액(D)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용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6-3.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총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지난 6개월간 총비용(E)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귀 가구의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지난 6개월간 순소득(A+B+C+D-E)							
→ 어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5]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문 7)	기타 근로소득: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위에 응답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문 1) ~ 문 6)에서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발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모든 가구원에게 질문하세요.</p> <p>※ 만 14세 이하 가구원 소득 기입</p> <p>※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소득 포함</p> <p>※ 1,000원 단위는 만원으로 올림 처리</p> </div> <div style="width: 5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가구원 번호</th> <th colspan="10">지난 6개월간 기타 근로소득</th> </tr> <tr> <td>1</td> <td>반 기</td> <td>십 억</td> <td>일 억</td> <td>천 백</td> <td>십 만</td> <td>만 원</td> <td></td><td></td><td></td><td></td> </tr> <tr> <td>2</td> <td>반 기</td> <td>십 억</td> <td>일 억</td> <td>천 백</td> <td>십 만</td> <td>만 원</td> <td></td><td></td><td></td><td></td> </tr> <tr> <td>3</td> <td>반 기</td> <td>십 억</td> <td>일 억</td> <td>천 백</td> <td>십 만</td> <td>만 원</td> <td></td><td></td><td></td><td></td> </tr> <tr> <td>4</td> <td>반 기</td> <td>십 억</td> <td>일 억</td> <td>천 백</td> <td>십 만</td> <td>만 원</td> <td></td><td></td><td></td><td></td> </tr> <tr> <td>5</td> <td>반 기</td> <td>십 억</td> <td>일 억</td> <td>천 백</td> <td>십 만</td> <td>만 원</td> <td></td><td></td><td></td><td></td> </tr> <tr> <td>6</td> <td>반 기</td> <td>십 억</td> <td>일 억</td> <td>천 백</td> <td>십 만</td> <td>만 원</td> <td></td><td></td><td></td><td></td> </tr> <tr> <td>7</td> <td>반 기</td> <td>십 억</td> <td>일 억</td> <td>천 백</td> <td>십 만</td> <td>만 원</td> <td></td><td></td><td></td><td></td> </tr> <tr> <td>8</td> <td>반 기</td> <td>십 억</td> <td>일 억</td> <td>천 백</td> <td>십 만</td> <td>만 원</td> <td></td><td></td><td></td><td></td> </tr> <tr> <td>9</td> <td>반 기</td> <td>십 억</td> <td>일 억</td> <td>천 백</td> <td>십 만</td> <td>만 원</td> <td></td><td></td><td></td><td></td> </tr> <tr> <td>[6]</td> <td>합 계</td> <td>십 억</td> <td>일 억</td> <td>천 백</td> <td>십 만</td> <td>만 원</td> <td></td><td></td><td></td><td></td> </tr> </table> </div> </div>																가구원 번호	지난 6개월간 기타 근로소득										1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2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3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4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5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6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7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8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9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6]	합 계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가구원 번호	지난 6개월간 기타 근로소득																																																																																																																																							
1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2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3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4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5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6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7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8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9	반 기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6]	합 계	십 억	일 억	천 백	십 만	만 원																																																																																																																																		

## ※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 없을 경우 반드시 0 기입

※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 없을 경우 반드시 0 기입			세부 항목		금 액						
문 8)	재 산 소 득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얻은 재산소득의 유형별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 우 월평균액 ×6을 하고, 일시 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일시금 금액을 그대로 기입 예) 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1 년에 한번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경우 (10×3)+(100÷4)=55만 원으로 기입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③ 기타(자격증 대여 등)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7] 합계		삼	월	천	백	십	만	
문 9)	사 회 보 험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받은 사회보험의 유형별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 1,000원 단위는 만원으로 올 림 처리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교원연 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8] 합계		삼	월	천	백	십	만	
문 10)	민 간 보 험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개인연금총액은?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9]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문 11)	기 타 정 부 보 조 금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제외)의 유형별 금액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14번 문항에 기입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 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⑥, ⑦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 하고 있는 것 포함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 에 급식비 지원, 수련회비, 정부할 인보조금(전기료, 전화비, 인터넷 비, 장애인 LPG 등), 노인위생 비, 자활장려금, 교복비, 산전진 료카드, 출산장려금, 직업훈련수 당, 교통안전공단지원금 등이 있을. 이들은 기타에 포함. ※ 설계급여 지급 통장에서 파 악하고 확인이 안될 경우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 1,000원 단위는 만원으로 올 림 처리	① 장애인연금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② 기초노령연금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③ 노인교통비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④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⑤ 영유아 보육료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⑥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수급자대학생 장학금)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⑦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⑧ 농어업 정부보조금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⑨ 긴급복지지원금, 한시생계비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⑩ 바우처 지원금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⑪ 근로장려세제(EITC)_근로장려금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⑫ 기타( )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10] 합계		삼	월	천	백	십	만	
문 12)	기 타 소 득	이 외에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발생한 기타소득의 유형별 금액은? ※ 퇴직금의 경우 목돈으로 받는 경우 여기서 파악. 월급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상환 또는 일시 근로 소득으로 파악 ※ 증여·상속, 경조금,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사고 및 질병 보험금,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증부세 환급금, 기타(복권/경품 당첨금, 상품권, 껌돈) 등이 포함됨.		반기		삼	월	천	백	십	만

※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 없을 경우 반드시 0 기입

		금 액									
문 13)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보조금 (현금 및 현물)	<b>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b> ※ 주택구입자금과 결혼자금 제외 ※ 일회성 보육대가 포함, 단, 월급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 ※ 부모 자녀의 경우 가구주 기준									
		부모	반기	일억	천	백	십	만원			
	자녀	반기	일억	천	백	십	만원				
		[11]	합계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14)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b>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b>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의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총금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12]	반기	일억	천	백	십	만원			
				일억	천	백	십	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b>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b> 정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총 수급개월수와 현금급여 총액은? <b>※ 동 사무소에서 파악하십시오.</b> ※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대, 학용품비)+해선급여+장제급여 ※ 쌀값 포함(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쌀값을 공제하고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 ※ 수급 개월수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급개월수를 적고, 반기 금액은 월평균(현금급여액)액×수급개월수로 계산하여 기입(예를 들어, 이 기간 동안 6개월 월 20만원을 받았다면, 수급개월수에는 6, 금액에 120만원 기입)									
		반기 수급 개월수	[13]								
		개월	반기	일억	천	백	십	만원			

## E. 부채, 이자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1. 12. 31 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 액						
문 1)	부채 형태	2011.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일반사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④ 카드빚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⑤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⑥ 외상, 미리판 계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⑦ 기타부채( )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2)	이 자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연간 얼마였습니까? ※ 명의기준 ※ 2011년 상반기(2011.1.1~6.30) 동안 연체하여 내지 못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반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 F.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2011.12.31 기준, 명의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로 사업장(가게)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 액(※ 없을 0)						
문 1)	소부동산	2011.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현시가격)은?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주택의 건물(가죽형외의 사업장(가게)·상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2)	점부동산	2011.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은?	① 가게,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가계, 가게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세부항목	금액 (※ 없음 0)								
문 3)	금 자 산	201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액은? ※ 가구원 전부 파악하여 합산	① 예적금(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실액	일액	천	백	십	원			
			② 갯돈 불입금	실액	일액	천	백	십	원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실액	일액	천	백	십	원			
			④ 개인연금(※ 국민연금 제외)	실액	일액	천	백	십	원			
			⑤ 저축성 보험(생명보험, 교육보험 등)	실액	일액	천	백	십	원			
			⑥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실액	일액	천	백	십	원			
			⑦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실액	일액	천	백	십	원			
문 4)	자동차	201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액은? ※ 자동차를 세는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가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보험, 연식별 가격은 자동차보험증서 저차가격으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보유대수	단위	실액	일액	천	백	십	원		
				대								
문 5)	기 재 산	2011.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유형별 가액은? ※ 문동클럽 등의 회원권, 영업용 자동차·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선박, 골삭기, 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농기계, 농작산물, 상품권 등이 포함됨.										
문 6)	희망키움 통장	희망키움통장 저축액을 제외하고,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귀 가구가 별도로 저축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만원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귀 가구에서는 희망키움통장 저축액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① 팅상시보다 절약하고 소비를 줄여서 ② 희망키움통장에 저축하기 위하여 일을 더욱 많이 하거나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③ 가족,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서 ④ 저축액 등 이전에 모았던 돈을 통해서 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급여 중 일부를 활용해서 ⑥ 기타( )										
문 7)	근로소득 장려금	신청 당시보다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귀 가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근로소득장려금은 더욱 증가됩니다. 귀하 또는 가구원들은 이런 이유로 지난 6개월(2011.7.1-2011.12.31)동안 근로활동이나 근로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G. 주거

※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동안 이사 등으로 인해 주거유형 혹은 점유형태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 바뀐 이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은?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④ 기타(영업용 건물내 거주, 오피스텔 등)	
문 2)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는?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기타	
문 3)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에서 사용하는 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일부 세 놓은 경우 제외)		개
문 3-1)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귀택의 건평(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미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면적 기준 (참고) 1평≈33 m <sup>2</sup>		m <sup>2</sup>
문 4)	주 택 (가 격)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격(현시가가 기준)은?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기타의 경우 가격	만원
	주 택 (월세액)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부 월세 및 월세(사글세)인 경우 지불하는 월세액은? ※ 자기주택의 토지에 대해 지불하는 지대도 포함	만원

## H. 생활여건

문 1)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귀댁은 <b>경제적인 어려움</b> 으로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경제적인 사정으로 적절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2)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귀댁은 <b>경제적인 어려움</b> 으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공공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공요금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①	②			
	㉧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p>&lt; 유의사항 &gt;</p> <p>※ ㉠ 문항의 경우 지난 6개월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p> <p>※ ㉡ 문항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p> <p>※ ㉣ 문항의 경우 2011년 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①있다'에 응답합니다.</p> <p>※ ㉥ 문항의 경우 지난 6개월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만을 받는 가구는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p>						
문 3)	다음은 귀하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보기를 보고 <b>응답하여 주십시오</b> .					
	구 분	매우 불만이다	다소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 가족(본인)의 건강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 가족내 역할과 관계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 가구(본인)의 소득 및 소비생활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 가구(본인)의 주거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 경제활동(근로나 사업)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 가족(본인)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 가족(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문 4)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귀 가구의 경제적 생활상태는 다음 중 어떤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부유					
문 5)	앞으로 1년 동안(2012.1.1~2012.12.31)에 귀 가구의 경제적 생활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매우 가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부유					

문 6)	향후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이후(3~5년 후)에 귀 가구의 경제적 생활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매우 가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부유

## I. 인식 및 태도

문 1)	귀하가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여 자산이 형성되면 그 목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1순위	2순위			
<div>① 자녀 교육비</div> <div>② 자녀 이외의 가구원 교육 및 훈련비</div> <div>③ 주택마련</div> <div>④ 탈수급</div> <div>⑤ 차입금(부채) 상환 목적</div> <div>⑥ 노후생활 대비</div> <div>⑦ 창업(투자) 자금 마련</div> <div>⑧ 특별한 목적이 없음</div> <div>⑨ 기타( )</div>						
문 2)	희망키움통장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v>구 분</div> <div>㉠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재정적 자립을 하고 싶다</div> <div>㉡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정기 저축에 도움이 된다</div> <div>㉢ 희망키움통장의 매칭률은 적절하다</div> <div>㉣ 희망키움통장의 저축금은 많은 이자를 창출한다</div> <div>㉤ 희망키움통장에 저축하여 3년 후 탈수급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div> <div>㉥ 나는 특정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저축한다</div> <div>㉦ 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내가 계속해서 저축하도록 격려한다</div> <div>㉧ 근로소득이 증가한 만큼 생계급여가 그대로 감소하는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div> <div>㉨ 일을 할수록 생계급여 감소액보다 근로소득장려금이 더 크게 증가하므로 근로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계획이다</div> <div>㉩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아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고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탈수급 이후를 위하여 바람직하다</div>	<div>전혀 그렇지 않다</div> <div>①</div>	<div>그렇지 않다</div> <div>②</div>	<div>그저 그렇다</div> <div>③</div>	<div>약간 그렇다</div> <div>④</div>	<div>매우 그렇다</div> <div>⑤</div>
문 3)	저축에 관한 인식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div>구 분</div> <div>㉠ 나에게 저축은 중요하지 않다</div> <div>㉡ 저축은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div> <div>㉢ 돈을 쓰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기 어렵다</div> <div>㉣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종종 내가 돈을 쓸 것을 요청한다</div> <div>㉤ 내가 가진 대부분의 돈은 생활필용을 사는데 소비한다.</div>	<div>전혀 그렇지 않다</div> <div>①</div>	<div>그렇지 않다</div> <div>②</div>	<div>그저 그렇다</div> <div>③</div>	<div>약간 그렇다</div> <div>④</div>	<div>매우 그렇다</div> <div>⑤</div>
문 4)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난 후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div>구 분</div> <div>㉠ 탈수급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div> <div>㉡ 미래를 생각하면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div> <div>㉢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됨을 느낀다</div> <div>㉣ 삶을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div>	<div>전혀 그렇지 않다</div> <div>①</div>	<div>그렇지 않다</div> <div>②</div>	<div>그저 그렇다</div> <div>③</div>	<div>약간 그렇다</div> <div>④</div>	<div>매우 그렇다</div> <div>⑤</div>



문 10)	현재 일하고 있는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무엇입니까?					
	① 보다 많은 정부의 지원금 및 매정금 ② 스스로 일할 수 있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프로그램 ③ 자립할 수 있는 사업자금 융자 ④ 보다 나은 일자리 창출 ⑤ 나에게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문 11)	복지의식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적극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찬성	적극 찬성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국가에게 부족한 생활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①	②	③	④	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면 그에 의존해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생활비를 보조해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일을 하면서도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국가가 세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조해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일하기 힘들 정도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훈련을 시키는 것은 낭비이다	①	②	③	④	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부족한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주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	귀하가 생각하는 불평등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 사항별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불평등하다	약간 불평등하다	그저 그렇다	약간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 교육 기회	①	②	③	④	⑤
	㉡ 취업 기회	①	②	③	④	⑤
	㉢ 법의 집행	①	②	③	④	⑤
	㉣ 도시와 농촌의 생활격차	①	②	③	④	⑤
	㉤ 소득(수입, 봉급, 노임 등)격차	①	②	③	④	⑤
	㉥ 재산(건축물, 토지, 금융자산 등)격차	①	②	③	④	⑤
	㉦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	①	②	③	④	⑤
	㉧ 남성과 여성간의 차별	①	②	③	④	⑤
문 13)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며 귀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재무설계, 제테크 등과 관련된 책이나 기사를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 재무설계, 제테크 등과 관련된 TV프로를 보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과 허심탄회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3년 만기 후 자산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재정전문가에게 재정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3년 후 예치금액을 재투자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14)	다음은 귀하의 <b>소비성향</b> 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한 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b>구 분</b>	<b>전혀 그렇지 않다</b>	<b>그렇지 않다</b>	<b>그저 그렇다</b>	<b>약간 그렇다</b>	<b>매우 그렇다</b>
	㉠ 가게부 혹은 금전출납부를 꼼박고박 쓴다	①	②	③	④	⑤
	㉡ 마트보다는 시장, 세일제품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 생활비 외의 명목으로 빚을 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 세금에 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적금이나 보험료를 밀리지 않고 낸다	①	②	③	④	⑤
	㉦ 노후준비 저축계획을 세워왔다	①	②	③	④	⑤
문 15)	다음은 귀하의 <b>생활실계</b>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한 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b>구 분</b>	<b>전혀 그렇지 않다</b>	<b>그렇지 않다</b>	<b>그저 그렇다</b>	<b>약간 그렇다</b>	<b>매우 그렇다</b>
	㉠ 나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생활실계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미래를 위해 장단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목표에 알맞은 계획이나 생활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나의 질병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한테 어울리는 여가활동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내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기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16)	다음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b>구 분</b>	<b>전혀 그렇지 않다</b>	<b>그렇지 않다</b>	<b>그저 그렇다</b>	<b>약간 그렇다</b>	<b>매우 그렇다</b>
	㉠ 나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거의 항상 성취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때때로 나에게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내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나에게 대해 자긍심(또는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때때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잘 대처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많은 일들을 매우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때때로 나의 목표들을 완수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7)	다음은 귀하의 <b>삶에 대한 만족도</b> 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요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때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매일 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①	②	③	④	⑤
㉣	요즘은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	요즘은 화나는 일만 점점 더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	앞으로 살아가는 데 희망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앞으로 내가 할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	다음은 귀하의 <b>일에 대한 태도</b> 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언제나 내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나 혼자 힘으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은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국가의 보호를 받기 보다는 일급이 적어도 일을 해서 스스로 생계비를 해결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	부모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녀들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정부에서 월 70만원의 생계비를 받아 사는 것과 월 70만원이 주어지는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일자리를 선택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J.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문 1)	정부에서는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기간동안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b>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교육</b> 을 하고 있습니다. <b>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b> 귀하 및 가구원은 이러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받아본 경험에 있다 → <b>문 1-1. 번으로</b>									
	② 받아본 적이 없다 → <b>문 2)번으로</b>									
문 2)	1-1.	몇 시간동안 교육을 받았습니까?						시간		
	1-2.	누가 교육을 담당하였습니까?								
		① 사례관리자		② 외부 전문가						
		③ 지역사회 명망가		④ 기타( )						
	1-3.	귀하 및 가구원이 받은 교육은 귀하가 희망키움통장 유지 및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에서는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기간동안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b>노후설계 및 노후대비 교육</b> 을 하고 있습니다. <b>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b> 귀하 및 가구원은 이러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받아본 경험에 있다 → <b>문 2-1. 번으로</b>									
	② 받아본 적이 없다 → <b>문 3)번으로</b>									

2-1.	몇 시간동안 교육을 받았습니까?				시간											
2-2.	누가 교육을 담당하였습니까?															
	① 사례관리자 ③ 지역사회 명망가	② 외부 전문가 ④ 기타( )														
2-3.	귀하 및 가구원이 받은 교육은 귀하가 희망키움통장 유지 및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	정부에서는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기간동안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귀하 및 가구원은 이러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받아본 경험이 있다 → 문 3-1. 번으로															
	② 받아본 적이 없다 → 문 4)번으로															
3-1.	몇 시간동안 교육을 받았습니까?				시간											
3-2.	누가 교육을 담당하였습니까?															
	① 사례관리자 ③ 지역사회 명망가	② 외부 전문가 ④ 기타( )														
3-3.	귀하 및 가구원이 받은 교육은 귀하가 희망키움통장 유지 및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4)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귀하 및 가구원은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받아본 경험이 있다 → 문 4-1. 번으로															
	② 받아본 적이 없다 → 문 5)번으로															
4-1.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귀하는 몇 개의 교육-훈련을 받았습니까?				개											
4-2.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훈련입니까? ※ 최근의 것부터 3개만 나열	교육 훈련명	개													
		개														
		개														
4-3.	교육훈련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년, 월 기입 ※ 반드시 1~2와 순서를 일치시키시오.	교육 훈련 기간	개	2	0	1	1	월	일	~	2	0	1	1	월	일
		개	2	0	1	1	월	일	~	2	0	1	1	월	일	
		개	2	0	1	1	월	일	~	2	0	1	1	월	일	
4-4.	어떤 분야의 교육-훈련입니까? ※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고르시오 ※ 반드시 1~2와 순서를 일치시키시오.	교육 훈련 분야	개													
		개														
		개														
[보기]	① 농업·어업, 관엽분야(과수재배, 목재가공, 수산양식 등) ② 섬유분야(섬유가공, 편물, 염색, 의복제조, 섬유디자인 등) ③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화학제품·도자기 제조, 위험물 취급 등) ④ 금속분야(금속가공, 열처리 등) ⑤ 기계·장비 분야(기계가공, 선반, 조립, 운전, 용접 등) ⑥ 건설분야(도목, 건축, 도배, 미장 등) ⑦ 전기·전자 분야(기계, 조립, 전기공사 등) ⑧ 컴퓨터, 정보, 통신 분야(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등) ⑨ 서비스 분야(음식조리, 제빵, 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 ⑩ 업무관리분야(생산사무, 판매사무, 사무지원 등) ⑪ 의료분야(물리치료, 간호조무 등) ⑫ 공예분야(귀금속, 가구, 자수, 도장 등) ⑬ 금융·보험 및 환경분야 ⑭ 어학분야 ⑮ 기타															



4-5.	교육훈련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고르시오 ※ 반드시 1-2의 순서를 알려주십시오.	교육 훈련 유형	가			
		나				
		다				
[보기]		①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 훈련 ② 정부지원훈련 ③ 개인선택의 교육훈련 ④ 기타				
4-6.	교육훈련은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까? ※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고르시오 ※ 반드시 1-2의 순서를 알려주십시오.	교육 훈련 실시 기관	가			
		나				
		다				
[보기]		① 사설학원 ② 직업훈련법인(민간직업전문학교 등) ③ 공공직업훈련기관(산업인력공단, 성공회익소, 기능대학 등) ④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훈련기관(사내교육센터 및 회사연수원 포함) ⑤ 협회나 단체, 연구소 등 (생산성 본부, 표준협회 등) ⑥ 통신 교육기관(방송대 제외, 인터넷·전화·TV·유선방송 등) ⑦ 여성인력개발센터 ⑧ 기타				
4-7.	교육훈련을 받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고르시오 ※ 반드시 1-2의 순서를 알려주십시오.	교육 훈련 비용 부담	가			
		나				
		다				
[보기]		① 본인부담 ② 부모님이나 가족·친지 ③ 다니는 회사에서 부담 ④ 정부에서 부담 ⑤ 기타				
4-8	귀하가 받은 직업교육 및 훈련은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①	②	③	④	⑤
4-9.	지금까지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교육훈련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제공 부족 ②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부족 ③ 비용지원 미흡 ④ 훈련내용이나 방법의 부실 ⑤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취업과 관계가 적어서 ⑥ 훈련 시설·장비의 노후화 ⑦ 훈련 교·강사의 자질부족 ⑧ 기타( )					
문 5)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교육이나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십니까?					
	① 예 → 문 5-1. 번으로 ② 아니요 → 문 5-3. 번으로					
5-1.	받고 싶은 교육·직업훈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장 받고 싶은 것 하나만 골라주세요.					
	① 농업·어업, 광업분야(과수재배, 목재가공, 수산양식 등) ② 섬유분야(섬유가공, 편물, 염색, 의복제조, 섬유디자인 등) ③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화학제품 도자기 제조, 위험물 취급 등) ④ 금속분야(금속가공, 열처리 등) ⑤ 기계·장비 분야(기계가공, 선반, 조립, 조립, 운전, 용접 등) ⑥ 건설분야(토목, 건축, 도배, 미장 등) ⑦ 전기·전자 분야(조립, 전기공사 등) ⑧ 컴퓨터, 정보, 통신 분야(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등) ⑨ 서비스 분야(음식조리, 제빵, 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 ⑩ 업무관리분야(생산사무, 판매사무, 사무지원 등) ⑪ 의료분야(물리치료, 간호조무 등) ⑫ 공예분야(귀금속, 가구, 자수, 도장 등) ⑬ 금융·보험 및 환경분야 ⑭ 어학분야 ⑮ 기타( )					
5-2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창업을 위해 ② (재)취업을 위해 ③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④ 자격증 취득을 위해 ⑤ 미래를 위한 준비로 ⑥ 기타( )					

5-3.	앞으로 훈련받을 의사가 있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② 바빠서/시간이 없어서 ③ 훈련을 받은 만큼 수입이 감소하므로 ④ 수강하고 싶은 교육훈련 과정이 없어서 ⑤ 교육·훈련참여자격이 되지 않아서 ⑥ 교육·훈련과정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⑦ 필요한 교육·훈련정보를 얻지 못해서 ⑧ 교육·훈련과정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⑨ 기타( )	
문 6)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귀하 및 가구원은 취업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받아본 경험이 있다 → 문 6-1. 번으로	
	② 받아본 적이 없다 → 문 7)번으로	
6-1.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총 몇 건의 취업상담을 받으셨습니까?	건
6-2.	취업상담을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① 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자) ② 고용지원센터 ③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④ 지역사회복지관이나 협회 ⑤ 여성인력개발센터 ⑥ 기타	
6-3.	그 취업상담은 귀하가 취업 및 이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4.	계속해서 취업상담 서비스를 받기 희망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 7)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귀하 및 가구원은 취업알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받아본 경험이 있다 → 문 7-1. 번으로	
	② 받아본 적이 없다 → [K. 사례 관리] 문항으로	
7-1.	지난 2011년 하반기(2011.7.1~2011.12.31) 동안 총 몇 건의 취업알선을 받으셨습니까?	건
7-2.	취업알선은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① 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자) ② 고용지원센터 ③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④ 지역사회복지관이나 협회 ⑤ 친척, 동료, 친구 등 지인을 통해 ⑥ 여성인력개발센터 ⑦ 민간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직업소개소 ⑧ 기타	
7-3.	소개받은 일자리는 귀하의 마음에 드셨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4.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취업 및 이직에 성공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5.	계속해서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기 희망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